

# 정념의 기호학

The Semiotics of Passions

A. J. Greimas

Jacques Fontanille

주근옥 역

## 주 근옥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겸임교수, 충북대학교 전 강사  
저서: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시문학사: 2001),  
「석송 김형원 연구」(도서출판 월인: 2001)  
시집: 「산노을 등에 지고」(시문학사: 1987), 「감을 우리며」(시문학사:  
1988), 「번개와 장미꽃」(새미: 1998), 「바퀴 위에서」(시문학사: 2001),  
「갈대 속의 비비새」(현대시: 2002)

번역:

A.J.Greimas, Structural Semantics  
A.J.Greimas, On Meaning  
Algirdas Julien Greimas, Jacques Fontanille, The Epistemology of  
Passions  
Cynthia Whitney Hallett, Minimalism and Short Story  
Warren Motte, SMALL WORLDS—Minimalism in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  
Warren Motte, Jacques Jouet's Soul  
Stephen Crane, The Open Boat  
Amy Hempel, In a Tub  
Amy Hempel, In the Cemetery Where Al Jolson is Buried  
Mary Robison, Kite and Paint  
Ernest Hemingway, Hills Like White Elephants  
Walt Whitman, Democratic Vistas  
臼井吉見(うすい よしみ), 形式主義文學論争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환원적 다원성의 생동감  
공저(김용직 송재영 홍희표 이승원 구수경 송기섭 송기한 장수익 최예열  
금동철 김현정 남기택 윤종영 김윤정 김승민 김교식 민명자 박슬기 林陽子)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poemspace.net/>

프랑스어: <http://www.illustrer.net/>

영어: <http://www.clinamen.co.kr/>



한국문학의 판단중지를 위하여 나는 이 원고를 비매품으로 공개한다.  
2013. 08. 16.

이 책은 프랑스 기호학자 알지라스 쥘리엔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와 자크 폰타니유(Jacques Fontanille)의 「Sémiotique des passions(1991)」을 폴 J. 페롱(Paul J. Perron), 프랭크 콜린스(Frank Collins)가 영어로 번역한 「The Semiotics of Passions: From States of Affairs to States Feeling(1993)」 중에서, 제1장 "The Epistemology of Passions"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 서언

주 근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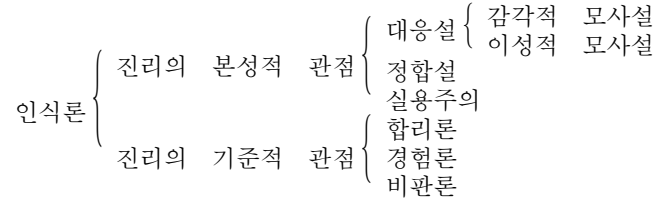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연구의 학위논문에서 혹자는 그레마스의 「정념의 기호학」을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합리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 제1장 모두(冒頭)에서부터 즐기치게 강조하고 있는 인식론에 대한 오독(誤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1)</sup>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식을 전제로 한다. 길을 걷는데도 이것이 차도가 아니라 인도임을 알고 신호등을 식별하고 사람이나 차를 피하고 또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있다. 이런 여러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단 한 가지 행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인식에는 인식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주관이 객관 즉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우리의 관심은 대상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

---

1)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 · Danniele McDowell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 · Danniele McDowell · Alan Velie 역역,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83)」, pp. 3~4. 참조하라. “따라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언어학은 인간과학 사이에서 시샘을 받고 있는 선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받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학이 이와 같은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역설적인 장면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 역설적인 장면이란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은 한 장소로부터 이중의 복사(輻射)가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이중복사에게 이러한 역설적 장면의 창조자라고 하는 명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실은 사회학과 심리학도 언어학 이전에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학과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진부화(陳腐化, banalization)”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학문의 방법론적 구조의 뒤틀림(왜곡[歪曲])으로 성격이 지워지며, 그리고 여러 개념들 간의 대당(對當, 대립, opposition), 때때로 기본적인 대당의 중립화에 의해 성격이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빈약해지고 뒤틀린 언어학적 용법은 대부분의 전위적인 잡지들 간에 확산되었지만, 언어학자들은 그들의 신생 하위학문(his own children)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시기에, 언어학은 하나의 특별한 방법론적 복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어디서 차용해온 방법으로서의 복사가 아니라, 인식론적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즉 언어학이 모델과 탐구 절차로서 대부분 전용해온 그 인식론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라캉(Jacques Lacan),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같은 인물들의 고찰을 풍부하게 했던 것이다.” (역주)

리는 이 관점을 대상으로부터 인식 자체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론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별한다.<sup>2)</sup>



그러므로 근대성, 현대성, 또는 계몽이라는 용어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모더니티의 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천착해 본다면, 쉽게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진리의 기준적 관점의 인식론, 그 중에서도 칸트의 비판론은 귀납법(경험론)과 연역법(합리론)의 종합이다(그레마스는 「구조의미론」 제12장 말미에서 칸트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념의 기호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과학적 메타언어의 제3의 레벨에서 고찰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 상위의 제4의 레벨에서는 전자의 종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언급에 대한 검증은 아래 「구조의미론」 제1장의 “인식론적 레벨”을 인용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한다.

만약 방법론적 언어라고 하는 존재가, 기왕에 주어진 자연언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론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언어 위에 의미론을 위치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과학적 메타언어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되는 이러한 제3의 레벨은 그 스스로 연역법에 의해 구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며, 귀납법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金麗壽·車仁錫·韓釜淑, 「哲學概論」(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85), pp. 5~13. 이밖에 인식론에 대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金樹澈, 「哲學의 理解」(서울: (株)敎文社, 1992)  
 朴鍾鴻, 「哲學概說」(서울: 박영사, 1964)  
 孫明鉉, 「哲學論攷」(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55)  
 李壽允, 「哲學概論」(서울: 法文社, 1996)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社會科學의 哲學」(서울: 1980)  
 M. Cornforth, 이보임 역, 「認識論」(서울: 동녘, 1984)  
 N. Hartmann, 강성위 역, 「철학의 흐름과 문제들」(서울: 서광사, 1987)

우리는 이러한 엘름슬레우적 공리(postulate)를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은 문법적 기술의 적용에 의해 증명된다. 예를 들어, 어느 형태론적 개념·프랑스어 반과거의 개념은 그 주연(周延, distribution)을 분석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정의될지도 모른다. 그 개념 '반과거'는 스스로 기술적 언어의 레벨에서 명목이 부여될 것이다. 일단 그것이 방법론적 언어 안으로 전승(轉乘)되면, 그 정당성은 프랑스어의 시제, 양상(樣相, aspect), 서법의 범주 안에서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다른 자연언어를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 독일어의 반과거를 분석하는데 명백한 판단력으로서의 사전적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은 오로지 비교형태론 또는 일반형태론의 기초로서 봉사할 수 있는 연역적 공리총체를 구성하는 문법적 개념의 발화자료체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된다.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방법론적 가치의 검증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계층적으로는 고차원의 레벨에, 언어학적으로는 제4의 레벨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야기되는 문제는, 하나의 자연언어 안에 두 가지 개념의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는 내부결함으로 간주되는 진실이고, 그 둘은 실재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 진실이다.

실제로, 기술의 의미가 대상언어를 기술적 언어로 번역-전격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번역-전격은 반드시 적합하여야만 하고, 그것은 대상언어인 그 실재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귀납적 방법은 근거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귀납적 기술이 기왕에 주어진 표의총체의 한계(limits)를 결코 초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일반적 방법론의 레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 방법론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하나의 언어이며, 그 공리는 제4의 레벨에 위치가 정해지고, 당연히 연역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실재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학적 모델 사이의 상공과 연관하여 야기되는 동종의 문제들을 의미론적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모델과 표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론적인 데로는 실제적인 분할은 항상 존재한다. 과학은 이러한 이중의 근본적인 방법론적 양상이 고려된다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진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납법을 연역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도 진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두 가지 준비된 추리방법, 즉 귀납법과 연역법의 존재와 정당성에 대하여 그 스스로가 벌이고 있는 논쟁은 명백하여, 이미 제4의 레벨에 위치를 잡고 있으며, 동시에 독자적인 자연언어로 나타난 그 총체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 아래에 어느 표의총체를 기술하는 일반의미론의 능력으로서의 조건을 갖게 되는데, 그 조건은 기술을 위해 판단력의 일반적·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편의성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 먼저 이러한 조건이 바로 제4의 레벨 그 존재이며, 그것은 인식론적 언어를 말하는 것이며, 다음은 반드시 그곳에 위치를 잡아야 하는 의미론적 기술의 정당성과 그 조건의 해석을 말한다.

과학적 의미론과 의미론적 기술(의미론은 계층적·개념적 구조를 사용하는 관습일 뿐이다)은 대상언어의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오직 만약(if)이라고 하는 가능성만 존재할 뿐이며, 그것들은 기술적 언어, 방법론적 언어, 인식론적 언어라고 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레벨의 논리적 존재에 위치를 잡고 있는 세 가지 언어의 기술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아무쪼록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모든 장르에 걸쳐 든든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sup>3)</sup>

3)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Damiele McDowell·Alan Velie 영역, op. cit., pp. 15~16. 참조.

## 제1장 정념의 인식론(The Epistemology of Passions)

### 감정에서 지식까지(From feeling to knowing)<sup>4)</sup>

#### 방사(Emanation)

담화에서, 정념은 이중적인 의미효과의 운반자로 나타난다. 그것은 마치 확인하기 어려운, 막연한 방사처럼 토로된다. 기호학에 의해 간직된 그 해석은 이 이중적인 방향(芳香, fragrance)이 양태구조의 착란적인 조직으로부터 방사되는 것으로 존재한다. 한 메타포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함으로써, 우리는 그 의미효과가 어떤 분자적인 조정(調停, 순열·조합, arrangement)<sup>5)</sup>으로부터 유도된다고 언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총체적인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중적인 분자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초의 관측은, 담화의 정념적인 민감성과 화술적인 양태화(modalization)가 동시에 위치(place)

4) "feeling"과 "emotion"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감정(感情, feeling): 생활체(生活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기는 주관적 동요 전에는 심리학에서 감각과 감정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J. 워드와 W. 분트는 감각은 객관적이며,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라 구별하였다. 감정은 인식작용이나 충동지와 다른 것이지만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다.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된 정(情)을 독일어에서는 "Gemüt(心情)"라 하고, 감정과 지각(知覺)이 합쳐진 상모적 지각(相貌的知覺)이라는 현상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知)·정(情)·의(意)로 의식(意識)을 구분하는 견해는 부정되고 있다. 2. 정서(情緒, emotion): 비교적 강하게 단시간 동안 계속되는 감정. 비교적 약하고 장시간 계속되는 정취(情趣)와 구분한다. 정서는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된다는 점에서 정동(情動)이라고도 한다. 희노애락(喜怒哀樂)·애증(愛憎)·공포·쾌고(快苦) 등이 정서이며, 의식적으로는 강한 감정이 중심이 되며, 신체적으로는 내장적(內臟的)인 생활기능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3. knowing; 질료와 형식(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감성과 대립되는 저차원의 오성(悟性, verstant)의 세계이다. 둘 다 현상계(제약의 세계)이다. 무제약의 세계는 고차원의 이성계를 의미한다. (역주)

5) arrangement(조정, 調停): 1. 순열·조합(permutation; combination);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른바 수학으로서의 순열·조합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12세기의 인도의 수학자 A. 바스카라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인데, B. 파스칼, G. W. 라이프니츠, J. 베르누이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체계가 수립되었다. 2. 사전적인 의미는, 순열·주어진 물건 가운데에서 몇 개를 취하여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 일, 조합·여러 개 가운데에서 몇 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열은 순서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조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전이 2개 있는데 앞뒤가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 뒤) (앞, 앞) (뒤, 뒤)=3가지와,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 뒤) (뒤, 앞) (앞, 앞) (뒤, 뒤)=4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조합이고, 후자가 순열이다. 전자는 (앞, 뒤) (뒤, 앞)이 같은 경우로 보고, 후자는 (앞, 뒤) (뒤, 앞)을 다르게 본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조정(調停)과, 순열·조합 모두를 엄두에 두고, 'arrangement'를 사용하고 있다. (역주)



를 잡는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비록 각각 자율적일지라도, 함께 그리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인 그들은 아마 일반논리와 다른 논리에 종속될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의 관측은, 의미효과가 기호현상-화술적인(semionarrative) 조직의 ‘방사’를 담화로 즉 총체적으로 조정(措定, posit)하는, 어느 의미에서, 그 정념 안에 주체의 제거된 자산(또는 주체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담화의 모든 자산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착란적인 구조로부터 방사되고, 주체 쪽으로든지 또는 대상 쪽으로든지, 또는 그들의 접합 쪽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쪽으로든지 투기될 수 있는 어떤 “기호학적 문체”로부터 방사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만약 우리가 생성케도의 다른 끝으로부터, 세계의 최초의 투기를 상위적인 긴장(phoric tensivity)으로 구성하고 있는 의미지평의 투시도법으로부터, 발생한 사태를 검토한다면, 우리는 이 상위적인 가동 집합체가 전혀 다른 두 통로를 추종하는 것에 의해 사태의 표층에서 점진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유도될는지도 모른다. 반면에 양태화는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적인(rational) 조직을 추종하고, 범주적 양태구조를, 의미효과가 구조적 조정의 또 다른 유형으로부터 발원하는 것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정념적인 전조(轉調, modulation)를 생산한다. 그들은 그들이 끌어모은 양태적인 내용의 단순한 조합 위에 올라선,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인식적인 범주화를 회피하여 결정된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의(pathemic)<sup>6)</sup> 조직으로부터 방사된다.

6) 1. 언외감수의미소(pathème): 굽주려 움직임 없이 앉아있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동정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변화과정(process)

언외감수의미소(pathème)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

2. “etic/emic”과도 비교해 보라. 파이크(Kenneth Lee Pike)가 phonetic(음성학적)과 phonemic(음소론적)이라는 용어의 접미사에서 추출해낸 용어이다. 담화에는 에틱적인 의미차원과 에믹적인 의미차원이 있다. 전자는 발화의 아프리오리의 관점에서의 사전적인 또는 “부호적인(code)” 의미를 가리키고, 후자는 아포스테리오리의 관점에서의 화자와 청자가 각자 받아들이는 발화의 깊은 심리적인 의미는 물론, 어느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도식으로서의 의미, 즉 준의미·방언·은어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대당적인 것만은 아니다. 양자가 상호 주관적인 작용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3. 파이크(Kenneth Lee Pike); 코네티컷 우드스톡 출생. 1943년 미시간대학교에서 「음성학 Phonetics」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언어음만이 아니라 음성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그 발음의 기구를 새로운 방법으로 관찰하여 기술하려 하였다. 그 수법은 “기능적 비자모기호(機能的非字母記號, functional alphabetic symbol-

따라서 정념에 대해 언급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knowing)”과 “감정(feeling)” 사이의 단절을 약화시키고 또 환원시키는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기호학이 분자적·양태적인 아티클레이션에 의해 연기된 역할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최초로 농축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그들의 배열에 의해 생산된 정념적인 방향(芳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트: “phora/phoria”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의미이다. anaphora(전방지시조용어); 라틴어가 어원으로서, “① 본령(本領)의 상승, 떠오름 ② 첫 머리말의 반복 ③음악의 악절반복 ④ 동방전래의 미사 제2부”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반복인 것이 아니라 대용어가 사용된 반복을 의미.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 13. anaphora(전방지시조용어); 1. 전방지시조용어는 담화에 있어서 결합체적 축 상에 확립된 두 용어 사이의 부분적인 동정(identity, 또는 항등식;  $3x=x+2x$ 는  $x$ 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이와 같은 등식)의 관계이며, 따라서 두 발화, 두 단락 등을 연결하는 데 기여한다.

2. 전방지시조용어는 어느 자연언어(예를 들어: 대명사, 실행동사) 문법의 명시적인(explicit, 양함수적인;  $y=f(x)$ 와 같은, -역주) 프레임의 일부인 의미론적 범주를 동정화(identification)의 중명사(means)로 사용할 때 문법적인 것이 된다고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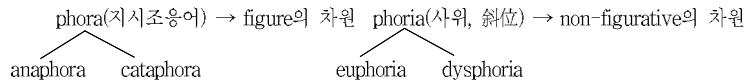
3. 전방지시조용어는 응축된 텀 또는 명목이 명확한 결합체적 확장을 재 표현할 때 의미론적(좁은 의미에서)이다. 용어법적 관점에서 보면, 편차는 전방지시조용어화된 것(발화에서 그리고 확장에서 첫 번째 위치에 오는 텀)과 전방지시조용어화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응축된 형식 안에 다시 채택된 텀이다. 이러한 동일관계는 그 텀이 담화 안에서 확장되어 존재하고 있는 텀(후방지시조용된 것)보다 선행하면서 재 표현될 때(후방지시조용하고 있는 것) 후방지시조용어(cataphora)라고 일컬어진다.

4. 인식 또는 동정화(identification)에 의해 확립된 동정(identity)은 두 텀 사이의 형식적 전방지시조용어관계이고, 그것들 중의 하나는 나타나거나 실재적이며, 다른 것은 부재 또는 과거 어떤 곳이든지 간에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인식적 전방지시조용어라고 언급할 수 있다.

5. 전방지시조용어화는 담화적 동류체, 즉, 상호표현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언외화자(enunciator)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Ibid., p. 26. cataphora(후방지시조용어): 후방지시조용어와 전방지시조용어는 담화의 결합체적 축 상에서 내접된(inscribed) 두 텀 사이에 부분적 동일성의 동일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나 후방지시조용어는 응축 텀이 확장된 텀에 선행하는 그 사실에 의해, 전방전방지시조용어는 역으로 성격이 만들어진다. 어쨌든 “phora/phoria”에서, 전자는 figure의 차원, 후자는 non-figurative의 차원(thymic dimension)을 의미한다. (역주)

ism)”를 이용하였으며, 「음운론 Phonemics」(1947)에서는 음소(音素)를 기술하여, 대표적인 미국 언어학의 음성기호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 밖의 주요논문에는 「미국 영어의 인토네이션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1945) 「성조언어(聲調言語) Tone Language」 등이 있다. (역주)



**삶(Life)**

감정은 수용된 어느 인상을 선행하는 존재자(existence)의 자명한 모드로 직접 경험된다. 반면에 어떤 것(모든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의 배제에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을 추종함으로써, 그것은 삶 그 자체의 소인(素因, 제1원리)과 동정(同定)될 수 있다. 의미작용의 발생에 선행하는, 어느 기호학적 아티클레이션(articularisation)을 선행하는, 순수 감정으로서의 정념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실재하는 그 배경을 구성하는, “존재(being)”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대의 “외관(seeming)”의 제로 단계를 포착하는 것과 상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정의 동차화는 그것의 분극화와 동시에 천진난만한 관측을 발생시킨다. 신생아의 최초의 울음은 자유를 만끽하는 환희의 울음인가, 또는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의 질식의, 또는 세계고를 겪고 있는 도제살이의 질식의 울음인가?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인력(attraction)과 척력(repulsion)으로 존재하는 그 변덕(notion)을 계속 무임계적으로(uncritically) 반복할 수 있는가? 꼭짓점·교차점의 사위(斜位, Phoria)가 euphoria(행복감)/dysphoria(불쾌감)를 선행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는가?)

우리가 트라이앵글의 꼭짓점으로 끌어올렸던 그 아포리아(aporía)<sup>8)</sup>는 이중적 성질로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인식적인 것”으로든지 또는 그 역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하는 ‘민감성’의 선

7) phoria: 1. 사위(斜位, phoria)는 안구의 편위(偏位)가 융합(fusion)에 의해 극복되어 양안단시(兩眼單視)가 가능하게 될 때 이것을 사위라고 하며, 양안단시가 불가능하고 한 눈의 시선이 항상 편위되어 있게 되면, 현성사시(顯性斜視) 또는 사시(斜視)라고 한다. 따라서 사시와 사위는 모두 안구의 편위이지만, 사위는 융합능력이 있고, 사시는 그 능력이 없는 것으로 구별된다. 2. 태아가 어머니 배속에서 가로와 세로의 중간(中間)에서 엮비슷이 놓여 있는 상태. (역주)

8) 아포리아(aporía)는 철학적 수수께끼 또는 표면상으로는 질문에서 흔히 그럴 듯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변덕스러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체의 결과가 발생하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난국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찢찢매어 수수께끼 또는 막다른 골목에서 혼란된 존재의 상태의 외연을 표시한다. 다시 말해서 아포리아의 상태는 자신이 이미 알고 또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회의를 갖게 되어, 갑자기 모든 것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위기감, 불안감뿐만 아니라 불쾌감, 위축감마저 느낄 수 있다. 이 아포리아의 변덕은 대개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되지만, 또한 데리다(Derrida)와 이리가라이(Irigaray)의 글과 같은 포스트구조주의 안에서 역할의 연기로도 발견된다. (역주)

행 요구에 따르고 있는 결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우주는 “힘(power; 예를 들어, 마치 물리적인 과장과 같은),” 또는 “정향(定向, position)”의 메타논리에 지배를 받는 것인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언급처럼, 이것은 정의를 내리기 힘든 개념(concept)으로 존재한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의 기본적인 문제는 전-소크라테스적인 사고의 막연한 것을 포착하는 것을 발생시킨다.<sup>9)</sup> 그 세계는 그것의 완전성이 범람하는 것으로, 기왕의 혼합구조가 폭발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또는 단일성을 향한 대혼란의 혼합물로 존재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브뤼달(Vigo Brøndal)의 용어를 빌리자면, “존재(being)”의 기본구조를, 또는 차라리 형식적인 시물레이크러<sup>10)</sup>를, 우리는 분극

9) 특히 데모크리토스(Democritos; 그리스의 철학자; 460?~370? B. C)의 원자론의 결정론에 반대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벗어남(cinamen: 라틴어로서 벗어남, 기울어짐, 빛나감의 의미)을 지시한다. 에피쿠로스(Epikouros, BC 342?~BC 271): 사모스섬 출생. 35세 전후에 아테네에서 학원을 열었다. 그 학원은 “에피쿠로스 학원”이라 불렀고, 부녀자와 노예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한다. 제자들은 각자 형편에 맞는 기부금을 내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함께 우정에 넘치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문란하지 않은 생활(아타락시아) 실현에 노력하였다. ‘에피쿠로스철학’의 기초를 이루는 원자론(原子論)에 의하면 참된 실재(實在)는 원자(atoma)와 공허(kenon) 두 개념으로, 원자는 불괴(不壞)의 궁극적 실체이고 공허는 원자가 운동하는 장소이다. 원자는 부정(不定)한 방향으로 방황운동을 하는데, 이것에 의해 원자 상호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이 세계가 생성(生成)한다. 그러므로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이나 신(神)들이나 모두 원자의 결합물에서 지나지 않으며, 또한 인식(認識)이란 감각적 지각에 지나지 않고 물체가 방사(放射)하는 원자와 감각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성립한다. 이 자연학에 의하여 그는 죽음과 신들에 대한 공포를 인류로부터 제거하려 하였다. 죽음이란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일(散逸)이며, 죽음과 동시에 모든 인식(사기)도 소멸한다. 신들도 인간과 동질의 존재이며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의 추구에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욕망의 충족이며, 명예욕·금전욕·음욕(淫慾)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공공생활의 잡담(雜談)을 피하여 숨어서 사는 것, 빵과 물만 마시는 절박한 식사에 만족하는 것, 헛된 미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애(友愛)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것 등이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쾌락주의의 골자였다. 「자연에 대하여」 등 300여 권에 이르는 저서가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산일되고 단편만이 전한다. 루크레티우스(Titus Lucretius Carus, BC 94?~BC 55?): 그 생애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많으나 불확실하다. 남은 유일한 저작 「만물의 본성에 대하여: De rerum natura」는 운문(韻文)으로 쓰인 6권의 철학시로서,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평온한 생활의 찬미와 원자론적 합리주의의 선전(宣傳)에 바친 계발교화(啓發教化)의 책이다. 진실로 실재하는 것은 무수한 미소불가분(微小不可分)의 물체(원자)와 공허한 무한공간뿐이며, 세계의 모든 것은 원자의 운동현상이라고 하는 고대 원자론의 원칙에 의해서, 천계(天界)·기상계(氣象界), 지상의 온갖 자연현상으로부터 인간사회의 제도·관습에 이르는 모든 것을 자연적·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불안과 공포의 원천인 영혼과 신들에 대한 종교적·정치적 편견을 비판하고 또 싸웠다. (역주)

10) Simulacrum(환영, 위조품, 복수형: simulacra); “likeness, similarity”를 의미하는데, 다른 사물의, 이를테면 조상(彫像) 또는 회화의, 특히 신의 표상을 위해 사용되어, 16세기 후반 영어에서 최초로 기록되었다. 19세기 후반에, 그것은 실체 또는 기원의 특성이 없는 이미지로서의 패러다임의 아강(亞綱)처럼 두 번째 결합으로 부풀어 커졌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예술의 시물레이크럼으로서의 포토리얼리즘(사진처럼 사실적인 회화·조각의 스타일)을 제공하는데, 회화는 실제의 복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사진을 복사하는 것으로 창조된다. 다른 예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화될 수 있는 복합 텀(term)으로부터, 융화할 수 없는 이중조우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어떤 중립으로부터, 유래하는 그것을 선뜻 내놓고 언급할 수 있는가? 이러한 두 논리와 이러한 두 광경이 전제조건의 텀 안에서 형식화되고 재현될 수 있는가?

노트: position(정향, 定向): 1. 언어학에서 정향은 원소가 결합체적 초끈(strings; super-string theory)로 종사하는 위치(place)를 지시하며, 그 위에 어떤 부가적 자산을 부여한다. 그것은 일단 일반절차로 설치되고, 언어학적 원소의 정향의 전형이 블룸필드(Bloomfield) 학파의 성격과 만들고 있는 주연(周延)의 그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계열체적 관점과 결합체적 관점(형태론과 통사론)의 융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그의 언어학적 범주의 정의로 정향의 변덕(notion)을 도입했다.

2. 시의 기호학에서, 제니나스카(J. Geninasca)에 의해 주장된 정향의 분석은 시니피앙의 정향적 아티클레이션(라임, 리듬)의 인식에 기초된 텍스트의 의미론적 연구의 가능성에 조명을 비쳤다.

3. 화술기호학은 주체의 화술계도에서 그 정향과 함께 양태적인 투자로 행위주적 역할을 정의한다. 그 이유로, 불변과 거리가 멀거나 단호하게 단 한번 정의된 성격이 관계적인 것으로 제조된다. 영웅과 악당은 정의된 화술적 정향으로만 그렇게 존재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39. (역주)

노트: 'orientation'의 어원도 참고하라. 정위 또는 정향(定向, orientation): 'orientation'은 “떠오르는 해”라는 뜻의 라틴어 'oriens' 또는 'orientum'에서 유래. 건축에서 동서 방향의 축과 관계되는 건물 위치. 메소포타미아 · 이집트 · 신대륙으로 발견되기 전의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입구나 통로 등 건물의 중요부분을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정향은 종교적이나 실제적인 이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이슬람교도들은 어느 방향에 있든지 기도할 때는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이에 따라 기도소인 미라브(mihrab; 모스크의 네 벽 가운데 Qibla, 즉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키의 벽에 있는 기도 벽龕壁龕), 즉 장식을 위하여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공간으로서 등잔이나 조각품 따위를 세워 둔다)가 메카를 향하도록 모스크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보통 제단과 에프스(apse, 後陣; 보통 교회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가 동쪽에 있지만 항상 이 방향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 설계에서는 로마에 있는 구(舊) 성베드로 대성당과 같이 교회가 서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건축계획에서는 흔히 하루 중의, 그리고 계절중의 일사량(日射量)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 정향을 고려하므로 구조물의 적정한 정향이란 결국 건물의 기능, 위치와 열 · 빛 · 습도 · 바람 같은 중요한 환경요소간의 절충을 통해 이루어진다.



숲은 “트롬프뢰유(trompe-l'oeil; 캔버스에 얇게 깐 모래에 정밀하게 묘사하는 기법),” 팝 아트,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그리고 프렌치 뉴 웨이브(French New Wave)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형성한다. 다음 그림은 담장이 덩굴로 덮인 나무(連理木). 나무에 달라붙은 사람의 시물레이크림이다. (역주)



노트: 'position'은 종교·건축·언어학의 'orientation'을 의식하며, "orienting reflex" 대신에 "positional reflex"의 어구로 사용한 것 같은데, 심리학의 정향반사(定向反射)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물의 이상 자세, 이상 위치로부터 정상자세, 정상위치로 복귀하는 반사를 의미한다. 이것의 중추는 중뇌에 있다. 특히 고양이에게 잘 발달 되어 있다. (역주)

### 긴장적인 지평(Horizon)

어휘소적 표층, 즉 사태의 보다 상위의 경험적인(empirical) 위상공간의 근방(近傍, approach)<sup>11)</sup>의 순간으로 되돌아가자. 우리는 어떤 정념-감탄, 예를 들어 (적어도 고전 프랑스어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경악(astonishment)" 또는 "혼수상태(stupor; 아직 분극 되지 않은 긴장적인 지평의 가능성을 기왕에 제안했던)"에 대해 깨닫고 유의했다. 거기에는 그러한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와 함께 시작하는 문자화된 정념체도의 결핍(lack)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예트(La Payette, 1634~1693) 부인의 소설 "클레브 공작 부인(La Princesse de Clèves)"에서, 클레브 공작은 샤프트르 부인(Mlle de chartres)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보석상에서 그녀를 만나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에 끊임없이 '경악'하게 된다. 즉, 그는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한 페이지에 4가지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A la recherche du temps perdu)"에서, 스완(Swann)의 질투와 사랑은 그로 하여금 고급 매춘부 크레시(Odette de crècy)를 찾아 파리를 뛰어다니게 만든 "불안의 대혼란"과 함께 시작하는데, 그 불안은 분극 되지 않은 동일 긴장의 또 다른 전조(轉調)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어휘소의 레벨에서,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으로의 분극화는, 따라서 중립화될 수 있고, 또는 위치가 선택되지

11) 근방(近傍, neighborhood; approach): 독일의 하우스도르프(Felix Housdorff, 1868~1942)가 수립한 위상공간론(位相空間論)에서의 기초개념. 일반적인 위상공간에서 어떤 집합 X에 대하여 어떠한 점 P를 포함하는 X의 부분집합을 P의 근방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 X에서, X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x의 근방 U(x)의 계(系)를 결정하는 데 따라 X의 위상이 정의된다. 반대로, 일반적인 위상공간에서 점 P의 근방이란, P를 내점(內點)으로 하는 X의 부분집합을 말한다. 이를테면, R<sup>2</sup>을 직교축(直交軸) xy를 갖는 평면이라 할 때 R<sup>2</sup>의 점 (r, s)와, 양수 ε에 대하여 Uε(r, s)={(x, y)|e(x-r)<sup>2</sup>+e(y-s)<sup>2</sup> < ε} 을 (r, s)의 ε-근방이라 한다. 어떤 ε(>0)에 대하여 (r, s)의 ε-근방을 포함하는 R<sup>2</sup>의 부분집합을(r, s)의 근방이라 한다. 이 근방의 개념은 점렬수렴(點列收斂)이나 극한점의 정의에 불가결한 것이다. (역주)

못한 것으로 고찰될 수도 있다. 텀의 문법적 의미에서, 중립화는 당연히 계층적으로 상위의 이중대당으로 존재하는 혼합주의에 속한다. 인식론적인(epistemological) 레벨에서, 기호학의 역설 가운데 하나로서의 그것은 “무(nothing),” “공허(void),” 그리고 “그 모든 것(all; 사위적 긴장의 포탄)”의 고찰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존재한다. “힘(forces)”의 논리에 따름으로써, 최대의 긴장은 아티클레이션의 총체적인 부재와 상응될지도 모른다(즉, 고찰되거나 설명될지도 모른다). 역으로 ‘정향’의 출현은 힘의 재주연(再周延, redistribution)과 문(門, division)<sup>12)</sup>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아티클레이션의 부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내용의 공허(void of content)”는 충만한 긴장의 충격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힘’과 ‘정향’에 각각 첨부된 두 대당적인 필연성의 양립은 어느 범주화를 선행하는, 하여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두 경향 사이에 눈물을 머금은 감정이 반드시 우유부단함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격에 있어서의 그것만으로 그것은 “경악(astonishment)” 또는 “혼수상태(stupor)”의 격상으로부터 관측될 수 있는 것으로 직접 표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여기서 형식화된 것으로서의 중립화가 감정의 긴장에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격앙적인·“전형적인(classical)” 감탄은 대상의 조정(positiveness)과 부정(negativity)의 분극화에 무관심하다.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대상의 윤곽을 어

12) 생물 분류법상의 한 단위. 생물분류법은 다음과 같다. 즉, Kingdom(Regnum) 계(界), Division 문(門), Subdivision 아문(亞門), Class 강(綱), Subclass 아강(亞綱); 강(綱)과 목(目)의 사이, 곤충강을 무시(無翅) 아강과 유시(有翅) 아강으로 나누는 것 따위. Order 목(目), suborder 아목(亞目); 목과 과의 사이, Family 과(科), subfamily 아과(亞科); 과와 속의 사이, Genus 속(屬), Species 종(種);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 종의 정의로서는 개체 사이에서 교배(交配)가 가능한 한 무리의 생물로서 더욱이 다른 생물군과는 생식적(生殖的)으로 격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명쾌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에서 보는 생물은 형태적으로 색채를 포함하여 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슷한 종이라도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두 종의 중간형이나 잡종이 생기는 일은 없으나, 그 중에는 암수 또는 개체 사이에 상당히 현저한 형태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남기는 종도 있다. 또, 매우 비슷하며 외견상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종도 있다. 종의 분화에는 지리적인 격리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지방적으로 분화하여 많은 아종(亞種)을 형성하며 두 극단적인 아종 사이에서는 종에 해당하는 분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Subspecies 아종(亞種); 생물분류학상 종(種)의 하위단계로 동일한 종 중에서 주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집단이 인정될 때에 사용된다(地方變異). 명명규약에서 다루는 최저 계급으로 아종을 나타내는 데는 삼명식 학명(三名式學名)을 사용하여 속명·종명·아종명의 순으로 기술한다. 아종명 다음에 명명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역주)

렴풋이 드러내는, 그리고 분극화를 무효화하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가치의 인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측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예에서, 우리는 그 감탄하고 있는 주체가 그 측면의 “가치의 가치”를 더 좋게 포착하기 위해, 대상 안에 이미 투자되어 있던 그 가치를 포기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현대적인 의미에서 감탄은, 대상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주목할 만한 유약함을 동반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정념적인 긴장처럼 주체를 아직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중립화하는 것이 필요한, 그리고 그들을 생성체도의 심층 레벨에 숨기는 것이 필요한, 다시 마치 기왕에 타당하게 투자된 가치의 대상으로부터 가치의 가치로 되돌아가는 확장처럼, 정념이 기원할는지 모르는 ‘에너지’의 구역과 함께 보다 더 은밀한 접촉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한, 변덕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주체를 순수 감정으로, 감정 그 자체가 제거된 그런 단계로, 응결하고 있는 유사 응축을 경험하는 ‘혼수상태’에 따르고 있는 진리를 포착한다. 이 “어리석은 언동(stupidity)”은 살아있음과 비-살아있음의 꼭짓점 그 삶을 선행하는 긴장의 상태로 회귀하지 못하는 것인가?

#### 의미작용의 전제조건(The Preconditions of Signification)

‘존재’의 얼굴 위의 이시스(Isis; 고대 이집트의 풍요의 여신)의 배일로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출현의 최초의 형식화가 시뮬레이크러로 정의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제안했다. 우발적으로 도입된, 쪼개진, 긴장의 필연성과 사위(斜位)의, 삶의 관입(貫入)<sup>13)</sup>의 텅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우주와 연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위적인 긴장”으로서의 시발점 상태 안의 인간세계를 상상했다. 우리는 이것이 거의 사소한 표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그것의 아티큘레이션이 이론적 일관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리고 표층 표출의 성미에 맞는 “사실(facts)”에 순응하는 한에 있어서는, 긴장과 사위(斜位) 양측으로 존재하는 합동의 “방향집합(tymic mass)”의 점진적인 양태화를 수반하는, 귀결의 종속(種屬)으로만 결정될 수 있었던 가치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최초의 긴장(단일성을 향한 긴장과 과도한 완전성을 범람하는)이 붕괴된다고

13) 관입(貫入, intrusion): ① 꿰뚫고 들어감. ② 관유(貫乳); 도자기의 겉에 나타난 아주 섬세한 금. ③ 깊은 땅속에 있는 마그마(magma)가 지각(地殼)을 뚫고 들어감. (역주)



하면, 그때 “정향잡기(positioning),” 즉 한 순간에 존재를 중지하는 그 분극화는 최초의 중지상(終止相)의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쌓아올린 그 분극화는 아직 ‘정향잡기’와 상응하지 못하고, 자유재량(discrete)이 된 극을 함축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불연속의 인식적인 투사를 통해서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아직 “행위주적 정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주의 원형에 대해서도, 주체의 부가긴장성(protensivity, 어구의 후설적인 전도를 사용하는)의 근접주체와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상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대상(또는 가치로서의 세계) 안에 투자된 가치와 직면한 그래서 긴장된 주체를 “조정하기(positing)” 전에, 그것은 세계를 위한 주체 그리고 주체를 위한 세계가 위협적으로 연결된 ‘예감’의 레벨을 상상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기본발화로 구성된 텅 상의 전체적인 방향집합을 주연했던 마음속의 양태화와 함께 그때 필적할 만한 상황과 조우했다. 비록 양태집합이 그것의 집합 함수(예를 들어, 논리 안에서 동정된 비-망각적인 양태화와 함께 존재하는 그 경우처럼) 안의 반사를 최초로 과잉 결정할지라도, 그것은 별개의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고, 행위주적 정향으로 각각 투자될 수 있다. 비록 실행 주체의 투자가 특별한 난국(예를 들어, 의무적인 양태성)을 발생시키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상태 주체의 투자에 따르고 있는 진리를 필연적으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우리는 존재로서의 주체가 대상 투자의 중재로만 양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주체와, 그것의 양태집합과 관계하여 조정되고, 이번에는 조정된 그것을 다시 양태화가 되는 것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했다. 다시 말해서, 주체상태의 양태화(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념에 대해 언급할 때 귀착시키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는 그것이 대상을 양태화 하는 것에 의해 시작되는 한에 있어서만, 주체 상에서 그 자체를 강요하는 그것의 ‘가치’가 되는 것에 한에 있어서만, 상상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필적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것은 행위주적인 정향잡기에 선행한다. “가치의 투영”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부가긴장적인 주체는 “사위적인 긴장성”의 배경과 반대로 윤곽을 그린다.

#### 결합가(Valency)<sup>14)</sup>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흔히 너무 쉽게 동정된 주체의 부가긴장성

은,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우리들 연구의 이 단계에서, “메타요망(metawanting)”으로든지, 또는 “메타지식(metaknowing)”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해석된다. 이것은 “가치의 투영”으로 간신히 지시했던 대상원형을 위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합당할 만하고, 다시 한 번 이러한 시물레이크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표층을, 착란적인 표층을 재검토할 만하고, 전체의 타당성을 정당화할 만하다. 우리는 이러한 ‘투영’이 선택한 최대 공통의 형식이 가치의 일종의 예감인 그 인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폴 엘뤼아르(Paul Eluard, 1895~1952)의 고뇌의 수도(Capitale de la douleur)는 부가긴장성에 의해 투기된 최초의 아티클레이션의 우수한 예증이다. 좀 더 깊이 검토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시집에서 가치의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했음을 알 수 있다. 기호학적 주체는 사랑, 성질, 노동, 사고, 그리고 그 모든 형식 안의 삶을 명백히 깨닫게 한다. 그러나 대상의 의미론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의 가치가 항상 또 다른 목류(order)로 존재한다는 것을 동경한다. 즉, 그 목류란 오직 그 발단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눈꺼풀이 열리고 각성되어 있을 때의 그 응시, 어둠을 깨뜨리는 그 순간의 그 여명(黎明), 요람기의 인간의 삶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대상 안에 투자된 의미론적 내용을 초월하여 지배를 받는 기동적 양상처럼, 그리고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마치 계산된 그러면서도 우발적인 의도인 것처럼, 그리고 의도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존재한다.

여기서 양상성은 아래에 그리고 고유가치의 측면에 정위되는 것 같다. 그

14) valency: 언어학-결합가(동사 등이 문장 구성상 의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의 수), 생물-결합가(항원 등의 반응·결합하는), 심리학-유의(誘意), 유발성(남과 서로 반응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사물]의 포용력), 화학-원자가(原子價, valence); 원자가란 분자 내에서 한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 수, 또는 결합선의 수를 나타낸다. 수소 원자의 원자가를 1로 하고 수소 원자와 결합하는 수가 곧 원자가가 된다. 물(H<sub>2</sub>O)의 구조식은 H-O-H로, 수소 원자는 한 개의 결합선을 가지므로 원자가는 1, 산소 원자는 두 개의 결합선을 가지므로 원자가는 2가 된다. 또한, CO<sub>2</sub>(구조식: O=C=O)에서 산소 두 개와 결합하는 탄소(C)의 원자가는 4가 된다. 원자의 원자가는 항상 고정된 값은 아니다. 특히 전이원소들에서 원자가는 형성하는 화합물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철(Fe)의 경우, FeO에서는 2, Fe<sub>2</sub>O<sub>3</sub>에서는 3의 원자가를 가지게 된다. 원자는 원자의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는 원자가 전자에 의해 나타나며, 화학적인 성질과 반응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주기율표 상에서 같은 족(group)이면 같은 원자가를 가진다. 1족은 1, 2족은 2, 15족은 3, 16족은 2, 17족은 1의 원자가를 가진다. 원자가진동(原子價振動, valency vibration); 원자수 n개의 분자의 기준 진동수는 3n-6, 직선분자의 경우는 3n-5이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CO<sub>2</sub>의 기준진동은 4종이 있다.  $v_1$ ,  $v_2$ 는 분자축에 따른 진동으로 원자가진동에 상당하며  $v_3$ ,  $v_4$ 는 결합각을 바꾸는 것으로 변각진동(變角振動)이라고 한다. (역주)

것은 일종의 가치의 ‘가치’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화학에서 보충하여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수를 지시하는 것으로서의 그 용어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결합가(valency)”라고 호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이것은 2개의 명백한 의미론적 가치가 그들의 동치에 기초한 그래서 비교될 만하고 호환될 만한 것으로 판단될 때, 호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수가 의미론적으로 다르게 투자된, 그리고 한 주체에서 다른 것으로 전송된, 그 대상과 거의 없는 것처럼 실행하는 것으로 호환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담화 안에서 양상화가 계층적으로 관자놀이-시간화(temporalization)뿐만 아니라 관자놀이-공간화(spatialization), 그리고 더 나아가 연기화(actorialization)의 상위의 차원을 구성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했다. 폴 엘뤼아르의 시에서, 사랑은 관자놀이-시간의 축에서 포착된다. “각성 상의 눈꺼풀”은 관자놀이-공간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삶”은 연기자의 성장으로 포착된다. 그 모든 것은 기동적인 양상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동성의 이러한 가치안정책 안에서 보다 더 좋게 고찰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존재하며, 우리는 유인과 대상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반박의 가능성으로 고찰된 하나의 ‘심리학적’ 결합가의 성질의 2번째 정의로 고찰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합가는 주체에 의해 기동성의 보다 더 좋게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그 형식의 형성 뒤에 밖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누에고치와 같이 감싸는, 그 사위적인 낭중분할(scission; 오렌지의 낭중분할과 같은)을 추종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 투영의 예감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양상성은 대상 격상이 가치의 대상을 표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가를 표출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 시집에서 설령 함축적이거나 명백한 심증-윤리(心證-倫理)적<sup>15)</sup> 혹은 심미적 판단이 몸짓과 격상의 기동적 양상으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의 성격을 만들고 있

15)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 · Danniele McDowell · Alan Velie 역역,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83)』, p. 139의 “노트: 어떤 사물에 빗대서 은연중 어떤 의미를 비추는 그 우의[寓意, affabulation; afabylosj]는 화술의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즉 심증-윤리[moral]”와 “은밀한 계략[plot]” 모두를 추리한다. 그러므로 그 대당은 “무의미[nonsense],” “황설수설[radotage]”이며, 그것은 비통사론적 언어[허튼소리, 실없는 소리, 등]를 암시한다. 또한 야콥슨[Roman Jakobson]의 환유와 은유, 결합체적 그리고 계열체적 축은 이러한 식별을 만든다. —영역자”를 참조하라. (역주)

는 착란의 레벨에서, 후자는 다시 한 번 어느 분극화와 대상의 어느 의미론적 투자 이전의 기원적 분리와 조우하기 때문이다. 폴 엘뤼아르에서, 선택된 결합가는 부가긴장성의 ‘개방’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담화의 레벨에서 종지(終止)의 양상에 의해, 표현되는지 모르는 그것의 “폐포(閉包, closure)”로부터 동시에 방사되었고, 어느 경우에는, 조락(凋落)의, 덧없음의, 또는 모든 사물의 소멸의 격상을 이용하는 소설의 미학을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전략(轉落, La chute)에서, 카뮈(Albert Camus)는 차단되었을는지 모르는 확신으로부터 가치가 없는 세계의 기술을 시도했다. 사실, 조이데르(Zuider Zee)<sup>16</sup>는 분해되고 있는 결합가로 진전한다.

물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네거티브의 조망인가! 이 회색빛 깃더미를 그들이 모래언덕이라고 부르는, 왼쪽을 보라. 오른쪽의 회색빛 독길을, 발밑의 깃더미 호숫가를, 그리고 당신 앞의 약간 덜 씻긴 색깔의, 물그림자를 반영하고 있는 그 드넓은 하늘을 보라. 진실로 아늑한 나락(奈落)…; 이것은 당신의 눈으로 포착될 수 없는 우주의 소멸, 무(nothingness)인가? (p. 1510)

멀리 얼룩진 무한의 수평선, 모든 격아강적(figurative) 편차의 부재-모든 것은 흡인이 정체된 총체지속성(duration)으로 전략한다. 이것은 모든 결합가의 첨단이며,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가치체계의 한층 더 유력한 것의 극점이다. 그것은 명백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인습적인 힘으로 독해되기 위하여, 마치 담화 설정의 격아강적 구성요소가 행위주적 낭중분할의 순간에 결합가와 반대로 떠오르는 그 부가긴장성의 레벨을 전제하는 것처럼 존재한다. 역으로, 카뮈의 ‘아늑한’ 부가긴장성은 흩뿌려지고 최초의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포착된다. 이것은 부조리의, 예… 사위(斜位)의 최초 아티클레이션의 증거처럼, 피신탕의 교차점(fiducia)이 발생하는 근접주체(near subject)와 근접대상(near object)의 분리처럼, 이해될 가능성을

16) Zuider Zee(zàidər-zéi, -zi): 조이데르 해(海), “네덜란드 북쪽 해안의 얇은 만(灣); 지금은 육으로 바다와 차단됨.”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제방으로 1927~1933년에 만들어졌다. 북-홀랜드주(Noord-Holland)에서 건너편의 프리슬란드주(Friesland)를 잇는 총 32km 거리와 90m의 폭넓이를 가진 A7 고속도로이기도 하다(옆에 자전거 도로도 마련되어 있다). 원래는 Zuiderzee, 즉 바다(zee)였던 곳을 이 제방으로 담음으로 해서 Zuiderzee는 아이셀미어(IJsselmeer), 즉 호수(meer)가 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간척지 사업을 하여 플레볼란드(Flevoland)주가 생겨나게 되었다. (역주)

만들어낸다. 비-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긴장의 아늑한 카오스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전락(La chute)에서, 축어(逐語)적으로 더 이상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특히 믿음(belief)으로서 더 이상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특별가치 또는 다른 것 안의 교리(敎理, faith)가, 사위(斜位)의 공간에 기묘하게 전성된(비-이종적인) 믿음으로 존재하는 “메타-신앙(metabelieving)”을 항상 전제하기 때문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어느 특별한 믿음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뮈의 지나치게 고대의 냉소하는 사람의 방식인 “참회-심판자(penitent-judge; 탁월한 혼합주의적 행위주)”는 체계적인 명예훼손과 빈정거리는 도발을 실행한다. 이 예에서, 그것은 결합가, 즉 우리가 방금 피신탕의 교차점이라고 호칭했던 것을 구성하는 그것의 전체 세트가 그들이 무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대상의 세계로부터 그 프레임 수용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또한 그것은 카뮈의 화술에서 ‘우발사건’의 역할의 문제를 빠르게 안치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조이데르(Zuider Zee)는 관찰자의 일부에서 어느 해석적인 능동성(activity)에 무감각한 것으로 잔존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출현된 편차의, 경계표지의, 뿐만 아니라 어느 아티클레이션의 위에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아무 역할도 연기하지 않는 그 우연한 세계의 이미지로 이해될 수 있는 격상적인 ‘우발사건’도 폭로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참회-심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박살낸 ‘우발사건’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그녀가 세느 강에 몸을 던진 뒤 그가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부인의 실망과 만났던 그 우연한 조우로 존재한다. 우연은 그것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아래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가치세계의 붕괴를 일으키는 우발사건은 반드시 내포적(virtual)으로만 존재하며, 역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결합가 만들기의 실제적인 필연성을 작동시키고 있는 우발사건의 이미지는 그때 가치로 나타난다.

#### 불안정성과 회귀(Instability and Regression)

카뮈의 예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의미작용의 사위(斜位)의 토대가 불안정하고, 몰락할 수 있는 뜻밖의 뜻의 가능성(chance)으로 실행된다. 한편, 의미의 최초의 능동성화는 의미작용을 일으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다른 한편, 필연성 위에서 뜻밖의 뜻의 가능성의 끼어들기가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낭중

분할은 필연성 그 자체의 “프레그난츠(pregnanz)”<sup>17)</sup>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된다. 사고의 또 다른 도정(道程)에 따르면, “퍼지의(fuzzy: 불명확한)” 대상과 자연세계의 진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수학자들(특히 Benoit Mandelbrot)은 프랙털(fractal)<sup>18)</sup> 이론을 완성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물과의 사이에서 그 미분화가 어떻게 뜻밖의 뜻의 가능성과 재귀성의 영향력 하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사실상,

17) 프레그난츠(Pregnanz): 지각은 감각이 직접 수용막(受容膜)으로 수용했을 때는 2차원의 포치(porch; 현관, 차를 대는 곳)가 된다. 그리고 보이는 공간은 3차원적으로 성립된다. 또한 1m 떨어져 있는 잉크병을 0.5m의 거리까지 접근시켜도 망막상(網膜像)에 따라서 4배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근자극(近刺戟)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을 항상성(恒常性: constancy)이라 한다. 그러나 지각은 원자극(遠刺戟)을 충실히 잡아서 외계를 모사(模寫)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을 착각(錯覺: illusion)이라 하며 각종 기하학적 착시(錯視)·대비(對比)·가현운동(假現運動) 등이 있다. 그리고 상하(上下)하는 자극(근자극)의 특질에 반드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근원인 사물(원자극)의 특질을 잘 반영하는 내적 특성을 가진다. 사물은 물체성을 띠고 주위에서 떠오른 격상(格象: figure)으로 소재적(素材的)인 배경인 바탕(ground)에서 분절(分節)된다. 개수가 많은 것은 근접·유동(類同)·폐합·연속 등 군화(群化)의 법칙에 따라 모임을 현상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그난츠(Pregnanz: 간결성)의 원리로 해명하려 했다. 환경 내의 것은 3차원의 넓이를 가지고 있지만, 광자극(光刺戟)에서는 망(網)·좌우·전후 등 공간의 주요 축에 따라 지각특질이 변화하는 비등방법(非等方法: anisotropy)도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 지각에서 중요한 것은 시공간적(時空間的)인 관계의 인식이며, 형태나 선을처럼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이 변해도 관계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지각되는 것을 치환(置換 또는 移調: transposition)라 한다. 지각의 체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순응하고 변용된다고 강조하는 경험설과, 체계화는 경험으로는 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생득설(生得說)이 있다. (역주)

18) 프랙털(fractal): 1975년에 베노이트 만델브로트(Benoit Mandelbrot, 1924~ )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 「자연의 프랙털 기하학」을 프랑스어로 출판했다. 이 책은 그가 20년 동안 연구한 방대한 수학적 관상을 정합적인 틀로 정리한 것이다. 그는 “프랙털(fractal)”이라는 말을 라틴어 프랙투스(fractus), 즉 ‘부서진’이라는 말에서 따왔는데, 이것은 그가 컴퓨터로 만들어낸 기하학적 풍경의 조각나고 불규칙한 성질을 강조하는 말이다. 프랙털의 핵심적인 특성은 규모가 달라져도 자기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의 모습과 흡사하다. 지도에서 영국의 해안선을 보면 매우 구불구불하다. 이것을 계속 확대해 들어가면 우리는 해안선을 점점 더 자세히 보게 되지만, 각각의 비율에서 구불구불한 정도는 똑같이 유지되며 해안선의 형태도 똑같이 보인다. 프랙털에서 자기 유사성은 수학적 규칙들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는 데 쓰지 않고 수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알고리즘에 들어간 수열은 다음 수열을 발생시킨다. 1910년대에 프랑스의 수학자 가스통 쥘리아와 피에르 파투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질서해 보이지만 무한히 커지지 않는 수열을 얻었다. 만델브로트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마구잡이가 아니라 세밀하고 복잡한 형태를 이룬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프랙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것이 분수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다. 영국의 해안선 길이는 얼마나 정확히 재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전체 길이는 계속 길어져서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러면서도 육지의 넓이는 그대로일 것이다. 구불구불한 정도는 해안선의 “프랙털 차원”을 정의하며, 해안선의 차원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값이다. 이 새로운 기하학은 주위의 도처에 있다. 프랙털과 자기 유사성은 식물의 구조, 구름의 형성, 주가의 등락, 은하 집단의 분포에 나타나며, 물론 해안선에도 나타난다. (역주)

소위 프랙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뜻의 가능성(확률적인 변화과정)에 의해 그리고 재귀성(작용을 선행하는 것을 생산하는 확률적 변화과정의 무한한 적용)에 의해 발생된다. 이제 만약 무(nothing)가 재귀성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그때 프랙털화(fractalization; 차원분열 도형화)는 마치 내재 상사(相似)의 소인(素因)에 의해 규정된 것처럼, 보잘 것 없고 무의미한, 그러면서도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기묘한 것이 된 대상으로 귀착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만약 그 낭중분할이 “확률적인 것” 그리고 “재귀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 그것은 “융합(fusion)”과 긴장의 포만, 또는 최대 분산의 동일한 사물에 이르게 되는 것의 조건을 재생산할 것이다.

**아이스테시스(Aesthesia)<sup>19)</sup>**: 화합을 향한 이 긴장은 혼합주의를 결정하는 어떤 것에 동기를 부여하는 그 대당(對當)으로 나타나는 아이스테시스의 성격을 만드는 것으로 존재한다. 세계에 대한 이 새로운 관계에서, 주체는 실제로 그들을 발생시키는 최초의 분열 안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때 그 심미적 정서(emotion)는 이러한 낭중분할의 ‘재경험’처럼, 미분화된 “사위적인 긴장”을 향한 노스텔지어처럼, 해석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이스테시스의 표출이 통사론적 역할의 호환에 의해 아주 흔하게 수반된 사실로 고찰될 가능성을 만들지도 모른다. 사위(斜位) 안에 깊이 빠져들어, 그 심미적인 주체는 그의 원형적인 형태(초미-화술)가 대상으로든지 또는 주체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구성되었을는지 모르는 그 순간을 재발견한다. 격아강적인 표상 안에서, 이것은 정서 주체의 심미적인 능동성의 주체가 이번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성(轉成, becoming)<sup>20)</sup>의 변화과정 안 그 심미적인

19) 아이스테시스(Aesthesia, Aesthetik, Aesthetica, 아이스테티카, 감응론); 이 말은 에피스테메(épistémé; 학적 인식지, 悟性)와 대립되는 말로서, 기본적으로 감응(Empfindu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감응적 지각이다. 즉 감응적인 것은 예로부터 개념적 사고에 의해 파악된 것, 즉 오성(悟性, 플라톤의 理性)적인 것에 비하여 낮은 차원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근세에 이르러 차차 그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G. W. F. 라이프니츠와 C. V. 볼프의 흐름을 이어받은 A. G. 바움가르텐에 이르러, 오성(플라톤의 이성)의 인식에 관한 학문(logica: 論理學)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감응적 인식에 관한 학문(Aesthetica)이 생겨, 전자의 완전한 인식이 진(眞)에 도달하는 데 대하여 후자의 완전한 인식은 “미(美)”에 이른다고 하였고, 이 말은 그대로 “미학(美學)”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도 감응을 낮은 차원에 두는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 있었으나, 이런 관념은 마침내 I. 칸트와 C. 피들러에 의해 완전히 극복되었다. (역주)

20) becoming(轉成); naver 백과사전은 생성(生成)으로 번역하고 있다. 전성(轉成)은 운동이

대상을 우리가 때때로 관측할 수 있는 이유로 존재한다.

**행위주적 불안정성:** 더 나아가, 낭중분할의 불안정성, 이에 더하여 분리 상태에서 일습의 세퍼레이츠(아래 위가 따로 된 여성·여아복)로, 즉 ‘이중성’의 출현으로 믿도록 유도하는, 말하자면 착란적인 표출로 고찰하고 유의했던, 그 주체·대상의 역할의 호환성은 상호주관성의 예상도와 주체/대상의 관계 양측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부가긴장적인 주체의 우화(羽化, emergence)를 마음속에 그렸던 그 방식을 검토한다면, 우리는 그 방식이 2개의 합동인 그러나 근접-모순적인 힘을 간청했던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그 부가긴장성은 대상으로부터 분화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을 “자기동일성(ipseity)”의 이미지로 제공하고, 다른 한편, 피신타의 교차점 즉 “세계를 위한 주체”의 존재의 모드로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분화를, 즉 일종의 “이타성(異他性, alterity)”<sup>21)</sup>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부가긴장성이든지 피신타의 교차점이든지 하여간 그것은 “단일성(oneness)의 파편”이 부가긴장적인 주체의 이중적인 정향의 강화와 “가치의 투영”으로든지, 또는 아직 각각의 정향이 아닌 2개의 ‘상호주체’의 출현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보편화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정밀도의 결핍(lack)으로 인하여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나 변화와 함께 정지(靜止)·불변·존재에 대립하는 철학원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장소운동·증감(量의 변화)·성질변화와 아울러 실체의 범주에 관한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비존재가 존재로 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존재와 전성의 어느 것을 더 근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철학유파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대립이 생긴다. 싸움이 만물의 아버지라고 말한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of Ephesus)는 전성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성은 비존재의 존재를 허용하는 불합리를 내포한다는 이유로 전성을 부정한 파르메니데스(Parmenides)는 존재철학(存在哲學)의 대표자이다. 근대에는 G. W. F. 헤겔이 전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동적인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다. 전성과 존재의 문제는 철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사색을 요구하는 영원한 문제이다. (역주)

21)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2. alterity(이타성, 異他性); 이타성(異他性, alterity)은 비정의적 개념(concept)이며, 그것은 다른 동종의 개념, 즉 동정(同定, identity)과의 대당(對當, opposition)이다. 적어도 이러한 비정의와 동정과 같은 짝은 상호전제의 관계에 의해 내적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동정화(identification)는 일종의 동정 또는 몇몇 대상과 관련하고 있는 결정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편차는 인식된 그들의 이타성(異他性)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과정이다.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 282. 다음의 도표를 참조할 것. (역주)



제1장 정념의 인식론

사위(斜位) 안에 생기는 긴장적인 호환의 상호작용 안에서, 어떤 때는 동정적인 이중성으로, 어떤 때는 편차적인 이중성으로 나타나는, 상호주관적인 투기든지, 또는 주체와 대상의 역할이든지 하여간 그것은 이타성(변화·상승)으로서의 그리고 합동성(고정·전략)으로서의, 그것의 증명사(中名辭, mean)에 의해, 주체 그 자체와 상호주관성 양쪽으로 구성된다. 교류발전과 같은 교번(交番)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융합상태로의 재통합에 의해 심미적인 주체가 어떻게 어떤 이타성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지속하는가를, 그리고 왜 착란적인 표출이 상호주관성 안에 심미적인 정서를 끼워 넣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초-행위주적인 형식의 모든 것은 사위적인 긴장과 동일한 실례에서 유래하는 것 같다.

실재의 담화, 특히 깊이 감동받은(impassioned) 주체의 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분석할 때, 우리는 불안정한 그리고 호환적인 행위주의 역할과 자주 조우한다. 그렇기는 해도 더 놀라운 것은, 깊이 감동받은 주체의 허수(虛數, imaginary)가 때로는 교환되고 조합될 수 있는 역할의 전체 행위주적인 세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심층 레벨과 착란적인 표출의 개념화 사이에서 이리저리 필수적인 왕복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위적인 긴장성의 최초 함수 작용의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는 깊이 감동받은 주체의 허수의 행위주적인 함수의 작용 사이의 잔향(殘響, reverberation)을 조정하도록 유도 받고 있다. 얼마간의 행위주적인 역할을 동일점에서 교차적으로 채우고 있는 단순 연기자로 나타나고 있기는커녕, 행위주적인 역할은 표시되어 전개되고 있는 정념에 의해 얼마간의 시나리오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고 있는(having in-

		확장≒조정적 정의		응축≒부정적 정의	
		행위주	자질	자질	행위주
진실≒ 삶	$T'''$	희망 (hope)	변화(change) (이타성 상승)	(맛 유색 리듬) 형식(form)	희망 (hope)
	$T''$	겸손 (humility)	빛(light) (명료 투명)	(공기 가벼움) 기체성(gaseousness)	청빈(淸貧) (poverty)
	$T'$	사랑 (love)	열기(heat) (열)	(순수 정결) 순수성(purity)	사랑 (love)
허구≒ 죽음	$T'''$	증오 (hatred)	혼합(mixture) (불순 불결)	(냉) 한랭(cold)	비단 (indifference)
	$T''$	경멸 (contempt)	액체성(liquidity) (유리질 무기움)	(불명료 불투명) 암흑(darkness)	인색 (avance)
	$T'$	절망 (despair)	무형식(formlessness) (무미 무색 단조)	(동일성 전략) 고정성(immobility)	망상 (dream)

ternalized)” 진리의 착란적인 주체로 드러난다. 단순한 혼합주의 그 이상으로, 이러한 주체는 사실 정념의 착란적인 표출을 위해 필연의 행위주적인 역할의 전체 디스플레이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능력에 의해 주로 정의된다. 그러한 특색은 사전에 단서가 긴장의 공간 안에서 몇몇 “최초-행위주”로 쪼개지고 있는 ‘단일성’의 가능성을 만들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물론 기호학적 프레임 안에서).

사위적인 긴장성 안에서 그것은, ‘단일성’과 ‘이중성’ 사이의 긴장, 즉 필연성 위의 뜻밖의 뜻의 가능성의 우월, 그리고 뜻밖의 뜻의 가능성 위의 우월에 귀착하고 있는 필연성에 의해 창조된 ‘이중성’과 ‘단일성’ 사이의 긴장 때문에 분극 되는 경향이 있는 그 사위(斜位)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쉽게 관측한다. 마치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과 같은 진리의 분극화는 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과 ‘척력’ 사이의 단순한 진동으로 달성되었다. 그러한 자격에 있어서의 분극화는 오직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그 때에만 발생할 것이다. 의미를 교란시키고 있는 그 이미지는 여기에 적합한 것 같다. 그것은 마치 확실한 그리고 불확실한 사위(斜位)의 최초의 굴절의 최소의 감정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융합, 낭중분할, 재통합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존재한다. 담화의 레벨에서,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 “불안(anxiety)”은 이것의 표현이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것을 동정하는 그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행복감(euphoria)과 불쾌감(dysphoria) 이전의 울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말하자면 분극화를 연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기서 불안이 사위(斜位)의 긴장의 어떤 진진을 보호하고, 따라서 그것은 ‘결합기’의, 그리고 부가긴장성의 정위(定位, orientation)를 정의하는 모든 것의 관계(群系, formation)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주체가 그를 압도하고 있는 그 진동을 왜 지배하려고만 하는지 그 이유로 존재한다. 또한 이것은 불안이 착란적인 표출의 레벨에서 왜 하찮음(무의미, insignificance)의 부활로 아주 흔하게 나타는지 그 이유로 존재한다.

#### 양태화를 위한 전성(becoming, 轉成)과 진제

사위(斜位)가 우리로 하여금 양태성 전성의 최초의 표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도록 성격을 만들고 있는 그 긴장의 인식은, 아마 화술적인 통사론의

레벨에서 실행(doing)과 존재(being)의 양태화가 만들어지는 것일 것이다. 그 난국은 이러한 양태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테면 그들이(wanting, having-to, being, 그리고 knowing)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적인 범주화에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면에 또 다른 투시도법으로부터, 정념적인 의미효과의 그 효과를 고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완전히 ‘구조적인’ 것보다 형태(초미-화술)인 것으로 존재하는 조직의 또 다른 모드를 추종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의미작용의 전제조건인 레벨로부터 부가긴장성의 진전이, 그 중에서도 특히, 4개의 양태성의 긴장적인 전-형태(초미-화술)의 윤곽을 그리고 있음을, 그리고 일단 범주화된 양태적인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전-형태(초미-화술)가 파지(把持)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양태성의 정념적인 함수 상의 충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부가긴장성과 전성(轉成):** 미분화된 최초-행위주의 그 낭중분할은 전경(前景)이 된 존재적(ontic) 지평 상의 최초의 시공(時空) 안에 기왕에 나타난 “정위(orientation)”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독창적인 융합으로, 따라서 그렇게 복귀함으로써만 보호받을 수 있다. 어떤 무엇을 투시도법 안에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위(斜位)로 나아가고 있는 융합에 호의적인 모든 긴장의 그 전경을 고찰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의적인 낭중분할의 이것은, 그러면서도 융합의 경향이 있는 이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든지 또는 서로 예측되는 것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될 수 있다. 그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그들은 진동의 상태로 잔존하고, 역으로 융합에 호의적인 긴장이 그것을 결투의 상태로 이끌어낼 때, 필연성을 떠맡게 되지만, 의미작용은 발생시킬 수 없다. 우리는 사위적인 긴장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의미작용을 위해, 낭중분할에 호의적인 그 긴장이 활개치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그것은 부가긴장성이 정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이 조건 하에서만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 정위의 유형은 전-격상적인 통사론이 사위(斜位)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불균형의 이러한 유형이 ‘근접주체’와 결합가의 발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고의 이러한 통로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사위적인 집합의 낭중분할을 선호하는 “조정적인(positive)” 불균형을 전성(轉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약간의 통사론이 어떻게 사위(斜位)에 귀속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식론적인 레벨로 되돌아가는 착란적인 통사론으로 관찰된 그래서 연속표출로 반향(反響)시키고 있는 것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호학 안에서 그것을 약간 낮은 변덕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전”으로서의, 또는 “상태의 변화의 시리즈”로서의, 그 전성의 유동적인 정의는 존재(being)와 실행(doing)의, 그리고 상태와 변형을 포섭하는 것의, 차이를 근거로 선택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철학적인 또는 근접-기호학적인 정의는 ‘인간적인’ 변화가 ‘자연적인’ 변화와 아직 구별되지 않은 분석의 레벨에서, 연속변화, 즉 순수진화적인 언외지시(direction)의 소인으로서의 전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발생되고, 전성되고,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2개의 불연속적인 실재물, 즉 존재(being)와 실행(doing)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전성은 말하자면 합성된 혼합주의와 전제조건이 될는지 모른다. ‘근접주체’와 “가치의 투영” 사이에서, 그것은 집합의 또는 상태와 변형의 문제가 아니지만, 인력과 척력의 진동에 의해 약동적인 것으로 연출된, 그리고 낭중분할의 용모로 균형이 깨진,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긴장의 문제로 존재한다. 만약 부가긴장성이 사위(斜位)의 공간 안에서 낭중분할의 구태의연한 양태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전성은 의미작용의 출현을 폭로하고 있는 그것의 ‘조정적인’ 버전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약간의 사물은 이러한 변덕을 ‘부가긴장성,’ ‘정위,’ 그리고 동일사물을 다소 다른 빛깔·모양으로 강조하며 지시하는 ‘전성’으로 분리하여 뽑아낸다. 부가긴장성은 낭중분할의 최초의 양태효과로 존재한다. 정위는 그것의 격상적인 귀속의 특성으로 존재한다. 전성은 낭중분할을 확증하는 긴장의 불균형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 사실에 부가해서 텅 ‘전성’은 ‘부가긴장성’보다 더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된다. 그것을 이중적인 강점을 제공한다. 먼저 인식론적인 레벨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그것은 부가긴장성의 분석을 우리가 정련하도록 권유한다. 그것은 정위와 진전 양측으로, 다시 말해서, 역사성을 지탱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전성은 인류학적·생태학적 진전을 다루는 가설과 필적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이론적 침범을 위한 교두보(bridgehead)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신중히 말해서, 그것은 이론적 구성의 레벨에서 의미작용의 전제조건으로 존재하며, 그 토론은 그러한 가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가

능하다. 두 번째로, 그 텀이 어떤 무엇과 관련된 그 착란적인 표출에 따름으로써, 그것은 관자놀이-시공간적인 전개와 확장을 지시한다. 그러나 착란적인 연속체의 조정자로 고찰된 양상화의 그 레벨에서, 그것은 그러한 표출효과로 고찰될 수 있고, 그 텀의 사용은 여분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모든 사위적인 긴장으로부터 돌이면서도 단독적인 정위와 진전의 소인의 선택을 통해 전제조건인 레벨에서, 그것은 통사론을 생각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함의의 효과를 기원(주체)의 효과와 목적(대상)의 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고찰할 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전성의 전조(轉調, modulation):** 이러한 혼합주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통로를 추적할 것이다. 먼저 전조와 이산(離散)은 양태화를 발생시킨다. 전자는 착란적인 양상화의 전-격상을 구성하고, 후자는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전조의 결과를 포착하는 것에 의해 사위(斜位)의 공간 안에서 긴장의 변이(변수) 간의 연결을, 다른 한편으로는 화술적인 레벨 안에서 양태범주화의 연기를 확립한다. 전조에 적용된 근방(近傍)은 지금까지 연속성으로 취급하여 사용된 그 2개의 중심절차를 추종한다. 긴장적인 변이(변수)의 그 경계설정은 이산단위로 최전면에 내세운 전조와 분절에 조명을 비춘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초점을 맞춘 그 경계설정은 긴장 안에서 오버랩과 침입에 의해, 가속 또는 감속의, 기원 또는 종말의, 개방 또는 폐포(閉包, closure)의, 현연(懸延, suspension) 또는 지연(delay)의, 상(相, phase)을 발생시키고 있는 근방(近傍)과 진척의 논리에 따른다. 전성의 내재적인 속성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변이(변수)는 정의 그 자체 안에 명각(銘刻)된다. 사실 낭중분할을 선호하는 그 긴장은 오직 총체적으로만 활개를 친다. 먼 ‘관찰자’를 위해, 전성은 단순히 호의적인 불균형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상세히 말해서, 플래시백(flashback) 가까이 정위된 ‘관찰자’를 위해, 그러한 불균형과는 반대로 진전의 연속성을 위치적으로 화해시킨다. 전성의 전조는 말하자면 긴장의 이종(異種)과 정위의 총체적인 동차성 양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의 어떤 방식으로서의 사고로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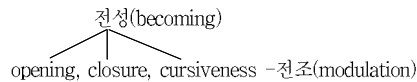
예를 들어 요망(wanting)의 속성은 의도된 효과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있는 ‘개방’과 함께 시작할지도 모르며, 이 긴장적인 레벨에서 전성의 가속을 통하여 동정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그것의 정향과는 상관없이, 각각의 요

망의 새로운 출현은 새로운 개방 또는 새로운 가속을 결정할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원형은 전성을 고립시킬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의도된 효과의 전도인 “포착하기(*grasping*)”를 사실로 실현하기 때문일는지 모른다. 그것은 그것의 진전을 약수(約數)로 만들기 위하여 전성의 유동을 중단시킨다. 긴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이러한 전조를 사위적인 공간의 총체성으로 보편화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될 바와 같이 의미세계의 인식적인 따라서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화의 가능성을 눈앞에 펼쳐놓는 것이다. 능력(*being-able*)의 원형을 위함으로써, 그것의 역할은 예를 들어 낭중분할을 선호하는 그 불균형을 지속하는 말하자면 무한과동을 동반하는 “전성의 유동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3개의 전조(“opening,” “closure,” “cursiveness”)<sup>22)</sup>는 담화의 레벨에서 “기동상의(*inchoative*)/총체지속상의(*durative*)/종지상의(*terminative*)” 그 양상적인 3화음이 될 것인 것의 모양을 미리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과정의 착란적인 형식으로서의 양상적인 3화음이 우리가 방금 검토했던 3개의 양태화와 함께 실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백하게 그들은 동일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2개의 다른 변화과정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만약 실제로 전성의 3개의 전조와 함께 시작함으로써,<sup>23)</sup> 우리가 범주화를 적용한다면, 그때 그들은 생성궤도를 추종할 것이며, 기호현상-화술적인 우주 안에서 그들은 양태화로 전환될 것이다. 역으로 만약 동일한 전조로부터 시작함

22) 흘림체(*cursiveness*): 1. 흘림체, 초서체, 필기체, 육필. 2. *handwriting*으로서 “제양의 전조(를 알아차리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of handwriting)in flowing strokes with the letters joined together.” 즉 결합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stroke”는 미국 구어로서, “여자와 관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매우 까다로운 단어인데, 굳이 번역한다면, “육필처럼 자유롭고, 몸과 마음이 상관계처럼, 또는 제양의 전조처럼 결합하여 흘림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대 이집트, 그리스·로마, 중국 등지의 상형문자로서 신성한 일에 쓴 “성용원고(聖用原稿, hieratic script)”의 의미가 더 강하다. (역주)



23) 전성(轉成, *becoming*)은 상위어, 전조(轉調, *modulation*)는 하위어가 된다. (역주)



으로써, 그들이 변화과정을 담화로 설치한다면, 표출의 레벨에서 그들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의미의 경제성(단일 개념과 2개의 전성절차)과 생성궤도를 위해, 그리고 언의발언의(enunciative) 총집합을 위해 비축된, 시 따위에 곡조를 붙이는 것과 같은 세팅(setting)이 담화로 비축된, 전환(conversion) 사이의 편차(distinction), 양측을 강점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기호현상-화술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생성궤도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사위적인 긴장성의 변이(변수)로 적용된다. 다시 그것은 그것이 작용에 의해 연결된 3개의 “모듈(module),” 즉 필요조건, 기호현상-화술, 담화의 그것 안에서 이론의 전성적 경제성의 표상을 전제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재검토할 것이다.

실행의무(having-to-do)의 원형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그것이 전성을 또 다른 필연성으로 변형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전성의 서스펜션으로 나타난다. ‘단일성’의 융합 대신에 그것은 ‘전체’의 결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왜냐하면, 일단 낭중분할의 소인이 확립되면, 또 다른 위험, 즉 분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무(nothing)가 의미의 최초의 활동에 의해 연기로 자리를 잡게 된 분산적 힘과 대당이 된다고 한다면, ‘단일성’의 하찮음(무의미, insignificance)의 표현 뒤에, 또 다른 하찮음(무의미)이 카오스 안에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무질서한 그러면서도 단조로운 교란을 다루고 있을 때, 불명확한 낭중분할의 그러한 하찮음(무의미)의 효과와 이미 조우했다. 실행의무의 원형은 긴장의 총체성을 구성하려고 애쓰으로써, 응집력이 있는 힘으로서의 이러한 위험을 확증한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사위(斜位)의 위험을 초월하여 진정시키는, 그리고 변이(변수)와 상(相, phase)을 무시하는 소원(疏遠)적 관찰자의 관점을 만들고 있는 제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 사실 실행의무의 원형은 전조를 ‘강조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개방(opening),” “폐포(closure),” “흘림체(cursiveness)”를 중립화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잇따라 일어나는 전조의 매우 특별한 함수로 고찰하도록 할 수 있다.

**전조, 양태화, 그리고 양상:** 고뇌의 수도(Capitale de la douleur)에서 기동성의 우위를, 우리는 의미의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떠맡는 결합가의 표출로 해석했

다. 그것은 필연성에 저항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나타나는 시집 안에서, 요망, ‘개방된’ 전조와 의도된 그 효과의 원형의 딸림음 같은 지배를 신호로 알린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의 변이(변수) 또는 그것의 양상적인 선택을 통해서 텍스트를 탐색할 때, 우리는 긴장의 딸림음적인(dominant)<sup>24)</sup> 형식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이 인식론적인 주체를 위해 의미작용에 접근하는, 그리고 화술적인 주체(이것은 폴 엘뤼아르의 텍스트 안의 기동성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를 위해 가치에 접근하는, 그래서 어떤 모드를 정의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기호학적 문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한다고 고찰할 수 있다. 괴롭히는 사람의 교란, 꾸물거리는 사람의 말더듬기, 결심한 개인의 호전적인 문체는 의미작용과 담화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가치

24) 딸림음(dominant); 1. 으뜸음에 이어 중요한 음으로 속음 또는 도미넌트라고도 한다. 본래는 지배적인 음이라는 뜻이며 유럽의 장·단조에서는 으뜸음의 5도 위의 음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도 5도 위의 음이 딸림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으뜸음에서 아래 5도가 되는 음을 비금딸림음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 이것을 위 딸림음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조성음악의 확립과 함께 이 위아래 5도의 움직임은 멜로디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고, 카덴차를 형성하는 것으로 화성 진행의 기본이 되고 있다. 2. cadenza: 악곡·악구(樂句) 등의 마침이나 단락에서 그 과정을 형성하는 음 진행의 정형(定型).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어인 카덴차(cadenza)로 불리며, 종지형(終止形)이라고도 한다. 처음 이 말은 종지형을 뜻하는 단순한 음악용어였으나 16세기경부터 악곡이나 악장의 마침 직전에 삽입하는 즉흥적인 기교적 솔로 패시지(solo passage: 독주 부분)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같은 기교는 18세기의 오페라에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특히 A. 스카를라티를 비롯한 나폴리악파(樂派)의 오페라에서는 거의 양식화(樣式化)의 기미마저 보였다. 한편 바로크시대에는 악기의 음성을 배경으로 G. 도렐리, A. 비발디 등의 독주협주곡에도 카덴차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의 카덴차는 고도의 기예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짙었으나 교전주의·낭만주의에 이르러서는 특히 협주곡에서 악곡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어 주제의 동기형(動機型)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역주)

1) 딸림음조 — 으뜸음에서 완전 5도 위의 조

**딸림음 조**

다장조 ⇒ 사장조

완전 5도 위

다장조

사장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2) 비금딸림음조 — 으뜸음에서 완전 5도 아래(완전 4도 위)의 조

**비금딸림음 조**

다장조 ⇒ 바장조

완전 4도 위

완전 5도 아래

다장조

바장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안의 그 방식의 모든 상상적인 표출로, 또는 그렇게 지시된 주체의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양태화의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표출의 부재 안에서, 딸림음적인·상상적인 선택의 검토는 세팅을 아중적으로 담화 안에 불러 모았던 그 심층레벨에서 여러 가지 딸림음적인 전조의 존재자를 우리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아마 전-딸림음으로 존재하는 것일 것인 이 전조를, 하여간 그것이 만약 일촉즉발의 레벨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양태적인 조직은 감동을 받거나 정위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낚새를 채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방과 연장적 전조 양측에 기초된 말더듬기는 우리로 하여금 요망(wanting과 not wanting)의 복합 아티플레이션을 위한 단서를 만들도록 할 수 있으며, 착란적인 표출 안에서 가능한 아중적인 흔적을 찾도록 자극한다. 같은 방식으로, 표면상의 상상적인 형식으로서의 교란은 긴장, 즉 융합과 낭중분할 사이의 확정적이 아닌 균형의 순수 진동에 의해 안정이 된 연장적인 전조의 아중적인 형식을 포획한다. 그러한 불안정의 균형은 서로 상쇄된 효과로서의 2개의 전조—예를 들어, 개방전조와 폐포전조, 또는 흘림체의(cursive) 전조와 정서체의(punctualizing) 전조의 공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요망(wanting)과 지식(knowing) 사이로든지 또는 능력(being-able)과 의무(having-to) 사이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양태적인 충돌의 레벨에서 가정으로 전진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불안과 고뇌의 윤곽을 에워싸는지 모른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러한 발견절차가 직관적으로 또는 정신의학자에 의해 조사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상상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형식(예를 들어, 교란)으로 사용된,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들은 양태적인 그리고 정념적인 성질(예를 들어, 고통 또는 우울의 골칫거리 성분)의 심리적인 성향을 추론한다. 세 가지의 실례(각각 사위적인 긴장성, 기호현상-화술의 레벨, 그리고 타당하면서도 착란적인 표출 상에 주연된 전조, 양태화, 상상)는 말하자면 우리가 논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발견학습적인 가치의 이론적인 트라이앵글을 구성한다.

사위적인 긴장성으로 되돌아가면, 전성의 몇몇 가능한 전조는 현재로서는 아직 정의되지 않고, 아마 당연히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던지시 제안하고 부분적으로 예증했던 몇몇 형식들은 가능한 격상의 경우를 자세히 구명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 우리가 연속모드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레벨에서, 근사와 오버랩의 논리는 상상될 수 있는 만큼 많이 혼합되고 중재된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개방, 폐포, 홀림체, 그리고 정서체의 전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그들을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로 통합하기 위하여, 즉시 검토될 것인 소인에 따르고 있는 그들을 선택하는 양태범주 때문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 지식의 세계에 대하여

**호출(summons):** 우리가 방금 윤곽을 그렸던, 그리고 부가긴장성에 의해 “가치의 투영”과 함께 연합했던, 소인적인 성격의 사위적인 레벨에서 피신타의 교차점에 의해 양태화가 된 주체는 아직 인식할 수 있는 가치의 능력이 없다. 특히 그는 심미적인 진가알기로서의 결합가로만 경험할 수 있다.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는 부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대상의 “대용형(proforms)”은 이미 주체에, 부가긴장성 안에서 이미 일종의 “호흡(라임? 템포?)”을 도입했던 전성의 전조에, 유효한 것으로 존재하지만, 무는 아직 범주화 되지 않고, 불연속의 음조곡선을 가지고 있다. 부정은 주체가 그 자신을 작용적인 주체로 발견되는 것에 의해,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에 의해, 최초의 작용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일종의 선언, 즉 긴장의 연속전조와 인식할 수 없는 가치의 세계와 함께 최초의 선언으로 존재할는지 모른다. 이러한 부정은 두 단계로 분석될 수 있다.

최초의 그 몸짓(gesture)은 순수행위, 무엇보다도 탁월한, 즉 호출(summons)의 행위로 존재한다. 가치의 투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 정향을 호출하고 있는 주체·작용인자는 범주의 윤상대(輪狀帶, zone)를 명확히 기술한다. 이러한 호출은 부정 그 자체로, 또는 한 쌍의 포박(apprehension)으로, 오히려 긴장등락의 휴지로 존재한다. 사실, 가치로서의 세계는 긴장적인 주체의 감정을 스스로 완전히 개방했다. 그러나 그것을 포박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의 연속행진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폐포’는 보편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은 최초의 부정의 기원으로 존재한다. 윤상대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부정을 호출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sup>25)</sup> 따라서 프루스트(Marcel Proust, 1871~1922, 프랑스 소설가)에서, 뱅퇴이유(Vinteuil)의 프레이즈(phrase, 악절)를 듣기 전에, 스완은 이상이

없는, 계획이 없는,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소한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의미한 세계 안에서 공허한, 보통의 개인이다. 뱅퇴이유의 프레이즈는 이러한 최초의 작용적인 주체의 격상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프루스트가 소설을 씌으로써 오데트(Odette)의 이름이 명기될 것인, 그 윤상대를 마음속에 지시하는 위치를 호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완의 마음속 일부에서 약간의 프레이즈가 물질적 이해관계에 관한 관심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공허와 여백을 남겨놓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오데트의 이름을 명기하는데 자유로웠다.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vol. I. Du côté de chez Swann, p. 233)

최초의 관찰을 단순하게 만들고 있는 두 번째의 몸짓은 모순(contradictions)으로, 범주적 의미 안에서 부정으로 존재한다. 그 호출-부정은 기호사각형의 최초의 턱, 비- $s_1$ 으로만 설치될 수 있는 가치의 투영에 적용된다. 사실,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 작용주체가 되었던 긴장의 주체는 그를 분리했던 낭중분할로서의 가치의 투영으로만 이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부재는 그에게서 떠났던 오직 그 사태만을 징발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나타나는 의미작용을 위한, 그리고 안정된 긴장성을 위한, 그 작용주체를 위한 최상의 해법(또는 이산)은 대상의 상실을 범주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부정이 최초의 이산작용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로 존재한다. 가치의 투영 뒤에서, 불연속성을 연속성으로 도입하는 것에 의해, 주체는 대상의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순 없이 호출은 긴장의 연속체 안에서 순수한 단독성의 특이점을 단순하게 결정하고, 의미작용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이 '특이한' 그리고 환원할 수 없는 개성인 것 같은 이유이며, 뱅퇴이유의 프레이즈가 대비의 네트워크, 즉 발견되고 폭로된 내재의 부정으로 나타나며, 부재 즉 스완이 결코 낚새를 채지 못했던 존재자의 부재의 기호 존재(being)로 끝나고, 그것은 그의 삶에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호출은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가 실행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긴장

---

25) 의미작용의 도래의 이러한 변덕은 De choses cachées depuis la foundation du monde(Paris: Bernaed Grasset, 1978)에서 René Girard에 의해 진전된 것으로서의 어떤 단계를 반영한다. 신의 사자(使者)에 의한 산재물의 선정에 감사하는 것은, 문화적 의미작용이 미분된 자연적·사회적 폭력의 번식으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Girard에 따라 최초의 문화적 시니피앙을 발견하는 가중(加重, summation)-부정으로 존재한다.

주체와 그의 결합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위에서 농축하는 것이다. 일단 그들은 전성, 즉 전체 평형추 상에서 서로 긴장의 행위주적인 낭중분할과 주연으로 확증하고 떠받쳐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균형의 상(相, phase; 균일계의 단상)은 사위의 내재적 약동성이 전성의 안정화에 대항하여 떠오르는 것으로 달성된다. 따라서 피신타의 교차점이 융합으로 돌아가는 경향과 함께 활개를 치는 것으로, 또는 주체의 부가긴장성이 행위로 그리고 당해 그 주체가 작용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하여간 2개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러한 진전은 전성의 바로 그 정의 안에 명기되는데, 그 이유는 “조정적인(positive)” 불균형이 오로지 그것을 강조함으로써만, 따라서 최후의 분석 안에서, 그것을 안정시킴으로써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인식적인 것을 발견하는 낭중분할의 확정은 세계와 주체의 분리의 일종의 증명으로 고찰될 수 있다.

**범주화:** 생성궤도 위에서 그것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기호사각형 또는 뭔가 다른 것은, 우리가 단순한 필연성을 예기했던 “존재의 지평”으로 의미하고 있는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rationality)을 확립한다. 그 이성과는 역으로, 예를 들어, 심미적인 정서는 분리된 원소로 쉽게 해체될 수 없다. 그 세계는 심미적으로 표지되거나, 또는 표지되지 못하거나 한다. 그것은 연속모드 안에서 다소 심미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은 범주적·기호학적 편차의 한계(범 조항의) 아래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락(La chute)의 ‘유연한’ 부가긴장성은 편차의 우주적 서스펜션과 함께 동반된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유죄의 모든 하위범조항(재량행위까지 포함된)으로 존재한다. 거기에는 텅의 가치론적인 의미 안의, 또는 구조적 의미 안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이러한 출생은 동시에 그들이 안정시키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들의 호출-부정에 의해, 작용주체는 새로운 실재물을 생기게 하고, 범주, 그것은 최초의 필연성으로부터 출현하고 있는 불변의 일치(unity)를 위한 유혹에 대한 반응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불변의 일치는 이제 모순, 반대, 함축의 합성과 동시에 그 범주를 몇몇 텅으로 해체하고 있는 바로 그 안정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의 상태 안에 존재하는 총체이미지를 우리

에게 공급한다.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는 변증법적 성질의 통사론, 그리고 총체성의 범주형식의 증명사에 의해, 진전의 소인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단일성’과 ‘다중성’ 사이의 긴장은 범주와 그 텀 사이의 변증법적인 그리고 불연속적인 관계의 확립에 의해 해결된다.

더 나아가, 자유재량(discretization)<sup>26)</sup>은 전성을 불연속의 선언과 연언의 연속으로 변형시킨다. 기본구조의 구성작용에 의해 추구된 최초의 호출은 전조를 “전(befores)”과 “후(afters),” 상(相, phase)과 상의 역(闕, threshold, 자극에 대해 반응이 시작되는 분계점)의 연속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레벨의 상태와 변형은 전성의 정의된 확장 안에서 호출에 의해 격리된 윤상대처럼, 그리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유도된 통로처럼 따로따로 정의될 것이다. 이 경우에, 기본적인 통사론은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사실 뒤에 첨부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동일한 혼합주의의 일부로 발생된다. 특히 우리는 기본구조가 피신탁의 교차점, 즉 상태의 기본통사론과 부가긴장성의 상(相)의 호출로부터 발생하는 변형의 퇴로 위에 돌출하는 결합가라고 하는 바로 그 “가치의 투영”의 호출로부터 발생하는지 어떤지를 깨닫고 유의했다. 동일한 절차, 즉 그 “포박-휴지”를 우리는 최초의 부정과 주조(鑄造) 행위로 동정했으며, 또한 정신적 영역 안의 단순변이를 통하여 범주와 통사론 양측을, 즉 최초의 경우에서의 국부적인 포박과 두 번째 경우에서의 약동적·총

26) 자유재량(自由裁量): 1. 법률에 의해 행정이 기속되는 것은 부담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에 있어서도 널리 타당하다. 행정법규는 보통 행위의 요건을 정하는 ‘요건법규’와 행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 및 행위의 종류를 정하는 ‘행위법규’로 성립된다. 법률의 적용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을 요건법규에 맞춰 법률효과, 즉 일정한 행위를 도출하는 일련의 조작을 말한다.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이행하려면 행정청의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일의적인 행위요건을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법이 모든 사태와 경우를 빠짐없이 예상하여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변천에 맞추어 활동하여야 할 행정의 사명에 비추어 보아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입법자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그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확정 개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행정청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행정청이 어떤 법규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그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법률요건의 판단 또는 행위의 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부여된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재량행위는 다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보통이다. 기속재량이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 즉 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이에 반하여 자유재량이란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단지 판단의 당, 부당만이 문제가 되며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여기서는 행정법 이외의 모든 법률에서의 자유재량과 교황의 자유재량을 포함한다. (역주)

체적(global) 효과의 포박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 표층의 화술적인 통사론: 정념의 기호학을 위한 도구

#### 심층-윤리적인(moral)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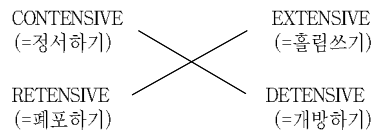
고유의 화술통사론의 레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정념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를 보다 더 좋게 정의할 수 있다.

#### 양태구조

따라서 전성의 긴장의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과 그 후에 나타나는 자유재량의 단위로서의 그 해체는 이러한 전조의 결과에 적용될 수 있다. 보다 더 이중적인 것으로, 즉 그것은 “분계(개방, 폐포, 홀림체, 정서체)”를 통하여 획득된 전조를 양태범주로 전환한다.<sup>27)</sup>

만약 우리가 호출이 진정으로 실재하는 필연성에 저항하는, 그리고 부정으로 진출하는, 낭중분할을 확증하고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면, 그때 최초의 양태작용은 의무(having-to)를 부정하는 요망(wanting-to)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양태범주는 도표 1의 기호사각형으로 존재된다.

27) 클로드 질베르크(Claude Zilberberg)는 전성의 전조를 많이 담은 기호사각형 안 4개의 긴장형식을 확립하는 것에 의해 긴장과 양태화를 화해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엇인가 감질나게 하고 있는 이 선택의 자유는 심층레벨에 관한 우리의 기술과 함께 양립할 수 없다. 만약 긴장형식(tensive form)이 안정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들은 더 이상 긴장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제1장 정념의 인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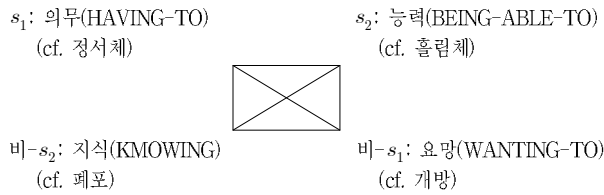


도표 1

따라서 우리는 2개의 양태적인 축, 즉 외인성(外因性, exogenous)의 양태화, 즉 타율적인(heteronomous) 양태화의 축(having-to vs being-able-to), 그리고 내인성(內因性, endogenous)의 양태화, 즉 자율적인(autonomous) 주체의 양태화의 축(knowing vs wanting)과 함께 끝난다. 또한 2개의 양태적인 도식은 내포화하고 있는(virtualizing) 양태화, 또는 내포화된 주체의 양태화(having-to vs wanting), 그리고 외연화하고 있는(actualizing; 선언) 양태화, 외연화된 주체의 양태화(knowing vs being-able)를 나타낸다. 2개의 직시는 안정화하고 있는 양태화(having-to vs knowing)와 유동화하고 있는 양태화(being-able vs wanting)로 나타난다.<sup>28)</sup>

그러나 그것은 양태적인 조직과 기원의 그 전조의 긴장적인 토대를 마음 속에 품는 것이 유용할는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먼저, 동정적인·양태범주로부터 4개의 양태화가 생성되고 있는 것의 바로 그 사고는 이러한 범주가 동차적인 내용—구조의미론에서의 “의미론의 축”이라고 호칭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오직 그때에만 의미(sense)를 만든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원래 방향집합

28)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93~195. “...4. 성공적인 상호정의의 통하여 여러 가지 아티클레이션을 포섭함으로써 기본적인 양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근거를 허락하고 있는 모델의 구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상호정의의 표준과 양태성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은 결합체적(syntagmatic)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각각의 양태성은, 한편으로는 상위계열적 양태구조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호사각형 상에 재현될 수 있는 범주로 정의될 것이다. 따라서 실현화를 주도하고 있는 팽창계도를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인식된 양태성은 다음처럼 도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양태성(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	외연화(actualizing; 선언)	실현화(realizing; 연언)
외인책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책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렝스토르프(M. Rengstorf)의 제안에 따름으로써, 번역-전격관계(그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발화를 함께 연결할 수 있다)로 진입할 수 있는 양태성은 외인책략(外因策略)으로 지시될 수 있다. 단순 양태성(동일한 또는 용화된 주체와 함께 연결하고 있는)은 내인책략(內因策略)으로 불릴 것이다.”를 참조할 것. (역주)

의 호출의 결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인식론적 전제조건인 이론적 구성과 관련된 세목을 차치하고, 우리는 전조가 방향집합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양태범주의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때 그것은 긴장적인 전조와 동차적인 해석이 모든 양태화로 제안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정념적인 형태(조미-화술)의 양태적인 통사론을 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른다.

### 주체, 대상, 그리고 접합

선형 형식화에서, 양태범주 안에서 폭로된 편차적인 텀과 편차적인 관계는 주체, 그리고 대상과 접합과 본질적으로 관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상과 접합이 양태화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으로, 통사론적인 접합의 주체와 대상은 양태범주가 자유재량의 원소로 상위의 문(門)의 관점에서 분할되지 않는다. 오직 실제적인 주체만이 주체적인 작용인자(호출의) 가까이 존재하지만, 그와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오직 그 '대상'만이 호출을 통하여 추정된 그것으로, 즉 범주 안 관계의 세트—형식적·인식적 대상으로서의 기호사각형으로 존재한다. 정체에 따름으로써, 우리는 오직 '근접주체'와 "가치의 투영"만을 다루었다. 전통적으로 주체와 대상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정위'와 '의도'로 고찰된 빈사 관계의 마지막 텀으로 고찰된다. 여기서 우리는 '의도'가 정위의 한쪽만의 그리고 긴장의 성질로부터 결과 되고 있는 '효과'로 이미 정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위의 공간 안에서, 주체와 대상은 두 번째 단계의 효과(기원 효과와 의도된 효과)로 고찰될 수 있다. 호출을 통하여 구성된 주체적인 작용인자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와 함께 그들을 대체하고 있는 가치 투영(결합가)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전조를 삭제한다. 이제부터는, 간청된 범주 안에서, 언급된 주체는 접합의 편차적인 형식(연언, 비-연언, 선언, 비-선언)으로서의 편차적으로 자유재량이 된 텀( $s_1$ , 비- $s_1$ ,  $s_2$ , 비- $s_2$ )을 다루는 것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상태와 변형을 감쌀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자유재량이 된 전성을 만들고 있는 일찍이 제안했던 절차에 순응한다. 그러나 그때, 대상은 원래부터 범주 안에서 주체를 개방하는 편차적인 정향으로 나타나는 통사론적인 그 형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레벨에서 그것은 주체의 궤도상에 편승된 단순한 강제(constraints)로 나타나는



통사론적인 형식의 세트(集合)로 정의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사론적 대상의 ‘참여적’ 성질은 그러한 속성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집합의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선행 약동성의 기세 하에 주체적인 새 작용인자가 아직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정(旅程)을 추적하는 최초의 호출이 이루어진 후에 추정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만약 호출이 힘으로 잔존하고 그것의 전조를 전환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부가긴장성이 재귀적이며, 그 약동적인 정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개의 통사론적인 행위주, 주체와 대상은 이러한 재귀적·약동적 정위의 증명사에 의해 위치 안에 설치되는데, 전자는 어떤 정향으로부터 다른 정향으로 변형된 그 힘의 작용인자로, 후자는 연속적으로 첨가된 각각의 정향에 아중적인 속성의 세트(말하자면, 게임의 규칙)로, 작용한다. 이제부터, 선취권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전성의 전조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양태화가 “게임의 규칙” 또는 주체 그러나 주체 그 자신이 아닌 그 주체에 의해 점령된 각 위치의 성격인 그 ‘속성’의 성격을 만든다. 사실, 최초의 호출에 의해 사위의 파동으로부터 그 자신을 무료로 배달받음으로써, 그 주체적인 작용인자는 이러한 레벨에 지속된 “약동적 정위(dynamic orientation)”에 의해 더 이상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다. 다른 한편, 우리가 허욕과 질투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근본적인 전조(예를 들어, 수진노를 위한 “재 긴장”의 전조)가 집합의 여차여차한 정향(과피할 수 없는 대상과 함께 함께 누적된 연인, 또는 순환으로 가정된 대상과 함께 누적된 비-선인)를 초월 결정하는 통사론의 속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것이다. 따라서 결합가는 통사론적인 대상의 속성으로 불완전하게 전환된다.

### 결합가로부터 가치까지

요청되어 남아있는 문제는 가치의 대상의 형식화와 관계된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 사실, 텀 ‘가치’는 기호학에서 2개의 편차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sup>29)</sup> 예를 들어, 삶의 투기를 버팀벽으로 떠받치고 있는 ‘가치’와 소쉬르

29) 프티토(Cf. Jean Petitot), “Les deux indicibles, ou la sémiotique face à l’imaginaire comme chair,” 파레트(H. Parret)와 루프레히트(H. Ruprecht) 편, “Exigences et perspectives de la sémiotique(Amsterdam: Benjamins, 1985)”에서. 만약 프티토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가치’의 2개의 정의만으로 고찰한다면, 그때 우리는 아포리아(aporia)를 다루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증명사를 우리는 범주 안의 가치와 주체에 의해 의도된 대상의 가치의 전성을 규정하는 “가

(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이해된 것 같은, 구조적 의미 안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그것은 가치의 대상, 즉 삶의 투기에 “언외지시(가치론적인 정위)”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의, 그리고 또 다른 대상과의 대당 속에서 편차를 의미하고 있는 대상의 개념(concept)을 구조화할 수 있는 따라서 이러한 2개의 의미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존재한다. 사실, 가치의 대상의 우화(羽化)는 결합가와 함께 발생하는 것에 의지한다. 그 통사론적인 대상은 형식, 즉 게슈탈트(gestalt; 형태, 경험의 통일적 전체)를 지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주체를 상호 정의할 때, 주체의 투기 바로 그러한 것에 필적할 만한 대상의 “윤곽(contour)”으로 존재한다. 하지만(그리고 이것은 십자형의 관점이다), 의미론적인 투기는 결합가 그 자체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범주에 의지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뱅퇴이유의 프레이즈가 가치의 대상을 그 자체로 제안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호출을 통해서 결합가를 지시한다. 그때 이러한 결합가로부터 통사론적인 대상의 유형은 그것의 의미론적인 투기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being) 없이 “존재를 위해 귀중한” 것으로 출현한다.

스완은 그가 믿음을 증지했던 이 눈에 피지 않는 실재의 바로 그 어떤 것의 현존재... 마치 그 음악이 그가 경험했던 심중-윤리적인 결핍(drought) 상에서 일종의 선택적인 영향을 발휘했던 것과 같이, 경청했던 프레이즈의 파지 안에서, 다시 한 번 그는 욕망과 대체적으로 그의 삶에 헌신하고 있는 힘을 느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p. 208)

일단 이러한 결정이 확립되면, 어느 내용은 결합가에 순응하는 만큼 그렇게 정의된 위치로 투자될 수 있다. 그것은 스완을 위해 사랑할 것이며, 이러한 사랑은 뱅퇴이유의 프레이즈에 의해 강요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다. 의미론적으로 말해서, 만약 그 통사론적인 주체가 열망된 가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가치가 결합가 —즉, 우리가 관측했던 것처럼, 주체에 의해 첨가된 정향의 통사론적인 속성을 통제하고 있는 결합가에 의해 강요된 동일 표준에 반응하여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호적으로 선택한다고, 그가 부가간장적인 것으로 선택한 대상 상의 통사론적인 속성을 강제하기 때문이

---

치의 가치,” 즉, 결합가로 고찰하지 않는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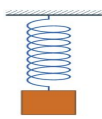
라고, 그리고 그 대상이 주체, 즉 이러한 조우의 표준을 통제하고 있는 결합가를 의미론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결합가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자인했던 그 의미론적인 투자는 사위로 성격화하고 있는 그리고 가치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분극화된 “인력/척력”을 수용한다.

**행위주적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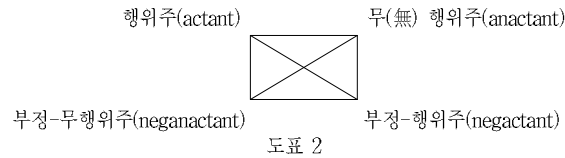
화술적인 레벨에서, 선행 단계에 출현했던 주체와 대상의 행위주는 기호사각형에 번갈아 투기될 수 있었던, 그리고 범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최초-행위주”가 된다. 최초-행위주의 범주의 소인은 아주 잘 알려져 있고, 4개의 장조(長調)적인 정향을 점령할 수 있다(도표 2). 우리는 논쟁의 상호계약·응축(polemicocontractual) 구조의 확립으로 기본적인 것이 된 행위주적인 모델을 발생시킨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의 출현은 최초의 “의미의 초끈(string of meaning)”을 반복하는데,<sup>30)</sup> 그 이유는 ‘근접주체’와 피신타의 교차점의 그리고

30) 초끈이론(string theory): 1. 만물의 최소 단위가 점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끈”이라는 물리이론. 입자의 성질과 자연의 기본적인 힘이 끈의 모양과 진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초끈이론을 줄여 끈이론(super-string theory)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끈은 흔히 분자로 이루어져 눈에 보이는 끈이 아니라 더 이상의 세부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자연계에는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의 4가지 힘이 존재한다. 끈이론은 이 4가지 힘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끈이론은 자연계의 기본입자가 하나의 자유도를 갖는 점(point)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도를 갖는 1차원 끈(string)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끈의 진동 형태에 따라 입자의 질량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성질이 결정되고 우주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끈의 진동이 격렬하면 에너지가 크고 질량도 커진다. 끈의 진동 세기에 의해 힘의 크기가 결정되고, 끈의 진동 패턴에 따라 힘의 종류(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가 결정된다. 끈이론은 이후 초끈이론으로 발전하여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주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통일장이론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과학계를 지배했던 점으로부터 시작하는 빅뱅이론을 부정하여 새로운 개념의 우주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 2. 진동(振動, oscillation):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어떤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이다. 한쪽 끝 부분이 고정되어 매달려 있는 용수철의 다른 쪽 끝 부분을 길게 늘였다가 놓았을 때, 혈액기의 줄을 튕겼다 놓았을 때, 그리고 또한 시계추를 잠시 옆으로 들였다가 놓았을 때의 경우를 각각 상상해 보자. 대상 물체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다. 조금 더 추상적인 예로 일반 가정에서 주로 쓰는 교류 전원을 생각해 보자. 전압이나 전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0을 기준으로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변한다. 또한 전자기파에서 전기장 혹은 자기장의 세기도 역시 위와 같은 의미에서 0을 중심으로 값이



계속해서 아래위로 변하며 요동한다. 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인 물체가 기준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보일 때 혹은 물리적인 양들이 기준값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

동시에 부가긴장성의 우화로 해석된 “가치의 투영” 사이의 분리가 역경 형식의 중재(우리는 이러한 레벨에서의 반주체에 대해 아직 언급할 수 없다)에 기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응축구조와 논쟁구조 간 무한공존의 바로 그 소인은 사위 안에 이미 출현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의미작용의 편애로든지 도래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해석될 수 있는 밀착과 분산 양쪽에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기호현상-화술적인 조직의 레벨에서, 논쟁적인 것의 소인은 2개의 다른 양상을 떠맡는다. 즉, 주체가 가치의 동일한 대상을 열망하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치의 동일한 체계를 공유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서로 경쟁한다. 또는 그들의 화술프로그램 안에 투자된 다른 가치체계는 서로 충돌한다. 더 나아가, 장 프티토(Jean Pettitot<sup>31)</sup>)는 충돌의 파국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층을 강조하여, 범주의 두 텀 간의 상반성이 주체와 반주체 간의 논쟁관계로든지 또는 두 대상 간의 편차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함수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개의 편차적인 문제는 동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생성계도에서, 논쟁의 상호계약·응축 관계의 자격 그것 만으로서의 출현과 관련된다. 보다 먼저 언급했던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공간은 대상의 계약·응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탈의 적절한 관점과 함께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피신탁의 교차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성의 전조는 논쟁관계의 출현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단일성’의 전술한 낭중분질이 “주체/대상”의 짝 또는 ‘상호주체’의 한 짝 중 어느 것이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 우

위로 요동하는 현상을 보일 때 물리학에서는 이 모두를 진동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31) 파리의 고등연구원(L'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의 기호언어학연구회 회원.

리가 인정한다면, 그 인력과 척력의 작용과 반작용(interplay)은 논쟁의 상호계약·응축적인 관계를 예상할 것이다. 이러한 가언은 어느 한 관점보다 더 많은 관점에 흥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주체의 변형을, 아주 흔하게 기술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관계된 현상을 해명한다. 그 대상은 주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주체에 의해 조우된 '장애물'의 대상 상의 일종의 투기에 의해, 주객치환응집(the quest<sup>32</sup>)의 주체를 거절하고, 격퇴시키고, 숨기기 때문이다. 어느 의미에서 반주체는 격상-대상 안에 안치되며, 특히 감동적인 주체와 관계된다. 만약 그 전환 “대상→주체”가 논쟁적인 효과와 동반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긴장적인 낭중분할과 '상호주체'의 단계의 반전을 전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또 그것은 우리가 전에 발생시켰던 두 번째 문제의 양상의 하나로 고찰될 수 있다.

이러한 두 번째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즉, 최초-행위주의 범주, 이어서 논쟁의 상호계약·응축적인 구조의 범주로 존재한다. 시간의 존재 때문에, 그들은 도표 3 안에서 보인 것처럼 기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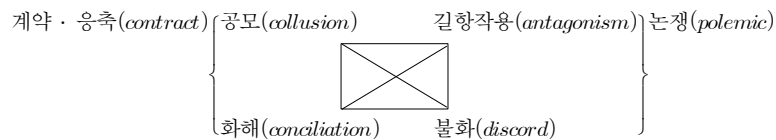


도표 3

계약·응축과 논쟁 구조의 공존은 정념의 우주 안에서 상수로 그리고 때로는 임계상태로(critical<sup>33</sup>) 존재한다. 사실 많은 정념들은 논쟁적인 우주—예

3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53~254. quest(주객치환응집); 주객치환응집은 추구된 가치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전자를 후자 쪽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시한다. 그것은 '순간'의 형식 하에, 그리고 지속적인 모드 하에, 외연화(actualization,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연관계와 상응하는 것)의 관자놀이-공간적인 표상으로 존재한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요망(wanting)의 양태성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주객치환응집의 결정적인 양상은 실현화(realization, 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인)와 상응한다. (역주)

33) critical: 1. 임계값(critical value, 臨界값); 하나의 변수 x가 어느 값이 되었을 때 특이한 상태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임계 상태에 있을 때의 x값. 예를 들어, 디지털 통신에서의 중계기 내에는 펄스의 유무를 판정하는 식별 회로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 펄스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치를 임계값이라 한다. 2. 임계상태(臨界狀態, critical state); 일반적으로 기체는 일정한 온도

를 들어, 계약·응축의 삽화(挿話)로 나타나는 “에뮬레이션(경쟁심, 또는 대리 실행, emulation),”<sup>34)</sup> 그리고 대항영역 안에서 가능한 응보와 동반된 페어플레이 안에서, 계약·응축의 윤상대를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으로, 다른 정념은 계약·응축의 우주 안에서 논쟁의 분출을 확증한다. 이것은 계약·응축적인 그리고 평온한 지평 안에서 좌절을 발생시키고 있는 ‘분노’의 경우로 존재한다. 논쟁적인 것과 계약·응축적인 것 사이의(어느 의미에서 감내할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있는, 순조로운 평온과 제어하기 어려운 불화 사이의, 이러한 종류의 작용과 반작용은 담화 안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화의 결과로 기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사위적인 긴장성의 재검토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논쟁의 상호계약·응축적인 구조가 낭중분할과 의미의 최초의 동요 안에서 예상된다고 가정되면, 그것은 그들이 근사와 오버랩의 논리를 추종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치 19세기 소설의 ‘보수주의’와 같은, 다시 말해서 소설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전성의 흐름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발자크(Balzac)와 스탕달(Stendhal)의 소설과 함께, 이러한 재긴장의 전조로부터 발생하는 저항(감속)과 함께, 정념이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것인 사회적인 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sup>35)</sup>으로서의

---

에서 압축하면 밀도가 커져서 액화하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어느 한도를 넘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액화하지 않는다. 이 한계가 되는 온도를 기체의 임계온도라 하고, 임계온도에서 액화시키는데 필요한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또 임계온도임계압력 상태의 기체를 임계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액체상과 기체상이 공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밀도가 같아져서 물질은 기체상이나 액체상 어느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암모니아처럼 상온에서 쉽게 액화할 수 있는 물질은 임계온도임계압력이 모두 높지만(135.4℃, 21.5atm), 헬륨(임계온도 -267℃)이나 산소수소는 임계온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한때 이들 기체를 액화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영구기체라고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체는 그 임계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있으면 이상기체로서의 성질에 가까워져 보일-샤를의 법칙  $pV=RT$ 를 만족하게 된다. (역주)

34) emulation: 1. 한편으로는, 경쟁심. 2. 다른 한편으로는, 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처럼 똑같이 작동하기 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 기술이나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 3. 에뮬레이터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모방하는 “전자 기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능력”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많은 프린터들은 HP 레이저젯 프린터를 따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HP 프린터에 맞춰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HP 프린터를 따라함으로써, 프린터는 진짜 HP 프린터에 맞춰진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다. 에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를 한 장치가 정말로 다른 장치라고 믿도록 속이는 것이다. (역주)

35) 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 1. 길항작용과 피드백작용의 차이; 어떤 현상에 관하여 상반되는 2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서로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라 하며 이 때 상반되는 2가지 요인을 길항인(拮抗因)이라 한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일으

바로 그 충돌의 운상대를 창조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사물에 대한 이러한 현사법(現象法)은, 다시 말해서 브뢴달(Vigo Brøndal)로부터 간접적으로 차용한 복합 팀의 그 관념은 다양한 딸림음의 우점도(優點度, dominance)에 의해 통제된 혼합형식에 고유 논쟁의 상호계약·응축 구조를 전제한다. 딸림음의 우점도의 변이(變數)가 팀의 영향력의 증가(다른 것의 영향력 안에서 감소하는 어떤 상응과 동반된) 때문에 연속 모드 안에 불변적으로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들의 점착성을 사위의 긴장적인 전조로 확증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논쟁의 상호계약·응축의 그 체계(범주적인)는 일련의 불균형의 팀입에도 불구하고 딸림음의 우점도의 바로 그 변이(變數) 안의 새로운 균형으로 보일는지 모르는 각각의 정향으로 재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호사각형 상의 그 궤도는 논쟁적인 그리고 계약·응축적인 형식 사이의 딸림음의 우점도의 역환(逆換)의 연속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대상으로서의 최초-행위주는 가치체계의 범주를 반영한다. 사위의 2치화(二值化, binarization)<sup>36)</sup> 후에, euphoria(행복감)와 dysphoria(불쾌감)에 의해 표지된 “가치의 투영”은 기호사각형 상에 투기된다. 긴장적인 주체와 결합가 간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레벨에서 대상이 융합 윤곽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반대상(antiojects)”과 “비대상(monobjects)”을 구별하는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범주화 후에, 대상의 다중결합가는 앞에 정박한 대상을 “좋은(선,

---

킨 원인에 작용하여 변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피드백작용과 차이가 있다. 길항작용의 예; 주로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약물·세균·근육·신경 등에서 볼 수 있다. 근육을 피는 작용을 하는 신근과 구부리는 작용을 하는 굴근,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교감신경과 억제하는 부교감신경,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세포의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이온 사이의 길항작용은 잘 알려진 예이다. 노랑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곤충의 변태를 조절하는 에디손(ecdysone)이 인슐린과 길항작용을 일으켜 곤충의 성장과 성숙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물의 길항작용; 약물의 길항작용은 약물을 투여했을 때, 다른 약물의 존재에 의해 그 작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카페인·스트리키니네 등의 흥분제와 바르비탈류의 수면제나 항히스타민류의 진정제, 하제(下劑)와 지사제, 발한제와 지한제, 혈관수축제와 혈관확장제, 파라아미노벤조산과 술과제, 포도당과 인슐린 등을 들 수 있다. 약물의 길항 작용은 약물 투여시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벼의 무스카린 중독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트로핀과의 길항작용을 이용하여 해독한다. 2. 세균의 길항작용; 각종의 세균을 혼합배양하면 어떤 균종(菌種)은 그 배지(培地)가 자기 발육조건에 알맞아 왕성하게 발육되어 다른 균종의 발육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푸른곰팡이는 페니실린을 생산하여 각종 병원세균의 발육을 억제한다. (역주)

36) 2치화(二值化, binarization): 흑백 또는 색채 화상 등 다치(多值)의 화상으로부터 2치(1, 0)의 화상을 얻기 위한 처리. 임계값 처리가 쓰인다. 얻어지는 화상은 2치 화상이라 부르며, 1, 0을 각각 흑백에 대응시켜 취급한다. 2치화는 화상 가운데서 대상물을 꺼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며, 일단 2치 화상이 얻어지면 여러 가지 기하학적 취급이 가능하게 된다. (역주)

good)”과 “나쁜(악, bad)”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후자는 주체가 부가긴장성을 통하여 투기하고 있는 감정의 인력과 척력의 성격으로 자유롭게 분극화된다. 결합가의 이러한 객관화 없이, 그러면서도 euphoria(행복감)와 dysphoria(불쾌감)의 객관화 때문에, 주체는 그를 위해 그리고 생성케도를 통하여 그에 의해 가치가 안정된 운상대를 반드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력 또는 척력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자율적인 가치론의 지위에 동의하지 못한다. 많은 정념적인 설화는 대상의 우발사고의 케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A la recherche du temps perdu)”의 내레이터는 알베르틴느(Albertine)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가 떠나고 있는 것을 응시하는 권태와 무기력의 기원인 “비대상(nonobject)”이 된다. 그때, 뱅퇴이유 양(Mlle de Vinteuil)과 그녀의 친구와의 관계가 폭로된 후에, 그녀는 그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반대상(antiobject)”이 된다.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읽은 고통은 그녀와 그가 아직 결합하고 있는 내레이터에 보다 더 가까운 그녀를 묘사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방향범주는 접합과 인력/척력의 양쪽으로 자유롭게 나타난다. 사실, 비록 명백히 불쾌감일지라도, 이러한 반대상(레즈비언의 친구)은 주체의 부가긴장성을 매력적이고 재활동적인 것으로 존재케 한다. 사랑은 이러한 역설로부터 재탄생된다. 다시 말해서, 가치론에 의해 획득된 자립심은 불가해한 딜레마와 직면한 주체의 위협 속에서, 양태화의 몇몇 레벨을 허락한다. 이 예에서, 접합은 “결합가(즉, “여기에 실행할 가치가 있는 어떤 무엇이 존재하는...”)”에 의해 떠받쳐진 통사론적인 대상의 양태화에 의해 계속 지배를 받게 되는 반면에 가치론은 dysphoric(불쾌감)으로서의 가치의 대상을 양태화 한다.

마치 의미작용의 생성케도인 것처럼, 그것은 누증적인 그리고 트네메적인(mnemic)<sup>37)</sup> 규칙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생성절차는 어느 한 레벨의 속성을 다음 레벨에서 결코 ‘망각’하지 못하며, 같은 방식으로 어느 한 레벨로부터 이어받게 된 그 속성 또한 전 레벨의 속성을 결코 말소하지 못한다.

37) 트네메(mneme): 독일의 동물학자 R. 제몬에 의하면 특수하게는 식물과 원생생물을 포함한 생물학적 기억을 말하며, 널리 생물 일반에서 과거 자극의 영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용(變容)이 생기는 사실을 말한다. 또, 제몬은 유기체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외계로부터 받은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며, 그것은 인상(印象)되어 엔그램(engram: 생활체 중에 남은 경험의 흔적 또는 기억흔적)으로서 남고 이 엔그램은 후에 다시 활동하여 마찬가지로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영위하는 통일기능을 트네메라고 하였다. (역주)



가치의 대상의 범주화는 그가 감지했던 영향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근사치와 오버랩의 선재논리를 결코 회피하지 못한다. 어떤 조건 하에서, 많은 가치의 범주화된 대상은 애매성의 레벨로 지속된다. 예를 들어, 당뇨병에 대한 일반 개업의의 담화에서, '설탕'은 영양학의 화술프로그램 안에서 euphoric(행복감)으로 존재하는 조정적인 대상으로든지, 또는 착란적인 반-레벨에서 사실상의 해독인(당뇨병의 기원인) 부정적 대상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과잉과 약수(約數)는 대상의 조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주체의 민감성(생리학적)과 관계된 것으로서, 대상 고유의 속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즉 그들을 휘감아 들고 있는 영웅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그리고 무가치한 또는 그것의 예정된 수신자로 존재하지 않는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마술적 한 잔의 독약과 비교하려고 시도했다. 그러한 자격으로서의 euphoric(행복감)인 대상은 행복감임에도 불구하고 해로운 것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양면가치(ambivalence)<sup>38)</sup>는 복합 텀의 성격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두 양태화가 동일 레벨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대상 그 자체를 실행하고, 또 다른 것은 주체와 함께 접합을 실행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체를 위한 세계(world-for-the-subject)”의 가치를 정의하고 있는 결합가와 마찬가지로, 범주화의 결과와 가치체계의 객관화의 결과 양쪽을 표현하는 담화를 추측하는 그것에 한해서만 그것을 고찰할 수 있다.

#### 양태적인 주체

그 점진적 복합화의 변화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작용의 재귀성이 임계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포용하게 된다. 새로운 각각의 전환(호출, 이산화, 범주화 등)은 전의 어떤 것의 결과에 적용되며, 따라서 주서를 그어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범주 또는 실재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양태화는 대상의 그리고 접합의 양태화의 중재를 통해 행위주, 특히 주체에 영향을 끼친다. 하여간, 우리는 화술적인 발화의 각각의 유형에 고유의 주체와, 즉, 접합이 상태의 주체의 결과로든지 또는 작용으로든지, “상(相, phase)”으로든지 또는 “소로(小路, path)”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고찰되고 있음을 추종하고 있는, 실행

<sup>38)</sup> 양의성(兩義性), 애증 따위의 반대 감정 병존, 상반되는 감정의 교차, 양면 가치. 양면수가(兩面數價). (역주)

의 주체와 동정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소인과 실행가인, 다시 말해서, 이론의 경제적-유기적 조직(economy) 안에서, 정념이 주체의 “존재(being),” 그리고 그의 “실행(doing)”을 부정하는 것에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을 조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념이 능동성과 함께, 또는 능동성의 주체와 함께 실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후자가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being)”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마지막 분석에서, 정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주체는, 비록 그가 능동성 안에 포용되어 발생될지라도, 항상 “존재(being)”의 양태화가 된 주체(즉, 상태의 주체로 고찰된 주체)로만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으며, 거기서 우리는 사건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를 구별하여 환원했으며, 정념을 주조하고 있는 동류교배(同類交配)의 절차를 제안했고, 육체를 지각하는 감정의 중재 상에 근거를 두었다.

**정념과 실행:** 그러나 우리는 주체의 정념이 실행으로부터든지 또 다른 주체(마치 ‘적분과 같은)로부터든지 하여간 어느 쪽으로부터든지 유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위로, 정신의학자들이 “조치(taking action)”라고 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광신(enthusiasm)”과 “절망(despair)”은 창조로든지 파괴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언외감수의 미소적인 것(pathemic)의 차원에서 잠재적인 실행(doing)의 주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길들인다. 제2단계의 담화로 나타나는 한, 정념 그 자체는 예를 들어 우리가 ‘파롤행위’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행위 그 자체로 고찰될 수 있다. 감동적인 주체의 능동성은 실제적인 사실에서 대응될 수 있는 어느 착란적인 주체의 그것과 유사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일련의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의(pathemic) 행위로서의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의 정념적인 담화는 수용적인 담화(다시 말해서, 마치 죽음과 함께 파동을 치는 삶처럼)와 혼란 또는 형식(어형)의 변화로 마치 혼신(混信)처럼 서로 간섭한다. 더 나아가, 분석된 정념은 교묘히 다루기(책략, 속임수, manipulation), 사주(使誘, seduction), 고뇌(tortures), 시나리오 등의 능동성처럼 통사론적으로 구성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분석이 이러한 레벨에서 보면, 정념의 통사론은 프로그램적인 또는 인식적인 통사론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화술프로그램의 형식을 선택하며, 그래서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의 작용은 언외감수

의미소적인 것의 상태를 변형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다양한 차원 간에 일어나는 혼신을 고찰하기 시작할 때, 난국과 반드시 조우하게 된다.

**실행의 존재(The Being of Doing):** 고유의 양태화로 돌아가서, 그리고 정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태의 주체로 돌아가서, 우리는 두 종류를 구별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떤 주체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절차에 따라 대상 안에 투자된 양태가치와 관련하여 양태화가 된다. 타자는 언어능력의 레벨에서 멋대로 능동성과 함께 양태화가 될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편차는 우리가 양태적인 언어능력과 양태적인 존재자를 확립했던 용어법적 대당에 의해 고찰되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선망( envy )”의 주체가 어찌면 가치의 대상에 의해, 라이벌의 중재에 의해, 훌쩍놀이처럼, 운반된 요망(wanting-to)의 중재를 통해서만 양태적인 주체가 된 순수 상태의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을지도 모른다. “선망( envy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stricto sensu ) 언어능력으로 환원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역으로, “에뮬레이션(경쟁심, 대리 실행, emulation)”의 기술은 실행의 그리고 성취가 필요한 양태성의 어떤 표상 없이 실행될 수 없다. 모방자( imitator ; 또는 emulator )는 그의 언어능력이 맞물려 포용된 그리고 문제 속에 끼어들게 된 아종적인 프로그램 오직 그것 때문에 양태적인 주체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2유형의 양태화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균질화( homogenization )에 따르고 있는 제1의 텀으로 번역-전격( 轉格 )<sup>39)</sup>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존재한다. 사실 “에뮬레이션(경쟁심, emulation)”은 “타자와 마찬가지로 또는 더 좋게 실행하는( as-well-or-better-than-the-other )” 요망( wanting-to )을 확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행요망( wanting-to-do )은 존재요망( wanting-to-be )을 “그 또는 실행하는 그로( him-or-as-he-who-does ),” 즉, 타자의 어떤 양태적인 상태와 함께 앞으로 더 나아가 속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뮬레이션의 의도는 타자의 프로그램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무엇으로든 지 하여간 발생되는 그의 그 프로그램을 성취함으로써 그 타자에 의해 투기

39) 전격(轉格): ① 명사·대명사와 같은 실질 개념을 나타내는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 즉 주격·목적격 등의 격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② 삼단논법의 대소 두 전제에 있어 매개념(중명사)의 위치에 따라 생기는 추론식의 형식이 전치되는 것, 즉 제1격 제2격 제3격 제4격이 전치되는 것의 이중의미. (역주)

된 양태적인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상태,” 즉 타자의 언어능력은 “감정의 상태,” 즉 에블레이션의 주체에 의해 그 자체로 제안된 양태적인 이미지로 전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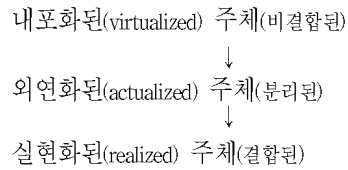
정념의 기호학의 한계 안에서, 대상 또는 접합의 중재에 의해 주체의 양태화와 함께, 우리는 그가 포용된 능동성의 프로그램의 중재를 통하여 주체의 양태화를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해 제1목류의 주체, 상태의 주체, 또는 실행의 주체에 개의치 않고, 또한 정념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제2목류의 주체, 양태적인 주체와 관련된다. 양태집합이 접합의 연속적인 구체화(avatar)로든지, 또는 프로그램의 진화로든지, 하여간 어떤 쪽으로든지 관계로 전개되며, 따라서 그 양태적인 주체는 일련의 다른 양태적인 동정으로 나타난다. 대상이 “바람직한 것”으로든지, “유용한 것”으로든지, 또는 “필연적인 것”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쪽으로든지 양태화가 되는 것에 따라, 주체의 양태적인 기원은 변할 것이며, 그는 다음처럼 나타날 수 있는 일련의 순식간의 양태적인 동정을 겪게 될 것이다.

$$S \rightarrow s_1, s_2, s_3, \dots s_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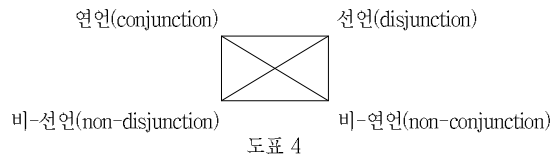
“1, 2, 3, …n”은 연속적인 양태집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태적인 주체는 우리가 양태적인 형태(초미-화술) 안에서 공준(公準)되는 것이 필요할 것인 양태적인 변형으로 확립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존재자의 모드와 존재자적인 시뮬레이크러:** 더 나아가, 화술적인 기호학 안에서, 우리는 그가 변형되는 동안 화술적인 행위주의 존재자의 다양한 모드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주체의 일련의 규칙들을 동정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용법에서, 이러한 시리즈는 3가지의 규칙으로 한정되는데, 그것의 각각은 접합의 유형 상에서 발견된다.

제1장 정념의 인식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집합의 범주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편차적인 텀으로 고찰한다면, 우리는 4개의 정향, 비-선언의 존재자를 깨닫고 유의한다면, 그것은 존재자의 모드의 목록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표층의 통사론적 주체의 존재자의 모드가 집합의 범주 안에서 주체의 정향과의 관계로 정의됨으로써, 우리는 또한 “비-선언”이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정향과 주체의 존재자의 모드를 정의한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외연화된 주체의 부정으로부터 결과하는 한, 그리고 실현화된 주체에 의해 전제되는 한, 이러한 역할을 “잠재화된 주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것으로부터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제안했던 것을 재검토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는 첫 번째의 문제는 이론의 보편적이며 경제적-유기적 조직(economy) 안에 에워싸인 텀으로 그리고 변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 기호학적 존재자의 구성의 궤도로 고찰된 기호학적 이론의 투시도법으로부터, 존재자의 모드는 이러한 구성의 다양한 단계의 성격을 만들고, 심층 레벨로부터 착란적인 표출까지의 인식론적 주체의 소로(pathway)를 구별한다. 그것은 담화의 주체가 “실현화된(realized)”다고 언급될 수 있는 이러한 인식론적 프레임 안에 존재하고, 반면에 화술적인 주체는 오로지 “외연화된(actualized)” 것으로만 존재한다.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주체적인 작용인자가 관련되는 한, 그것은 “내포화된(virtualized)” 것으로

존재한다. 확립하고 있는 앞의 시도에 따라 그리고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선행하는 레벨에 따라, 그것은 사위의 공간 안에 나타나는 긴장적인 주체를 위한 “잠재화된 주체(potentialized subject)”의 역할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이끌리고 있다. ‘근접주체’는 잠재적인 주체이다. 그것은 이중의 부정-호출에 의해 “내포화된/외연화된 주체”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세팅을 착란적인·깊이 감동된 주체를 실현하고 있는 담화로 직접 불러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은 자명하지 못하다. 접합의 범주로부터 확립된 통사론 안에 외연화되고 실현화된 주체 사이에 주체가 정위됨으로써, 이러한 경우의 잠재화된 주체는 내포화된 주체 앞의 궤도의 발단에 나타날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난국을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일찍이 정의했던 양태적인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그것은 화술적인 통사론의 주체의 바로 그 존재자의 모드(귀납적)가, 그보다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미 넘지시 암시했던 그 존재자의 모드(연역적)와 함께 혼합되었음이 틀림없고 명백하다. 그들은 통사론적인 레벨에서 그들과 함께 동시에 동일 공간을 연역적·필연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통사론이 언어능력의 획득의 순간에 화술적인·신인동형동성적인 통사론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망(wanting) 그리고 의무(having-to)는 “내포화된(virtualized)” 주체를 결정하고, 반면에 지식(knowing) 그리고 능력(being-able)은 “외연화된(actualized)” 주체를 결정한다. “실현화된(realized)” 당해 그 주체를 위해, 언어연기(performance)는 유희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의 요망(wanting)을 위해, 그것은 위치(place)가 이제 이러한 궤도상에 잠재화된 주체(potentialized subject)로 할당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관측하기가 어렵다. 당분간, 우리는 요망 그리고 의무와 함께 고취되기 전에 가치체계의 존재자가 발견될 때 설립된 주객치환응집(the quest)의 주체를 상상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예비설립은 그를 잠재화된 주체로 만들지도 모른다. 아직 해답이 채택되지 않아서, 그것은 이러한 전체 궤도, 즉 “전형적인(classical)” 양태화와 상응하는 오직 2개만의 존재자의 모드에 따르고 있는 한 아직 진리가 아니다. 또 다른 2개, 즉 “잠재화된 주체”와 “실현화된 주체”는 4개의 양태성의 정진(正典)적인 시리즈로 추락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는 “가치의 육감”과 함께 연결된 그 설립이 양태화에, 그리고 피신탁의 교차점과 관계된 양태화에도 타당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믿음(belief<sup>40</sup>)을 다루게 될  
 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언어연기는 양태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능동성이 실행의 존재(being of doing)로서의 제2의 단계에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이것은 “외연(acting; being-able, knowing)”의 주  
 체, 즉 실행(doing)의 제1단계의 주체, 그리고 “외연가능의(active; having-to,  
 wanting)”의 주체, 즉 제2단계에서 포착된 실행의 존재(being of doing)의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그 편차와 상응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소위 외연가

40) “belief vs believing”: 전자는 지각차원 즉 지식의 믿음, 후자는 언외지언의 확신  
 (confidence)으로서의 신앙이다. 이들은 상호주관적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 24~25.  
 believing(croire); 신앙; 1. 상태말화에서의 주체의 수용(acceptance)으로서, 신앙(believing)은 확  
 실성의 양태범주에 의해 과잉 결정된 인식행위로 보인다. 이러한 범주는 논리학적 그리고 기호  
 학 상 당대의 글쓰기 안에서 **이원적인 해석(twofold interpretation)**을 소유할 수 있다. 그때는  
 비-광각의(alethic) 범주로 획득된다. 그때 ‘가능성’의 동의어로서 신앙은 용어 “비-반존재의무  
 (not-having-not-to-be)와 동정(同定)된다. 평소에 객관적인 확실성(certainty)은 자율적 인식범  
 주로서 용어 주관적인 확실성(certitude)과 함께, “존재신앙(believing-to-be)”으로 획득된다. 도  
 식 “가능한/불가능한”(어느 세 번째 텀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적 대당을 구성하는) 그리고 도식  
 “개연적인/비개연적인” 사이의 기초요소의 편차 상에서 그것은 단계적 변화를 허락하며, 우리는  
 인식론적 범주를 위하여 자연언어의 명목으로 신앙을 바라보도록 제안한다. 2. 커뮤니케이션의  
 축(실재적 또는 내적 담화의 경우의 ‘이미지적’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신앙’은 “믿음-원인  
 (causing-to-believe),” 또는 설득(persuasion)과 대당이 된다. 그 자체로, ‘신앙’은 해석적인 실행  
 (doing)을 성취하는 언외청자(enunciatee)의 영역과 상응하며, 반면에 “믿음-원인  
 (causing-to-believe)”은 설득적인 실행(doing)의 책임 하에 언외화자에 의해 성취된다. 비록 단  
 족할만하게 인정하는 정의가 아직 불가능할지라도, 해석적인 실행의 프레임의 관점은 해석적인  
 실행의 결과와 최종 생크션으로서, 그것과 관련된 좀 더 좋은 유출의 집합을 정의하도록 우리에  
 게 허락한다. 사실 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신앙의 기초만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또 다른 담화와  
 동시에 과학적 담화(최근에 고찰했던 분석처럼)의 엄격한 영역을 구성한다. 더 나아가 보편적으  
 로 신앙으로부터 독립해서 표현될 수 없는 설득적인 실행으로서의 “믿음-원인(causing-to-be-  
 lieve)”은 교묘히 다루기(또는 조작, manipulation)의 주요한 형식의 하나를 구성한다. 따라서 신  
 앙은 기호학적 탐구가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정위되어야만 하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나타난다. —**twofold**: 이중진리((二重眞理 twofold truth). 후기 스킨라철학에 나타난 진리관으로,  
 진리는 계시에 의한 종교적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 후기 스킨라철학에 나  
 타난 진리관으로, 진리는 계시에 의한 종교적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 진  
 리는 많이 있어도 결국 하나의 진리(근거)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것이 그리스철학의 진리관인데,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계시(신앙)의 진리”와 “이성(理性)의 진리”로 구별한다.  
 교부(敎父)들은 이성은 신의 빛을 받아 작용한다고 하였고, 스킨라철학은 자연적 인식을 신학의  
 준비 또는 변증으로 보았으므로, 두 진리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인간이성의 자연성과  
 자존성을 깨닫게 되자 이 둘의 모순이 드러나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이중  
 진리설은 이 과도적 단계에서 나타난 것으로, 아라비아 철학자 이븐 루슈드(Ibn Rushd, 1126~  
 1198)와 그의 제자 시제 드 브라방(Siger de Brabant, 1240~1284), 후기 스킨라철학자 존 던스  
 스코터스(Johannes Duns Scotus, 1266~1308), 오컴(William of Ockham, 1285?~1349) 등이 주  
 장했다. 그때 이성의 능동성과 수동성, “필연적인 명제”와 “우연적인 명제”에 대하여 논의가 많  
 았던 것은 서양 철학사상 중요하다. (역주)

능의(active) 주체의 존재(being)는 언어언기 그 자체의 실현화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고유의 “양태적인 언어능력”을 생기게 하는 성격이 아니다.<sup>41)</sup>

이 간략한 관측은 감동적인 주체가 실행(doing) 쪽을 향한 관점과 함께 언어능력의 프레임 안에서 이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동정된 4개의 양태화의 텀 안에서 단독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특히 요망(wanting), 지식(knowing), 능력(being-able), 의무(having-to), 또는 신앙(believing)에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는 그 양태화가 된 상태를 지시하는 “내재능동성(hyperzctivity)”에 대해 언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미에 민감하게 되고, 갈망의 어떤 상태의 동정을 위한 기준으로 요청된다.

양태범주(wanting, being-able 따위)의 텀으로 정의된 양태집합의 자율성 때문에, 감동적인 주체는 결국 접합 그 자체(junction per se)가 최초의 양태화라고 언급하게 된, 그 존재자의 모드에 의해, “양태화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의 포착된 자율성 때문에, 존재자의 모드는 화술적인 변형의 궤도 안의 어떤 단계와 단순하게 상응한다. 그러나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 안에서, 그것은 주체를 위해 양태화가 된다. 예로써, “겸손(humility)”을 검토하기로 하자. “겸손한(humble)” 사람은 그 자신을 필연적으로 무능한, 어리석은, 아주 바보스런 부족함으로 꽤히 고찰하는 것인가? 종교적-윤리적 토론 없이, 겸손은 사건의 상태의 존재자의 성격을 결코 만들지 못하며, 그러나 차라리 그것을 우리는 감정의 상태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존재자의 모드라고 지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빈자로든지 또는 부자로든지, 선언으로든지 또는 연언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 발생하든지 간에, 망상(important)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그것은 그것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그것이 그 자신에 의지하는 그 안의 선언으로 존재한다.

함수의 두 유형 사이의 편차 때문에, 그것은 의심 없이 2개의 다른 방식

41) 능동성(activity)은 연역적·필연적인 것으로서 내인책략(endotactic), 다시 말해서 제2단계의 내포화(virtualizing)를, 즉 외연가능의(active)의 “having-to와 wanting”를 의미한다. 다시 한 번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라. (역주)

양태성(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2단계	외연화(actualizing; 선언)=1단계	실현화(realizing; 연언)
외인책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언기, DOING)
내인책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으로 그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충당될지도 모른다. 표현 “존재자의 모드”는 지금까지 기호학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지시할 것이며, 우리는 주체의 투기를 정념적인 허수로서의 텀 “존재자적인 시물레이크러(existential simulacra)”로 사용할 것이다.

**양태적인 주체와 존재자적인 시물레이크러:** 존재자적인 시물레이크러의 그리고 이중적인 양태집합의 관계적인 자립은 그러한 시물레이크러가 오로지 양태집합의 증명사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가 없었다면, 외연화된 주체는 분리된 주체로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선언은 그것의 관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언의 발인된 담화도 관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존재요망(wanting-not-to-be) 안에 삽입된 “포착(apprehension)”의 경우, 만약 주체가 그 자신을 ‘외연화된’ 그리고 분리된 것으로 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건의 상태라고 하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요망(wanting)”의 양태집합의 중재에 의해서만 존재할 것이다. “갈망(avidity)”과 같이, 만약 주체가 사건의 상태와 관계된 그것의 정향과 상관없이,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상의 존재자의 모드와 상관없이, “실현화된” 그리고 결합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양태집합의 효과에 의지할 것이다. 양태적인 존재자의 시물레이크러에 관한 검토는 정념적인 허수의 구성 안에서 양태집합을 위한 바로 그 기본적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유도한다. 담화 안에서 화술적인 발화와 그것의 달성 간에 그 자체를 삽입함으로써, 양태집합은 정념적인 담화가 전개될 수 있는 허수의 기호학적 공간을 개방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각개 주체의 가능한 프시케(psyche)<sup>42)</sup>로부터 유래되기는커녕, 정념적인 ‘허수’는 텀의 심리학적 의미보다 차라리 인류학적 의미 안에서, 인간적인 허수의 기호학적 형식처럼 보편적으로 인식된,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의 속성으로부터 결과한다.

이것은 순식간의 양태적인 동정과 존재자적인 시물레이크러의 두 시리즈의 비교가 정념 분석의 절차 중의 하나로 존재할 것인 그 이유로 존재한다. 사실, 정념적인 주체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소인적 양태집합은 그것의 궤도

42) psyche: 프시케(영혼을 인격화한 것으로서, 나비 날개를 단 미녀의 모습을 취함; Eros의 애인). 심리학; 정신, 프시케(mind, 의식적·무의식적인 정신생활의 전체). (역주)

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존재자의 시물레이크리를 필연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결코 발생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위협을 받게 된 주체”는 비존재요망(wanting-not-to-be)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지만, 그 허수의 궤도는 반대상과 함께 연언 상에서, 즉 실현된 주체의 불쾌감적인 이미지 상에서, 요망(wanting)의 양태집합에 의해 개방된 허수의 공간 안에서, 외연화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바로 그 내포화된 상태로 발견된다. 이어서 후자는 투시도법적인 신앙, 그것을 양태화하고 있는 불쾌감적인 예기 등에 의해 중복 결정된다. 게다가 이러한 두 시리즈의 중복은 발견적인 가치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 시물레이크리(simulacra)

“양태적인 허수”의 우화는 우리로 하여금 담화의 정념적인 차원의 지위를 검토하도록 강요한다. 사실, 정념은 성별(聖飾)적인 담화 안에서 긴장적인 그리고 격아강적인 그 양측으로서의 데이터의 세트를 제공하는데, 그 경우는 예를 들어 기왕에 존재했던 또는 존재했는지 모르는 상황, 또는 질투를 위한, 사랑과 라이벌의 대상을 화해시키고 있는, 강력한 포착(또는 포박)을 창조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적인 상황을 위한, 노스텔지어와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경우 안에서, 우리는 정념이 사건의 상태 안에서 주체에게 할당된 효과적인 존재자의 모드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 순간의 과거를 위한 노스텔지어와 미련은 완벽하게 행복한 주체를 아주 잘 정복할 수 있다.

**양태적인 시물레이크리(simulacra):** 정념의 기호학의 프레임 안에서, 이것은 양태적인 주체의 확립이 양태적인 시물레이크리의 이론과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로 존재한다. 이 이론은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 안에서 행위주적인 역할의 말하자면 극도의 불안정성의 비망록으로 존재하고 있는 관찰을 보다 더 이탈하고 있는 관점을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정념에서, 우리는 주체로 변형된 사랑의 대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것은 당해 대상이 타자들 간 환상의 화술 안에서, 생명이 주어진 존재(being)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흔해빠진 물신숭배의 행동으로 존재할 때, 보다 더 인상적인 것의 모든 것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 진기함은 그것의 대상을 주체

로, 실로 저항하는, 벗어나는, 위장하는 반주체로도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그들의 “소란반자(coffers)”<sup>43)</sup>를 주체로, 실제적인 분신(分身)으로 간주하는 수전노의 요망(want) 없이, 다시 말해서, 전혀 수전노가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념 안에서의 대상은 감동적인 주체의 주체-파트너가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가언은, 즉 정념을 기술하는 그래서 오직 보편화된 것으로만 만들어진 그 구조는 상호주체적인 구조로, 또는 보다 더 명확히 말해서, 각각의 대상적인 관계가 그곳에 잠재적인 상호주체성을, 융합의 일종으로 윤곽이 만들어진 상호행위주성(interactantality)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로, 존재한다. 우리는 외관상으로는 그 자체를 대상의 정념으로, 단일한 정념의 원형으로, 표출하는 허욕을 서로 마주보게 그리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할 것인데, 사실, 그것은 상호주체적인 규정화(또는 규정철회)로 포착하는 한편, 그것은 대상이 주체의 공동체 안에서 함수 작용을 하고 있는 단순히 규칙의 세트에 존재하는 그 속성으로 선택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역할의 불안정성은 두 기호학적 우주, 즉 정념의 숙주(宿主)인 그 담화의 우주와 정념 그 자체의 우주를 폭로한다. 전자를 위한 ‘대상’인 소란반자는 후자의 경우 안에서 수전노를 위한 ‘주체’가 된다. 그 감동적인 주체는 한편으로 ‘효과적인’ 주체로 분할될 수 있고(마치 숙주 담화로 표출된 것처럼), 제2단계의 표상으로 투기된 것처럼 정념적인 형태(초마-화술) 안에서 “분장(扮裝)된” 주체로도 분할될 수 있다. 두 사례로의 이러한 주체의 분할은 특히 내재적인 관측자가 효과적으로 분리된 상태의 주체와 실현화된 주체의 상태로 존재하

43) coffers: 1. 소란반자; 천장이나 아치 따위의 안쪽에 만든 장식적인 오목한 부분. 2. 소란(小欄); 반자 판을 받치거나 양관문의, 즉 선대(창이나 문짝 좌우의 뼈대), 중간띠(문짝의 중간에 가로 댄 널찍한 띠장), 정두리(비바람 따위로부터 집을 보호하려고 집채 안팎벽의 둘레에다 벽을 덧쌓는 부분) 따위로 울거미(문틀과 같이, 뼈대를 짜서 맞춘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를 짜고 그 사이에 판자나 합판을 끼워 넣어 만든 서양식 문의, 양관(대패질할 때 밑에 받쳐 놓는, 판판하고 길쭉한 나무판자)을 고정하기 위하여 대는 가는 나무오리. 3. 길게 따 낸 톱. 4. 반자(반자(ceiling); 실내의 윗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시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配線)·배관을 감추고, 소리·열·기류를 차단 또는 흡수하거나 빛·소리를 반사하여 실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다. 반자는 대개 지붕틀에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실이나 침실에 제물반자(바닥판의 아랫부분을 마감 재료로 바르거나 노출시킨 반자)를 만들어 반자와 지붕틀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천장의 마감 재료는 합판·흡음판·회반죽 등을 쓰며, 종이천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방의 사용목적에 따라 높이·모양·재료·빛깔 등이 달라지는데,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반자의 종류에는 목반자·빋반자·우물반자·철반자·평반자 등이 있다. (역주)

는 시뮬레이크립의 감동적인 주체를 비교하고, 두 실례가 혼성으로 존재하는, “완고한 언동(obstinacy; 후설의 지향적 noesis와 같은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역주)”의 경우 안에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이며, 그러나 완고한 사람을 위한 연언은 망상적인 숙려(熟慮)로 잔존하고, 반면에 그것은 숙주 담화 안에서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것 같다. 일방적으로 또는 다르게, 정념의 기호학은 이러한 허수의 분할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일찍이 언급했던 착란적인 오버랩이, 비록 양의연동(兩儀連動, engagement)과 비양의연동의 작용과 함께 동반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는 사물의 경제적-유기적 조직의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타자들 사이에서 언외발언적인 대표로 위임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은 매우 아중족인 분할로 존재하기 때문이다.<sup>44)</sup>

의미작용의 생성적인 궤도와 긴장성의 전조로 획득된 양태화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그 양태주체의 변덕은 우리에게 관자놀이-시간적인 해법(또는 이산)을 제공한다. 그것은 방향집합 그것만으로 만들어진 그것의 효과가, 범주적인 전환을 겪고 있는 동안, 이러한 전환의 생산과 함께, 특히 고유의 전조와 함께, 담화 안에 계속 공존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이 긴장적인 잔류자기(殘留磁氣, remanence)의 귀결의 하나는 주체-작용인자가 되었던, 그래서 통사론적인 주체, 복합 행위주적인 그리고 양태적인 표상, 즉 다시 한 번, 혼합된 범주로 나타나는, 주객치환응집의 주체와 담화의 주체가 되었던, 그 주체로 제공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중 소집의 증명사에 의해 담화로 나타난다. 즉, 한편으로는 주체성의 기호현상-화술적인 형식의 호출로,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적인 행위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메타심리학 안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internalization)”의 효과라고 호칭될는지 모른다. 외관상으로 유일한 것과 동차(또는 상동)적인(homogeneous)<sup>45)</sup> 것으로 그래서 감동적인 주체로부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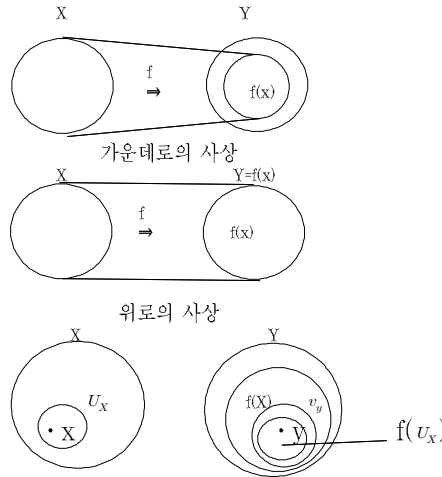
44) 여기서 우리는 가능세계(possible-world)의 이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며, 그래서 완고한 사람을 위해 연언은 비록 그것이 외연세계(the actual world)에서 불가능할지라도 마음 속에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중족으로 정념적일 것이라고 하는 가능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거의 없다. 또한 그러한 이중성은 그 자체를, 즉 메타심리학이 정념적인 현상 안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고찰되는 이 자체에 대한 자체의 관계를 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체에 대한 자체의 관계는 아직 기호학적 텅 안에 이론화되어 있지 않다. 그 개념(concept)의 망상(importing)은, 사실, 하나의 망상(import)에 지나지 않는 한에서만, 잉태한 것으로 존재한다.

45) homogeneity(同次性); 수학과 논리학에서는 동차(同次), 또는 상동(相同)이라고 한다. 혼

제1장 정념의 인식론

작함으로써, 이것은 몇몇 행위주적인 역할과 몇몇 상호작용적인·양태적인 주체와 함께 외연적인(actual; 선언)·정념적인 ‘시나리오’로 투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의했던 것처럼, 실행의 주체와 상태의 주체의 양태

마 다쓰오(本間龍雄, 임승원 역, 「위상공간으로 가는 길-직관적 토폴로지의 세계」(서울: 전파과학사, 1995), pp. 15~28.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Y=f(x)$ 란 X의 점 x에 대하여 Y의 점 Y가 대응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x와 x'가 상이한 점이라도 그 상 f(x)와 f(x')는 일치해도 지장 없다. 특히 x와 x'가 다르다면 f(x)와 f(x')가 다를 때 1대 1의 사상이라 한다. X에서 Y로의 사상 f에서 X의 상 f(x)가 Y를 덮어버릴 때 f는 “위로의 사상”이라 부르고 보통의 사상은 “가운데로의 사상”이라 부른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가 1대 1 위로의 사상일 때 f를 1대 1의 대응(변환)이라 부르기로 한다.  $y=f(x)$ 가 1대 1 대응이면 y를 옮기는 사상도 1대 1의 대응이므로 이것을 역사상(逆寫像)이라고 말하고  $f^{-1}$ 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에 있어서 X의 각 점 x의 충분히 작은 근방(近傍)의 상은 x의 상 y의 근방에 포함될 때 f는 연속이라고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X의 각 점 x와 그 상 y의 임의의 근방  $v_y$ 에 대하여 x의 충분히 작은 근방  $U_x$ 를 선정할 수 있고  $U_x$ 의 상  $f(U_x)$ 가  $v_y$ 에 포함될 때 f는 연속이라고 말한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가 1대 1 대응이고 f도 역사상  $f^{-1}$ 도 모두 연속일 때 f는 동상사상(同相寫像)이라 부르고, X와 Y는 동상(同相)이라 한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라보자. 우리나라의 각 지점에 대해서 지도상의 한 점이 그것에 대응하고 있다. 이 대응은 분명히 1대 1의 대응이다. 근방이라 해도 크기가 전적으로 다르지만 한쪽의 근방이 딴 곳의 근방 안으로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상사상이다. 보다 알기 쉽게 말하면 산이나 분지(盆地)가 있는凹凸의 우리나라가 한 장의 평평한 종이의 일부(우리나라지도)와 동상이라는 것이다. (역주)

위상공간 { 리니어(linear) 그래프(그래프의 장)  
다양체 { 곡선-(곡선의 장)  
          { 곡면-(곡면의 장)  
          { 곡면-(역사의 장)  
          { 고차원의 다양체-(고차원의 장)

화에 의해 결정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존재의 그들의 지위로 남아 있는, 양태적인 주체는 정념적인 이중성의 매개자(instrument)가 된다.

**정념적인 시물레이크르:** 그러한 개념은 전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의 이론상에서 귀결 없이 존재한다. 일단 그들이 동정되면, 우리는 이러한 ‘시물레이크르’의 2개의 확장 중에서 어느 쪽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제한된 버전(예를 들어, 이제까지 암시되었던 것) 중에서, 우리는 그 시물레이크르가 주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양태집합에 의해 오직 허수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만 결과하고 있는 형태(초미-화술)로 존재한다고 고찰한다. 행위주적인 역할로 변하는 그 존재자적인 시물레이크르와 ‘허수’는(즉, 접합 발화의 통사론적인 표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것) 제한된 의미 안에서 이러한 시물레이크르의 소인적인 속성으로 존재한다. 담화 안에서, 그들은 착란적인 고리 안에 그 자신의 ‘허수’의 낭중분할을 확립하고 있는 그래서 감동적인 주체에 의해 국한된 비양의연동의 효과로 나타난다. 용기 밖으로 이동된 그리고 용기 안으로 이동된 발화의 비교는 인식론적인 그리고 진정한 성질의 판단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착란적인 진정성의 텅 안의 해석으로 한정된다.

보다 더 근본적인 버전 안에서, 우리가 정념을 분석하고 있는 동안 폭로된 특징으로부터의 모든 귀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의 진가를, 상호대담자의 또는 보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안의 상호작용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은 의문으로 번역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문으로의 번역은 사회언어학에서 또는 메타언어학에서 이미 나타났던 것이며, 우리는 각각의 화자가 그 자신의 담화를, 그 자신의 고유 언어로 개작할지라도, 그가 그 자신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상호대담자가 투기하는 ‘이미지’를, 구성한다는 것을 긍정한다. 정념의 분석이 조정(措定)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귀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양태적인 시물레이크르와 정념적인 시물레이크르 간의 커뮤니케이션(그리고 상호작용)으로 존재한다. 그 각각은, 그들이 속한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상호작용이 구성하는 것의 원인이 되었던, 그 타자의 시물레이크르에 그 자신의 시물레이크르를 보낸다. 그러한 정향은 인식론적인 레벨에서, 긴장적인 주체가 ‘타자’로 분리되고 피신탁의 교차점의 배경 막 상에서 타자의 신체를 ‘내재주체’로 내재화

할 때, 상호주체성을 잉태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술된 암시를 합병한다.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연기자의 시뮬레이크러는 대개의 경우 격아강화된 그리고 과민하게 된 양태주체의 집성으로 존재한다. 두 귀결은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른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적인(descriptive) 메커니즘의 문제에 국한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과민하게 된 양태주체의 허수의 투기로 존재하고 있는, 정념적인 우주의 함수 작용을 하고 있는 성격은 원래 보편적으로 상호작용의 특별한 경우로 존재한다. 두 번째,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것이 반드시 상호작용으로 사용된 양태적인 시뮬레이크러의 하나가, 적어도 상호대담자의 한 사람의 문화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된 상호작용의 총체성으로 과민해진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에 한해서만, 내포적이며 정념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제한된 버전 안에서, 그것은 감동적인 주체의 허수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는 양태집합(시뮬레이크럼 그 자체의 외부의)으로 존재한다. 반면에 확장된 버전 안에서, 전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시뮬레이크러의 순환 상에서 발견된다.

#### 화술적인 행위주와 정념

우연히 그리고 간접적으로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가치와 주객치환응집의 주체의 대상과 함께 가치, 발신자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의 축을 조직하는 신인동형동성적·행위주적 구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두 역할은 여기서 우리에게 별로 유용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수신자가 정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지라도, 상태의 주체의 확립은 정념적인 형태(조마-화술)와 함께 경제적-유기적으로 다룰 시간이 매우 충분하기 때문이다. 발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역할은 정념에 의해 꽤 축소되어 있다. 하여간 발신자는 프로그램의 기원에서 발생되고, 우리는 주체의 정념이 언급된 프로그램을 진진시킬 필요가 있는 모든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했으며, 그러하므로 그것은 가능한 지령자 또는 머니플레이터(manipulator)<sup>46)</sup>에 관하여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발신자가 주체 안에서 정념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괴물이 프랑켄슈타인(Dr. Frankenstein)<sup>47)</sup>으로부터 탈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

46) manipulator: 1. 손으로 교묘히 다루는 사람; 조종자. 2. 개관자(改竄者), 속이는 사람. 3. 시체를 조작하는 사람. 4. 머니플레이터(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을 다루는 기계 장치). (역주)

로, 따라서 감동적인 주체는 오로지 발신자의 영매(靈媒)를 지배하는 영혼을, 발신자의 실행만들기(making-to-do)로 치환된 정념적인 성향(disposition)을, 교묘히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한다.

그러한 함수 작용은 일단 숙지되었던 사위적인 공간과 가치체계 사이의, 결합가와 가치의 대상 사이의, 편차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감동적인 주체를 위하여, 대상은 항상 결합가에 의해 통제되고, 피신타의 교차점은 대상의 최초의 윤곽으로 포위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직 주체의 부가긴장성의 투기로서의 그로소 모도(grosso modo, 대략적인 것, 즉 증명사와 같은 것)로 함수 작용을 한다. 그러나 비정념적인 화술의 프레임 안에서, 가치체계 안 가치대상의 설립은 윤곽을 그리는 대상화로부터, 말하자면, 발신자의 위치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2개의 함수 작용은 명확하게 결합될 수 있지만, 그 감동적인 주체는 항상 발신자의 어느 지시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관자놀이-시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억압은 정념적인 통사론의 자율적인 진화를 위한 조건의 하나로 존재한다.

그러나 착란적인 분석은 전자를 화술적인 행위주의 유형학 상에서, 그리고 그들이 정전적인·화술적인 도식의 연속적인 단계의 추종을 채택하고 있

47)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메리 W. 셸리(Mary Wollstonecraft Shelley, 1759~1797)의 소설. 그녀는 영국 런던 출생으로 어머니 메리 울스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영국의 철학자, 작가, 여성운동의 선구자, 1759~1797)는 열렬한 페미니스트였으며,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 1756~1836, 언론인, 정치철학자이자 작가)은 급진적 무정부주의 철학자였다. 자유롭고 급진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며,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주변의 지적인 환경 속에서 배웠다. 16살 때에는 인생의 큰 전환을 맞게 되는데, 젊은 시인인 퍼시 뷔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 영국 낭만파 시인)와 도망쳐서, 1816년 전격적으로 결혼한다. 저지는 「프랑켄슈타인」 저자 서문에서 “남편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문학적 명성을 얻도록 용기를 주었다”고 밝히지만, 「프랑켄슈타인」의 직접적인 창작 계기가 되는 1816년 여름 이전까지는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후부터, 「Valperga」 「the Last Man」 「Lodore」 「Falkner」 등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고딕로맨스 소설, 낭만주의 소설, 정통 과학 소설의 선두라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극적인 요소와 문학적 가치, 인물들의 심리묘사에 있어서 탁월하다. 이야기는 먼저 북극 탐사를 떠난 월튼 선장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남자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영국에 있는 누이에게 쓰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네바 명문가 출신으로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자연과학 분야에 심취하게 된 프랑켄슈타인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생명 탄생의 분야에 도전하게 된다. 무덤과 시체를 파헤치며 인간의 시신을 끌어 모아 만든 생명체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끔찍한 괴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혐오감과 공포를 느끼고 그를 외면하고 피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낭만주의 문학 세계관을 독특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화적 인물이 보여주는 창조와 파괴,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낭만주의적 견해를 잘 보여준다. (역주)



는 그 다양한 역할 상에서, 발견된 정념의 장조(長調, major)<sup>48)</sup>적인 분급(分級, classification)<sup>49)</sup>으로 소생시킨다. 예를 들어, 그것은 계약·응축의 순간에, “광신(enthusiasm)”으로든지, 또는 언어연기를 하고 있는 동안, “집착성(tenacity)”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주객치환응집의 주체의 정념을 마음 속에 그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또한 거기에는 탐의 신성한 의미 안 “존경(esteem)”으로든지, 또는 “경멸(contempt)”으로든지, 더 나아가 “격노(fury)”로든지, 따라서 발신자의 투시도법으로부터든지, 또는 “절망(despair)”으로든지, 수신자의 투시도법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생크션(sanction)<sup>50)</sup>의 정념이 존재한다. 그러한 분급은 잘해도 만족스럽지 못하

48) 장조(長調, major): 장음계(長音階, 온음계의 하나. 셋째와 넷째 사이의 음정과 일곱째와 여덟째 사이의 음정은 반음이고, 그 외 각 음의 사이는 온음정을 이루는 음계이다. 단음계와 함께 근대 서양 음계의 핵심을 이룬다)로 된 곡조.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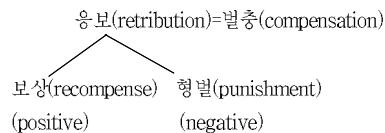
49) 분급(分級, classification): 1. 도태(淘汰)라고도 한다. 매체(물이나 공기 등)의 유속(流速)이 일정해서 퇴적작용이 천천히 진행되면 분급이 잘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물·공기 등의 유체 속에서 중력에 의해 침강하는 고체 입자는 주위의 유체로부터 그 침강에 저항하는 힘을 받는다. 이 저항력과 중력과의 균형에 의해 정해지는 입자의 평형침강속도(침강종말속도)는 다른 조건이 같으면 입자의 크기(지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퇴적물은 자연히 입자의 크기나 모양별로 따로따로 형성된다. 이것이 분급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가루나 알갱이를 다루는 광업·요업·화학공업에서 원료 선별에 응용된다. 2. 기호학에서의 분급은 taxonomy와는 달리 상위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결합체적(syntagmatic)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역주)

50)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67. sanction(생크션, 제재 또는 재가(裁可)); 1. 생크션은 교묘히 다루기와 상호관계적인 담화의 격상이며, 화술도식 안에 삽입될 때 그것은 화용론적인 그리고 인식적인 차원 양쪽의 위치를 점령한다. 생크션이 최후의 발신자에 의해 이행되는 까닭에, 그것은 이러한 발신자가 절대적인 언어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2.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행동(behavior)의, 더 엄밀히 말해서 연기하고 있는 주체의 안락과 관련되고 있는, 심판자-발신자에 의해 인정된 인식론적인 판단이다. 그것은 가치론적인 체계(정당성, “좋은 방식,” 심미적인)와 관계되어 만들어지며, 어쨌든 마치 최후의 계약·응축으로 외연화된(actualized; 선언) 것처럼 암시되거나 명백하다. 주체-수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응보(retribution)와 상응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교환구조 안에서 다른 함수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것은 계약·응축적인 의무(obligation)와 순응하고 있는 주체에 의해 실행된 언어연기에 의해 호출된 대응물이다. 이러한 벌충(compensation)은 조정적인 것(보상, recompense)이거나 부정적인 것(형벌, punishment)이 된다. 후자의 경우,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발신자에 의해 제공된 형벌이든지, 복수 또는 정당성으로 호칭된 바로 그 부정적인 응보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지한다. 이러한 응보의 다양한 유형은 화술적인 균형상태의 재확립을 허락한다. 3. 실행과 관련되고 있는 판단으로서,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인식적인(cognitive) 생크션과 대당이 되는데, 그 초월결정이 주체의, 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진정적인(veridictory) 그리고 인식론적인 양태성에 사의를 표하고 있는 그 상태발화라고 하는 존재(being)의 인식론적인 판단이다. (여기서 보편적인 문법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인식적인 생크션에 필적하는 인식론적인 판단으로 표현된다). 주체-수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적인 생크션은 영웅의 재인식(recognition)과 동치이고, 부정적으로는 악한의 자취냄새와 동치이다. 발신자 측에서의 인식은 주체-수신자에 의해 선택된, 영광을 부여하는 시험(시련)으로부터 유래되는 벌충이다.

기는 하지만, 보다 더 보편적인 개연성 안에서 아종적인 정념으로 정위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담화의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은 어느 행위주가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의 하나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주객치환응집의 주체는 격노 또는 경멸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감동적인 주체가 모든 행위주적인 역할을 ‘내재화’했던, 따라서 정념의 진통 속에서, 자유롭게, 화용론적인 또는 인식적인 차원에서 그에 기인한 그래서 효과적인·행위주적인 역할의 그들의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 있는 “최초-행위주” 안에서 토대가 된다.

더 나아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화술적인 구조”라고 호칭하는 것은 2개의 다른 레벨, 즉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 속한 통사론적 우주의 화술적인 행위주의, 그들 양태화의 생산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정전적인·화술적인 도식은 틀림없이 어느 아종적인·문화적인 영역으로서 기묘한, 그러면서도 보편화된 구조로만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그것은 언외발언적인 프락시스(praxis)<sup>51)</sup>의 기본적인 역할로 간주된다. 정념 그 자체를 위함으로써, 화술적인 문제는 또한 2개의 레벨에서 발생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 정위된 행위주와 양태화의 고유의 정념적인 함수 작용을 확립하려고 탐색함으로써, 화용론적인 그리고 인식적인 차원과 함께, 자율적인·방향적인 차원을 설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전적인·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의 도식이 보편화된 구조로 잉태되고 구성될 수 있는지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만약 우리가 전개된 정념적인 변형 상에서 차원의 자율성을 증명하는데 성공한다면, 텍스트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정념의 다양한 단계를 고찰하는, 그리고 그들을 “화술적인 것”으로 조직하는, 충분히 보편적인, 그

4. 화술계도로 고찰된, 사회적인 기호학의 실천 레벨의, 전치생크선에 의해, 우리는 생크선의 기호학(semiotics)의 교묘히 다루기(합성)를 예견할 수 있다.



51) praxis: “마르크스 철학에서 사회를 개조시키기 위한 행동”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레마스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역주)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래서 착란적인 도식의 윤곽을 점진적으로 그리는 것을 예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명확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보편화를 마음속에 그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 모든 세팅을 정념적인 양태화와 조정(調停, arrangement)의 담화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노트: 장조(長調, major), 즉 “7(seventh)”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끄림(leading note)이라고도 하는데, 다음의 음으로 이끌어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도음(導音)이라고도 한다. 으뜸음의 반음 아래에 있어서 으뜸음을 이끌어내는 음이기도 하다. 특히 음계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음을 향하여 위로 끌여가는 음을 상행이끄림(aufwärtsführendwe leitton)이라 한다. 그 음정은 일반적으로 반음이고, 서양의 장음계에서는 제7음을 일컫는다. 단음계에서는 화성적 단음계의 제7음을 반음 높여서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단음계에서 장7도음의 제7도음에 한정된다고 하는 것은 으뜸음부터 아래쪽으로 음정을 잡으면 단2도를 이루므로 선율적 단음계 하행형의 제7도음은 제외된다는 말이다. 즉 이끄림이란 반음 상행하여 이끄림을 이끌어내는 음이라는 뜻이다. 단음이지만 딸림3화음이나 딸림7화음의 제3음으로서 그것이 최고성에 있을 때는 으뜸음으로 반음 상행하므로 이끄림이 될 수 있으며 장음계라 하더라도 으뜸음부터 순차적으로 하행할 경우에는 제7도음이라 하더라도 이끄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보통 반음 진행에 의해 화성적으로 어울리는 음이며 혹은 선율적으로 중점이 놓은 음으로 나아간다. 이와 같은 진행을 이끄림 진행(leading note motion)이라고 한다. 이끄림은 다음의 음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안정감을 얻는 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불안정하고 긴장을 내포한 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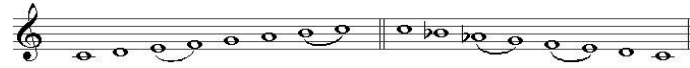
음계: 음을 단계적인 높이의 순으로 배열한 것을 음계라 한다. 음계에는 음 배열의 질서, 즉 음과 음간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온음계적 음계(diatonic scale)이며 이것은 크게 장음계(major scale)와 단음계(minor scale)로 구분된다.

온음계적 음계	장음계	{	자연장음계: 제3음~제4음, 제7음~제8음이 반음인 음계
			화성장음계: 자연장음계의 제6음이 반음 낮아진 음계
	단음계	{	가락장음계: 상승할 때는 자연장음계이며, 하강할 때는 제6음, 제7음이 반음 낮아진 음계
			자연단음계: 제2음~제3음, 제5음~제6음이 반음인 음계

장음계(major scale)  
자연장음계: 제3음~제4음, 제7음~제8음 사이가 반음관계이며 나머지가 모두 온음관계인 7음 음계.



가락장음계: 상승할 때는 자연장음계와 같지만 하강할 때는 제6음, 제7음이 반음 낮아진 7음 음계.



다장조 가락연장음계

단음계(minor scale)

자연단음계: 제2음~제3음, 제5음~제6음 사이가 반음관계이며 나머지가 모두 온음관계인 7음 음계.



가단조 자연단음계. (역주)

### 양태적인 조정: 조정(arrangement)으로부터 성향(性向, disposition)까지

#### 존재(being)의 양태적인 규정화

대부분의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는 “경향(tendency)”으로서의, 즉 행동 또는 연기(action)의 텃 안의 “경향(tendency)” 또는 “복각-성벽(伏角-性癖, inclination<sup>52)</sup>”의 기술에 의해 추구된, “복각으로 만들어진 그것의 내재상태”를 “유도하고 있는 감정(feeling)”으로서의, 표준사전으로 정의된다. 만약 경향 또는 복각이 “실행(doing)”을 유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실행(doing)” 쪽을 향한 관점과 함께 “존재(being)”의 확실한 규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텃 안에서의 정념의 효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언어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사실상 정념적인 의미효과를 생산할는지 모르는 양태화로 끌어올린다.

**정념적인 여분(surplus):**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것에 한정했다면, 정념적인 우주는 양태적인 우주와 시공적으로 동일한 것일 것이며, 구별할 필요

52) 복각(伏角, inclination, magnetic dip):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지만 그 S극과 N극의 위치가 각각 지리학적인 남극과 북극에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자침이 엄밀히 정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약간 다르다. 이 벗어난 각을 편각(偏角, declination)이라 하고, 서울에서는 진북에서 서로 6° 52' 벗어나고 부산에서는 6° 18' 기울고 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자침이 진북을 가리키는 곳은 적도의 0°라고 하는 선뿐이다. 자침은 또(만약 그 중심에서 받쳐주면) 수평이 되지 않고 북반구에서는 자침이 가리키는 끝이 아래로 처지고 남반구에서는 남을 가리키는 끝이 아래로 처지게 된다. 이 수평에서 처진 각을 복각(伏角, inclination, magnetic dip)이라고 한다. 복각도 지구상의 장소에 따라 다른데 적도 부근에서는 거의 0°이며 교위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즉 “clinamen(벗어남)”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가 없게 될 것이며, 한층 더 유력한 이유로, 그들의 아티클레이션의 소인을 깊이 탐색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정념이 비록 “실행하는 언어능력”의 일부로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념적인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충동(impulsiveness)”은 실행요망(wanting-to-do)과 실행능력(being-able-to-do)의 확실한 연합으로 번역-전격될 수 없고, 그때 “실행(doing)의 방식”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념은 표층에서 “집약적(intensive; 둘을 하나로 보는 관점의 변수-reduction, 즉 환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의 그리고 “기동적인 것(inchoative; 하나를 둘로 보는 extensive, 즉 확장의 발달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sup>53</sup>의 변이(변수)로 나타난다. 충동적인 정념의 성격을 만드는 것은 차라리 실행하고 있는 존재(being)의 방식으로, 실행요망(wanting-to-do)+실행능력(being-able-to-do)의 연합에 기초된 존재(즉, “intensive”+“inchoative”)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 경우, 여기서 실행하는 언어능력이 상태로 간주되고 있는 한, 우리는 확실하게 지시된 동차화의 장조(長調, major)적인 소인과 조우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태화의 “여분(surplus)”은 의미의 단순한 보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오직 충동적인 “행동(behavior)”만을 마음속에 그린다고 한다면, 그 이중적인 특징 “집약적(intensive; 둘을 하나로 보는 관점의 변수)”+“기동적인 것(inchoative)”은 기초 양태적인 언어능력의 단순한·우발적인 초과결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그 주체가 “충동적인(impulsive)” 존재(being)로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러한 초과결정이 지배한다는 것을, 양태적인 언어능력을 언외감수 의미소로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2차적인 것 안의 아티클레이션을 보증한다는 것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더 명확히 말해서, 이러한 아종의 경우에, 마치 그것이 요망(wanting)과 능력(being-able)의 병존설(concomitance)<sup>54</sup>의 출현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act)의 보증된 외연화를,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하는 것처럼 존재한다.

앞의 관측이 보편화될 수 있는 한,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는 고유의 양태

5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54. inchoateness: 기동(起動); 기동은 변화과정의 발달을 보여주는 상상적 의미소이다. 그것은 상상적 형태(초미-화술), “기동(inchoateness)/durativeness(지속)/terminativeness(종지)” 중의 일부로 존재하며, 담화 안에서 그것의 출현은 예견되거나(foreseen) 예기된(expected) 전체 시리즈의 실현화를 허락한다. (역주)

54) 병존설(concomitance): 성체 특히 빵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병존한다는 신앙. (역주)

화와 관계없이, 보다 더 아중적으로 실행(doing)의 양태화와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적어도 선행 예에서, 이러한 소인은 양상화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긴장적인 전조의 레벨에서 “기호학적 문체”를 되살려낸다. 이것은 그것이 언어언기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역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정념적인 의미효과와 성격으로 존재하는 양태적인 조정(調停)으로 고찰하는 존재(being)의 자율적인·양태적인 규정화로 되돌아가 지시되는, 모든 경우 안에서 필연적으로 관측되는 것 같은 그 이유로 존재한다.

“완고한 언동”의 역설(The Paradox of Obstnacy): 또 다른 예는 이러한 정향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해에 의해 희망을 받는 일 없이 한 가지 목표에만 골몰하는 방식으로 속행하는 성향(disposition)으로 정의된,” “완고한 언동(obstnacy)”은, 비록 그 진취정신의 성취가 위험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실행하는 연속상태의 주체로 잔존하고 있는 것의 특징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당해 “경향(tendency)”은 주체를 X가 실행(doing)의 불가능성에 대해 예기하고 있을 때, “X대신에 실행(doing)”의 상태 안에 밀어 넣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체는 양태화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노하우(knowing-not-how-to-be, 주체는 그가 그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안다):

반존재능력(being-able-not-to-be) 또는 비-반존재능력(not-being-able-not-to-be, 진취정신의 성취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존재요망(wating-to-be,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결합되고, 모든 것을 이러한 종말로 실행할 것이다).

비록 정의 그 자체가 실행(doing)의 투기에 의해 정위되는 것이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정념적인 “완고한 언동(obstnacy)”의 양태적인·조정적인 성격이 존재(being)의 양태화에 의해 구성된다. 사실, 단순한 실행요망(wanting-to-do)은 이러한 경우 안에서 연기의 지칠 줄 모르는 추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무수한 타자의 예는, 실행(doing)에 의해 전제된 실행요망(wanting-to-do)의 현존재 대신에, 주체가 그의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그리고 방

해와 직면할 때 포기하는,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방해 대신에 언어연기의 추적을 보증하는 그래서 아중적으로 완고한 언동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그 규정화되고 있는 “양태화의 여분”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실행(doing) 쪽의 관점과 함께 언어능력”의 텀 안에서보다 오히려 “존재(being)의 양태적인 규정화”의 텀 안에서 정념적인 조정을 우리가 형식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여분의 현존재로 존재한다.

이러한 정념은 그것이 역설의 한 쌍을 축적하는 것에, 다시 말해서 실행능력(being-able-to-do)보다 더 오래 견디는 그리고 그 자체를 보강하는 실행요망(wanting-to-do)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실행(doing)의 그 모든 것은 존재(being)의 확실한 규정 안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붙어 다니는 어떤 것을 실행(doing)의 양태적인 통사론으로 그리고 타자를 양태적인·정념적인 통사론으로 그렇게 나누는 그 2개의 낭중분절(segments)이 모두 자율적이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아중적인 아티클레이션은, 무제약으로 잔존하는 전성을 만들고 있는 “기호학적 문체”의 표현으로 존재하는, 양상의 형식(‘연속’, ‘저항’)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정념적인 형태(조마-화술)의 성격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being)의 양태화가 실행(doing)을 위한 언어능력의 양태화로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에 “표상(representation),” “내포적 이미지(virtual image)” 즉, 시물레이션을 구성한다. 완고한 언동의 정념적인 시물레이션 안에서, 그 완고한 사람은, 그가 “실행하기를 요망하는(want to do)” 것으로서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망한다.

잠시 초점이 맞춰질 2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전자의 자격으로서의 양태적인 목록이 어떻게 “조정(調停, arrangement)”으로 조직되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행동 또는 프로그램의 “잠재성(potentiality)”으로서의 “성향(disposition)”의 지위를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이 두 문제의 추론 중의 하나는 조정의 기술이 어떤 것인지, 각각의 정념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공준된, 만족스럽게 성향(disposition)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감동적인 주체로 적당히 고찰할 수 있는, 또는 아마, 그것이 정념적인 행동의 이해를 위해 본질적인 어떤 것을 추가할 것인, 존재(being)의 이러한 규정화가 어떤 것인지, 질문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양상적

형식의 그리고 “기호학적 문제”의 공감할 수 있는 그 현존재는 그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도록 추진한다.

외면적으로 “성향(dispositions)”은 주제적(thematic; 또는 어간형성모음적인) 역할로 대체할 수 있는 착란적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관측은 우리가 존재(being)와 실행(doing)의 양태화 사이의 현상으로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한, 다시 한 번, 그것이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아종적인 것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즉각 구성할 수 없다.

### 양태적인 조정의 기술

정념의 기초가 되고 있는 양태화는 양태구조처럼 조직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실행을 유도하고 있는 언어능력은 점진적으로 구성된다. 실행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각각의 양태화는 양태범주로 채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기호사각형 상에 투기된 양태적인 빈사(예를 들어, wanting-to-do)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서, 양태구조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상의 이러한 양태성의 투기로부터 그리고 존재와 실행 사이의 편차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기왕에 기술되었던 절차를 추종하고 있는, 양태성의 존재의 모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의 증명사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각형 상에 투기된 ‘바람직함’은 존재요망(wanting-to-be)의 변이(변수)를 생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의에 의해 양태적인 조정은 고유의 양태화의 레벨에서 전위(轉位)의 총체(ensemble)로 존재하고, 그것은 범주화하고 있는 모델 이룰 때면 기호사각형으로 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조정은 구조가 아니라 단지 아직 기술되지 않은 소인에 따라 조직된 몇몇 덩과 함께 몇몇 구조의 교차점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 조정은 실행의 화용론적인 주체의 언어능력을 위한 진리를 붙잡고 있다. 현대, 우리가 따로따로 선택된 각각의 양태화가 어떻게 기술되는가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 양태화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그 주체의 궤도가 어떻게 기술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행을 유도하기 이전에 점진적으로 구성된 그 언어능력 안의 그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전제와 결정에 의해 통제된 양태적인 시리즈에 관한, 코케(Jean-Claude Coquet<sup>65</sup>)에 의해 제안된 해법(또는 이산)은 정확한 언외지시의 최초의 단계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양태성이 이러한 시리즈 안에서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끊임없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발신자의 지령 하에 발생한 다른 발달 법칙을 좇는 그 이식(移植, heteronomous)<sup>55)</sup>적인 주체의 오직 그 경우로만 고찰한다면, 그 해법(또는 이산)은 “속성(attributor)”의 역할을 연기하는 그리고 필연적인·양태적인 대상을 그에게 전송하는, 언어능력의 획득 안에서 그 주체와 동반하고 있는, 발신자의 고유의 궤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적인 주체를 다루자마자,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양태성의 그 시리즈는 외부의 증재에 의해 설명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진성(眞性)의 약동성으로부터만 결과될 수도 있다.

**완고한 언동에 대한 부연(敷衍):** 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완고한 언동은 재검토하기로 하자. 우리는 3가지 양태구조, 즉 존재노하우(knowing-how-to-be), 존재능력(being-able-to-be), 그리고 존재요망(wanting-to-be)의 교차점을 통하여 양태적인 조정을 얻어냈다. 그러나 양태범주의 이러한 접합은 관계의 두 유형이 연기 상태로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만 조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조의 텅으로서, 양태화는 반대로든지, 모순으로든지, 전제로든지, 또는 순

55) Jean-Claude Coquet: 파리의 고등연구원(L'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의 기호언어학연구회 회원. 파리 8대학 문학부 기호분석 언어학의 명예교수. 프랑스 기호학의 역사에 관한 고찰은 70년대의 결정적인 어떤 무엇으로 위치를 선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고찰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구조주의에 의해 좌우된 “의미(meaning)”의 연구는 유정(有情)의 우주 그리고 내재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개념의 우주로 존속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언어학적인 인의발언(Benveniste)에 의해, 현상학(Merleau-Ponty)에 의해, 그리고 정신분석학(Freud와 최근의 Lacan)에 의해, 존속되고 최근에 진전된 과업은, ‘의미’에 관해 동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존재할 것이며, 그것은 “사물의 힘(force),” 실재성의 원리(M. Arrivé)로 고려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60년대의 표준 기호학과는 반대로, 실례의 기호학은 반영 안에 통합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분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메타언어는 그 자체로서의 그 언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being)로부터,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지식으로서의 이러한 최초의 사실을 결코 은닉하지 못한다. 방브니스트(Benveniste), 메를로퐁티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그 논조는 3가지의 프로이트의 텍스트(1891, 1905, 1919) 상에 기초한다. 그들은 존속된 또는 ‘힘’이 아닌 ‘의미’의 생산적인 실례를 발생시킨다(제3의 내재의 힘 [power] 또는 초월적인 행위주: 비-주체, 거의 주체와 같은 그리고 주체로서의). 그것은 실례의 기호학이 조립된 이렇게 기본적인 실례의 책략(game)으로 시발하고 있다. (역주)

56) 식물이나 조직, 장기 등을 다른 장소에 옮겨 심어서 그 곳에서 기르는 것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배(胚)나 조직·장기 등의 부분을 잘라 같은 생물의 다른 부위에 심거나(自家移植) 다른 생물에 옮겨 심는 것(異種移植), 그것들을 생물체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것(外植 또는 체외배양)도 이식이라고 한다. 이식은 실용적으로 농작물을 묘상(苗床)에서 밭에 옮겨 심는 일, 원예식물의 접붙이기, 생물학의 동물 발생메커니즘의 해명 및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연구·호르몬 작용 연구 등 의학의 외과적 치료법으로 시행된다. (역주)

응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관계 안으로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고한 언동으로서의 존재요망(wanting-to-be)은 반존재능력(being-able-not-to-be)의 모순이 되고, 또는 비-반존재능력(not-being-able-not-to-be)의 반대가 되며, 반면에 존재노하우(knowing-how-to-be)는 비-존재능력(not-being-able-to-be)을 전제하고, 또는 반존재능력(being-able-not-to-be)에 순응한다. 그때, 텀의 세트로서의 그것은 선형적으로(linearly) 조직될 수 있고, 조정은 전제의 소인에 따라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반존재노하우(knowing-how-not-to-be)는 여기서 반존재능력(being-able-not-to-be)을 전제하고, 존재요망(wanting-to-be)은 역설적으로 2개의 타자를 전제한다. 이러한 경우에 역설은 비-순응관계의 결합체적(syntagmatic) 축(전제에 의해 통제된) 상의 투기로부터 유래한다.

/being-able-not-to-be, knowing-how-not-to-be, wanting-to-be)/

최초의 난국은 “역설적인 전제”의 존재자로부터 유래한다. 그러한 표현은 기호학에서 진리의 당착어법(撞着語法, 또는 모순어법, oxymoron)으로 존재한다. 가장 보편적인·논리적인 의미에서, 전제는 두 명제를 연결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그런 방식으로 부정 또는 전제함의 변조는 전제된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기호학에서 부정에 의한 이러한 정의는 필연성의 변덕에 의해 통사론적인 전제를 위해 가장 아종적인 것으로 반제된다. 이것은 발화가 왜 반대에 의해 또는 모순에 의해, 그 자신의 부정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가, 어느 의미에서는, 왜 역설적인 것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사실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들이 주목받게 된 전제의 다양한 변이(변수)로부터,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sup>57)</sup>와 패트리샤 바이올리(Patricia Violi)는 이러한 의미에서 역설적인 어떤 것을 제안했다.<sup>58)</sup> 예를 들어, “용서하기(to forgive)”를 위하여, 존재의무(having-to-be, “s<sub>2</sub>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상에서 발견된 피전제는 전제에 의해 부정되고(“s<sub>1</sub>은 s<sub>2</sub>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처벌요망(not-want-

57)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5~ ):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며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로 볼로냐대학교의 교수, 세계 명문대학의 객원교수로 활동하였다. 「기호학이론」 등 많은 저서를 발간하였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장미의 이름」의 저자이다. (역주)

58) “전제를 위한 교육적 의미론(Instructional Semantics for Presuppositions),” *Semiotica*, 64, 1/2(1987).

ing-to-punish), 또는 비-처벌하는 자 존재요망(not-wanting-to-be-the-one-who-punishes)을 하여간 포함한다. 이러한 저자를 위하여, 변형은 관자놀이-시간적인 변화([t<sup>i</sup> → t<sup>j</sup>])와 함께 단순하게 서로 관련된다. 양태적인 변형의 소인 그 자체(다시 말해서, 양태내용의 변화, 즉 having-to → wanting-to)는 그리고 그 부정(having-to → not-wanting)은 피전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모순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s<sub>1</sub>이 처벌하는 자가 되기를 결코 요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은 s<sub>2</sub>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필연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필연성은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무엇으로 존재할 것이다. s<sub>1</sub> 또한 처벌받지 않음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따라서 s<sub>2</sub>가 s<sub>1</sub>의 처벌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필연적으로 존재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만약 s<sub>1</sub>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s<sub>2</sub>는 그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반드시 요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인 전제”는 양태성 사이의 초과결정에 빛을 투사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저항의 요망으로, 즉, 집단규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자율성을 긍정하는 개인적인 주체에 의해 요망으로 존재하는 한, 용서요망(wanting-to-pardon)은 처벌의무(having-to-punish)를 전제한다.

선행의 예, 즉 완고한 언동, 그리고 더 나아가 심증-윤리적인 버전에서의 “완강함(stubbornness)” 속에서, 정념적인 의미효과는 한편으로 불가능성과 관련된, 다른 한편으로 부동의 요망과 관련된, 지식 사이의 조우에 의해 틀림없이 생산된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완고한 사람은 그가 알기 때문에 요망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고한 사람의 노력의 관자놀이-시간적인 무용을 깨닫고 유의할지도 모르는 외부관찰자를 환기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난국을 탈출할 수 없다. 물론 프랑스어의 텀 “완고한 언동” 안에 포함된 가치판단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감동적인 주체 그 자체는 이러한 대상이 그를 탈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저 완고한 것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또는 ‘불능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주체의 내재적인 모순:** 거기에는 오로지 심증-윤리적인 비교를 취급함으

로써만, 그리고 그것을 충분한 설명으로 고찰함으로써만, 존재하는 또 다른 해법(또는 이산)이 존재한다. 그러나 또 다른 정념의 형태(조미-화술), “절망(despair)”과 함께 그 비교는 당해 현상이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잔존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완고한 언동과 절망을 비교한다면, 그 양태적인 편차는 둘 중의 하나로 환원된 그래서 최소적인(minimal)<sup>59)</sup> 것으로 존재할 것이다. 어쨌든 절망하고 있는 그 주체는 존재의무(having-to-be)와 존재요망(wanting-to-be)으로 양태화 되고, 더 나아가 존재할 수도 없고 반존재노하우(know-how-not-to-be)도 될 수 없다. 양 경우에, 규정하고 있는 양태성은 한편으로 반란 또는 억압으로든지, 다른 한편으로 실행하고 있는 완강함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끝날 수 있는 존재요망(wanting-to-be)으로 존재한다. 오로지 주목할 만한 편차만이 조정의 통사론적인 조직 안에 거주한다. 양태성의 비교가 조정안에 나타나는 상반(incompatibilities)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떠맡기로 하자. 그들은 주체의 내재적인 모순을 표현한다. 거기에는 내재적인 모순의 2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양태성이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양태적인 조정은 역설적인 것이 될 것이다. 즉, 조정안 불가능성의 현존재 때문에, 완고한 사람의 욕망은 “저항하고 있는(resisting)” 욕망이 되었다. 후자의 경우, 양태적인 조정은 단순하게 “충돌하고 있는(conflicting)” 욕망이 될 것이다. 절망의 경우, 주체의 양태적인 점착은 해체의 관점에서 위협을 받게 된다. 완고한 언동의 경우, 주체의 양태적인 점착은 확증된다.

절망은 한편으로 존재요망(wanting-to-be)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반존재지식(knowing-not-to-be)과 비-존재능력(not-being-able-to-be)이 서로 호혜적으로 변

59) 어쨌든 미니멀리즘과 동일한 맥락이다. Cynthia Whitney Hallett, 「미니멀리즘과 단편소설(Minimalism and Short Story-Raymond Carver, Amy Hempel, and Mary Robison)」(New York: The Edwin Press, 1999), pp. 7~8. “흔히 미니멀리스트로 알려진 에이미 험펠(Amy Hempel)은 이러한 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당신의 작품 안에 보고되지 않은 많은 경험이 실제적으로 페이지 위에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 흔히 이야기의 정서적 초점은 기술되지 않은, 또는 이야기 안에 귀착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사건이다.”(Sapp 82~83). 요컨대, 작가는 독자가 적어도 생략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어져있는 것으로부터 추측하고 있는 어렴풋한 하나의 가능성을 갖도록 조심스러우면서도 충분히 그 빈 공간의 틈을 어떻게 헤서든지 짜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언급된 모든 것 안에는 적어도 반영 또는 함축(비유적 어떤 형식)으로도 언급되지 못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 참조. (역주)

용하는 것(modifying) 없이 공존하는 한에 있어서는, 충돌적인 성질의 양태적인 조직을 소유한다. 그들은 주체의 내재적인 해체를 초래케 함으로써 서로 모순이 되고 대당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존재요망(wanting-to-be)은 또 다른 양태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절망은 두 상반적인·양태적인 우주로 정확하게 조립된다. 실패와 실패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요망의 출현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절망은 2개의 독립적인·양태적인 동정, 즉 한편으로는 실패와 좌절,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과 예기의 방식으로 조립된다. 그 해체는 그들의 독립과 그들의 상반의 결과로 존재한다. 오직 양태적인 비교의 그 절차만이 양태적인 조직의 이러한 유형과 연결된 정념적인 의미효과로 고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완고한 사람의 존재요망(wanting-to-be)은 그것의 지식을 통사론적으로 전제한다. 그는 오로지 완강함과 신성함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성하기 때문에 완강한 오로지 그 한 가지로만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동일 시리즈의 두 양태화 사이에 나타나는 양태적인 조우가 정념적인 의미효과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바로 그 역설적인·양태적인 조정을 다루고 있는 그 이유로 존재한다. 사실, 조정의 해체로 끝나는 것 대신에, 모순과 반대는 접촉력 있는 힘, 즉 주체에 의해 연기된 다양한 양태적인 역할의 그 힘이 그를 위해 동일한 정위로 보존되고 그를 존재(being) 안에 보존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양태주체는 그 자신을 충돌로 발견한다. 그러나 절망이 관련되는 한, 충돌은 불가해하고, 오직 존재(being)의 적멸로만, 즉, 적어도 주체의 존재(being) 안 연속성의 해법(또는 이산)으로만 끝날 수 있다. 반면에 완고한 언동과 함께, 충돌은 변용(modification)과 당해 양태성의 호혜적인 적응을 전제하는 의욕적인 주체의 승리에 의해 해결된다. 간단히 말해서, 충돌 대신에 그것은 완고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마치 2개의 전제된 양태화가 생산된 것처럼 또는 전제하고 있는 양태화를 떠받치는 것처럼, 요망을 발생시키고 있는 방해의 지식으로 존재한다. 완고한 언동 안에 나타나는 그 의미효과적인 '저항'이 사실상 양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절망과 함께 하는 그 경우로 존재하지 않는 전성의 전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호학적인 문체"를 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

념적인 의미효과가 단 하나의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양태적인 조정은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 속한다. 그들은 기호학적인 도식의 ‘생산’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에 기생하는 정념은 착란적인 레벨로 구성된다.

#### 조직으로부터 성향(disposition)까지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도착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양태적인 조정을 조건으로 붙인 것이 정념적인 의미효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념적인 “성향(disposition)”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기호현상-화술적인 영역, 직접적으로 말해서, 착란적인 영역을 포기한다. 그 레벨에서 우리는 긴장적인 전조와 범주를 만들고 있는 그 생성케도의 양쪽, 즉 의미작용의 전제조건으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실재물과 고유의 기호현상-화술로부터 방사되고 있는 불연속의 성질의 실재물의 양쪽 모두를 예로서 인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변화과정, 연속 모드 상에서 전조로 만들어진(고유의 양상적인 변수 때문에), 그리고 불연속 모드 상에서 낭중 분절된(단계, 시련, 그리고 시련의 연쇄 때문에), 그 착란적인 구조의 레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도표 5에서 보는 와 같이 묘사될 수 있는 3가지 모듈의 텀으로 이론의 보편적인 경제적-유기적 조직의 표상을 예로서 인용할 수 있다.

제1장 정념의 인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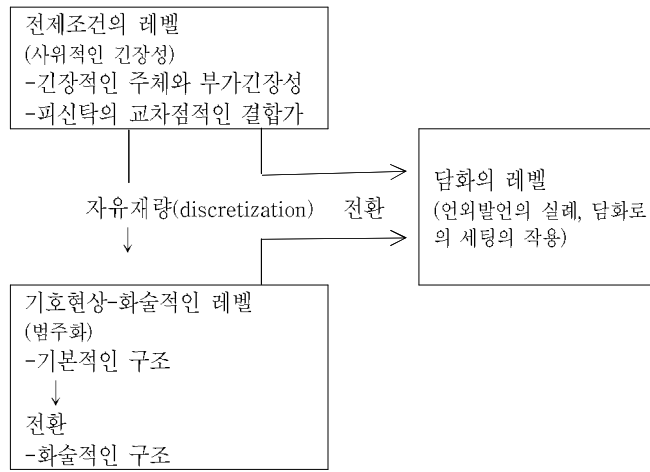


도표 5

즉시 우리에게 관련된 것(즉, 조직과 성향 사이의 관계)은 도표 6에 의해 묘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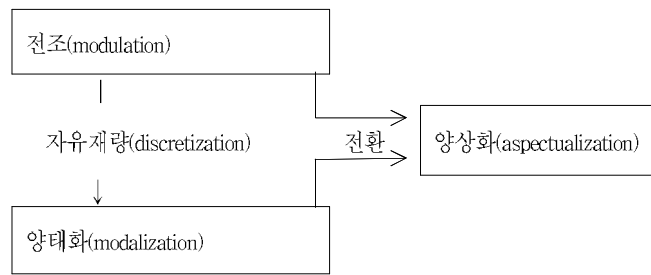


도표 6

우리는 채택된 표상이 왜 선형(linear)<sup>60)</sup>이 아니라, 트라이앵글이 되는지 의

60)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9: 1. 선형 방정식(線形方程式, linear equation); 상수와 1차인 변수의 곱으로 된 각 항들의 합인 1차다항식이 0으로 주어진 식. 특히 n개의 변수를 갖는 1차방정식은  $a_0 + a_1x_1 + \dots + a_nx_n = 0$ 으로 표현되며, 이때  $x_1, \dots, x_n$ 은 변수이고  $a_0, \dots, a_n$ 은 계수(scalar)

심할지도 모른다. 선형의 표상은 어느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의 변전을 보증하고 있는 작용이 최소적으로(minimally) 동차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유의 변전이 의미의 증대와 응결로 정의된다는 것으로 점점 더 명백해지는 것 같다. 그들은 범주화와 자유재량이 홀로 활개를 치는 모든 레벨에서, 즉 우리가 “기호현상-화술”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러한 자격으로 함수 작용을 한다. 다른 한편, 본질적으로 별거·이혼한 부부가 이리저리 왕복하며 행하는 육아방식의 성격의 결과로서의(우리가 전에 동정했던,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탐색을 계속할 것인), 그 착란적인 레벨의 변전은 전환으로 채우 받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호출로도 채우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이론적인 투시도법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창작하는 담화를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뿐만 아니라 2개의 다른 실례가 생성되었던 담화 안으로 세팅의 아종적인 작용을 “불러 모으기도 한다.” 이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담화는 ‘언어’를 관례에 의해 진전된 고정관념으로 재검토하는 그 최초의 소박함에 한해서만, 더 한층 “창작을 하는 것”이 될는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전제조건인 레벨에서 긴장의 진화는 전제조건으로부터 의미작용의 기본적인 구조로의 변전에 더하여, 의미의 “확대와 응결”로 고찰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긴장의 진전이 아직 의미작용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범주화와 자유재량의 최초의 몸짓이 적어도 그것이 추종하는 모든 타자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전환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 인식론적인 작용으로 존재하

---

이다. 1개 이상의 변수를 갖는 방정식은 선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정식  $x+y=3$ 은  $x$ 와  $y$ 에 대해 선형이지만,  $x+y^2=0$ 은  $x$ 에 대해서는 선형이나  $y$ 에 대해서는 아니다. 2개의 변수 모두에 대해 선형인 방정식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직선이며, 상수항이 없으면 원점을 통과한다. 공통해를 갖는 방정식들의 집합을 연립방정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  $2x-y=1$ ,  $x+2y=8$ 은 공통해로  $x=2$ ,  $y=3$ 을 갖게 되며, 점 (2, 3)은 두 방정식이 나타내는 두 직선의 교점이다(→ 크라머 법칙). 선형 미분방정식은 종속변수와 그 도함수에 대해 1차이며, 간단한 예로  $dy/dx+Py=Q$ 에서  $P$ 와  $Q$ 는 상수이거나 독립변수  $x$ 의 함수이지만, 종속변수  $y$ 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리니어 모터(linear motor); 재래식 모터와 같이 회전이 아니라 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전기를 사용하는 동력원. 지상의 고속 수송차량에 유용하다. 철도차량에서 이용했던 한 형태에서는 연속된 정상전도체(定常傳導體 stationary conductor)가 노반(路盤)에 고정되고, 2중고정자(二重固定子)는 정상전도체 위에 놓인 차량 중앙의 바퀴 사이에 매달려 있다. 전기 에너지는 차량에서 발전하거나 트롤리(trolley: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전기가 흐르는 가설선으로부터 전기를 얻기 위해 가설선과 접촉해 구르면서 이동하는 쇠)를 선로와 나란한 가설선과 접촉시켜 얻는다. 이 에너지를 2중고정자에 공급하여 앞으로 나가게 한다. 리니어 모터는 벨트컨베이어, 방직기의 북, 그리고 선형운동하는 다른 장치를 구동시킨다. 전자기 펌프에는 고체전도체 대신 액체금속과 같은 전도유체를 사용한 리니어 모터가 있고, 전도유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펌프작용을 한다. (역주)



기 때문이다.

conversion(전환): 1.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생성문법에서 나중에 정성들여 만든 변형의 개념과 상응하는 절차의 세트(어떤 외연)를 용어 전환으로 지시한다. 덴마크 언어학자는 자연언어(보다 더 좋게 말해서, 자연언어 상태)가 정적인 구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또는 어쨌든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로 고찰하기 위하여 용어 전환을 사용한다. 사실 그것은, 어떤 ‘변형’을 가지고 있는, 약동적 양상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상태 안에서 발견된 그들이 전체로서의 자연언어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통시적인(diachronic) 변형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예증에서, 엘름슬레우는 다음과 같은 메타포를 제안한다. 즉, 덴마크 사람들이 병역의무로 징집될 때, 비록 그들이 군인으로 ‘변형’ 될지라도 덴마크 사람으로 잔존한다고.

2. 우리가 용어 전환을 엘름슬레우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기호학의 결합체적인 그리고 담화적인 차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담화적인 이해와 밀접하게 관계되고, 레벨의 심층에서의 초과편승으로 정의된다. 마음속에 그리는 담화의 이러한 방식은 생성케도의 모델 안에 제안된 다양한 영역과 상응하는 심층레벨의 각각의 자율적인 기술(통사론적인 그리고 의미론적인 측면에서의) 합성(elaboration)을 허락한다. 그러한 담화의 관점은 어느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의 변천의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절차의 문체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접근이, 먼저 변형의 다소 정련된 규칙으로 설치된, 그리고 그때 그 성질과 심층레벨의 약간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생성케도의 그것과 정확하게 대당이 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그것은 의미론적인 해석이 적합한 것을 결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우리의 관점은 전환의 규칙이 동치의 토대 위에서 오로지 상상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두 서너 개의 통사론적인 형식(또는 두 서너 개의 의미론적인 형식화)이 상수적인 대체론(大體論, topic)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동치가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유의하기로 하자. 그것은 의미작용의 생성이 그 케도의 각각의 단계에서 새로운 아티클레이션 도입하는 것에 의해 “부유(enrichment)” 또는 “증음(增音, augmentation)”로 동시에 발생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필연적인데, 그 이유는 의미작용이 아티클레이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전환은 동치로 그리고 의미작용의 여분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환 절차의 동정과 그들을 형식화 하는 규칙의 확립은 간신히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의 탐색이 소인과 담화조직의 형식의 연구에 기본적으로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 기본적인 통사론의 토대에 존재하는 관계적인 텀으로서의 작용이 어떻게 화술적인 통사론을 통과하여 상태발화를 지배하고 있는(변형이 접합을 변용하는 것으로: 즉, 전환된 선언을 연언으로, 그리고 그 역으로) 실행의 발화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관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미론적인 성분 안에서, 우리는 의미론적인 범주의 텀이 통사론적인 대상 안에 투자된 가치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그리고 통사론적인 대상(의미론적으로 텀 빈 장소)이 어떻게 격상으로 그리고 세계의 아이콘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관측할 수 있다. 예기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마음속에 그리는 규칙의 합성은 기호학적 이론의 응집의 기본적인 시련(시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61~62. (역주)

“기호학적인 문체”로서의 성향(disposition):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양태적인 조정은 우리가 전제조건인 레벨에서 공준했던 전성의 연속적인 전조를 보증한다. 이 경우, 양태적인 조정은 그들 양상화의 증명사에 의해 성향이 될지도 모른다. 사실상, 정념적인 성향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내재적인 약동성은 주체의 동차적인 '전성'의 표면상의 형식을 만들고 있는 긴장적인 정위의 소인에 반응을 계속하는 그 동안 내내 연속적인 슬책(shifting)과 정지와 출발(이탈)에 의해 일련의 오버랩과 근방(近傍, 어림셈, approximation)<sup>61</sup>), 그리고 변화과정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실패의 또는 방해의 지식이 만약 완고한 사람의 결심을 자극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오버랩과 비-능력(not-being-able)과 요망에 의해, 저항의 텀 안에서 총체지속상(相)의 변용으로 결과하고 있는, “저항하는(resistant)”과 “총체지속상인(durative)” 그 기호학적인 문체(“X 대신에 연속하고 있는”) 때문에 존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상반적인 양태화 사이의 변형이 진리의 내재적인 해체로 나타나지 않고 단지 단순한 역설의 전이로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긴장적인 그리고 동차화하고 있는 최초-양태화에 의해 개량되거나 제어되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양태적인 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동정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성의 전조의 착란적인 동원(mobilization)의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착란적인 프로그램의 성향:** 모든 것이 언급되고 실행될 때, 정념적인 성향의 이러한 속성은 많은 사물들을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잠재성으로부터 지배되고 있는 소인적인 방사의 존재자는 우리로 하여금 ‘성향’을 “착란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며, 담화의 레벨에서 그들이 실행의 잠재성으로 또는 일련의 조직상태(일반적으로 에티튜드로 언급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감동적인 주체는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의 어떤 백업처럼 개량된다. 한편으로, 파일은 읽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압축되어 저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사용자가 검색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 양태적인 조정은 이렇게 ‘압축된’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버전처럼 존재

61) 각주 근방(近傍, neighborhood; approach)을 참조하라.

할지도 모른다. 잠재적인 그리고 지배되고 있는 소인은 재 저장된 명령코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성향은 읽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따라서 전체 절차의 작용적인 결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양상화로서의 성향:** 더 나아가, 성향의 확립을 지배하고 있는 양상적인 통사론은, 정념적인 우주의 매우 명백한 그리고 정념적인 우주의 찰나적으로 동정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그래서 관자놀이-시간적인 양상 안에서, 특히 편차적인 감정 또는 정념으로 주어진 사전적 정의 안에서, 보다 더 아종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악의(spite)”는 “최후의 분개(resentment)”로 존재하고, “인내(patience)”는 “참는 능력”으로 존재하며, “희망(hope)”은 “어떤 무엇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존재한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뒤의 양상구조를 단순하게 초과 결정하는 양상형식으로든지, 또는 그들이 이러한 구조의 진성(眞性)의 성분으로 존재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가 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경우의 어떤 것 안에서, 우리는 그 양상화가 초과결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우유부단함 없이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미가 급한” 사람의 ‘분노’는 보편적으로 분노의 기동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변이(변수)로 존재한다. 역으로 타자는 우유부단한 양상성을 포함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희망은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가장 관자놀이-시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존재의무(having-to-be)와 존재신앙(believing-to-be)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제안했던 그것의 양상화 된 버전 안에서, 존재의무는 전성의 전조 상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정확한 서스펜션으로 작용한다. 존재의무는 그것이 전성의 모든 순간의 동정을 책임지는 한, 예기로 발견된다. 총체지속성(duration)은 단순하게 지연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조립하고 있는 그 편차적인 실례는 변화를 위한, 전조에 의해 중립화 된 “초미-잠재력(micropotentialities)”을 위한, 따라서 어느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간단한 검토는 성향 즉 아종적인 양상성이 정념적인 효과로 만들어졌던 그 양태적인 조정안에서 볼 수 있다. 어쩌면 담화로의 세팅(setting)<sup>62)</sup>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관자놀이-시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이 양상성은 2개의

보충적인 관점에서 포착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로서의 전성 궤도에 그리고 의미작용의 조건과 전제조건에 관해서 언급한다면, 우리가 기왕에 제안했던 것처럼, 양상적인 조정 위에 투기된 양상화가 전성의 전조의 소집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형식(어형, form)”으로서의 양상화는 시간으로든지, 공간으로든지, 또는 연기자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소정의 형식을 소유하게 된 오직 그 후에만 나타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담화의 기초형식으로, 그것의 리듬으로, 그것의 약동성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그러한 자격으로서의 그것은 담화 안에서 실체적인(ontic) 지평으로 전경이 만들어진 그 긴장을 구체화한다. 그것이 화술적인 것 그리고 인식적인 순수이성(rationality pure)이 동시에 애를 태우는 서스펜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한, 담화 안 그것의 구체화가 최소감정(minimal feeling)의 이론적인 공간으로 구성되고 정의 된 하여간 전자의 전성은 양상의 시리즈를 정념적인 성향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 착란적인 주체의 투시도법(perspective)으로 보면, 최소감정의 소생은 긴장적인 주체 상의 재 양의연동(reengagement)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양태적인 조정 그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양태화는 불연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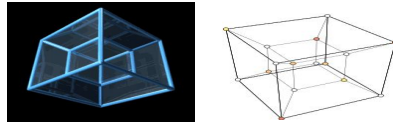
62) setting: 음악용어이기도 하지만, 1. set(집합, 集合)은 원래 수학용어의 하나로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을 말하며, 그 요소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집합에서 취한 두 원소가 서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 반 학생의 모임,”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과 같이 어떤 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을 말하며, 그 요소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구체적인 사물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된 것이라도 무방하지만,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즉,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임이다. ①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다. ② 그 집합에서 두 원소를 취했을 때, 그 두 원소가 서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수의 모임”이라든가 “작한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다. 2. 또는 상감(象嵌, inlaying), 즉, 금속·도토(陶土)·목재 따위의 소지(素地) 표면에 여러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금·은·보석·뼈·자개 따위 다른 재료를 박아 넣는 공예기법의 의미.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96. set(ensemble, 세트): 1. 수학용어법에서, 세트는 그 자체와 논리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 원소의 또는 다른 세트의 원소의 퇴적(collection; 숫자상으로 유한한 또는 무한한)으로 존재한다. 2. 기호학에서, 그것은 그것의 사용이 우주의 또는 초미우주의 불명확한 의미를 소유하고 있을 때만 판단될 수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관계를 초월한 원소(또는 이산적인 단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 사실에 의해, 이 텅의 수학적 의미가 그것을 정의하는, 그리고 관계가 의미작용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그 관계 이전의 텅을 결코 확립하지 못하는 구조적 접근과 모순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존재한다. 응집성을 위해, 그것은 보편적으로 세트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때때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병합을 지시하는 오히려 의미작용세트의 막연한 변덕(vague notion)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지도 모른다. (역주)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시퀀스를 동차적인 변화과정으로, “착란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형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형적인 화술의 변화과정이 일련의 화술상태뿐만 아니라, 상태 간의 변형 위에서 토대가 되는 것처럼, 그 정념적인 변화과정은 통속적으로 이용했던 양태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양태상태의 시리즈로 존재하는 오로지 그 위에서만 토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담화 안에서 성향처럼 마음속에 그리는 그들의 존재(being)를 선행하는 양태적인 조정은 양태상태와 변형을 포함하는 완전한 통사론으로 조직된다. 우리는 이것을 동류체적인 양태체계의 “정향(positions)” 안에서, 양태화 안에서,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통사론으로부터 그것을 분화시키고 있는 “내재양태적인 통사론(intermodal syntax)”이라고 호칭할 것이다.

가언이 실행됨으로써, 이제 그것은 기본적인 통사론으로부터 화술적인 격아강성으로 나타나는 전환의 시리즈, 즉 인식론적인 주체의 궤도 안에서 정념의 이론으로 보다 더 이중적인 것으로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을는지도 모르는 단계의 시리즈와 함께,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다. 상위적인 긴장의 레벨에서의 감정과 전성,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의 양태적인 조정과 내재양태적인 통사론은 그들을 약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착란적인 레벨에서의 성향(dispositions)과 양상화(인제나 몇 번이고 관자놀이-시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는 그들을 지배한다. 언외발언이 긴장적인 주체 위에 재이동하는 것으로 함수 작용을 하는 그것과 관련되는 한, 그것은 담화 안에서 정념적인 시물레이션의 영역(the scope)을 정의한다.

노트: 투시도법(perspective)은 다음의 하이퍼큐브(hypercube; 정사각형과 정육면체 등을  $n$ 차원으로 확장한 polytope이다. 이는 서로 평행이거나 직교하는 선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닫혀 있고 볼록한 콤팩트 공간을 이룬다), 4차원 입방체의 3차원의 그림자를 참조할 것. (역주)



### 내재양태적인 통사론

내재양태적인 통사론은 어렵하기 어려운 귀결의 공준을 포함하는 것 같다.

이러한 공준에 의하면, 통사론은 구성모델로부터 추론된 그 원소적인 통사론에 기초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 거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응답된 질문이 잔존한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양태성의 변형을 다른 것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 게다가 필연적으로 이소성(異所性)적인 그 사실이 또한 어떻게 반대 또는 모순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지만, 응답 그 자체는 아직 형식화되지 못했다.

기호학에서 그것은 변형된 지식(knowing)을 요망(wanting)으로 만드는 그 불확정적인 것과 범주를 초월했지만 범주적인 그것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일반 범주  $/M/$ , 그리고  $/m^a/$ 와  $/m^b/$ (범주  $/m/$ 은 변형  $/m^a \rightarrow m^b/$ 의 동차성을 보증하는 것 같다)로 변형된 변별적 특징(distinctive features) 양쪽을 상징하는 것 같은 바로 그것만을 함축하는 것 같다. 이것은 동류체적 강제를 도입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자유재량 때문에 또한 이것은 양태적인 이소성(heterotopy)<sup>63)</sup>을 정상적으로 공준하는 것 같다. 양태성과 통격(通格)인 일반범주-초월범주 그 범주들의 존재자는 무(nothing)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그 난국을 “변별적·양태적 특징”으로 전승시키기 때문이다. 명제의 본질에 관한 그 사실은 여러 차례 시험했던, 한계를 정했던, 기술했던, 그리고 재귀성을 통해 전성의 전조를 생성궤도로 영속케 했던, 그 “양태적인 기초,” 사위적인 긴장성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 양태적인 기초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예를 들어, 우리는 지식(knowing)이 중화된 그를 떠받치고 있는 (Claude Zilberberg<sup>64)</sup>가 언급한 것처럼 ‘stopping’ 또는 “stopping stopping” 후에) “폐포(closure)”의 전조에 한해서만 능력(being-able)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에, 전성은 전성을 중지시키고 있는 그 희생에 한해서만 요망(wanting)으로, 그리고 요망으로 성격이 만들어진 전조 “개방(opening)”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그 희생에 한해서만, 요망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내재양

63) heterotopy: 이소성(異所性). 개체발생에서 어떤 배엽으로부터 생긴 기관이 계통발생과정에서 다른 배엽에서 생기는 것처럼 변화되는 현상. (역주)

64) 과리의 고등연구원(L'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의 기호언어학연구회 회원. — Claude Zilberberg: 국가박사 질베르크(Claude Zilberberg)는 1938년 프랑스에서 출생했다. 그는 과리 내재기호학 세미나의 공동이사이다. 20년 전에 그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이론의 기본 위에 오버레이(overlay)로서의 긴장적인 입체감표현법(modeling; Jacques Fontanille과 함께 도입했던)의 적용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역주)

태적인 통사론의 긴장이 있는 그 기초는 필연성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의 자율성(autonomy)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또는 상실하는) 전성의 전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연속적인·양태적인 정향이 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요구하는 필연성과 함께 “굴복(submission)의,” “어긋남(dislocation)의,” “지연(procrastination)의” 편차적인 형식(어형, form)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로 존재한다. 따라서 요망, 지식, 능력은 항상 편차적인 “기호학적 문체”를, 사위적인 낭중분할을 포착하는 것의 편차적인 방식을 지시한다. 우리가 전성을 다루고 있었을 때, 명확하게 제안했던 바로 그러한 “기호학적 문체”의 존재자는 정념의 내재양태적인 변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완고한 언동과 함께, 반존재능력(being-not-able-to-be) 또는 비-반존재능력(not-being-able-not-to-be)은 물질을 서로 충돌시켜 핵물질로 만드는 것과 같은 사건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그 양태적인 주체 안 흘림체의(cursive) 기호학적 문체에 의지한다. 그때 그것은 다른 문체, 즉 그 사건을 전성으로 재연하는 양태적인 주체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돕고 나서는 요망의 문체로 존재한다. 평범하면서도 양태적인 그 기초는 우리가 그것에 부여한 명목과 상관없는 내재양태적인 통사론의 기초로 기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인식론적으로 언급하면, 진정으로 실재하는 필연성을 일탈하는 그 긴장의 주체를 허용하는, 밀착적인 그리고 분산적인 힘들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융합에 저항하는 것을 발생시킨다.

이론적으로 언급하면, 거기에는 언급할 아티클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높이가 다른 음표들을 이음줄로 이었으면서도 단 하나의 음표만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역주),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경계하고 있을지라도 형식화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독특하게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호학적 문체”를 자연스럽게(in and of itself)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그 능력을 사위적인 긴장성에 귀속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기호학적 문체”가 내재양태적인 통사론의 한정사(a, the, this, your 따위)와 같은 일종의 지위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하여간 비-능력(not-being-able-to) 상에서 오버랩과 반작용을 계속하고 있는 요망과 함께, 완고한 언동의 분석은, 우리가 고찰했던 바와 같이, 아종의 정념적인 의미효과를 생산하고, 가능한 응답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사실 우리는 충동적인 인간의 요망이, 예를 들어, 그것이 그것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은 능력(being-able)의 직관적인 출현에 의해 수행되는 한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그것에 제공하고 그것이 활기를

떠게 하는 것 같은 비-능력(not-being-able-to)을 추종하는 완고한 인간의 요망으로서의 동일 의미효과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담화의 레벨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효과는 독특한 양상화로 나타난다. 전제조건에 의해, 그리고 긴장적인 연속체(continuum)의 레벨에서, 이 동일한 의미효과는 또한 전성을 전조로 바꾸는 편차적인 방식과 상응한다.

우리는 5개의 명제를 담고 있는 다음의 가언을 제안하고 싶다.

1. 양태적인 조정은 담화로 동원(고조)되고 양상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양상화는 긴장적인 전조의 언급된 동원(mobilization)으로부터 유래하며, 그들을 정념적인 성향으로 변형시킨다.

2. 사회 방언적(sociolectal) 또는 개인 언어적(idiolectal) 용법(관례, usage)의 결과로서의, 이러한 성향은 내포적인·정념적인 분류법의 일부로서의 전성 앞에서 동결되고 고정관념이 된다.

3. 일단 그들이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들은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로 분류되고 그때 그렇게 동원될 수 있다.

4. 모든 고정관념의 양태적인 시퀀스 안에서, 내재양태적인 통사론은, 용법(관례)으로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그 자체로서의, 명제 2 안에 일임된 양상의, 따라서 어떤 긴장적인 전조의 동결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동결된 조직 안에 부여된 양태성의 삽입에 의해 생산된 의미효과는 착란적인 레벨의 성향의 용법에 의해 법전화(codification)로 귀착된다.

5.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조직을 담화로 결합함으로써, 따라서 성향의 법전화는 또한 동원된 긴장적인 전조의 형식으로 동결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관념의 긴장적인 전조로부터 유래된 “기호학적 문체”는 정념적인 분류법으로 선택된 양태적인 성향과 함께 용법으로 설치되고 동결된다. 정념이 그들을 양식화한 언의발언적인(enunciative) 프락시스의 제멋대로의 사고로 만들 수 없는 그 덕분에, “기호학적 문체(Per Aage Brandt<sup>65</sup>)가 언급한 것과 같은 “ambiances”)”는 용법을 통해 긴장적인 전조로만 나타난다.

65) 파리의 고등연구원(L'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의 기호언어학연구회 회원. —브란트(Per Aage Brandt, 1944~ )는 아르헨티나의 브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출생으로서, 덴마크의 작가, 시인, 언어학자이다. 그는 Copenhagen 대학에서 로망스 언어학으로 문학 석사가 되었으며(1971), 프랑스의 Sorbonne 대학에서 기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87). 그는 기호학, 언어학, 문화, 그리고 시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관한 주제로 많은 저서를 발행했다. 앙비앙스(ambiances); 주체의 표면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부가물을 덧붙이는 것. (역주)



정념의 방법론(Methology of Passion)

용어법(Terminology)

전의 제안과 명제가 고취시킬 수 있는 그 확신의 관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방금 시험했던 이론 군(群)의 신속한 추론은 몇 가지 착상(ideas, 막연한 느낌)에 빛을 비추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념의 기호학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잔존한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서 정념적인 우주론을 기술하는데 필연적인 도구의 간결한 용어법적 평가를 만들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위적인 긴장성은 부가긴장성과 동정되었기 때문에 의미작용의 전제조건인 세트의 지시하며, 한편 그것은 긴장적인 주체 또는 ‘근접주체’를 정의하고, 낭중분할을 촉진하고 있는 긴장의 효과 아래 전성을 생성시키고, 다른 한편 윤곽이 그려진 “가치의 투영” 상의 피신타의 교차점은 결합가를 생산하는 것으로 운명이 지어진다.

고유 전제조건인 연속 군(群)의 세계를 이탈함으로써, 그때 우리는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양태화를 생산하고 있는 전성의 전조의 자유재량과 조우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양태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제한된 의미 안에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양태성이라고 호칭된 것을 오직 예외뿐이다. 둘째, 광대한 의미 안에서 그들은 또한 실존적(존재자적) 시뮬레이크러(existential simulacra)를, 즉 양태성에 의해 폭로된 허수의 공간과 곱해진 주체에 의해 투기된 함수를 예외시킨다. 표층 화술구조의 레벨에서 포착된, 어떤 조건 하에서 화용론적인 그리고 인식적인(cognitive) 차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양태화는 양태적인 조정으로, 조정의 통사론적 전개를 통하여 일시적인 동정을 요구하는 그 양태적인 주체 안에서 일종의 시뮬레이크러로,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통사론적 함수 작용의 이중성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내재 양태적인 통사론이라고 호칭했던 그것은 방향적 차원(thymic dimension), 표층화술적인 통사론의 제3차원(방향적 구성의 환원적 목류)의 독립을 보증한다. “euphoria(행복감)”와 “dysphoria(불쾌감)”의 변이(변수)는 제3차원의 일부이지만(트라이앵글 최상위 꼭짓점의 phoria를 상상하라. -역주), 그들은 방향적 대상으로서의 방향적 차원에서 보다 더 이중적인 것으로 함수 작용을 하여, “suffering(고통)”과

“pleasure(기쁨)”의 격상(格象, figure)으로서의 또 다른 것(figurative)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방향적 변형을 초래케 한다.

통찰은 인식적인 차원의 그것과 함께 이러한 차원의 이론적인 진화의 실례(comparison)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인식적인 차원은 먼저 화용론적 차원의 구성적인 일부가 되어, 특히 계약·응축과 생크션(sanction)의 순간에, 동정된다. 그것이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자마자, 인식적인 것에 속한 다수의 양태적인 변이(변수)와 마찬가지로 정보순환의 부침(浮沈, ups and downs)은 지시 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화용론적인 차원의 변형에, 그때 그 자신의 자율성을 요구했던 당해 이론적인 진화에 연결된 존재(being) 없이 함수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직접 잘라내고 있는 통사론적 경로의 최초의 이해는 화용론적·화술적 통사론에 의해 생산된 인식적인 효과의 그룹을 관통하며, 그때 인식적인 차원은 고유의 화술적인 차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방향적 영역은 2개의 다른 차원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가치론에 등록된 가치의 대상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는 행복감과 불쾌감의 교번(交番)과 마찬가지로, 화용론적인 그리고 인식적인 프로그램을 동반하는 양태시리즈의 ‘정념적인’ 효과의 생산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사유하게 되었다. 두 번째, 양태적인 제약과 화용론적·인식적 차원에 의해 생산된 “행복감/불쾌감”의 결과는 정념적인 의미효과를 그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념적인 궤도로 고찰하기 위하여 그것이 화용론적·인식적 통사론에 어떤 무엇의 빛을 더 이상 지지 않는 이유로 존재하며, 우리는 표층의 화술적인 통사론의 분리차원으로서의 방향적 차원으로 실행했다.

우리가 기왕에 제안했던 것처럼, 연속 군(群)과 이중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전제조건적 레벨과 불확정 속으로 진략한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 간의 관계는 전환의 단순한 관계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환을 2개로 분류(수평 전환, 또는 ‘변형’, 그리고 ‘수직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고찰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불연속적인 실재물 간의 위치를 단지 획득할 뿐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 레벨의 불연속 단위와 함께 소정의 레벨 상의 불연속적 단위를 겨우 ‘통합’할 수 있을 뿐인 것에 따르고 있는,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e)의 ‘통합’의 개념을 위한 진리를 포착한다. 따라서 그것의 하위성분의 호출과 범주화와 함께 자유재량이 이러한 경우에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우리가 착란적인 구조로 넘어갈 때, 우리는 최상위의 인식론적인(epistemological; cognitive가 아니다. -역주) 또는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 나타나고 있는 담화의 실재물(entities) 안에 폭로되어 가정된 절차의 그룹으로 정의했던 말하자면 성직자 회의 같은 소집(convocation)을 활용했다. 이러한 실재물은 사위적인 긴장성이 관련되는 한 연속적이며, 기호현상-화술적인 것이 관련되는 한 불연속적이다. 예를 들어, 담화 안의 전성의 전조의 소집은 양상화로 나타나고, 방향적 차원의 소집은 정념적인 우주의 표출 속성(property)의 세트를 포함하고 있는 담화의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의 차원의 형식을 선택한다. 같은 방식으로, 언외감수의미소(patheme)는 정념적인 의미효과의 표출을 위해 필요한 착란조건의 세트(figure의 차원)로 정의된다. 이 점에 관해 부연한다면, 우리는 변화과정(process)을 정념적인 결합체를 포착하려고 시도하든지(thymic의 차원) 또는 이러한 결합체 안에서 착란적인 주체의 일시적인 동정을 시도하든지(figure의 차원),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언외감수의미소(pathème)의 역할과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의 역할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예로 “감수성(susceptibility)”을 선택한다면, 그 변화과정의 언외감수의미소(pathème)는 반응을, 자존심의 상처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시퀀스의 전체를 드러낼 것이며, 그때 이것으로부터 역행과 행동을 유도해 내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게다가 동일 주체를 위한 이러한 종류의 변화과정의 그 회귀(recurrence)에 의해 동정될 수 있는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의 역할은 그 주체를 자존심의 상처의 해석단계에서, 다시 말해서 “속을 타게 하는(vexed)” 사람의 행동단계에서, 여실히 사실적인 것으로서의 성격을 만들 수 있다(figure의 차원).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담화의 명확한 분석에 기초된 변화과정-언외감수의미소의 생성적인 형식(figure의 차원)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식은 정전(正典)적인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의 도식(schema)이라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의 역할”은 그들이 깊이 감동받은 주체의 “착란적인 프로그래밍”의 성격을 만듦으로써 성향(disposition)의 착상(idea, 막연한 느낌)과 겹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pathemic=disposition=idea) 절차상의 편차로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깊이 감동받은 그 주체의 속성을 함수적인 반복의 기초 상의 전제(resupposition)로, 그리고 변화과정의 결과상에 기초된 인식적인(cognitive) 계산으로(즉, 불연속의 실재물 상에서), 재구성한다면(figure의 차원

에서), 우리는 그것을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pathemic; non-figurative 차원의)의 역할과 동정하고 지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동일 속성을 감정(feeling)의 방식으로, 양상적인 형식으로부터 유래된 프로그래밍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동기유발의 논리를 적용시킬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성향으로 간주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향은 그 절차를 정념적인 우주의 긴장적인 기초에 진리를 잔존시키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양상적인 성분을 포함하며, 이에 반하여 주제적(thematic) 역할은 그것이 정념적인 행동의 강류(class)의 인식적인 재구성 절차의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상적인 원소를 결코 포함하지 못한다.<sup>66)</sup>

### 내포적인 · 정념적인 분류법

용어법적 평가는 어느 면에서 방법론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 그 공헌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정념적인 의미효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론을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정념적인 우주의 구성은 인식론 또는 용어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대 난국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 우리는 분석가들이 정념적인 의미효과와 중심에서 문화적 변이(변수)의 형식과 직면하게 된 기호학자, 철학자, 어의학자가 되어 발생된 스크린을 다루게 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념의 그 분석은 언외발언적인 프락시스와 담화의 세팅 없이 떠맡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고,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념적인 · 개인 언어적인 것 그리고 사회 방언적인 것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언외발언적인 프락시스와 어근:** 언어학자들은 보통사람의 사실과 “언어학적 일반개념(linguistic universal),” 그리고 랑그를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보통 말하는 그런 것, 다시 말해서 문화적 영역에 아종적인 그리고 일반개념을 완성하고 재해석하는 체계 사이의 간극을 구별한다. 그러나 랑가주와 랑그(language and langues<sup>67)</sup>는 내포적인 것(the virtual)과 외연적인 것(the actualized)의

66) “patheme, pathemic, disposition”의 관계는 에스노-분류법(ethnotaxonomy)에서 인용한 도표를 참조하라. (역주)

67)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언어현상의 총체인 “랑가주(language)”를 분석하여, 개인적 · 일시적인 “파롤(parole)”과 사회적, 항구적인 “랑그(langue)”를 구별하였으며, 랑그를 성립시키는 각 항목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립되어 여러 관계에 의하여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구조 · 체계를 공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제1장 정념의 인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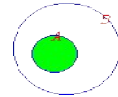
하위분야로 전락하고, 따라서 담화로 실현된다. 일반 기호학의 텀 안에서 그리고 언어학적 그 자체의 텀이 아닌 것 안에서, 생성궤도로 조직된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은 한편으로 보통사람의 사실로 이해된 의미작용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일반실재물을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재물은 소정의 문화 안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문화적 사실로서의 의미작용의 성격으로 만들어진다.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 속하여 영속하는 그리고 생성궤도에 균등하게 퍼져있는 기호학적 실재물의 두 종류는 내포적인 것과 외연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문화, 선택, 이동, 그리고 의미작용의 일반개념에 적용된 보충물(여집합, complement<sup>68)</sup>)은 랑그가 랑가주로 존재하는 바로 이러한 일반개념이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미작용의 기초구조와 매우 폭넓게 퍼져있는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구조언어학은 소쉬르의 이러한 사상에서 시작된다. (역주)

68) 여집합(complementary set): 집합론용어의 하나. 보집합(補集合)이라고도 한다. 전체집합 U의 한 부분집합 A가 주어진 경우 전체집합 U에는 속하지만 집합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집합 A의 전체집합 U에 관한 여집합이라 하고  $A^c$  또는  $A^c$ 로 나타낸다. U: 전체집합  $A^c$ : 여집합.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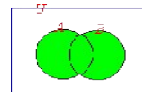
부분집합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기호  $A \subset B$ 로 나타낸다. 이 때,  $\emptyset \subset A$ ,  $A \subset A$ 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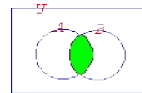
합집합

정의:  $A \cup B = \{x \mid x \in A \text{ 또는 } x \in B\}$   
 (보기)  $A = \{1, 2\}$ ,  $B = \{2, 3\}$  일 때,  $A \cup B =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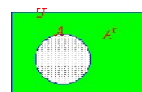
교집합

정의:  $A \cap B = \{x \mid x \in A \text{ 이고 } x \in B\}$   
 (보기)  $A = \{1, 2\}$ ,  $B = \{2, 3\}$  일 때,  $A \cap B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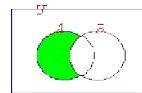
여집합

정의:  $A^c = \{x \mid x \in U \text{ 이고 } x \notin A\}$   
 (보기)  $U = \{1, 2, 3\}$ ,  $A = \{2, 3\}$  일 때,  $A^c = \{1\}$



차집합

정의:  $A - B = \{x \mid x \in A \text{ 이고 } x \notin B\}$   
 (보기)  $A = \{1, 2\}$ ,  $B = \{2, 3\}$  일 때,  $A - B = \{1\}$



형태(초미-화술)적 가치론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 원소의 체계가 이 이론 안에서 일반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저작과 문화에 의지하고 있는, 따라서 변하기 쉬운 그리고 아종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그 4개의 원소는 고유의 형태(초미-화술)적 가치를 결코 포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화적 실재물에 달라붙은 그리고 그들을 일반개념과 구분하는 이 매우 단순한 방식은 그들을 “내포적인 분류법”으로 간주케 한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언외발언 주체의 독창력에 의해 단순하게 생산된 작용을 분리함으로써, 그리고 언외발언 작용으로의 직접적인 평가를 만들고 있는, 개인적인 또는 집합적인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일반개념의 ‘선택,’ ‘이동,’ 그리고 다른 보충물(여집합, complement)로 고찰하도록 강력하게 유혹을 받고 있다. 그렇게 그것은 그 체계를 형성하며, 일단 체계가 설치완료 되면, 그것은 언외발언의 존재자로서의 독립을 자신의 권리로 요구한다. 이러한 작용은 실현되기도 하고(내포화되든지, 또는 외연화되든지), 실현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러한 지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언외발언의 프락시스를 위로 향상시킨다. 사실, 문화적 아종성은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 상의 용법을 통하여 통합된다. 사회적 담화는 일반개념의 소집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회전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진부해진 그리고 고정관념이 된 형태(초미-화술)를 생산하고 있는, 담화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산된 그 고정관념은 감쪽같이 조직된 그리고 일반개념으로 체계화된 어근으로서의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로 반환된다. 이 언외발언적인 프락시스는 우리가 기호학적으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착란적인 레벨과 비-착란적인 레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동작으로 존재한다. 아주 흔히 그러나 항상은 아닌, 따라서 생산된 “어근(primitives)”은 담화와 함수 안에 소집된 어느 의미에서는 내포(언외지의, connotation) 안에 소집된, 일반개념으로부터 유래된 그 외연(denotation)과 전혀 다른, 형태(초미-화술)를 떠받쳐주고 있는 분류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외발언의 프락시스는 생성적 변화과정과 발생적(유전적) 변화과정을 융화시키고, 역사의 형식화와 마찬가지로 의미작용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atemporal) 형식화의 생산을 담화 안에서 연합시킨다.

정념은 그렇게 내포적인 분류법을 위해 매우 비옥한 배경을 우리에게 제

공하며, 분석가는 이것이 특히 일반개념에 투기된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격자(grid)”의 연구에 그 자신을 빌려주는 영역이라는 것을 즉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양태적인 “조정(arrangement)”은 정념의 생성체도의 최종-틈의 실재물로 존재하며, 담화에서의 그 표현은 소집의 질차와 부합하여 ‘성향’을 생산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집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가능한·양태적인 조합으로 상상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며, 우리는 각각의 문화가 정념적인 의미효과 또는 어휘소-정념으로 나타날 것인 그들의 어떤 것을 선택할 뿐이라는 것을 관측한다. 자명한 것으로서의 내재양태적인 통사론과 부가긴장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향은 다소간 예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체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의 일부를 분명하게 연기하지만, 항상 불확정(indetermination)과 “발명(invention)”의 원소를 포함한다. 다른 한편, 반복의 기초상의 추정에 의해 구성된 “언외감수의미소적 역할”은 극단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담화 안에서 고정관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문화의 소정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만들고 있는, 반동적으로 정념적인 어근을 만들고 있는 담화 안에서, 성향으로서의 어떤 양태적인 조정의 “용법(관례, usage)”으로 존재한다. 그때 그것은 고려중의 문화 안에서, 정념적인 형태(조미-화술) 안 착란적인 소집의 대상이 될 것인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겪게 되었던 양태적인 조정으로만 존재한다. 만약 그것이 단순히 양태적인 구조와 범주의 문제로만 존재한다면, 그 문화적인 ‘격자’는 제한된 영향력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정(즉, 구조 간의 교차점과 범주 간의 잠재적인 조합)”을 다루고 있는 한, 정념은 어떤 실례가 이러한 잠재적인 조합을 언외로 지시하든지 외연화하든지 담화 안에서 그런 것으로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실례는 용법(관례, usage)에 의해 생산된 어근을 결합시키는 그래서 정념적인 분류법을 생산하는, 언외발언적인 프락시스로 존재한다.

**분류법의 유형과 레벨:** 랑기주 그 자체는 그것이 자연세계를 개념화하는 한에 있어서는 분급에 의해 진척된다. 그들은 문화를 전체 공간 또는 시간(area or period)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에스노-분류법으로, 그리고 소정의 공간 또는 시간의 편차적·분류법적 중층의 아종을 만들고 있는 사회분류법으로 구별된다. 그 기준, 즉 상부 또는 중부로부터의 정념, 귀족으로부터의 정념,

그 중간계급 또는 하층계급의 정념, 코르시카 섬(Prosper Mérimée)<sup>69)</sup> 또는 노르망디(Guy de Maupassant<sup>70)</sup>로부터의 정념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것이 사회문화적, 사회경제적, 또는 사회지리학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류법은 소정의 문화에 본질적인 것이 되어 나타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것들은 아직 문화의 구성요소로 잔존하고 있는 것 그 위에 추가로 조립되어 나타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보다 더 일반적인 체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념의 이론은 관념적인 또는 철학적인 체계로 나타나고, 실로 과학적인 경향, 이를테면 생태학, ...기호학(semiotics)을 가지고 있는 체계로 나타난다. 결국 사회방언적인 것과 개인 언어적인 것 간의 편차는 정념의 경우와 반드시 관련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념에 관한 데카르트(René Decartes<sup>71)</sup>의 이론이 한편으로 사회문화적인 전통에 기초

69) 프로스페 메리메(Prosper Mérimée, 1803~1870): 프랑스의 극작가·역사가·고고학자. 그는 중편소설 「콜롬바(Colomba)」에서,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도록 오페에게 강요하는 코르시카의 한 젊은 아가씨를 묘사하고 있다. (역주)

70) 모파상(Guy de Maupassant, 1850~1893): 부모가 모두 노르망디 인이었고, 아버지는 하급귀족 가문출신이었다. 단편소설들은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을 다룬 것, 노르망디 농민들을 다룬 것, 관료사회를 다룬 것, 센 강변의 생활을 다룬 것, 서로 다른 계층의 감정 문제를 다룬 것, 그리고 「오를라(Le Horla, 1887)」 같은 후기 소설에서 약간 불길한 전조를 보이는 환각을 다룬 것 등이다. 이 소설들을 한데 모으면 1870~1890년의 프랑스인의 생활상이 포괄적으로 드러난다. (역주)

71) 데카르트(René Decartes, 1596~1650): 그는 1649년 「정념론(Le Passions de l'âme)」에서 인간의 육체작용 대부분이 외부의 물질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René Decartes, 1596~1650)의 도덕관은 반그리스도교적이었다. 데카르트는 칼뱅주의 및 예수회와는 대조적으로 신의 은총이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덕이 쌓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진리발견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데카르트의 낙관적 견해는, 구원을 오로지 신이 내리는 은총의 선물로만 여긴 예수회 운명예정설 변호론자이자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의 비판적 견해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데카르트는 유덕한 행동이 은총보다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 12세기 아랍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인간의 본성에 깃들여 있는 신의 상징이어서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칭찬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오직 타인의 선(善)을 위해 호의를 갖고 행동할 때만 선하며 이러한 관용이 최고의 덕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념이 그 자체로 선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에피쿠로스주의자였으며, 선을 이해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서 극단적인 도덕적 낙관주의자였다. 그가 보기에 정념은 자발적인 의지이며,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인간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정념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에서 스토아주의자이기도 했다. 데카르트는 정치철학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지만, 사물들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세네카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정을 생애 최고의 거룩한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친구를 속이도록 권하는 마키아벨리의 충고는 거부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국가·가족 등 사회집단의 일원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 자신보다는 집단의 이익



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리고 귀족의 관념형태에 영향을 받는 한에 있어서는, 주체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사회방언적인 분류법에 기초된다고 언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한 그것이 철학체계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된 관념론적 분류법에 기초된다.

어떤 예는 그것이 내포분류법(connotative taxonomies, 또는 인외지의적인 분류법)에 관한 관련성질의 구체적인 예증을 제공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한다. “야망(ambition),” “선망(envy),” 그리고 “에물레이션(경쟁심, emulation)”은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를 공유하지만, 어느 면에서 그것은 문화와 시간(연대, period)에 따라 변한다. 이것은 특히 사회경제적인 문(門, division)에, 즉, 각각의 사회계급 또는 군(群)에 외접하여 둘러싸인 에물레이션, 이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야망과 선망에 의지한다. 더 나아가 야망과 에물레이션은 “위쪽으로 동여매여지고,” 반면에 선망은 보다 더 평등주의의 원칙을 전제하는 것 같다. 이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정의된 따라서 수많은 사회적 레벨을 가지고 있는 분계사회성 안의 야망으로 존재하는 것일, 그리고 약간의 사회적 레벨과 유사한 문(門)만을 가지고 있는 사회성 안의 에물레이션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것일, 바로 그러한 것으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것의 위에서 만약 사회적 규범이 그들의 사람들을 그들의 본래의 계급 안에 단단히 그 상태로 붙잡아 둘 생각이라면, 에물레이션은 야망으로 환원된 그 자체를 발견할 것이며, 그리고 야망 그 자체는 선망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sup>72)</sup>의 이론의 광휘에 근거하고 있는, “사물의 지옥(L'enfer des choses)<sup>73)</sup>”에서,

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역주)

72)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1923~2005, 프랑스의 철학자, 문학비평가, 역사학자, 인류학자, 모방언어학의 발견자): 1. 1923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태어난 르네 지라르는 1947년 샤프트 국립고등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듀크 대학교, 브린모 대학교, 뉴욕 주립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등의 교수를 거쳐,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현대사상 및 프랑스 문학과 문화를 가르쳤다. 1961년에 첫 저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을 발표했고, 그 뒤에 인간의 욕망과 구조를 밝혀내려는 작업의 결실인 「폭력과 성스러움(La Violence et le sacré)」으로 1973년 프랑스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문화의 기원(Les origines de la culture)」으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2004년 “올해의 상”을 받고 이어서 2005년에는 “불멸의 40인”으로 불리는 등 프랑스 지식인의 최고 명예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종신회원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2. 그는 저서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폭력의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욕망에 주목하였다. 그는 폭력이 타인에 대한 모방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이러한 모방 욕망은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에 대한 동경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은 결국 낭만주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발적 욕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비자발

장 피에르 뒤퓌(Jean Pierre Dupuy)와 폴 뒤무셀(Paul Dumouchel)은 상호주관적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채널적인(channel)<sup>74</sup> · 모방적인 욕망(desire)으로 존재하는 그것의 주된 목표의 교묘한 책략에 의해 이러한 경우 안에 조직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상호주관성’의 변덕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안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현상을 가치대상의 존재자 앞에 정확히 나타나는 모방적 욕망으로 허락한다면, 우리는 내포적인 분류법에 의해 만들어진 그 선택이 전방의 의미작용의 전제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하도록 유도 받았을 것이며, 반면에 그들은 아직 가치론적 체계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것은 전제조건 지위와 양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방식을 집합적 주체의 함수로 정의하는 따라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에 이미 순응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기서 공동체적 인의발언의 주체가 어근으로서의 내재적 규정의 그 자신의 메커니즘을 긴장적인 연속체 안에 명기하는 것 같다. 그 제안을 우리는 동일한 인의지시로 기여하는 “기호학적 문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초구조라고 호칭했던 것의 레벨 위에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담화의 목상 안에서 딸림음처럼 인식했던 가치의 장조(長調)적인 유형에 따르고 있는 정념적인 체계 또는 영향력을 조직하도록 제안하는 몇 가지 이

---

적 욕망이며,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욕망을 달성하려는 ‘착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폭력을 행사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와 같이 욕망과 폭력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르네 지라르는 인류가 ‘착폐’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공동의 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해결하여왔다고 주장한다. 희생양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욕망의 경쟁에서 일어나는 원초적인 폭력과 구분되어야 했으므로 이를 “성스러운 것”으로 치켜세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종교, 문학과 같은 것 역시 이러한 희생양의 제의의 한 종류라고 보았다. (역주)

73) “사물의 지옥(L'enfer des choses): 폴 뒤무셀(Paul Dumouchel), 장 피에르 뒤퓌(Jean Pierre Dupuy) 저, 르네 지라르 문화이론 “삼각형적욕망이론(三角形的欲望理論)”에 의거하면서 근대 사회의 성격과 특수성의 그 개념을 검증한다. 경제기반에 기초한 제반 질서·가치·사상에 지배되는 현대세계를 개관하고, 인간과학 중심으로 종교·신화 그리고 신들의 부재 “탈성화(脫聖化)”의 사회구조를 밝힌다. ① 기호와 선망(羨望, 현대경제 혹은 만인의 만인들에 대한 투쟁;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가, “보는가 아니면 볼 수 있는가?”를 만드는 욕망의 다양한 모습; 자유의 논리, 사랑의 논리). ② 회소성의 “양면가치(Ambivalence, 회소성과 폭력; 회소성과 공동체; 모방의 위기; 회소성과 모방의 위기; 폭력과 경제; 자유주의 전통; 사회제도화)의 경제기반에 기초한 제반 질서·가치·사상에 지배되는 현대사회의 본질·특수성을 개관하고 인간과학 중심으로 종교·신화 그리고 신들의 부재의 탈성화(脫聖化)된 사회구조를 밝힌다. (역주)

74) channeling: 물리학 실험에서, 가속시킨 이온 빔을 단결정(單結晶)에 입사(入射)시킬 때, 그 입사 방향이 결정축에 평행일 경우 입사 이온의 투과율이 현저하게 증대되는 현상. (역주)

론이 존재한다. 그 “삶/죽음”의 추상적인 가치론을, 정신분석학은 삶이 수행하든지 죽음이 수행하든지(Sigmund Freud),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반대로, 또는 동시에 소모하고 유인하는 “선의 대상”과 “악의 대상(Melanie Klein)<sup>75)</sup>” 뿐만 아니라 유미이론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다 더 특히 중세의 정념적인 가치의 기초 위에서, “물/공기/흙/불”의 격아강적인 가치론을, 차라리 불규칙적으로 사용했다.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 상에서, 양태화가 관련되는 한, 내포적인 분류법은 총괄적인 척도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정념으로 폭로된 따라서 논리적으로 가능한·양태적인 각각의 조정에 권위를 부여하고 배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의 명예에 상당한 행동의 전체적인 세트는 17세기와 18세기의, 그리고 그 위에 다소 19세기의 정념적인 영역으로부터 제외되고, 반면에 그들은 “감수성(susceptibility),” “성마름(성미가 급함, irritability),” “쉽게 모욕당하는(offended) 성격” 또는 오늘날의 폭력적인 격정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행동이 주체의 능력 안 주제적 역할로 등록된 사회적 규범의 일부인 한, 우리는 집합적인 호응과 근원적인·양태적인 능력의 프레임 안에

75)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 멜라니 클라인은 어린이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며,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관찰해서 어린이의 무의식 환상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으며, 2~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주 어렸을 적에 빈의 한 치과 의사를 찾아간 것을 계기로 일찍부터 의학에 관심을 가졌지만 21세에 결혼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다. 비록 결혼생활이 불행하기는 했지만 3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녀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에 부다페스트에서 정신분석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프로이트의 절친한 동료인 S. 페렌치와 함께 정신분석을 하게 되었다. 페렌치는 그녀에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신분석을 해보도록 권유하여 1919년 그녀의 첫 논문이 나오게 되었다. 2년 후 그녀는 K. 아브라함의 초청을 받아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로 갔으며 런던으로 이주한 1926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아동의 정신분석(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1932)」에서 그녀는 자신의 관찰 내용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론을 전개했다. 어린이들의 놀이가 불안통제하는 상징적 방법이라고 믿은 그녀는 어린시절과 연관된 심리적 충격이나 사고를 알아내는 수단으로서 장난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녀의 대상-관계 이론은 이 시기의 자아 발달을 심리적 충동과 연관된 다양한 욕구의 대상,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과 관련시켰다. 그녀는 어린이의 초기발달에서 어린이는 전체적인 대상보다는 부분들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하며 원초적인 확인양식을 클라인은 편집증적-정신분열증적 태도(paranoischizoid position)라고 명명했다.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은 우울증적 태도인데 이때 유아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같은 대상 전체와 관계를 갖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유아가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이중적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순화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한다. 클라인은 편집증적-정신분열증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불안은 성가신 것이어서 자신의 절멸을 초래하기도 하며 2번째 태도는 우울증적이어서 유아 자신의 파괴적 충동에 따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었다. (역주)

잔존한다. 이러한 법전화와 동반하고 있는 규범이 동류체적인·양태적인 구조를 지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동일 행동을 폐기하는 것으로 전락하자마자, 존재의무(having-to-be), 또는 실행의무(having-to-do)와 같은, 그러나 그 자신의 통사론적인 독립과 그것이 나타나는 그 새로운 문화 안에서, 어떤 계약·응축으로 규정화되지 못한 복합적인·양태적인 조정으로서의 그것은 오로지 정념적인 '성향'으로서만 해석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커바일(Kabyle)<sup>76</sup>을 위한 따라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sup>77</sup>에 의해 기술된 도전을 준비하

76) 커바일(Kabyle): 1. 지중해에서 그랑드카빌리에 산맥, 텔리스에서 아오키스 곶에 걸쳐 있는 산악지대에 흩어져 산다. 인구는 1970년대 후반 약 200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수 그리스도교도를 제외하고 거의 이슬람교를 믿는다. 대부분 곡물 및 올리브를 재배하면서 염소를 사육한다. 커바일(또는 주아우아·즈와와)이라는 이들의 언어는 할센어족에 속하는 베르베르어이다. 전통적으로 각 부락은 라마단(Ramadān)에 단식을 할 수 있는 성인남자들의 회의에 의해 통치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관습법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재산과 사립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 각 부락은 경쟁적인 씨족들로 분할되어 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 카스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장장이나 푸주한은 농노계급(이전에는 노예)에 속한다. 남자의 전통의상은 느슨하게 늘어뜨린 겹옷, 두건 달린 망토, 챙이 넓은 밀짚모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들은 대개 뺨 모양의 꾸불꾸불한 줄무늬가 누비진 화려한 면직물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비단 스카프를 쓴다. 2. 알제리의 주요 언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이지만, 공용어는 아랍어뿐이다. 아랍어는 정식이랍어, 아랍어-알제리 방언으로 나뉘지만, 공용어는 정식이랍어이다. 알제리방언은 오스만 제국의 군인에 의해 도래된 터키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던 서쪽에서는 스페인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1962년 독립 이후 식민지 시대의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급속한 아랍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아랍의 동화를 거부하는 베르베르 언어 사용자의 반발을 초래하여 1980년대에는 베르베르 문제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2002년 헌법 개정에 의해 베르베르 말이 언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프랑스어는 의무교육에서 배운 외국어이고, 제2언어로 지급도 널리 사용되고, 많은 국민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역주)

77)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참여 지식인으로 “부르디외 학파”를 형성하고,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범세계적인 지식인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저서에는 「구별짓기」, 「호모 아카데미쿠스」 등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참여 지식인이며, 파리 사회과학대학원(EHESS)과 프랑스 최고 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의 사회학 교수로, 1930년 프랑스 남부 베아른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파리의 명문 루이 르 그랑 고등학교를 거쳐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25세 때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어 지방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알제리대학 조교로 근무하면서 저술 활동을 시작해 1958년, 처녀작인 「알제리 사회학」을 발표하고, 34세에 파리 고등실천학교 학과장으로 부임하였다. 1968년 유럽사회학센터를 설립하고 「사회학연구」를 발행하기 시작, 이 잡지에 활발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부르디외 학파”를 형성하고, 이때부터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하는 한편, 후기 구조주의 입장에서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입장을 취했다. 즉 사회구조를 개관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고수하면서, 사회학적 방법론과는 거리가 먼 문화예술 현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학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가는 방식 등에 관한 저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1970년에는 학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위한 역저 「재생산」을 출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41세 때인 1981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취임한 이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는 틈틈이 현실 참여에도 앞장서 텔레비전에 출연해 언론 기자들을 비판하고, 실업자들을 지지하며, 문명 파괴

고 있는 그 몸가짐과 어떤 무엇 그 외의 사회적인 정향을 위한 배려의 몸가짐은 직접적으로 함수적인, 그리고 실행능력(being-able-to-do)과 존재능력(being-able-to-be)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경멸(disdain),” “거만(arrogance),” “자존심(pride)” 등과 같은 것으로서의 사회주의자보다 다른 것(즉, 개인 언어적인 것. -역주)에 의해 인식된다.<sup>78)</sup>

**정념적인 명명법(nomenclature):** 랑가주는 정념적인 우주 그 자신의 개념화를 암시하고, 우리는 아종적인 어휘장 안에서, 즉 전체문화와 함께 동일한 시공(時空)에 걸쳐 존재하는 분류법의 주요윤곽을 보여주고 있는 “정념적인 명명법”의 어휘장 안에서 이것의 최초의 형식화를 발견한다. 물론 우리는 프랑스어 명명법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정념의 사전적인 정의는 정서적인 삶의 주요한 영역으로 존재할는지 모르는 그 형식으로서의 분류법적인 지시의 시리즈를 포함한다. 프랑스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즉 “경향이 있는(inclined to),” “있음직한(likely to),” “다감한(susceptible)”과 같은 형용사구에 의해 추가적으로 보충된 “정념(passion),” “감상(sentiment),” “감정(feeling),” “복각-성벽(伏角-性癖, inclination),” “기호(penchant),” “기분(mood),” (유머의, 번덕의, 체액의 humoral) “성향(disposition),” “애티튜드(attitude),” “기질(氣質, temperament),”<sup>79)</sup> “성격(character)”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

반대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지식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저작으로는 「실천이론 개요(1972)」, 「구별짓기(1979)」, 「강의에 대한 강의(1982)」, 「호모 아카데미쿠스(1984)」, 「국가귀족(1989)」, 「텔레비전에 대하여(1996)」, 「맛불(1998)」, 「경제학의 구조(2000)」 등이 있다. (역주)

78) 이러한 소수의 예는 담화로 세팅이 될 때 ‘성향’으로 소집되지 않는, 사실, ‘조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양태의 시리즈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여기서 양태범주의 교차점(intersection)으로, 즉 내포적으로(virtual) 잔존하는 그리고 그것을 외연화할 수 있는, 언외청자(enunciator)를 위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발화의 프락시스의 오직 그 반동적인 효과만으로 잔존하는 조정으로, 입증되었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조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분석가의 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복합수송적 통사론의 형식 안에서, 조정의 내부적 약동성의 존재자로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양태 시리즈 안에서 양태적인 통사론의 현존재가 발화의 프락시스의 그리고 정념적인 분류법의 적용의 반동적인 결과로 존재하는 그 귀결(이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을 유도해낼지도 모른다.

79) 기질(氣質, temperament): 일반적으로 성격의 유전적·생물학적 기반을 말하며, 특히 생화학적 변화와 신진대사에 관한 측면을 가리킨다. 이 말은 성격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인격의 의지적 측면을 성격, 감정적 측면을 기질로 구별하여 쓸 때도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질을 담즙질(膽汁質)·흑담즙질(黑膽汁質)·다혈질(多血質)·점액질(粘液質)의 4가지

다.<sup>80)</sup>

먼저 정념적인 의미효과를 지시하는 어휘소에 의해 정념적인 우주의 문(門, division)일지라도, 그것은 문화의 바로 그 기초 안 정념의 내재이론을 폭로하는 보다 더 추상적인 문화의 격자가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급은 정념적인 우주의 최초의 에스노문화적 조직으로, 그리고 이 동일 우주의 함축적인 이론화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 실험될 만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전자를 그것이 사용하는 파라미터(매개변수)로 비유케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정념의 심리학적 그리고 철학적 이론은 그들이 그들을 그들 자신의 체계 안에서 재 정당화하는 바로 이러한 관계적 기초 상에서 랑가주의 명명법으로 사용하고 시도하는, 그 실험 없이 그것을 채택한다. 이것이 관련되는 한, 우리는 시도된 정의적 재정당화, 즉 그 체계의 기초가 소정의 문화와 관계하여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상(sentiment)이 표상과 연결된, 안정적이고 내구력이 있는, 복합 정서적(affective) 상태로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정동(情動, 감정, emotion)으로서의 그것은 일반적으로 편차적인 혼란, 특히 침체신경계적인 성질의 혼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격앙의 정서적인 반작용으로 존재한다. 심리학자 테오뮈릴 리보(Théodule Ribot<sup>81)</sup>)는 그것이 사실상 찰나

---

로 분류하였다. 담즙질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다. 흑담즙질은 우울질이라고도 하며 신중하고 소극적이며 말이 없고 상처받기 쉬운 비관적인 기질이다. 다혈질은 쾌활하고 밝으며 순응적·타협적이며 기분이 변하기 쉽다. 또 점액질은 냉정하며 근면하고 감정의 동요와 변화가 적고 무표정하며 끈기가 있다. 이것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류는 근대 내분비학(內分泌學)에 바탕을 둔 기질연구로 이어진다고 한다. 기질의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E. 크레치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의 특징은 인간의 체격형(體格型)과 정신병의 종류와 기질과의 관계에 착안한 점이다. 먼저 2개의 주요 내인성 정신병(內因性精神病)을 살펴보면, 정신분열 환자는 일반적으로 체격이 가냘프고, 조울병(躁鬱病) 환자에는 비만형이 많다. 정상인의 기질에도 2개의 전형(典型)이 있다. 이를 각각 분열기질(分裂氣質)·조울기질(躁鬱氣質)이라 하는데, 전자는 가냘픈 체격의 소유자에 많으며, 후자는 비만형에 많다. (역주)

80) NB: 담화를 위해 서서히 진화했던 메타언어와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목상 아래의 우주의 속(屬)의 텀으로 제멋대로 취급했던 텀 '정념'을, 그리고 아종적으로 정의하고 자연적인 어휘목록을 제멋대로 편애했던 텀 '성향'의 곁을 이탈할 것이다.

81) 테오뮈릴 리보(Théodule Ribot 1839~191): 프랑스의 심리학자. 저서 「기억의 병(Les Maladies de la mémoire, 1881)」 등에서 개인의 기억기능의 발전을 설명하는 원리를 통해 기억상실을 뇌의 진행성 질환의 한 증후로 설명하려 했다. 이 책은 기억이상을 생리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초기연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었다. 고등사범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885~88

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복각-성벽(伏角-性癖, inclination), “편향(propensity)”과 “성향(disposition)”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그것은 개인의 성격을 요망하는(wanting) 상수로서의 욕망으로 정의된다. “기울게 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지속적 자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기호(嗜好, penchant)에 의해 유도된다.”

기호(penchant), “자연적인 경향(tendency)”과 “복각-성벽(伏角-性癖, inclination)”의 에둘러 말하는 정의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 대상으로든지 또는 양태화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것에 관한 것이 주체의 영향력 있는 삶의 분화(specialization)의 외부 관측자에 의해 인식되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분화는 때때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평가되지만, 복각-성벽(伏角-性癖, inclination)을 위한 경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있음직한(likely to) 그 일자(the one)는 감정(feeling)을, 인상(impression)을, 느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일자, 간단히 말해서, 때때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소유한 그 일자로 존재한다.

기질(temperament), 원래 “혼합의 안정화”로 정의된, 그것은 유머(humor)<sup>82)</sup>의

년 소르본대학에서 강의했으며 1889~1896년에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실험심리학 및 비교심리학 과장직을 맡았다. 영국과 독일 심리학자들의 저서들을 연구한 뒤 이상심리학(異常心理學)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는데 이에 관한 그의 저서들은 「기억의 병」에서 다른 주제 이외에 의지, 성격 및 주의의 질병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뒤에 심리학의 감정 및 정서적 요인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거 경험의 재생을 의미하는 “정서적 기억”이라는 개념은 러시아의 배우이자 이론가인 콘스탄틴 스타니슬라프스키가 그의 교수법의 기초로 채택한 바 있다. (역주)

82) 유머(humor): 억살스러운 농담. 억살·해학·기분·기질로 번역되며 프랑스어로는 위무르(humour), 독일어로는 후모르(Humor)라고 한다. 본래는 고대 생리학에서 인간의 체내를 흐른다고 하는 혈액·점액·담즙·흑담즙 등 4종류의 체액을 의미하였다. 당시에는 이들 체액의 배합 정도가 사람의 체질이나 성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이 말은 기질·기분·번덕스러움 등을 뜻하게 되었다. 다시 바뀌어 인간의 행동·언어·문장 등이 갖는 웃음의 뜻, 그리고 그러한 웃음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의 뜻까지 붙게 되었다. 비슷한 말에 위트(기지)가 있어 똑같이 웃음을 인식하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위트가 순수하게 지적(知的) 능력인 데 반해 유머는 그 웃음의 대상에의 동정을 수반하는 정적(情的)인 작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만큼 인간이 지닌 숙명적인 슬픔을 느끼고 느끼게 하는 데 커다란 특색이 있다. 높은 곳에서 초연한 태도로 내려다보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웃어 제키는 웃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가대소(呵呵大笑)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슬픈 천성이라는 데 연민과 사랑을 던지는 약간 복잡한 웃음이다. 그런 뜻에서 위트처럼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인생관조의 한 태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흥소(哄笑)보다는 쓴웃음, 때로는 울다가 웃는 것으로 영문학에서는 C. 램의 에세이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이 밖에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등에서도 왕성한 유머 정신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를 가지고 눈앞의 사물을 대하는 일이 필요하나, 반면 체념의 방향으

히포크라테스적(Hippocratic) 정의에 기초된 영향력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텀의 사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력한다. 오늘날 그 텀은 본유적인(innate) 성격의 군(群)을,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생리학적인 콤플렉스를 지시한다.

또한 성격(character)은 세트(set, 집합)로 존재하지만, 기질(temperament)보다 훨씬 더 동차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감정과 반작용의 관계적인 방식, 즉 그 또는 그녀의 동료가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구별하는 것과 같이 있음직한(likely to) 그 방식과 함께 군락을 이룬다. 여기서 그 전체(whole)는 구성원소의 안정화에 의해, 그러나 차라리 딸림음과 같은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개인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그 기분(mood)은 한순간(fleeting)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개인의 영향력 있는 존재자의 순간을 정의한다.

이러한 분류 안에서 사용된 그 변이는 다음과 같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다가 영향력 있는 동기 그 자체와 관련된 양상화(aspectualization)는 단기지속적인(permanent, 복각-성벽, 기질, 성격, 있음직한), 오래가는(long-lasting, 감정), 또는 한순간의(fleeting, 기분, 정서) 또는 정념적인 표출, 행동, 그리고 연기의 결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연속적인(continuous, 기질, 성격, 복각-성벽), 에피소드(있음직한, 기분), 또는 세퍼레이츠(감정, 정서)<sup>83</sup>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협의의 유형학적 기초에 빛이 없는 프랑스어의 명명법이 오로지 가능성의 어떤 것만을 떠맡는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것을 오로지 에피소드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그래서 오래가는 · 영향력 있는 동기라고 호칭하는 것인가? 하나의 “에피소드적인 감정?”

딸림음적인 양태화는 유형에 따라 변한다. 그 결과와 표현에 의해 지식과 정서를 포함하는 감정은 능력(being-able)을 가장한다. 복각-성벽(inclination)과 기호(penchant)는 오히려 요망(wanting)과 관련된다.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과 함께 모든 양태화는 오로지 상호작용의 형식 안에만 말려들 뿐이다. 그러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 그것은 일찍이 정의했던 양태주체와 상응한다. 이러한 출현은 능력(being-able, 기질)에 의해 딸림음처럼 지배를 받게

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엄격한 사실주의의 안목으로 인생을 추구하는 태도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 점도 있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83) separate: 아래위가 따로 된 여성 · 아동복. (역주)



제1장 정념의 인식론

된 개인적인 그리고 설명적인 안정성 안에서든지, 또는 개성화에서 유래된 독특한 딸림음으로든지, 또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요망(wanting, 성격)의 변이로 표현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끝을 맺는다.

이 모든 정념적인 범주는 텀의 폭넓은 의미 안에서 다소간 언어능력의 변수로 표현된다. 성격과 기질의 정의 안에서, “주체의 존재(being)”로서의 언어능력(competence)은, 이러한 언어능력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양태단계를 동정하고 있는 것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어떤 외부의 관찰자로 인식된다. 복각-성벽(inclination)과 기호(penchant)의 정의 안에서, 그것은 행동과 애티튜드를 예측할 수 있는 관찰자로 전제되고 재구성된다. 다른 한편, 정서(emotion)의 정의 안에서, 그것은 유약해진 것으로, 즉 속을 태우게 되는 것으로 고찰된다.

프랑스어에서 정념적인 명명법은 기본적으로 양상성이 딸림음적인 역할을 연기하는 3가지 변수 위에서 구축된다. 내포적인(connotative, 연외지언적인) 분류법의 유래는 도표 7에서 보인다.

	감상	정서	유머	있음직한 것	복각-성벽	기질	성격
성향 단기지속적 총체지속적 순간적인	*	*	*? *?	*	*	*	*
표출 연속적인 에피소드적인 분리된	*	*	*	*	*? *?	*	*
양태화 지식 능력 요망 혼합된	*	*	*	*	*	*	*
언어능력 인지된 가정된 부정된	?	*	?	*	*	*	*

도표 7

노트: 감상(sentiment) 정서(emotion) 유머(humour) 있음직한 것(likeliness) 복각-성벽(inclination) 기질(temperament) 성격(character) 성향(disposition) 단기지속적(permanent) 총체지속적(durable) 순간적인(temporary) 표출(manifestation) 연속적인(continuous) 에피

소드적인(episodic) 분리된(isolated) 양태화(modalization) 지식(knowing) 능력(being-able)  
 요망(wanting) 혼합된(mixed) 언어능력(competence) 인지된(acknowledged) 가정된  
 (supposed) 부정된(negated) (역주)

명백하게 그리고 결합체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이 진력(盡力)에도 불구하고, 정념적인 명명법은 우리가 동정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됨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는 변수에 밑줄을 그어가며 강조하고 있는 막연한 동체(胴體)로 잔존한다. 그것은 거시체계의 분급의 불완전한 그리고 빈약하게 정의된 어휘소적 피복으로 나타난다. 체계로서의 그것은 계층성이 결핍되어있고(lacks), 양상화, 양태화, ‘언어능력화’의 하나가 전제자로 존재하는 것을 그리고 전제되는 것을 결정하기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 이러한 체계는 보편화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가능성의 격상(格象, figure)으로부터 유래되는 문화적 선택의 생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문화적 선택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모든 가능한 선택으로부터 유래되는 변수의 세 축으로만 선택되는 것이며(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항의 그 모든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재인식하여야만 한다), 둘째는 그 모든 허수적인 선택으로부터 유래되는 변수의 어떤 것만을 보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명법은 문화 안에서 진척된 정념이론의, 역사의 직관적인 생산의, 따라서 최초의 밑그림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이 언어학적 체계 그 자체의 원소 중의 하나로(즉, 인외발언의 프락시스의 생산 중의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랑가주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화와 관계된 체계, 그 양측이 어떻게 양태적인 우주상에 기초된 정념적인 의미효과를 생산하는 것에, 그리고 내포적인 분류법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발생되어 존재하는, 이러한 “정념의 직관적인 이론”의 속성에 달라붙고 있는가,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근접 고찰하도록 권유한다.

#### 사회방언적인 · 정념적인 우주

처음에 우리는 사회적 담화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사회방언적인 소우주로부터 그 문화의 딸림음적인 랑가주의 어휘 안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된 전체 문화의 정념적인 우주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담화는 때때로 우리에게 재해석 또는 이것의 또는 깜짝 놀라게 될 수 있는 정념의 재범주화를 제공한다.

**교훈적인 굴욕(humiliation)**: 예를 들어, 이것은 적어도 그것의 가장 공통적인 형식 안에서 실행된 그리고 분류된 것으로서의 교훈적인 담화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학생’의 지식을 부정하는 것에 그리고 ‘교사’의 지식을 주장하는 것에 기초된다. 학생의 지식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육적 전략은 이 관계에서 기원지식을 부정하는 “기생음의(parasitic)” 정념적인 결과의 보상을 명확하게 허락하는 오직 그 트릭만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은 성공적인 전승과 지식의 구축 양측에, 그리고 집합행위주의 구성에 필연적인데, 그 이유는 형성된 존재(being)로 존재하는 군(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독단적인, 예를 들어, 나이, 또는 동기가 부여된 것, 입학시험과 같은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평가 상에 기초되어 굽어모아지기 때문이며, 그러나 그것은 학생이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그 또는 그녀가 아직 배워야만 하는 것을 항상 측정한다. 더 나아가 측정확득이라고 하는 구실 하에, 거기에는 “진단적(diagnostic)” 또는 “예후적(豫後的, prognostic)” 평가의 확산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항상 부족과 이종(異種)으로 논하는 그래서 조직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미래 목표와 함께, 형성된 군(群)의 그 결과로 유래된 관계의 이종(異種)과 마찬가지로, 외연적인·교훈적인 전략을 감추고 있는 그 부지(unknown) 사물의 확장으로 존재한다.

이제 언어능력의 이러한 부정은 적어도 그것의 양태적인 소인(素因) 안에서, “굴욕(humiliation),” 즉 비-언어능력의 각성(지식) 안에서 어떤 고정관념적인·양태적인 낭증분절을 학생 안에서 확립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의(pathemic) 교묘히 다루기(또는 조작, manipulation)는 제안된 학습의 수용(acceptance, wanting)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존재지식(knowing-not-to-be)은 비-반존재요망(not-wanting-not-to-be)으로 변형된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입문 서문에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이러한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의 역할을 집요하게 사용한다. 그의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에게 와서 듣기 위하여, 그는 먼저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그들이 의학에 대해 연구한 적이 결코 없는 그 무학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그는 그들이 아직도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두 번째 만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결국, 그는 이러

한 조건 하에 돌아와 동의하는 따라서 그로부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오직 이러한 학생들에게만, 이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교사(프로이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인 것 같다)가 또는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런 승낙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형식 안에 “조정적으로(positively)” 사용된 해롭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통 존재하는 그 정념 안의 사회방언적인 소유주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념적인 분류법 안에서, 그것은 “굴욕(humiliation)”의 목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방언적인 소유주의 모서리에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또는 관념론적 담화 위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비-통합된 우주 위에서, 오버래핑하고 있는 그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양태적인 조정(調停)의 해석을 초월하여 재현하고 대립하는 의미효과적인 “굴욕(humiliation)”을 위해 충분한 것으로 존재한다. 수많은 교육학적 논란의 여지는 이것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의 그러한 형식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문화적 윤상대와 의심 없이 관계한다. 고대 인도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예를 들어, 뒤메질(Georges Dumézil)이 고찰한 것처럼, 선생이 그의 제자를 “단숨에 삼키고(swallows up),” “토하는(vomit out)” 그리고 그 반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인가?

**정념의 이론과 가치의 이론:** 이제 전체 문화를 조직하고 있는 정념적인 우주에서 보면, 비록 랑가주를 초월할지라도, 우리는 내포분류법이 양태적인 조정(調停)과 그들의 정념적인 해석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8세기에 개인주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정념의 이론은 가치의 이론에 의해 그리고 망상의 약동성에 의해 반제되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여기서 역사의 결합체적 변이는 대상에 맞춰진 초점에 의해 주체 위에 초점을 반제하는 것으로, 동시에 욕망(wanting-to)과 의무(having-to) 사이의 그 균형과 관계를 수정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철학적 체계 안에서, 또한 보다 더 일반적으로, 에피스테메(episteme) 안에서, 정략적인 경제적-유기적 조직(economy)은 병약하고 희미한 정념의 이론의 위치를 선택하고 있으며, 요구(needs)<sup>84)</sup>의 이론은 욕망의 이론을 추방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가치대상의 양태화 안에서의 변화에 의해 표현된다. 욕망적

인 존재로부터, 이제 그들은 필연적이고 불가결한 것이 된다. 정념의 이론에서, 결합체적인 차원은 신체에 영향을 끼쳐 감동시키고, 이어서 그 신체는 예를 들어 자극하여 일깨우고 있는 요망(wanting-to)으로 정신을 감동시킨다. 요구(needs)의 이론에서, 결합체적인 차원은 신체를 결정하고, 그 신체는 재귀적 지식의 증명사에 의해 마음을 결정하며, 주체를 위한 그것은 그들의 망상을 일깨우는 전성으로 존재한다.

그 두 이론 간의 편차는 외관상으로는 최소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영향을 끼쳐 감동시키는 것(wanting-to)”과 “결정하는 것(needs)”의 대당으로 총합될지도 모른다. —그 신체는 마음에 영향을 끼쳐 감동시키거나 결정한다. 정념의 이론에서, 방향적인 것(thymic)과 인식적인 것(cognitive)은 보통 말하는 화용론적인 것(pragmatic)에 의해 아티큘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것의 역함수(dysfunction)<sup>85</sup>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스피노자(Spinoza)에서,

84) 요구(要求, need): 욕구라고도 한다. 생활체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무사히 영위하기 위하여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물질을 교환하며 사회적 접촉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생활체의 생리적 기구 내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어느 한계 내에서 변동한다. 이 변동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극단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리적 기구 내부 환경의 적절한 균형상태가 파괴된다. 이렇게 되면 균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작용이 생긴다. 이와 같은 평형상태를 미국의 생리학자 W. B. 캐넌은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라고 불렀다. 요구는 호메오스타시스로부터의 이탈이나 생리적 불균형으로 직접 발생하는 1차적(一次的) 요구와 어떤 경험에 의하여 1차적 요구로부터 파생한 2차적(二次的) 요구로 구분된다. 생활체가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일정량의 산소·수분, 기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생활체의 생리적 요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리적 요구는 호메오스타시스 유지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생명유지를 위한 생활체의 자기조절기능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적 요구는 생리적 1차적 요구와 심리적 1차적 요구로 구분된다. 생리적인 1차적 요구는 공기에 대한 요구, 수분(水分)에 대한 요구, 식물에 대한 요구, 성적 요구, 육아(育兒)를 갈망하는 모성의 요구, 피로에 대한 휴식의 요구, 수면의 요구 등이다. 심리적인 1차적 요구는 유해자극으로부터의 퇴피(退避), 적을 만나 경계하고 도망치려는 위급요구(危急要求), 적에 대한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적 요구에 의하여 이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습득되는 각종 요구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경험적 또는 습득적 2차적 요구라고 한다. 습득적인 2차적 요구로는 지위·명예·권력·독립 등에 대한 요구, 애정·집단소속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1차적 요구는 생명유지, 종족의 보존이라는 생물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종족, 개체의 공통적인 것이지만 2차적 요구는 이러한 공통성이 없으며 인간의 경우, 문화·역사·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85) 역함수(逆函數, dysfunction 또는 inverse function):  $x$ 의 함수  $y=f(x)$ 가 있을 때, 그 치역(值域)에 속하는  $y$ 의 각 값에 대하여  $y=f(x)$ 인 관계에 있는  $x$ 를 대응시킴으로써,  $x$ 를  $y$ 의 함수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 함수를 원래의 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며, 보통은  $x=g(x)=f^{-1}(y)$ 로 나타낸다. 예컨대  $f(x)=\sqrt{x}$ 일 때,  $f^{-1}(y)=y^2$ 이고,  $f(x)=\sin x$ 일 때  $f^{-1}(y)=\arcsin y$ 이다.  $f(x)$ 가 일가(一價)라 하여도  $f^{-1}(y)$ 가 일가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좁은 뜻으로는 단조함수(單調函數)에 대해서는 일가인 역함수가 존재한다. 정의에 따라서 항상  $f[f^{-1}(y)]=y$ 이나,  $f^{-1}(y)$ 가 일가가

이러한 역함수는 “부적절한 착상(막연한 느낌)”만을 생산하고, 그 자체는 정념으로 재해석된다. 그러나 요구(needs)의 이론에서, 인식적인 것과 방향적인 것은 보통 말하는 그렇게 화용론적인 것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것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정념의 이론은 정념적인 것이 화술로 ‘잔존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그 화술적인 역함수의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 요구(needs)의 이론은 기술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양태가치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정념적인 효과를 병탄(併呑)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정된 화술을 전제하고 함축한다. 우리가 증인이 된 결과, 요구(needs)의 그리고 정략적인 경제적-유기적 조직(economy)의 이론의 기민한 진화와 동반하여, 광대한 개인 언어적인(그리고 인식론적인) 진취정신은 정념을 강화하고 있는 이 “양태적인 여분(modal surplus)”을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양태적인 효과의 전 신체가 화용론적인 또는 인식적인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잔존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든다.

정념의 기호학은 이 지점에서 여성·여아복의 세퍼레이츠와 같은 한 벌(stand)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요망(want)과 요구(needs), 정념(passions)과 망상(interests)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의 질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두 문화 간 논쟁의 주제로 잔존한다. 그것은 방향적 차원의 자립을 보증하는 것으로 요구된 인식론적 최소량을 정의하는 것의 질료로 존재한다. 요구된 그 인식론적 최소량은 양태적인 조정(調停)이 언어연기를 위한 조건보다 다른 어떤 무엇이 될 수 있는 그 사실 안의 허구(lie)인 것 같다. 그것은 만약 정념의 모든 내포분류법이 작품 안에서 함축적인 또는 명시적인(explicit, 양함수적인;  $y=f(x)$ )과 같은. (역주) 이론으로 존재한다면, 문화적인 변화는 우리가 정념을 이지적으로 표현하는 그 안의 그 방식을 심중판구 재 정위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모든 과학적 투기가 문화의 프레임과 에피스테메(episteme) 안에서 발생하는 우리 자신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그 결과 정념의 기호학은 연기의 일종의 논리로, 그리고 그의 실행(doing)에 의해, 그것의 실현화를 위한 필요조건에 의해, 총체적으로 결정된 주체의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담화의 화술적인 차원의 표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f^{-1}[f(x)]\equiv x$ 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직교좌표계에 관하여  $y=f(x)$ 와  $y=f^{-1}(x)$ 의 그래프는 직선  $y=x$ 에 관하여 대칭이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 개인 언어적인·정념적인 우주

작가의 정념적인 우주는 그의 작품의 “충체적인 텍스트”의 구성에 조력한다. “정념의 신화(passional myth)”의 폭로를 시도하기 위하여, 샤를르 모롱(Charles Mauron)<sup>86)</sup>의 연구는 개인 언어적인·정념적인 우주 구축의 예를 제공한다. 정념적인 주제(theme)와 격상(figure)을 연합하고 있는 형태(초미·화술)로 표현된 그 정념적인 신화는 어떤 것의 언어연기 또는 수사적 격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술적인 또는 극적인 상황 안에 분산된 격아강적인(figurative; semiology)의 차원이 아니라, thymic dimension이다. -역주) 표현이 순환하는 보다 양태적인 조정(調停)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파상(Guy de Maupassant),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sup>87)</sup>, 또는 루이 아라공(Louis Aragon)<sup>88)</sup>에 의한 텍스트의 분

86) 샤를르 모롱(Charles Mauron, 1899~1966): 심리비평가. 1963년, 샤를르 모롱은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구조방법을 고안했다. 그 연구는 4개의 다른 프레이즈를 포함한다. 1. 창작과정은 백일몽과 환족이다. 그 자체로 그것은 모방, 그리고 카타르시스, 은유와 상징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되고 폭로된 무의식의 충동과 욕망의 표상이다. 2. 그때, 작가의 작품의 병렬은 상징적 주제를 정의하는 비평가로 유도한다. 3. 이러한 은유적 네트워크는 잠복성의 내재사실성의 의미작용으로 존재한다. 4. 마치 꿈과 같은 망상의 관점에서 그들은 행동할 수 있다. 마지막 프레이즈는 작가의 문학적 창의성을 그 자신의 개인적 삶에 연결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조물주는 추론 그 자체에 밀려 수 없다. 다소간 그 자신의 외상적·전기적 과거, 무의식 그 자체와 함께 아이러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정신’으로 꼭 채워진 그 문화적 원형, 그 두 이야기 간의 교차 대구법(交叉對句法; 말의 X자 모양 배열 전환; 보기: We live to die, but we die to live.)의 관계는 제정신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실연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성적충동은 조정(措定) 안에서 상징적으로 채워지고, 유쾌한 방식, 즉 승화로 알려진 과정 안에서 사회적으로 채워진다. (역주)

87)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 1888~1948): 프랑스의 소설가·논쟁작가. 대표작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Journal d'un curé de campagne)」로써 당대의 가장 독창적·독자적인 가톨릭 작가로 군림했다. 왕당파 언론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후 보험회사의 조사원으로 일했다. 선배 가톨릭 작가 레옹 블루아와 마찬가지로, 그는 항상 초자연적인 세계와 가까이 지내는 몽상가였다. 또한 억살스럽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유물론에 반대했고 악과 타협하는 것을 증오했다. 중산층의 유물론에 반론을 제기한 정치적 소책자 「보수주의자들의 커다란 두려움(La Grande Peur des bien-pensants), 1931」과 스페인 내란 때 파시스트의 만행과 그들을 지지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맹렬히 비난한 「달빛 아래 거대한 묘지(Les Grands Cimetières sous la lune), 1938」에는 그의 강렬한 성실성이 드러나 있다. 소설가로서 그는 인간의 영혼을 놓고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을 주제로 삼았는데, 특히 성직자를 본보기로 삼아 이러한 갈등을 다루었다. 성스러움에서 사악함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동의 양극을 보여주는 그의 등장인물들은 집단 상상력으로 창조되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첫 소설은 아르스의 주임 신부의 경험에 일부 바탕을 둔 「악마의 태양 아래서(Sous le soleil de Satan), 1926」였다. 1936년에 죄악에 대한 젊은 성직자의 싸움을 그린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를 발표했는데, 이 소설은 프랑스의 영화 감독 로베르 브레송에 의해 1951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밖에 중요한 작품으로는 「기쁨(La Joie), 1929」·「무셰트의 새로운 이야기(Nouvelle Histoire de Mouchette), 1937」·「원죄(Monsieur Ouine), 1943」 등이 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파시스트의 정치적 횡포에

석은 격아강적인 가치론이 어떻게 추상적인 가치론(삶, 죽음)과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화술의 방향적 차원 상에 전개된 개인 언어적인 형식을 구성하는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으로 분극 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정념적인 개인 언어의 “아중성(specificity)”은 다음과 같이 보다 더 특별하게 표현될 것이다. ①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우울(spleen)<sup>89</sup>에서 관측되는 것 같은 어떤 정념의 초월-아티클레이션. ② 장-클로드 코케(Jean-Claude

절망한 그는 1938년 7월 아내와 6명의 자녀를 이끌고 스스로 망명생활을 택해 브라질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빈센 협약의 도덕적 타락을 심각하게 느끼고 「진실의 추문(Scandale de la vérité), 1939」이라는 글을 썼다. 1940년 6월에는 학교 동창인 샤를 드골 장군을 지지했다. 그의 방송 메시지와 「영국인에게 보내는 편지(Lettre aux Anglais), 1942」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45년 그는 프랑스로 돌아왔으나 조국이 정신적으로 갱생하지 못한 것에 환멸을 느껴, 그후 튀니지에서 살다가 마지막 병석에 누운 뒤에야 프랑스로 돌아왔다. 죽기 직전에 프랑스 혁명 때 순교한 16명의 수녀들을 다룬 영화 대본인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Dialogue des Carmélites)」를 완성했다. 프랑스의 작곡가 프랑시스 풀랑은 이 작품을 바탕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다. (역주)

88)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 프랑스의 시인·소설가. 「문학」창간으로 다다이즘 운동에 참가했고, 쉬르레알리즘에 가담했다. 이후 좌경 작가로 전향했다. 작품은 「파리의 농부(1926)」, 「문체론」, 「단장」, 「레 코뮌리스트」, 「성주간」 등이다. 의학을 배워 제1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출전하였으나, 전후인 1919년 A. 브르통, F. 수포 등과 함께 전위적인 잡지 「문학(Littérature)」을 창간하여 다다이즘 운동에 참가하였다. 처녀시집 「축화(祝火, Feu de joie, 1920), 소설 「아니세 또는 파노라마(Anicet ou le panorama, 1921)」를 발표하였다. 브르통이 쉬르레알리즘(초현실주의) 운동을 시작하자 그에 가담하였고, 소설 「파리의 농부(Le Paysan de Paris, 1926)」, 평론 「문체론(文體論, La Traité)」 등의 걸작을 썼다. 이 무렵부터 그는 자기의 사상과 쉬르레알리즘의 교의와의 모순에 번민하기 시작하여 1928년 여름에는 자살을 꾀할 정도로 창작상의 절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해 가을에 러시아의 시인 V. V. 마야콥스키를 만나고 또한 그의 의누이(義妹) E. 트리올레트를 알게 되자 괴로운 역경을 벗어나 1928년에 결혼한 트리올레트와 함께 1930년 소련으로 가서 공산주의에 빠졌다. 귀국한 후에는 쉬르레알리즘에서 떨어져 나와 좌경 작가로 전향, 평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위하여(Pour un réalisme socialiste, 1935)」, 「밭의 종(鐘, Les Cloches de Béle, 1934)」으로 시작하는 연작소설 「현실 세계(Le Monde réel)」를 내놓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단장(Le Crève-cœur, 1941)」, 「엘자의 눈(Les Yeux d'Elsa, 1942)」, 「프랑스의 기상나팔(La Diane française, 1945)」 등의 뛰어난 시편을 발표하며 레지스탕스운동에 참가하였다. 전후에도 「레 코뮌리스트 Les(Communists, 1949~1951)」, 「성주간(La Semaine Sainte, 1958)」 등의 걸작을 발표하였다. (역주)

89) 파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 작자의 사후(死後) 2년째인 1869년에 「소산문시(小散文詩)」라는 제목으로 전집 제4권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작자가 신문·잡지에 산문시를 단속적(斷續的)으로 발표했을 때 사용한 총제목(總題目)의 하나인 「파리의 우울」이라는 계명(題名)이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화되었다. 시집 「악(惡)의 꽃」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작품이며, 장단(長短) 50편의 산문시로 구성되었다. 보들레르는 이 산문시들을 베르트랑의 「밤의 가스파르」에서 힌트를 얻어, 근대생활의 추상적 서술에 응용하려고, 병고와 빈궁의 후반생 속에서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는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帝政)하에 있는 수도 파리의 저속한 시민생활 속에서 우울의 상징을 발견하였다. 그가 개척한 이 산문시라는 형식은 랭보, 로트레아몽, 말라르메 등의 근대 시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역주)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Coquet<sup>90)</sup>가 폴 클로델(Paul Claudel 1868~1955)<sup>91)</sup>의 시(La ville)와 관련되어 보여주었던 것 같은 어떤 전조의 동류체적인 또는 함수적인 딸림음의 우점도(優占度, dominance). ③ 코르네유(Pierre Corneille)<sup>92)</sup>의 풍부함(generosity)과 같은 가치론적인

90) 장-클로드 코케(Jean-Claude Coquet): 파리 8대학 문학부 기호분석 언어학의 명예교수. 프랑스 기호학의 역사에 관한 고찰은 70년대의 결정적인 어떤 무엇으로 위치를 선택하는 페르다임의 변화로 고찰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구조주의에 의해 좌우된 “의미(meaning)”의 연구는 유정(有情)의 우주 그리고 내재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타당한 개념의 우주로 존속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언어학적인 언외발언(Benveniste)에 의해, 현상학(Merleau-Ponty)에 의해, 그리고 정신분석학(Freud와 최근의 Lacan)에 의해, 존속되고 최근에 진전된 과업은, “의미”에 관해 동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존재할 것이며, 그것은 “사물의 힘(force),” 실재성의 원리(M. Arrivé)로 고려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60년대의 표준 기호학과는 반대로, 실례의 기호학은 반영 안에 통합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분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메타언어는 그 자체로서의 그 언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being)로부터,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지식으로서의 이러한 최초의 사실을 결코 은연하지 못한다. 방브니스트(Benveniste), 메를로퐁티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그 논조는 3가지의 프로이트의 텍스트(1891, 1905, 1919) 상에 기초한다. 그들은 존속된 또는 “힘”이 아닌 “의미”의 생산적인 실례를 발생시킨다(제3의 내재의 힘[power] 또는 초월적인 행위주: 비-주체, 거의 주체와 같은 그리고 주체로서의). 그것은 실례의 기호학이 조립된 이렇게 기본적인 실례의 책략(game)으로 시발하고 있다. (역주)

91) 폴 클로델(Paul Claudel 1868~1955): 프랑스 극작가·시인·외교관. 연주 출생. 1882년 이후 파리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실증주의·상징주의 등 세기말 여러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는 시를 썼으나 1886년 J. N. A. 랭보의 시와 가톨릭 은총체험에 의하여 초자연적 생명력을 계시 받고 마음이 바뀌었다. 특히 S. 팔라르메와 W. R. 바그너, 아이스킬로스와 W. 셰익스피어의 영향 아래 극작에 손대어 「황금의 머리(1890)」, 「도시(1893)」 등을 발표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호출이 맞는 독특한 극시법을 엮어내었는데, 인간의 내면과 외양을 하나로 합친 우주의 살아 있는 상징적 구조라는 드라마투르기(作劇法)가 일반 지식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1893년부터 시작한 외교관 생활을 통해 다양한 인간적·문화적·연극적 체험을 하였으며 「교환(1894)」, 「한낮에 헤어지다(1905)」, 「마리아에게 고지(告知 1912)」, 「3부작 인질(1911)」, 「곧은 빵(1914)」, 「능욕당한 신부(1916)」에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의 극시적 세계는 한층 동적이며 객관적·구상적이다. 가장 원숙한 말년의 작품들에는 시간·공간적으로 드라마의 규모가 자유자재로 펼쳐져 전반적으로 시청각적인 혼돈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단구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글(1929)」, 「화형대 위의 잔 다르크(1938)」 등이 그것이다. 한편 그의 작품의 마지막에는 신의 목소리가 들리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의 연극적인 공적은 그 과정에 있어서 혼돈과, 우주적으로 지상적인 인간과, 그 안팎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것과의 대립이 독특하게 극화되어 가톨릭적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선 데 있다. 1846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었다. (역주)

92) 코르네유(Pierre Corneille, 1606~1684): 프랑스의 극작가. 「미망인」, 「루아얄 광장」 등의 풍속희극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저릿말쟁이」를 발표하여 몰리에르 이전에 문학적 희극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나」, 「폴리윌트」 등의 의지비극으로 불멸의 명성을 얻었으며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루앙 출생. 대대로 법률직에 종사하는 중류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9세 때 예수회가 경영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세네카의 비극이나 사상 등을 애독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후일 의지비극(意志悲劇) 창조에 영향을 끼쳤다. 1624년 졸업 후, 법률을 배워 18세에 변호사가 되었으나 내성적인 성격에다 말까지 서툴러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본 아버지가 한가한 직책인 토지와 해무(海務) 관계의 재판관 자리를 부여하였다. 1650년까지 이 직에 근무하면서 많은 시간을 몽상에 잠기거나 때로는 시를 쓰는 한편, 루앙의 사교계에도 출입하여 카르틴 드

정위, 가치안정책, 그리고 어떤 정념의 반가치안정책. ④ 사회 방언적인 우주로부터 차용된, 그리고 개인 언어 안에서 ‘랑가주로서의’ 그들의 정의와 상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정념의 재범주화, 인자(因子)의 이러한 집합은 주연(周延)과 정념의 함수 안의 하찮은·보편적인 전위이며, 개인 언어적인·정념적인 분류법의 윤곽을 추가한다.

**낙천적인 절망(despair):** 루이 아라공의 성주간(La semaine sainte)은 정념적인 재범주화의 주목할 만한 예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그 소설에서 절망이 많은 상징적 능동성의 기원에서 조정적인(positive) 정념으로 가치가 안정

유(나중의 뒤 풍 부인)와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공상적 희극 「멜리트(Melite)」(1629 초연, 1633 출간)를 썼는데, 이것을 루앙에서 공연 중이던 몬드리 극단에 위탁하여 파리에서 상연하여 성공을 거두고, 그 후 극작에 전념하게 되었다. 희비극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다시 희극으로 돌아와 「미망인」(1633 초연, 1634 출간)으로 성공하고 「루아얄 광장」(1634 초연, 1637 출간)에 이르는 일련의 풍속희극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 후의 「거짓말쟁이」(1642 초연, 1644 출간)는 이 계통의 걸작으로, 몰리에르 이전에 문학적 희극을 확립한 공적을 매우 크다. 제상(宰相) 리슐리외의 총애를 받았으나 어용작가가 되는 것이 싫어 주로 루앙에서 살았다. 1630년 전후부터 고대비극의 형식을 지키는 정통비극이 대두되는 것을 간파하고는 당시 연구하고 있던 에스파냐극에서 취재하여 「르 시드(Le Cid)」(1636 초연, 1637 출간)를 썼다. 사랑하는 남녀가 명에 때문에 서로 적이 되는 이야기인데, 웅변적인 미론으로 자유의지가 의무감을 선택함으로써 정념을 극복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극적 대립을 내면화시킨 새로운 수법으로 한 시대를 이루었으나 약간 불규칙한 구성과 원전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공격을 받고 르 시드 논쟁이 일어나자, 리슐리외 제상은 자신이 창설한 아카데미의 책임자인 샤플랑에게 의견서를 발표케 하여 논쟁을 수습하였다. 그 결과 그는 그 후 침묵을 지키고 연극을 연구하다가, 애국심을 찬미한 비극 「오라스(Horace)」(1640 초연, 1641 출간), 관용(寬容)의 비극 「시나(Cinna)」(1640 초연, 1643 출간), 순교의 비극 「폴리윙트(Polyeucte)」(1640 초연, 1643 출간)를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규칙을 지킨 의지비극으로 불멸의 명성을 획득하였다. 1640년 법관의 딸인 마리 드 랑페리에르와 결혼, 루앙에 정주하면서 제상 마자랭의 지우를 얻어 파리 사교계에도 출입하였다. 수작(秀作) 「로도권(Rodogune)」(1644 초연, 1647 출간) 발표 후 1647년 아카데미 회원이 되어 극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프롱드의 난 때는 왕당파에 속하였다. 1649년 극작을 재개하여 「니코메드(Nicomede)」(1651 초연·출간)에 성공하였으나 지나치게 이상한 상황을 추구하여 심리적 진실을 잃었고, 「페르타리트(Pertharite)」(1652 초연)에서 실패한 후 고향으로 은퇴하여 종교서 「그리스도를 모방하여」를 번역하였다. 그 후 동생 T. 코르네유가 극작에 성공하였고, 루앙에 내연(來演)한 몰리에르 극단의 여배우와의 연애, 재무경 푸케의 권유 등으로 「에디프(Oedipe)」(1659 초연·출간)를 발표하여 연극계로 복귀하였고, 1660년 「극시론(劇詩論)」을 발표하는 한편, 자작집을 개정(改訂)하였으며 파리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만년의 작품은 우미(優美)와 진실을 추구하는 새로운 풍조에 맞지 않았고, 권력자인 콜베르에게도 대우를 받지 못하여, 이의 만회를 위해 몰리에르와 궁정무용극 「프시시(Psyche)」(1671 초연)를 합작하였으나, 후배이자 강력한 라신과 동일한 주제로 경작(競作)을 벌인 「티트와 베레니스(Tite et Berenice)」(1670 초연, 1671 출간)에서 크게 실패하였다. 「쉬레나(Suréna)」(1674 초연, 1675 출간)를 끝으로 극작에서 손을 떼고 파리에서 신앙생활에 열중하다 병사하였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되었지만, 그 조건 위에서 그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정략적인 절망의 문제로 남아있었다. 자살을 범하는 그 무력해진 연인은 단지 절망의 일종의 천공(穿孔)만을 소유하는 것이며, 역사의 명예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왕과 왕자로부터 버림받아 절망 속으로 굴러 떨어진 왕가의 그 병정들은, 배반으로 해석된 그 병정들은 “조정적인(positive),” 절망하고 있는 주체로 존재한다. 사실, 그 표현을 제공하고 있는 담화와 마찬가지로 반란으로 돌변하고 있는 그들의 절망이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무용하지 않았다고 밝혀진 뒤에, 그들은 충성스러운 병정으로 존재했다. 그 소란 속에서, 그것은 그들을 비탄과 불안상태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그들은 병적편입이 이루어진 후의 그 가치를 재 주장한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총체적인 언어능력과 절망에 의해 재 외연화된 주체의 가치론적인 연동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극의 단순한 변화 또는 양태성의 동류체적인 딸림음의 우점도(優占度)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루이 아라공의 키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sup>93)</sup>에 대한 절망의 이견과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 우

93) 키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 코펜하겐 출생. 소년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그리스도교의 엄한 수련을 받았고, 청년시절에는 코펜하겐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연구하여 1841년에 논문 「이로니의 개념에 대하여」로 학위를 받았다. 그의 활동은 활발하여 1843~1846년의 짧은 기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Enten-Eller), 1843」, 「반복(Gjentagelsen), 1843」, 「공포와 진율(Frygt og Bæven), 1843」, 「불안의 개념(Begrebet Angest), 1844」, 「인생행로의 여러 단계(Stadier paa Livets vei), 1845」 등과 같은 이른바 미적 저작과 「철학적 단편(Philosophiske Smuler), 1844」, 「철학적 단편을 위한 결말의 비학문적 후서(非學問的後書, Afsulttende uvidenskabelig Efterskrift til de Philosophiske Smuler), 1846」 등의 철학적 저작을 모두 익명으로 출판하였고, 이 밖에도 그리스도교에 관한 많은 교화적인 강화(講話)를 발표하였다. 그 후 저술에 싫증이 난 그는 시골의 목사가 되어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풍자신문 「코르사르」에 그의 작품과 인물에 대하여 오해에 찬 비평이 실려, 그것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논쟁하는 사이에, 또 다시 그리스도교도로서의 새로운 정신활동과 저술을 향한 의욕이 용솨음쳤다. 그는 신문의 무책임한 비평과 세간의 비웃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한편에서는 대중의 비자주성과 위선적 신앙을 엄하게 비판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신(神)을 탐구하는 종교적 실존의 존재방식을 「죽음에 이르는 병(Sygdommen til Dø den), 1849」, 「그리스도교의 수련(Indøvelse i Christendom), 1850」 가운데에서 추구하였다. 그는 기성 그리스도교와 교회까지도 비판하였으며 「순간」 등의 램플릿을 통한 공격은 매우 격렬하였다. 그런 와중인 1855년 10월 갑자기 노상에서 졸도한 후 다음 달 병원에서 죽었다. G. W. F. 헤겔의 범논리주의를 배제하여 불안과 절망 속에 개인의 주체적 진리를 탐구한 그의 사상은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국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09년부터 독일에서 C. 슈렘프가 키르케고르의 번역집을 내어 당시 신진이었던 P. 바르트, J. H. 하이데거, K. 야스퍼스 등의 변증법 신학자와 실존주의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그로부터 그의 명성은 현대 그리스도교 사상과 실존사상의 선구자로서 세계에 알려졌다. 1995년 기독교한국루터회가 뽑은 “세계를 빛낸 10인의 루터란”의 한 사람이다. (역주)

리는 키르케고르 안에서 양태적인 딸림음의 우점도로부터 유래하는 절망의 이중성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반면에 루이 아라공 안에서 그것은 진짜와 같은 재범주화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사실, 절망에 관한 보고서에서, 절망은 하나의 형식과 자아와 물자체 간의 대립을, 또는 키르케고르 그 자신의 저서 안에서, “보고서가 물자체와 관계하고 있는 그 상황의 내부적 대립(1, 2),” 동기화하고 있는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식의 생산으로 존재한다. 실존적(존재자적) 고통으로 창작된 인간의 절망은 따라서 재귀적인 존재지식(knowing-to-be)의 동류체적인 그리고 함수적인 딸림음의 우점도에 의해 이중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딸림음의 우점도는 함수적인데, 그 이유는 절망 그 자체의 양태적인 시리즈를 지배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동류체적인데, 그 이유는 “불쾌(illness, 이 용어는 키르케고르의 것이다)” 안에 끼어들기 때문이며, 그리고 모든 것이 언급되고 실행될 때, 치료됨으로써, 그것은 인간존재에 속하는 어떤 무엇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루이 아라공 안에서, 절망이 좌절된 수신자의 정념으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피신탁의 교차점의 계약·응축의 증명사에 의해, 주제념은 가치의 정념으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재 범주화된다. 버나드(Bernard)의 믿음의 각각의 조건 안에서, 자포자기의 연인 안에서, 그리고 “가족의 아들” 안에서, 정략적으로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은 의미작용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공급한다. 사실, 간단히 말해서 버나드가 자살을 범하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은 허구이다.”라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동등하게 의미작용을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한다. 다른 한편, 가족의 아들은 그들을 금욕주의의 가치와 연결하는 피신탁의 교차점적 회합으로부터의 왕과 왕자에 의해 원인이 된 피신탁의 교차점의 계약·응축의 파기를 신중히 구별해낸다. 그들은 그들의 발신자를 믿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이 그의 조력에 참가하도록 만든 가치체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다 확고하게 믿는다. 절망이 단순히 병적편입과 그 실행을 위한 이유의 인정으로 존재할 때, 그것은 그것이 가치의 보편적인 파괴로부터 유래할 때만큼 가깝게 기호학적 주체에 결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비록 이러한 두 정념이 동일한 명목을 소유할지라도, 그리고 양태적인 통사론에 의해 지배될지라도, 그들은 매우 다르게 존재한다. 그 일자가 정확하게 결합가와 긴장적인 주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 타자는 오로지 발신자의 동정에만 영향을

끼친다.

**염세적인 요망(Pessimistic Wanting):** 우리는 재범주화가 전체 형태(조미-화술), 즉 양태화의 계층, 그들의 표현, 결과로서 일어나는 연기, 특히 심층구조 상의 반향(反響)과 관련된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재범주화 된 양태화 그 자체, 즉 모파상에서의 사랑과 욕망의 예 그 안의 마음을 들 수 있다. 요망(waning)이 불만족스러운 욕망을 생산했을 때, 좌절과 고민의 효과와 같은 권태와 혐오를 생산했을 때, 바로 그때와 같이, 그것은 인간불행의 기원이라는 것을 모파상은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sup>94</sup>)를 통해 배웠다. 모파상에게서의 요망(waning)은 흔히 무의미, 부조리, 지리멸렬(支離滅裂)한 것과 연합된다. 사회 방언 안에서, 동일 양태화는 탐색을 유발하고, 의미를 삶의 투기로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치의 수용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그것은 인간의 연기를 파괴하고, 오직 야만적인, 타락적인, 또는 치명적인 정념만을 일깨울 뿐이다. 여기서 재범주화는 루이 아라공에게

94)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1. 독일 철학자. 그다니스크 출생. 부유한 은행가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영국·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일이 그의 세계관·예술관에 영향을 주었다. 또 작가였던 어머니 요한나와의 불화·대립은 그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멸시의 한 원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1809년부터 괴팅겐대학에서 역사·자연과학을 전공했고 또 회의주의자 G. E. 술체에게서 철학을 배웠다. 그가 배운 플라톤과 I. 칸트의 사상은 인도의 베단타철학과 함께 그의 철학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 틀이 되었다. 학위논문 「충족이유율(充足理由律)의 4개의 근거에 대하여(1813)」와 J. W. 괴테의 색채론에 자극받은 「시각과 색채에 대하여」라는 저서를 완성했으며, 이어서 주요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1819)」를 발표했다. 20대 후반부터 30세에 이르러 완성한 이 저서는 그 당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 저서로 인하여 쇼펜하우어는 베를린대학의 사강사(私講師)가 되었다. 베를린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G. W. F. 헤겔과 대결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가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851년의 「여록(餘錄)과 보유(補遺)」라는 말년의 저서였으며 이에 대한 높은 평가는 1848년 3월 혁명의 패배에 따른 독일의 일종의 폐색상황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2. 사상과 영향;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세계라는 것은 “나의 표상(表象)”이며 현상(現象)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세계는 주관인 의지에 대응하는 객관으로서만 존재한다. 시간·공간·인과관계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칸트가 내세운 “물자체(物自體)”는 실은 의지 그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살려고 하는 맹목적 의지”이며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는 까닭에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 시대의 변천 등 인간의 다양한 형태는 의지의 적절한 객체성인 이데아를 간파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그 자체에서는 어떻게 되어도 좋은 것이다. 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며 그 중에서도 음악은 이데아라는 매개가 없이 의지를 객관화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술에 의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고정성의 행위를 지향,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경지, 즉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윤리의 차원을 추구해야 한다. —YaHoo 백사사전. (역주)

서보다 다른 통로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재범주화 된 정념을 조직하는 한에 있어서는 양태화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조정(調停) 안에 그것을 포함하는 그 모든 정념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그 스스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전성의 전조라고 지시한다면, 그때 우리는 욕망을 생산하고 있는 그 “개방(opening)”이 거친 그리고 끊임없는 파동 또는 맹렬한 폭발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분산적인 힘은 파괴적인 반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파상의 개인 언어의 요망(waning)의 양태성을 아중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기호학적인 문체로 선택했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보편적인 면에서, 만약 재범주화가 주제적인 동류체의 단순한 변화를 외면적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좌절, 부조리, “삶의 의미”가 아닌 짐승의 성질 대신에 가치를 떠맡는 것), 심층레벨의 그것은 양태적인 조정(調停) 상에, 어쩌면 새로운 긴장적인 전조 상에 기초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 언어의 “아중성”에서보다 더 좋은 “독창성(originality)”에 손을 대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외감수의미소적인 형식은 전체정념적인 우주가 모순 없는 데포르마시옹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조직된다. 더 나아가, 루이 아라공과 모파상의 경우, 재범주화는 오직 그들 자신의 실행(doing)의 일부로만 존재한다. 루이 아라공은 그가 분배받은 오직 그 일자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질망에 대한 사고의 보다 더 보편적인 체계를 적용하며, 반면에 모파상은 쇼펜하우어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영향력 하에 일어났던 작가의 세대에 속한다. 다른 한편, 구성된 사회분류법, 사고추세의 관념론은 내재의 개인 언어적 분류법으로 변화된다. 타자 상의 구성된 개인 언어적 분류법, 철학적 체계는 내재의 사회분류법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형은 텍스트, 상호텍스트, 화맥 간의 관계에 대한 목상을 위해 가능한 방법의 홀췌 벗음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일단 우리가 내포분류법 상에서 상수와 파라미터로 위치가 잡히고, 그들이 작용하는 것 위의 서로 다른 종류와 레벨을 구별하게 되면, 그것은 분류법의 서로 다른 종류 간에 나타나는 변화의 증명사에 의해, 이러한 초점에서 유래하는 텍스트의 ‘발생적’ 목상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 철학과 정념의 기호학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내포분류법(철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분류법)의 변이는 그들이 그들을 기호학적 변화과정의 친족에 근접하도록 만들고 있는 체계적인 성질(quality, 내포량, 명제의 질)과 명시적인 자연의 본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실험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정념에 관한 보고서는 어느 특별한 문화로부터 단기 지속적으로 잘라낸 소정의 문화와 추론된 분류법으로부터 선택된 그래서 강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간의 망설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것 또는 철학적 체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의 명제의 본질(matter)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러한 양자택일을 벗어날 수 없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분류법적 실행(doing)이 함수 작용을 하는가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의 그 명제의 본질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트: 내포분류법(connotative taxonomies)에서의 정념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실례; You haven't see it! No, I have. 즉, No=(Yes)”<sup>95)</sup>

95)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242~243. “다른 한편, 만약 금지( $\overline{a}$ )가 수락(a)의 부정형식이라고 한다면, 금지( $\overline{a}$ )를 부정하는 위반( $\overline{\overline{a}}$ )과 상응하는 수락(a) 또한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닐 것이지만(왜냐하면,  $\overline{a}$ 도  $\overline{\overline{a}}$ 를 부정하고, a도  $\overline{\overline{a}}$ 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즉  $\overline{\overline{a}} = a$ 이니까-역주), 그러나 그것은 금지( $\overline{a}$ )와는 역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will)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prohibition)의 연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금지( $\overline{a}$ )이면서도 지령(비a)인 위반( $\overline{\overline{a}}$ )은 애매한 텅이다(비a $\neq$  $\overline{\overline{a}}$ 임에도 불구하고,  $\overline{a}$ 도  $\overline{\overline{a}}$ 를 부정하고, a도  $\overline{\overline{a}}$ 를 부정하고 있어, 비a= $\overline{\overline{a}}$ 가 되므로-역주).

a. 수락(a)과의 관계에서, 금지( $\overline{a}$ )는 수락의 부정이다.

비a(지령; 수락의 부정) vs  $\overline{\overline{a}}$ (금지)

b. 금지(interdiction)와의 관계에서, 위반( $\overline{\overline{a}}$ )은 지령(비a; 행동하도록 하는 명령)의 부정임과 동시에, 부정의 부정이다(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즉 금지 즉  $\overline{a}$ 의 부정,  $\overline{\overline{a}}$ 의 부정). 즉 다음과 같다.

$\overline{a}$  vs  $-(\overline{a})$

다시 말해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유형이다(긍정적 no와 비교하라: “You haven't see it!” “No, I have. 즉, 표기는 No지만 내재적으로는 yes”).

$-(\overline{a}) = a$

괄호가 쳐지지 않은 명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진리이고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며, 리얼리즘의 문학은 바로 이러한 명제를 충실히 추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괄호가 쳐진 명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불확실하면서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비록 주사(主辭) “소크라테스는”만 발화되고 ”빈사(賓辭) “(죽는다)”는 괄호가 쳐져 발화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대전제와 소전제에 의해 그것의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emiology” 차원의 이러한 외소여와 내소여의 2중 결합(dual syntagme; 이것은 사회적·계약의 제1극화이다)과 그 위에 정념의 방향범주(thymic category)를 더한 3중 결합(triple syntagme; 이것은 개인적·무계약의 제2극화이다)을 인식론 차원의 “Semiotics”라고 한다. (역주)

**데카르트적인 분류법:** 정신의 정념에서,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분급에 의해 배타적으로 처리한다. 그는 낱말이 들어서 말하고 있는 정념으로부터, 점진적인 연역법으로부터 시작하고, 최초 미발달의 정념을 6개 한 벌의 목상(경이, 사랑, 미움, 욕망, 환희, 슬픔. -역주)<sup>96</sup>으로 속행하여, ‘아중적인’ 정념으로 끝을 맺는다. 정념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그 매거(枚擧)는 다양한 변화를 위치(place)<sup>97</sup> 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변이의 전개로, 그리고 그때 징후로 이해된 교묘히 다루기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국 철학적 근거로 고찰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어느 의미에서 정의는 그 사실이 정념의 표상을 정당하게 표현한

이것은 위반( $\bar{a}$ )이 지령( $ba$ )의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비록 첫눈에 역설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환원이 행위주를 고려함 없이 오로지 함수의 변형에 그 자신을 제한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행위주에 대한 고찰은 역설을 명료하게 밝힌다. 사실 위반( $\bar{a}$ )은 지령( $ba$ )이며, 그것은 발신자의 부정을 포함하고 그를 위하여 수신자를 대신한다. 사실 지령의 함수 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동일화는 의지의, 자유의지적인 연기의 바로 그 정의를 구성하는 것 같다.”를 참조하고,  $a$ 에 대해서는  $A(\frac{a(\text{수령})}{\bar{b}a(\text{지령})})$  vs  $\bar{A}(\frac{\bar{a}(\text{위반})}{\bar{b}a(\text{금지})})$ 를 참조하라.

96) 데카르트, 金炯孝 역, 「方法叙說·省察 情念論·哲學의 原理 外」(서울: 三省出版社, 1982), pp. 222~225. 데카르트는 정념(情念, passion)을 경이, 존경, 경멸, 관대함, 오만, 겸손, 비굴함, 숭배, 멸시, 사랑, 미움, 욕망, 희망, 걱정, 시샘, 안심, 절망, 망설임, 용기, 대담, 비겁, 공포, 가책, 기쁨, 슬픔, 조롱, 선망, 연민, 자기만족, 후회, 호의, 감사, 의분, 노여움, 긍지, 수치, 혐오, 미련, 희열 등이 있다고 나열하고, “그러나 단순하고 또 원초적인 정념들의 수효가 매우 많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헤아려본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면, 그런 것들은 여섯 가지에 불과하다. 경이·사랑·미움·욕망·환희 및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사단칠정(四端七情)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四端(理); 惻隱之心(仁), 羞惡之心(義), 辭讓之心(禮), 是非之心(智), 七情(氣); 喜, 怒, 哀, 懼, 愛, 惡, 慾. (역주)

97) 텀(term)은 안정적(stable)이고, 위치(자리, place)는 약동적(dynamic)이다. 즉, 텀  $2x-(4+2)$ 일 때,  $x$ 가 8이라고 한다면,  $16-6=12$ 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위치의 경우는, … 4 3 2 1 0 -1 -2 -3 -4 …이라고 한다면, 양수 1자리; 1~9, 2자리; 10~99, 3자리; 100~999, 4자리; 1,000~9,999 등의 변수가 발생한다. 음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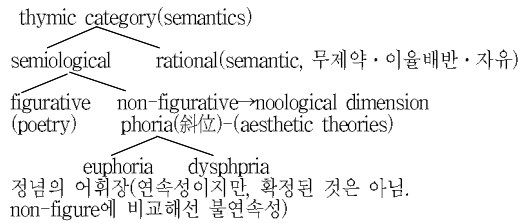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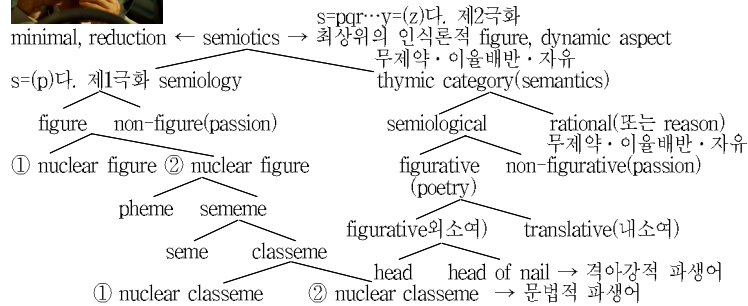
뒤에 갖게 된 약간의 그 파라미터 상에서 연기한다. 데카르트는 그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았으며, 그의 당대에서 차용했다. 이러한 파라미터의 어떤 것은 당해 행위주, 양태화, 가치론화, 그리고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양태화로 존재한다. 그것은 실행주체의 혼합주의 상에 기초된 “후회(repentance),” 즉 관찰자 그리고 깊이 감동받은(impassioned) 주체로 존재한다. 요망(wanting)과 실행능력(being-able-to-do)은 우리가 결국 “총체지속적인(durative)” 정념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는, “우유부단(indecision),” “권태(boredom),” 그리고 “혐오(dislike)”와 같은 그래서 “연기능력(the ability to act)”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념 안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심증-윤리화(moralization)는 침투성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대상의 가치론적인 분극화에 관한 한 매우 혼란 여분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기왕에 존재하는 분류법 위에 새로운 분류법을 겹쳐놓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그 소인(素因)은 “불명확한(indefinite, 무한대의)” 것으로 언급되는 그 타자가 관련되는 한 6개의 최초의 미발달적인 정념과 탐구적인 것에 관하여 남김없이 망라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광대한 조합(combinatory, 순열조합)의 하나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미 고찰했던 것처럼, 그 조합은 교묘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따라서 분류법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념의 기호학 이것으로 거의 존재하는 소수의 범주 상에 기초하고 있다.<sup>98)</sup>

더 나아가 그 조합은 단 하나의 분류법에만 순응하지 않고 뒤섞인 2개의 분류법에 순응한다. 그 첫 번째는 데카르트가 랑가주를 통해 다소 충실하게 표현된 문화의 정념적인 우주를 나중에 인식하는 한 내재의 에스노-분류법(ethnotaxonomy)<sup>99)</sup>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는 단지 데카르트 철학의 메커니즘이 주장하는 현존재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의를 동반하고 결정하는 심증-윤리적인 판단 때문에, 구성된 개인 언어적인 분류법(idiolectal taxonomy)으

98) 그것은 이러한 조정(調停)의 기호학적 분석이 “최초의 미발달적인 것”과 기초로 만들어진 타자 간의 편차 상의 그 소인(素因)을 강조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데카르트에서(정신의 정념, 그 편차는 명백하다. “거기에는 그러한 6개의 정념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는 최초의 미발달적인 것에 대해 언급한다. 이제 우리는 소위 최초의 미발달적인 정념이, 우리가 행위주적인 혼합주의와 조우하지 못하는 것의 그 일자로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의는 2개의 행위주, 주체와 그것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안은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데, 그 이유는 이러한 기준이 데카르트에 의해 제공된 리스트에 오직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99) 에스노-분류법(ethnotaxonomy)에 대해서는, 다음 도표를 참고하라.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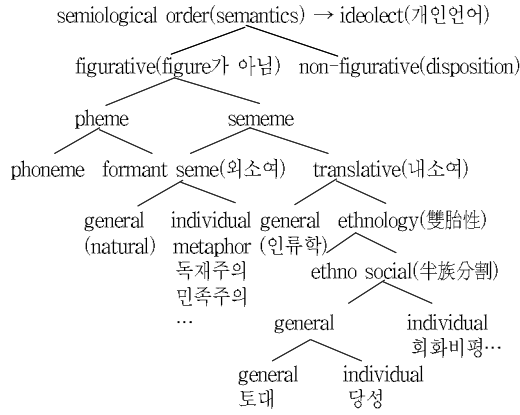
로 존재한다. 이러한 분류법은 때때로 매우 모순적인 양식으로 작용하며, 그때 지시의 망설임은 철학자의 우유부단을 폭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자신의 체계와 함께 일치함으로써, 데카르트는 그들이 마치 정념이었던 것처럼 간주하며 냉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그들은 단지 17세기의 “견해 (opinion)”처럼 고찰된다. 마찬가지로, 자연언어 안에서 지시가 결핍된 정향 (position)으로 나타내며, 그는 그들을 차용된 텀이라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할 당한다. 따라서 그는 “과거의 환희와 연결된 슬픔(sadness)”으로 존재하는 “후회(regret)”와 어울리는 목록 안에서 “과거의 비애(sorrow)와 연결된 환희(joy)”에 명목 “의기양양함(elation)”을 부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조정적인(positive) 대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속한다고 진술하는 일자의 정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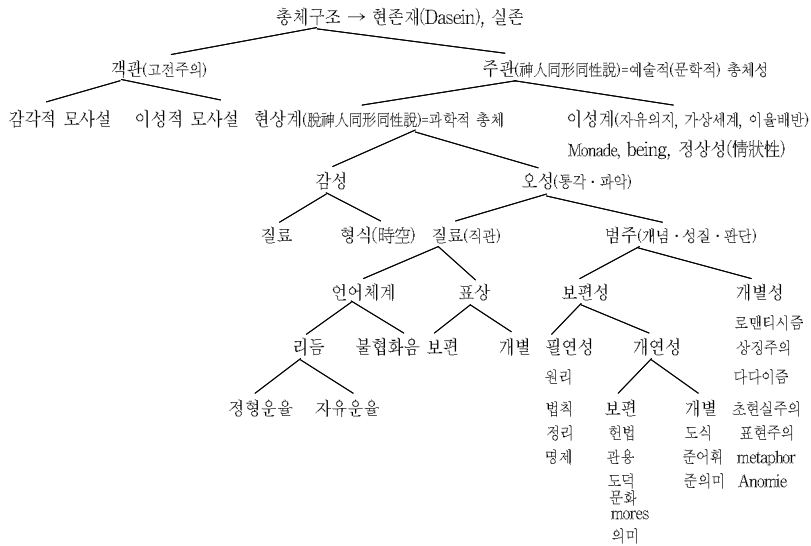
\* seme=제1의 레벨, classeme=제2의 레벨, thymic category=제3의 레벨, semiotics=제4의 레벨. rational은 reason(理性)이면서도 rational(悟性)이다. 그리고 “표출/내재”=semiology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 semiotics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thymic category)”이다.

제1장 정념의 인식론

지시하며, 그는 아종적인 명목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근접한 총칭적인 명칭 “환희(joy)”를 차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성된 개



노트: 위의 도표는 아래의 도표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감성은 구조에서 이동하거나 초월한 것이 아니라 총체구조 안 현상계의 하위개념이며, 초월은 이성계가 현상계를 초월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총체구조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1)



인 언어적인 분류법의 탁월함을 지시하는 그 지시의 독단적인 성질이 때때로 어떤 하나의 문화에 속하는 그 어휘화된 주연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관련에 탁월함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호학적 투시도법을 사용하기 원하는 어떤 사람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곧 조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조합은 언뜻 보기에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의어(一義語)적으로 지배하는 소인(素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분류법적 절차는 정념의 어느 분류법이 소정의 문화와 관계된다는 그 사실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빛나치게 된다. 이것은 그것의 철학적 가치로부터 결코 손상을 입지 않지만, 그것의 이점을 선택함으로써 기호학자들을 보호한다. 사실, 그 기호학적 방법은, 예언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조합의 목록에 등록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며, 그 조합의 가능한 정향(position)을 예언하고, 따라서 그것은 그것의 보편적인 소인을 인식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더 나아가 담화 안의 정념의 출현을 예언하고, 또한 그것은 그것의 통사론을 인식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철학자들과 함께 가장 부분적인 것을 위한, 정념적인 변화는 정념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에서, 그들은 생리학과 물리적 기계론으로 전락하고, 정념은 그 자체만으로 순수하게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인다.

#### 스피노자에서의 알고리즘과 통사론: 이제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sup>100</sup>에

100)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 네덜란드 철학자. 암스테르담 출생. 설명 네덜란드 철학자. 암스테르담 출생. 유럽철학사상 최대의 형이상학체계를 창시하였다. 성인 “Baruch”란 축복받은 자라는 뜻으로, 같은 뜻의 라틴어 “Benedictus”로도 불린다. 포르투갈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 유대인학교에서 헤브라이어·성서학을 배우고 유대신학을 연구하였으나, 정통적 견해에 비판적이어서 1656년 유대교단에서 파문당했다. 라틴어·수학·자연과학·스콜라철학 및 르네상스 이후의 신학 등에 밝았으며 특히 R. 데카르트철학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1660년부터 레인즈뷔르흐에 살며 「신·인간 및 인간의 행복에 관한 소논문」 「지성개선론(知性改善論,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을 썼고, 친구들의 요구에 따라 1663년 「데카르트의 철학원리(Renati de Cartes principiorum philosophiae, 1663)」를 출판했다. 이것이 생긴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유일한 책이다. 그해 보르뷔르흐로 옮겨 네덜란드의 정치지도자 J. 비트와 사귀었고 그의 자유주의정책을 지지하여 사상의 자유를 신학의 간섭으로부터 옹호하기 위하여 구약성서를 문헌학적으로 비판한 「신학정치론(Tractatus Theologico-Politicus)」을 썼다. 이 책은 1670년 익명으로 출판되었으나 그의 글이라는 것이 밝혀져 극악한 무신론자로 간주되었다. 그해 헤이그로 옮겼고 1673년 하이델베르크대학에 초빙되었으나 거절하였다. 1675년 「Ethica(윤리학)」을 완성하였으나 그의 사상을 위협스럽게 여긴 사람들의 방해로 출판을 단념해야만 했다. 그 뒤 「국가론(Tractatus politicus, 1677)」 집필에

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윤리학(Ethica)에서 정념적인 통사론의 어떤 원소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정념의 이론은 연결된 명제의 시리즈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움(hatred)은 “외부 원인의 착상(idea, 막연한 느낌)과 동반된 슬픔(sadness)”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독자는 “마음이 미완성으로 변하는 것을 통하여,” 정념을 슬픔(sadness)으로 지시 받게 되고, 다음의 설명은 이러한 최종 절차로 제공된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착상(idea, 막연한 느낌)은 행위에 대한 신체의 능력에 조력하거나 방해하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사고에 대한 마음의 능력에 조력하거나 방해한다. (L'éthique Proposition XI, p. 159)

따라서 스피노자에 의하면, 정념은 화용론적인 차원과 특히 인식적인 차원(cognitive dimension)과 함께 기호학적 영역의 어떤 아티클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한다. 화용론적인 주체의 언어능력은 인식주체를 위한, 그리고 그때 인식주체 그 자신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정념’으로 조직된 이러한 광경을 위한, 광경으로 존재한다.

정념의 가장 보편적인 소인(素因) 상에 기초된 함수의 이러한 종류는 우리가 인간주체의 단일성(unity, 또는 조화)을 공준하는 것에 의하여 그 소인(素因)으로, 우리가 그를 별충하여 조합(調合)하는 그 다양한 예의 상호의존성으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정념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들을 구성하는 연역적 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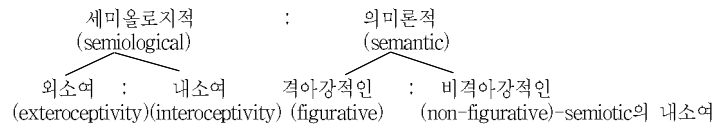
---

작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1676년 G. W. 라이프니츠가 방문하여 그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그 후 몇 개월 뒤 폐결핵으로 죽었다. 그가 죽은 뒤에 곧바로 친구들이 「Ethica(윤리학)」, 「지성개선론(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국가론」, 「헤브라이어문법강요(Compendium Grammatices Linguae Hebraeae)」와 서간을 모아서 「유고집」을 출판하였다. 스피노자의 철학체계는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서 실체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는 실체를 자기원인으로 파악하고 데카르트에서 시작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체개념을 철저히 한 뒤, 무한히 많은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실체를 신이라고 하였다. 일체의 사물은 신의 변용이고, 또한 신은 모든 사물의 내재적 원인이며, 모든 사물은 신의 필연성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고 하고, “신 곧 자연”이라는 범신론적 체계를 전개하여 사유와 연장을 신의 2가지 속성, 즉 동일실체의 본질인 2가지 표현이라 보고 “심신평행론(心身平行論)”의 입장을 취하여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극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개체본질과 신과의 필연적 연관을 완전히 인식할 때 유한한 인간은 신의 무한에 관여함으로써 인간정신은 완전한 능동에 이르러 자유를 실현하게 되는 데, 그는 여기에서 최고선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철학은 J. G. 피히테에서부터 G. W. F.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철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국가와 법에 대한 그의 학설은 보편적 이성의 관념론과 힘의 실재론, H. 그로티우스와 T. 홉스, J. J. 루소와 N. 마키아벨리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다. (역주)

들에서 유래하는, 메커니즘은 자기소여(自己所與, proprioceptive)의 중재를 통하여 외소여(外所與, exteroceptive,)와 내소여(內所與, interoceptive)를 동차화하는 그 변화과정, 외연적·기호학적 존재자를 창조하는 변화과정 안에, 우리의 견해 안에, 그것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sup>101)</sup> 이것은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의 이유로, 신체의 영향력이 마음을 위한 정념적인 광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언어적인 그리고 정념의 이러한 이론의 제약적인 성질은 여기서 적어도 2개의 방식을 통하여 보여준다. 우선, 그것은 화용론 상의 인식적인(cognitive) 것의 정념적인 표현이 여기서 불안스러움으로 고찰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심적 능력의 수정이 소위 불충분한 착상(idea, 막연한 느낌)으로부터 분명히 유래하기 때문이다. 이제, 불충분한 착상은 신체의 영향력의 감응을 통하여 마음에서 발생하는 착상의 정의에 의해 존재하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것은 그 자신을 마음의 ‘수동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그래서 “모양을 손상시키고 뒤섞어 놓고 있는(disfigure and muddle)” 오직 그런 것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철학적 조정(調停)은 여기서 양태적인 요새(要塞)가 지식의 순환을 붕괴시키는(불완전하게 하고, 반음 낮추는 방식으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들 사이의 인식적인 공간으로 표현된, 정신

101)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58. interoceptivity(내소여); 1. 주어진 문화 또는 개인이 동연(同延)이 되는 의미세계를 아티컬레이션으로 만드는 의미소범주의 한 무리는 자연계의 기호체계 안의 원소와 상응하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범주 외소여와 내소여(exteroceptivity/interoceptivity)의 형태로 분류될는지 모른다. 지나치게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때때로 이러한 범주의 명목은 “세미올로지적/의미론적”(semiological/semantic)으로 대체되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 어떤 애매성을 창조한다.



위와 같이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범주들이 비표상적(또는 추상)으로서의 내소여라고 한다는 것을 추리하도록 제안한다. 2. 따라서 내소여의 텃에 의해 에워싸인 의미론적 분야는 언어 세계의 이론적 쟁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이다. Ibid p. 248. proprioceptivity(자기소여); 강류의미소적인 범주 “외소여(exte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의 복합적인(또는 중립적인) 텃,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인간이 그들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지각작용(perception)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의미론의 특성을 연역하는 의미소적인 범주의 세트를 분류하는데 노력한다. 심리학에서 유래된 이 텃은 정신생리학적(psychophysiological) 인의지를 함유하고 있는 방향(芳香; thymia)에 의해 반제된다. (역주)

과 신체의 이중성을 전제한다. 그런 배후 개념의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양태화를 벗어나, 그것은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언외감수의미소적인 차원으로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정념의 이론이 아무튼 화용론적인 차원을 차용하여 인식적인 차원(cognitive dimension)을 붕괴시키기는 하지만 오렌지의 낭중본질과 같은 효과의 논법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능력(being-able)의 최상의 양태성은 거듭제공된 것 같이 보인다. “행동하는 신체의 힘(body’s power to act; being-able-to-do),”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의 능력(the mind’s ability to think; being-able-to-know)”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물로만 존재한다. 사실 이것은 오직 능력(being-able)만이, 그리고 그것의 변이만이 정념을 생산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양태화가 그것과 함께 필요이상의 방해로 인하여 두 번째 효과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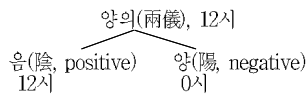
그 경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러한 양태성은 전체 체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그것의 효과가 그때 광경으로 처우를 받게 되는 한, 불충분한 착상만을 생산하는 그 이해를 위해, 그때 지식(know)의 양태성은 여과로 그리고 모든 정념의 해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에피스테메적인(epistemic) 양태성에 의지하는 비-망각의(alethic)<sup>102)</sup> 양태성은 정념의 스피노자

102) alethic(비-망각의, 또는 일어진위·연역귀납·이율배반·양의적; 一語眞僞·演繹歸納·二律背反·兩儀的): 1. 어원적으로는 인간이 레테 강을 건너면서 망각한 이데아를 회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2. 거짓(falsehood), 그리고 진리(true)와 관계하고 있는 논리적인 의미로서의 용어. 2. 거짓(falsehood)의 진술은 엄밀히 말해서 진리가 아니다. 대개 2개의 가치로 만들어진 논리는 오로지 1개의 진리 또는 거짓으로만 진술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불확실의 논리(fuzzy logic)는 0과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속체(continuum)”로서의 진리로 간주한다. 비록 “F”가 진리표에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상징기호 “■”는 때때로 “거짓(false)”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4. 진리(true)의 진술은 엄밀히 말해서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이다. 어떤 진술이 엄밀히 말해서 소정의 가인과 정의의 세트 안에서 결정할 수 없는 논리로 입증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그 진술은 거짓으로 호칭된다. 대개 2개의 가치로 만들어진 논리는 오로지 1개의 진리 또는 거짓으로만 진술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불확실의 논리(fuzzy logic)는 0과 1의 어느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속체(continuum)”로서의 진리로 간주한다. 비록 “T”가 진리표에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상징기호 “■”는 때때로 “진리(true)”를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5. 즉, 상징기호 “■”는 진리가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다시 예를 든다면, “12시”를 지시할 때 그것은 또한 “0시”도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다. 6. 형식논리학은 방법, 구조, 그리고 형식적으로 진술될 수 있는, 또한 잘 정의된 의미와 함께 약간의 상징기호를 사용하면서 입증된, 그러한 명제로서의 완벽한 비모순의 수학공식을 궁리하여 찾아냈다. 형식논리학의 난문제는, 연역될 수 있는 진술 “1+1=2” 이전에 규정된 상징기호의 100 페이지에 달하는 바로 그것으로, 화이트헤드(Whitehead)와 러셀(Russell)의 불멸의 “Principia Mathematica”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기초는 괴델(Gödel)이 오늘날 “괴델(Gödel)의 불완전성의 정리

의 이론의 프레임을 조합(調合)한다. 따라서 “공포(fear)”는 “결과(비-망각적인 양태화)가 어떤 미심쩍은(인식론적인 양태화) 확장(extent)과 같은 것의 미래의 또는 과거의 사물의 착상(idea, 막연한 느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정의의 변화과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통사론에, 정념적인 함수 그 자체에, 고유의 통사론을 덧붙인다. 스피노자의 정념 이론의 독창성의 일부는 사실 어떤 정념이 또 다른 정념으로 변할 수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족(satisfaction)”은 모든 희망(hope)과 반대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환희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실망(disappointment)”은 모든 희망과 반대로 발생하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슬픔으로 존재한다. 스피노자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기(expectation)”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깊이 감동받은 주체가 여기서 어느 다른 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양태적인 주체의 시리즈로 조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어떤 정념이 양태적인 변형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에, 한 치의 의심도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제 정념적인 통사론은 그 이론에 제한되지 않는 것에 편승하는 인자(因子, factor) 그 자체로 존재한다. 비록 분류법에 의해 암시된 많은 조합이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원칙적으로 아직 한정되어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퀀스 안 몇몇의 변형에 제한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하여간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념적인 결합체의 제한된 수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내포분류법이 통사론을 초월해서 수행해내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때때로 철학자들이 그들의 이점을 선택하는 통사론적인 소인(素因)의 자립을 보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그것은

(incompleteness theorem)로 알려진 그 결과로 예기치 않게 입증되었던 1930년대 중반에 사라졌다. 이 정리는 불가능해진 힐베르트(Hilbert)의 종착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최초의 일련의 심층, 그리고 엄밀함과 증명가능성에 관하여 반직관적인 진술로 되어있는 최상의 것을 증명했다. 7. 일종의 이율배반(二律背反), 즉 부분과 전체의 이율배반, 자유 유무의 이율배반, 신의 유무에 대한 이율배반, 시간의 시중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고 볼 할 수 있다. 8. 양의(兩儀); 태극(太極)이란 무극(無極)과 유극(有極)의 종시점(終始點)으로서 이(理)를 바탕으로 한 기(氣)가 동하려고 하는 시공(時空)의 점이다. 여기서 이(理)는 불변자(不變者; invariant)로서의 주재자요, 기(氣)는 변자(變者; variant)로서의 유행자(流行者)를 말한다. 또한 이(理)는 체(體)가 되며, 기(氣)는 용(用)이 된다. 양의(兩儀)는 시간으로서의 상생(相生)과 공간으로서의 상극(相剋)으로 통변(通變)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





우리에게 개인 언어적인 이론만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 조합의 총망라하여 나타나는 그 추출은 마음의 때끄러운 함수작용을 개조하는 그 신체로부터 방사되고 있는 정념만의 고찰을 선택하는 것으로 잔존된 삼단논법의 그 전체에 의해, 그리고 개인 언어에 지배를 받는 연역적 알고리즘의 소인에 의해, 제한된다. 이것은 스피노자 그 자신의 시간만큼의 철학적 전통을 만들고 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미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양태적인 동류체의 선택은 그 체계를 제한한다. 나중에 그것은 그렇게 실행하는 모든 편차적인 가능성을 상실한 약간의 조합의 선택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철학자들은 명목 없이 존재하는 그렇게 하여 랑가주를 통해 표현된 문화적인 문(門, division)과 관계되어 그것과 함께 구성의 자율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추월하여 강조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가능성의 조합과 양태적인 시퀀스, 고찰되어 선택된 그 연역적인 통로에 의해 허락된 이것만으로 둘러싸인 진리로 존재한다. 이것의 가장 명백한 증명은 비록 양태적인 통사론이 무제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분류법 안의 변화만을 다루는 것이지 분류법을 초월하여 넘어가는, 그리하여 외형적으로 조합적인·연역적인 변화과정에 충실하게 잔존하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피노자의 윤리학(Ethica)의 감탄할 만한 논리 정연함, 또는 그것이 제공하는 정의의 타당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역으로, 조합적인 소인이 확장된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특히 정념적인 질료 안에서, 분류법적인 그리고 순수하게 연역적인 방법이 왜 각각의 문화에 의해 떠맡게 된 문(門, division), 그리고 개인 언어적인 체계의 아프리오리(a priori)를 그들 위에 겹쳐놓은 오로지 후천성(posteriority)만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철학적인 이론의 기민한 관점은 정념의 철학 그것만의 논법으로 고찰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은 여기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어떤 방법론적인 선택의 연외지언의 효과에 조명을 비춘다. 그들이 분류법적인 한, 그들은 2중의 대당으로 조직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고의 불연속적인 그리고 범주적인 모드를 쉽게 피할 수 없고, 우리의 눈에, 그것은 담화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정념적인 우주로 취급하는 것을 갖추게 된 그래서 매우 허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특별한 철학체계에 연역적인 그리고 그것에 예속되는

것으로 존재하는 한, 그들은 개인 언어적인 분류법을 생산한다. 그들이 보편적으로 어휘소적인 소인을 추종하는 한, 각각의 정의에 정당화 된 지시의 체계적인 연합을 유도하고, 그들은 내재적인·사회방언적인 분류법을 확증한다.

물론 이러한 편차적인 성격은 자질이 만들어질 만한, 그리고 철학의 역사의 화맥 안에 되돌려 놓일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분류법 상에서 보고서의 내용이 풍부했던 시기의 긴 연대가 지나간 후에, 요구와 망상의 이론이 그러한 보고서의 생산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정념의 개념을 사라지게 하고 있었던 정념의 분류법은 로맨티시즘의 시기까지 그 자체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감정으로 되돌려진 정념, 삶의 소인으로서의 정념 그 자체는 분리될 수 없었으며, 페르마타(hold; fermata, 음악의 늘임표)를 방지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분류법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와 프로이트에 의해 유발된 그 위대한 대변동은 정념을 집단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역사의 원동력으로서의 문화와 사물·인간의 기원에 위치를 잡게 하고 있는 기본 인류학의 몸짓을, 바로 이러한 진화를 확증하고 있다. 그것은 정념의 어느 철학적 이론이 분류법적인 것이거나 연역적인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양자택일 적인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전체 철학적인 체계가 그것의 부지적인 것 중의 하나로 거의 존재하지 않든지, 정념의 이론을 생산하는 이러한 철학적 체계에 의해 지배 받는 분류법으로 존재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존재한다.

우리의 관심은, 의미작용의 이론 안 자율적인 언외감수의미소의 차원을 보증하고, 내포분류법에 의해 표현된 문화적 변이의 자립을 잔존시키고 있는 전체로서의 기호학적 이론과 함께 결코 뒤죽박죽이 되지 않는, 정념의 기호학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에 있음이 명백하다. 인식론적인 그리고 방법론적인 망상을 우리는 암반(rock, 분류법)과 불안정성의 위치(hard place, 모든 의미작용의 기초로서의 정념)<sup>103</sup>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념적인 통사론에 첨부시켰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인식론적인 최소량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분석을 시작할 때 그 정념이 그들을 창조하고

103) "a rock and a hard place"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 진퇴양난, 열광의 도가니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역주)

그들을 기호현상-화술적인 근원으로 통합하는 용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 기호학적으로 언급하면, 우리는 정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또는 적어도 그 모든 이유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포기했었으며,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꾸미지 않으면 안 된다. 긴 안목으로 보면, 기초적인 증명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론적인 구성의 경로를 계속 하강시킴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타자들 사이의 내포분류법을 생산하는 기회로 삼아 선택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경우 그것이 지금 문화로부터 방사되고 있는 것을 이동시키거나 선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법이 생산한 것은 이제 신중히 선택되고, 임계상태적인(critical)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외연적인 담화 안에서 정념에 대한 실험을 시작할 것인 이유로 존재한다. 타자들 사이의 사전적인, 심증-윤리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담화는 열거된 통찰을 사회방언적인 그리고 개인 언어적인 함수의 방식으로 획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사전편찬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집성은 가능한 전성을 위한 그리고 최초의 이론적인 가언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합될 것인 따라서 새로운 의문의 발생을 위한, 출발점을 구성한다.

두 선택 사이에, 랑가주를 분해할는지 모르는 따라서 정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자연언어 안에서 “뺨질하기(tinkering around)”로 존재하는 그것은 다시 그것을 산산이 흩어지게 하고, 사방팔방으로 날려 보내고, 총체적인 자립성 안에서, 자연언어의 윤곽을, 독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것은 항상 그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게 될 때, 미심쩍고 불확실한 것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인식될 것인 랑가주의 내포성(virtualities) 안에서, 그리고 이론화된 문화적인 선택 안에서, 임계상태의 경로를 선택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그들의 망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 그레마스의 정념의 기호학에 대하여

폴 J. 페롱(Paul J. Perron)

파올로 파브리(Paolo Fabbri)

많은 안내서들이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에 대해 썼다. 어떤 것은 그의 사상이 어떻게 그의 시대의 성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발하고 독창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근의 50년을 초월해서 사회과학의 외양을 만들고 있는 에피스테메(episteme)<sup>104</sup>의 일부로 존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의 언어학적 그리고 철학적 전제와 토대에 대해 강조하였다.<sup>105</sup> 또 어떤 것들은 그것의 논리적 그리고 과학적 진상(真相)이 전자를 초래하도록 시도했다.<sup>106</sup> 따라서, 그레마스에 의해 영어로 출간된 최근의 저서, 「사회과학: 기호학적 관점, 1990(The Social Science: A Semiotic view, 1990)」의 서언의 모두(冒頭)에서,<sup>107</sup> 우리는(Paolo Pabbri, Paul Perron) 기호학적 이론의 선형사상(線形

104) 에피스테메(épistémé): 1. 과학적 지식, 직업적·전문적 지식, 지식 일반을 가리키는 말. 철학용어로서는 실천적 지식(프로네시스; phronesis)과 상대적 의미에서의 이론적 지식, 또는 감성에 바탕을 둔 의견(臆見; 독사)과 상대되는 참의 지식을 말한다.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구별은 이미 파르메니데스(Παρμενίδης, 기원전 510년경~기원전 450년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한 것은 플라톤이다. 그는 에피스테메와 에이도스(eidos)를 밀접하게 관련시키면서 독사와 아이스테타(감성적으로 파악된 것)에 대립시킴으로써 참된 지식의 위상(位相)을 인식론적·존재론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능력을 말한다. 2. 파르메니데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엘레아학파의 시조. 존재와 비존재, 존재와 사유라는 철학의 중대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이성(理性; 칸트에 계서는 悟性)만이 진리이며 이에 반해 다수(多數)·생성·소멸·변화를 믿게 하는 감각은 모두가 오류의 근원이라 주장했다. 존재론(存在論) 및 인식론(認識論)에 영향을 주었다. 철학 시 “자연에 대하여”가 약 160행 남아 있으며, 그 사상의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립하는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만이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근본사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 성질을 논리적으로 연역(演繹)하였다. 그의 존재론은 사실상 플라톤의 존재론에 거의 그대로 흡수되어, 이후 2000여 년 동안 서양 철학의 핵심인 존재론과 인식론의 바탕이 되었다. (역주)

105) 예를 들어, 로널드 슐라이퍼(Ronald Schleifer)의 「A. J. Greimas and Nature of Meaning」(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7), 또는 파올로 파브리(Paolo Pabbri)와 폴 페롱(Paul Perron)의 「The Social Sciences: Semiotic View」(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1990)의 서언을 보라.

106) 폴 페롱(Paul Perron)의 A. J. 그레마스(A. J. Greimas), 「On Meaning: 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New Literary History, 20, no. 3. Spring 1989)를 보라.

107) 모두의 “Within the general field of semiotics, it could be said that there exists today a twofold movement regarding both the application of semiotic theory and its philosophical

寫像; application)과 그것의 철학적 기본을 중시하는 것과 함께 기호학의 일반분야 안에 존재하는 이중진(二重眞意)를, 즉 기호학의 독창성이 두 극단의(삼단 논법의 주사 또는 빈사 -역주) 정의, 다시 말해서 인식론적(epistemological) 레벨과 선형사상의 레벨 사이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으로 잔존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투기가 그것의 불확실한 그리고 경험적인 의도 양측에 의해, 그것의 함수가 경험적인 그리고 텍스트적인 지식 사이의 연결에 실패한 것을 확립한 것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를 위하여 기호(signs)의 이론과 인간과학을 배경으로 조우하는 것으로 구성된 신화학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변형력(應力, stress)을 강조했다.

하나의 시도는 다수의 철학적 개념에 의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서의 언어학을 숙려하는 것과 다수의 언어학적 변덕을 통합하는 것에 의해 언어학의 텀을 철학으로 사고하는 양방향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레마스와 파리 기호학파가 언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 양방향의 사고방식은 마치 가동자(시험자, 원조자, 동작주, agent)<sup>108)</sup> 대상, 양태화, 양상화가 어떤 철학적 경상도야(鏡像陶冶, assumption)<sup>109)</sup>를 함축하고 있

underpinnings.”을 참조하라. (역주)

108) magic agent: 다음은 주술적 가동자(원조자, 힘, 작인, 동인)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① 동물(말, 독수리 등) ② 주술적 조수를 나오게 하는 대상물(말을 가진 부싯돌, 젊은이를 갖고 있는 반지) ③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물로 몽둥이, 칼, 구슬리(gousli: 다섯 또는 일곱 줄의 현악기), 구슬 등 ④ 주인공에게 직접 주어진 성질이나 능력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 등. 주인공은 수동적임(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공). 또한 주인공과 그의 가동자는 하나이며 같은 인물이다. 예: “이반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자마자, 그는 말로 변하여, 아름다운 엘레나의 궁전까지 질주하여 갔다.” ⑤ 가동자(시험자, 시험을 하는 자, 원조자, 힘, agent) vs 수동자(수난자, 즉 시련을 받는 자, patient) vs 수령인(beneficiary).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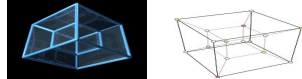
109) 아직 입을 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운동. 나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급전환하고 있는 어느 상징적 모체를 범례적 상황 안에서 명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나는 타자와 동정(同定)되는 그 변증법 안에서 자신을 객관화하기도 하고, 언어활동이 나에게 그 주체적 기능을 보편성 안에서 되찾도록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 · Daniele McDowell · Alan Velie 영역,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83)」, pp. 113~114.의 “노트: 라캉(Jacques Lacan)은 새로운 레벨에 헤겔(G. W. F. Hegel)의 해체(Aufhebung), 다시 말해서 변증법적 기초로서의 들어올림(lifting 또는 raising)으로 번역하고 있는 용어 경상도야(assumption[주도면밀한 의미에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들어올림은 초월된 대상 또는 개념을 모두 상실하지 못한다. 같은 방식으로,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그레마스(A. J. Greimas)의 복합동류체 안의 조정적 텀으로서의 “경상도야(assumption)”는 부정적 텀의 약간 “분할적인(partial)” 의미를 아직 존속시키고 있다. 라캉(Jacques Lacan)은 시니피앙의 레벨에 들어올림의 의미를 의미하는 경상도야로 사용하며, 그리고 화자와 청자에 의해 경

는 것처럼, 그래서 텀으로 만들어진 사용법으로 관측될 수 있다. 비록 그레마스( Greimas)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호학(semiotics)은 위대한 철학적 경향, 기호학적 투시도법(透視圖法, perspective)<sup>110)</sup>으로부터 철학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의 타당한 방법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를 대답하게 된 그 질문(question)<sup>111)</sup>의 일부분으로 발생한다.

프로프(Vladimir Propp)가 텍스트 분석의 전통 안에서 글을 썼고, 러시아 민담 연구에서 화술의 연기적인 성질(nature)을 강조했던 등장인물의 기본 역할(role)<sup>112)</sup>을 전후 내러톨로지(설화론, 화술론, narratology)의 진전 안에서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은 판에 박힌 이야기이다(Doležel, pp. 141~146). 그를 위하여,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기(action; 변화과정, un procès)로 또는 연기의 본령(本領, spheres)으

상도야의 동류체를 검토하면서, 그레마스(A. J. Greimas)는 라캉(Jacques Lacan)을 따르고 있다.”를 보라. (역주).

110)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29~230. perspective(투시도법); 1.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자의 중재를 요구하는 투시도법은 인외화자/인외청자의 관계를 연기하면서도 축어화의 절차에 의지한다. 2. 화술적 구조의 직선적 강제를 고려하고 있는 화술 프로그램의 결합구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 선택 안에서, 인외청자를 위해 투시도법 안에 삽입되고 있는, 즉 논쟁적 구조로 구축된 화술적 담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권총강도(hold-up)로서의 그 화술은 화술적 프로그램의 강도로서든지 또는 강도를 당한 사람으로서든지 하여간 무엇으로든지 강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로프(Vladimir Propp)에 의해 정의됨으로써 화술은 악한의 희생보다 영웅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3. 엄폐가 반-주체(반대)의 이익을 위해 주체적 화술의 표출을 총체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투시도법은 두 개의 대당 프로그램을 보전하며, 반면에 그 프로그램의 화술에 선택권이 부여됨으로써(인외청자의 감수성이 예민한 영역에서 판단됨으로써), 따라서 그것은 매우 명확하게 표현되고, 주체의 희생을 치루고, 그것은 오로지 단편적으로만 표출된다. —또한 투시도법은 다음의 하이퍼큐브(hypercube; 정사각형과 정육면체 등을 n차원으로 확장한 polytope이다. 이는 서로 평행이거나 직교하는 선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닫혀 있고 볼록한 컴팩트 공간을 이룬다), 4차원 입방체의 3차원의 그림자를 참조할 것. (역주)



111) 음악의 ‘interrogation’을 참고하라. 즉, 음악용어 프레이징(phrasing), 흔히 동기(motive)는 2마디, 작은악절(Phrase)은 동기의 두 배인 4마디, 큰악절(period, sentence)은 작은악절 두 개가 합쳐진 8마디의 길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전파와 낭만파 음악은 대개 그와 같은 규칙성을 보여 준다. 큰악절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중, 앞의 것은 테제(Thesis) 또는 앞작은악절(Antecedent Phrase)이라고 하며 뒤의 것은 안티테제(Antithesis) 또는 뒤작은악절(Consequent Phrase)이라고 한다. 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은 흔히 “질(質)↔응답” 또는 “진술(statement)↔확인(confirmation)”의 대화형의 관계를 갖는다. 바로 이러한 음악의 연주법을 상상하라.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상상하여야만 할 것이다. (역주)

112) 텍스트 안에서 언어의 역할을 러시아 민담의 등장인물의 역할에 비유하여 연구한 것이다. (역주)

로, 환원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다양한 연구에서 그가 정념을 분석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범주(categories)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그것은 언어학이 연기를 기술하기 위해 남보다 우수한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정념의 기술을 위해 적당한 것은 어떤 무엇도 없다는 것을 언급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과거에, 연기의 체계를 최초로 정성 들여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 포함되었던 그 화술적인 텍스트를 저술하고 있었던, 그레마스과 자크 폰타니유(Jacques Fontanille)<sup>113)</sup>를 위해 중대한 쟁점이 되었다.<sup>114)</sup> 다시 말해서, 전자는 대체로 정위된 연기였던 화술의 분석에 근접한다.<sup>115)</sup>

언어학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최소개념의 제한된 수를, 예를 들어, 주체(subject), 대상(object), 빈사(賓辭, predicate),<sup>116)</sup> 양태성(modality), 그리고 양상화

113) 자크 폰타니유(Jacques Fontanille)는 파리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의 기호학자이다. 그는 열권의 책과 단순 조목 또는 그의 주제가 이론기호학, 문학기호학, 그리고 영상기호학에 걸치는 것으로 장을 나누는 책을 저술하거나 공동저술을 하였다. 앞의 연구생으로서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파리 기호학파의 창시자이며 공저자인, 알지라스 켈리엔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를 위해, 자크 폰타니유(Jacques Fontanille)는 「정념의 기호학(The Semiotics of Passions)」에서 알지라스 켈리엔 그레마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레마스의 연구프로그램의 주요한 계승자의 한 사람이 되었고, 파리의 “프랑스 국립 고등 사회과학 연구원(É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에서 상호기호학적인 세미나를 관리하고 조직을 하는 데 조력하였다. 알지라스 켈리엔 그레마스가 사망한 후에, 프랑스 학회에서 그 과정은 그 자신만의 세미나가 될 때까지 자크 폰타니유의 맨틀(mantle; 地氈)과 중심핵 사이의 층) 아래 계승되었다. 활동적으로 저술을 하고 있는 자크 폰타니유는 프랑스 리모주 대학(Université de Limoges)의 교수이자 학장이며(2005~2010), 언어학, 기호학(Semiotics), 문체론, 수사학의 과정을 가르친다. (역주)

114) 예를 들어, 원래 1968년과 1973년에 프랑스어로 출간된, 연기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시도된, 그레마스의 「On Meaning」의 제3장~제6장,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화술문법의 원소,”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행위주, 연기자, 그리고 격상”을 보라.

115) 예를 들어, 1960년대에 파리에서 Roland Barthes에 의해 편집된, 독창성이 풍부한 저서, “L’analyse structurale du récit”에서, 그는 Tzvetan Todorov, Greims, Claude Bremond, Christian Metz, 그리고 Umberto Eco가 그들의 분석에서 화술의 연기자적인 차원을 강조했다고 했다. 역사의 대당(對當)으로서의(연기의 수다성[數多性]과 시간의 통합성으로 정의된) 비극적 요소(연기의 통합성으로 정의된)를 설치하고 있는, 이미 연대기를 초월하여 논리의 지상권(至上權, 교황의 자유재량)으로 추정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그의 서언에서, Roland Barthes는 화술(narrative)의 “반연대기화”와 그것의 “반논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16)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41~242. predicate(빈사, 賓辭); 1. 빈사는 전통적으로 발화를 구성하는 통사론적 함수 중의 하나로 고찰된다. 통사론적 강류로서, 빈사는 다소간 언외지언(verb, 형태론적 강류로 정의된) 또는 언외지언적 결합체(결합체적인 강류로 고찰된)와 상응한다(게다가 동정된 존재[being] 없이). 언어학의 이러한 세 형태가 서로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은신처는 모든 문법이론을 위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2. 빈사와 발화의 경제성(실리)과 일치된 그 장소는 주어진 언어학적 이론이 진리로

(aspectuality)와 같은 것을 그레마스에게 제공했다. 더 나아가, 여러 저서에서 그레마스는 '과학성'의 조건, 즉 어떤 이론이 세 가지의 요구조건, 다시 말해서 결합(coherence), 소진가능성(exhaustibility), 단순-천진난만함(simplicity)이 계층적으로 조직되고 꼭 채워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가깝게 유착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경험주의 원리(소인)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후에 수년 동안, 화술의 분석은 복합 인식적인(cognitive) 차원에 부가해서, 아무튼 텍스트가 그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정념의 차원<sup>117)</sup>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으로 넘겨주어 귀속시키고 있는,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인식의 존재(cognitive beings)로서의 주체로 간주하고 있는 이론으로 진척된 연기의 이론으로 출발한 것은, 그렇게 성격과 기질(temperament; 평균율과 중용으로서의)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론의 결합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것은 연기의 성격과 기질을, 즉 언어학에서 차용된 최소 개념의 텀 안에서 인식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주체를 아티쿨레이션으로 묶는 것이 필연적이었던 것이다.<sup>118)</sup> 따라서 정념의 기호학을 위한 토대를 쌓기 위하여, 그들 연구의 최초의 이론적인 장 안에서, 그레마스 와 자크 폰타니유는 양태성의 텀 안에서 주체의 상태(대상과 주체의 공생관계로 정의된)를 분석했다.

자명하게 표명하는 기본발화구조의 개념에 의지한다. 가장 완강한 그 이원개념은 용어법적 변이(variation, 주제/빈사; 주제[theme]명언[rheme]; 화제 또는 대체topic/명언[comment], 등)를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그것”과 “그것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의미론적 대당관계의 집합체 안에 안주시키는 대신에 옛것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 결과 발화(인외발언[enunciation]을 근거로 취하지 않는)의 모든 문법을 위하여 빈사(predication)는 파롤 행위의 본질적 원소의 하나로 나타난다. 3. 다른 가정과 매우 흔하게 동반되는 발화의 이원적 성격의 선택적 선택은 다소간 함축적이며, 기본발화의 단일성, 즉, 모든 발화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단순 기본형식으로 감축할 수 있는 확신의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전논리학은 오직 하나의 한정적 형식(“Peter가 잠을 자고 있다”)으로 발화의 집합을 축소한다. 좀 더 최근의 언어학이론(언리학[glossematics]과 마찬가지로 주연주의(周延主義, distributionalism[일반문법으로 추구된])은 결합체적 강류 상에 기초된 통사론을 구성하는 것으로든지 또는 주체에 빈사를 연결하는 끈의 반의미론화에 의하든지, 즉, 유일한 전체조건적 추상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에 의하든지 하여간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4. L. Tesnière와 H. Reichenbach에 따르면, 우리는 발화의 인식론적 관계로, 즉 행위주인 마지막 텀을 합수로 이해한다. 게다가 우리는 두 가지의 기본발화 형태(이러한 발화의 빈사-관계의 두 가지 형태, 즉, 실행(doing)의 발화와 상태(state)의 발화를 식별한다. —빈사(賓辭); 명제에 있어서의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 예컨대, “소는 동물이다”에서 ‘동물’ 같은 것. 빈개념(賓概念), 객어(客語)↔주사(主辭). 주연(周延, distribution); 형식논리학에서, 판단의 주장이 그 개념의 외연의 전부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개념의 상태를 이르는 말. 예를 들면, “모든 등변삼각형은 등각삼각형이다” 등에서 ‘등변삼각형과 등각삼각형’은 주연되어 있다고 함. (역주)

117) ‘cognitive’보다 더 상위의 “The Epistemology of Passions”을 참고하라. (역주)

118) A. J. Greimas, “On Meaning,” in Greimassian Semiotics, pp. 539~550를 보라.



“다시 말해서, 주체의 상태의 양태화는(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때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만약 그것이 대상을 양태화하고 있는 것에 의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의 전조 안에서, 그 주체 위에 그 자신을 편승시키고 있는 것일 것이다(p. 4).”

이러한 언어학의 “어근(primitives)”에 부가해서, 내리톨로지는 또한 정념의 전통적인 이론에 기호학적 해석을 제공하는 데 조력하고 있는 그래서 다수의 유용한 개념을 공급했다. 그레마스가 주석을 달므로 인하여, 모든 장조(長調, major)적인·고전적인·철학적인 체계의 일부로 존재하는 정념의 이론은 분류법으로, 어휘소 상의 화용론적 작용으로, 또는 2개의 상호작인 행위주를 위치(place)에 설치하고 있는 양태적인 통사론의 텀으로 기술될 수 있다(예를 들어, René Descartes, Baruch Spinoza, Wilhelm Leibniz, Friedrich Nietzsche, 그리고 Sigmund Freud, 1989. p. 546).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이론에서 최초의 정의의 하나가 능동적인(언역법적인) 그리고 수동적인(귀납법적인) 설명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은 정념이 판단력(reason)뿐만 아니라 연기를 연결하고 있는 어떤 귀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sup>119)</sup>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그레마스의 책략(strategy)은 그 자신이 연기의 정념의 기호학을, 연외감수의미소적인 것의(pathemic) 기호학을, 사전에 공들여 만들었던 기호학 상에서 생각해냈다. 그러나 계층의 원리(소인)와 상호정의를 순응시키는 것에 의해 그것이 결합된 그 이론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것은 연외감수의 미소적인 것으로 연기적인 차원의 모든 사건의 정의를 통합한 기술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sup>120)</sup>

119)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의 역, op. cit., pp. 253~254. “quest(주객치환응집)”를 참고하라. 주객치환응집은 추구된 가치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전자를 후자 쪽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시한다. 그것은 “순간”의 형식 하에, 그리고 지속적인 모드 하에, 외연화(actualization,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언관계와 상응하는 것)의 관자놀이-공간적인 표상으로 존재한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요망(wanting)의 양태성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주객치환응집의 결정적인 양상은 실현화(realization, 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언)와 상응한다. (역주)

양태(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	외연화(actualizing; 선언)	실현화(realizing; 연언)
외인책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책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120)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담화를 분석하는 것은 주체의, 인간의 삶의 궤도로 간주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담상은 주체의 궤도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것은 담화 안에서 또는 주체의 생생히 살아있는 경험 안에서, 화술 프로그램의 증명사에 의해(by mean) 실현된다.

그러한 기술적인 책략 도구를 적용시키기 위한 그 판단력은, 현상학의 후설(Edmund. Husserl)과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저서와 깊이 유인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부분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그를 위하여, 대상에 대한 주체의 관계는 동체(胴體, body)<sup>121)</sup>에 의해 중재되며, 동시에 그것은 세계(world)와 주체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 그 동체는 세계와 지각하고 있는(perceiving), 느껴서 알고 있는(sensing) 세계상의 두 가지의 연기로 존재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레마스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로부터 그 자신을 아주 멀리 떼어놓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기호(signs)는 총체적으로 육체에서 이탈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기에는 지각을 위한, 또는 동체를 위한 위치(place)가 존재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간극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일선상에서 그레마스는 각각 분리된 주체와 대상의, 주체와 세계의 서로 다른 공유의 · 이원론의 철학적 경향도야로부터, 후자의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無)의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전자의 능동성(activity)과 역할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양태화에 대해 토론했을 때 보았던 것처럼, 정념은 그 대상 안에서, 그 자신을 주체에 떠맡겼던 그 주체를 위한 가치로의 전성 안에서, 역설적이게도 현상학으로 존재한다. 주체 상의 세계에서 실행되는 연기와 가치로서의 이전 세계에서 실행되는 주체의 연기는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의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의 십자형이 된다.

윤곽이 그려질 수 있는 당해 어근에 의한 이론이 전성되어야 할 필요는 이러한 책략에 내재한다. 게다가 그것은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따라서 기술될 수 있는 각기 다른 유형과 차원의 텍스트로부터, 외연적(actual) 화술의 말로(words)부터, 방법론이 구성될 수 있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전의 언급 가운데 어딘가 한 곳에서, 그레마스는 어휘소 “colère(분

121)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 · Danniele McDowell · Alan Velie 역역,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83)』, p. 120. “노트: 체계의 성격이 내재적이라고 격하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며(비록 그것이 매우 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표출은 항상 형태소적이다. 즉 발화 속의 행위주의 구조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형태소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구조적인 것의 투기(구체화)이다. 그리고 역으로, 예를 들어(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와 비교하라), 형태소로서의 동체(body)의 빈번한 분류법적 사용은 하나의 내재적인 모델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한다.”를 참고하라.

노” 또는 “anger(분노)”를 분석했으며,<sup>122)</sup> 그리고 단자(denomination) ‘anger’를 정의했던 확증 결합체적 화술 또는 단편소설 중의 화술이었던 ‘anger’의 정의 안에서 그 방식을 증명했다. 그것은 담화 안에서 분석이 가능한 몇 가지의 접근방식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일자일어법적(lexigraphic)<sup>123)</sup> 투시도법으로부터 작용하거나, 방법론의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 기호(signs)로 채워하고 있는 텍스트 안에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한 레벨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 텍스트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가설연역법의(hypotheticodeductive, hypothéticodéductif) 근방(近傍)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진척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안에서 그 의도는 방법론의 그 방식에 의해 텍스트를 이론에 단순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있는 이론을 위해 생생히 살아있는 경험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범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러나 후설적인 바로 그 방식 안에서, 폴 리쾨르(Paul Ricoeur)<sup>124)</sup>가 언급했던 것처럼, 텍스트로부터 개념을 해방시키고 있는, 그리고 이론 그 자체 안에서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있는, 기호학의 경험론적인 목표로 고찰될 수 있다.<sup>125)</sup>

정념의 기호학(The Semiotics of Passions)을 대충 읽을지라도 그 저서가 2개의 변화가 많고 독특한 아속(亞屬)으로 조직된 것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그 저서의 첫 부분에서 그레마스과 자크 폰타니유는 채택된 이론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레벨 간의 암시적인 정의를 생각해내려고 시도한다. 그 첫 부분은 주로 데카르트, 스피노자(Baruch Spinoza), 헤겔(G. W. F. Hegel), 후설, 프로이트(Sigmund Freud), 모롱(Charles Mauron),<sup>126)</sup> 메를로퐁티, 폴 리쾨르, 엘름슬레우(Louis

122) 예를 들어, 그레마스의 기호학, 어휘소적인 의미론 연구, “On Meaning,” p. 539~550.를 보라.

123) “일자일어법(一字一語法, lexigraphic) vs 비-망각(alethic)”을 비교하여 볼 것. (역주)

124) 폴 리쾨르(Paul Ricoeur, 1913~2005): 데카르트, 베르그송, 마르셀, 메를로퐁티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철학의 맥을 계승하는 철학자로 불린다. 또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여기서 현상학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밝히고 그러한 유한성으로 초월적 존재인 신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역주)

125) 예를 들어, 폴 리쾨르와 그레마스 간의 토론, “On Narrativity(1989, pp. 551~562)”와 “Grimas’s Narrative Grammar(1989, pp. 581~608)”를 보라. 두 텍스트는 원래 “Grimassian Semiotics”로서 영어로 출간되었다.

126) 샤를르 모롱(Charles Mauron, 1899~1966): 심리비평가. 1963년, 샤를르 모롱은 문학작품608을 분석하는 구조방법을 고안했다. 그 연구는 4개의 다른 프레이즈를 포함한다. 1. 창작과

Hjelmslev), 그리고 르네 통(René Thom)<sup>127)</sup>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의 기호학적 상호정의를 위해 타당한 레벨을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두 번째 부분은

정은 백일몽과 혈족이다. 그 자체로 그것은 모방, 그리고 카타르시스, 은유와 상징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되고 폭로된 무의식의 충동과 욕망의 표상이다. 2. 그때, 작가의 작품의 병렬은 상징적 주제를 정의하는 비평가로 유도한다. 3. 이러한 은유적 네트워크는 잡복성의 내재사실성의 의미 작용으로 존재한다. 4. 마치 꿈과 같은 망상의 관점에서 그들은 행동할 수 있다. 마지막 프레이징은 작가의 문학적 창의성을 그 자신의 개인적 삶에 연결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조물주는 추론 그 자체에 맡겨둘 수 없다. 다소간 그 자신의 외상적·전기적 과거, 무의식 그 자체와 함께 아이러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정신'으로 꼭 채워진 그 문학적 원형, 그 두 이야기 간의 교차대구법(交叉對句法; 말의 X자 모양 배열 전환; 보기: We live to die, but we die to live.)의 관계는 제 정신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실연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성적 충동은 조정(措定) 안에서 상징적으로 채워지고, 유희한 방식, 즉 승화로 알려진 과정 안에서 사회적으로 채워진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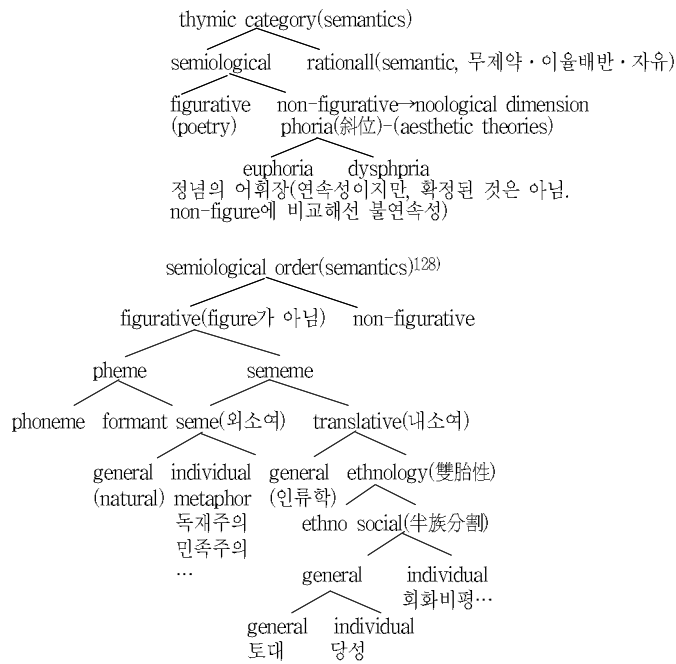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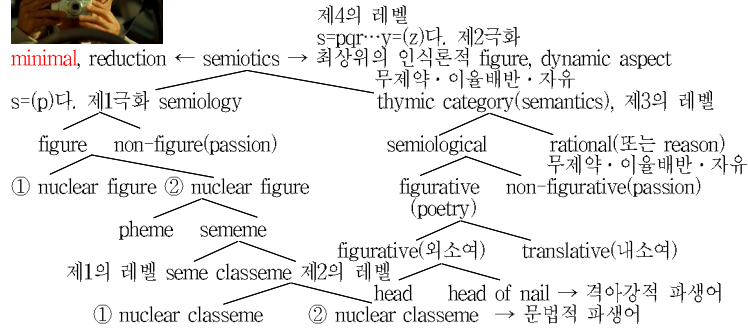
127) 1. René Thom(1923~2002); 프랑스의 수학자. 그는 기묘한 이론으로 호칭될지도 모르는 것의 전지로 나아가고 있는 위상학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러한 후자의 중요성에 관한 견지로, 즉 파괴이론(catastrophe theory)의 창시자로서 그의 저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수학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Fields Medal, 1958)을 수상했다. 2. catastrophe theory: 한 체계를 조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이 연속하여 변할 때 그 체계가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분류하는 일련의 수학적 방법. 파괴이론은 변수와 결과인 양상이 곡선이나 곡면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기하학의 한 분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을 형식적으로 발달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위상수학자 르네 통이다. 파괴이론의 간단한 예로서 점점 많은 무게가 실릴 때 아치형 다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무게가 임계값에 이를 때까지 다리는 비교적 일정하게 변하다가 이 값에 이르면 다리는 갑자기 변한다(즉 붕괴). 카타스트로프(파괴, 대변동)라는 용어가 이런 극적인 사건만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불연속 변화의 카타스트로프도 많이 있다. 움직이는 물에 의한 반사와 움직이는 물을 통과하는 빛의 굴절은 파괴이론의 방법에 의해 잘 연구되며 다른 많은 광학현상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회과학자들은 파괴이론의 개념을 흥분한 군중 돌발과 같은 여러 상황에 적용해왔다. 집을 지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집의 형태는 건축가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들이 다이어그램화된 도면의 형태로 우선 존재하고 이후에 특정한 재료들로 구성된 구조체로 노동력을 통해 형상화된다. 하지만 집의 형태는 그 어느 부분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없다. 건축가의 두뇌 속에도, 도면 속에도, 혹은 각 부재들 속에도 집의 형태를 완전히 설명할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동일한 재료들과 노동력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점과 우리가 주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들 질량과 에너지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형태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구성 물질들 이상의 무엇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들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처럼 정적인 형태들조차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다면 시간 속에서의 변형을 포함하는 생명체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르네 통이 제시한 “파괴이론(catastrophe theory)”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한 보편적인 타입의 종류들을 수학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변형 과정의 최종적인 목표가 “홀인(끌어당김,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최종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면서 이를 발생에 적용하였다. 그는 모든 대상이나 생명체들이 그러한 ‘attractor’들에 의한 재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발생의 과정은 초기의 ‘attractor’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사라져가면서 최종적인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형태에 의해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위상학적인 해석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공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이 새로운 발생의 형태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주)

예를 들어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정념적인 담화를 보다 더 많이 다루고, 그 정념의 연구에서(예를 들어, 프루스트의 소설에서의 질투), 그 방식이 문학의 또는 아중적인 텍스트의 보다 더 심오한 이해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분석 안에서 정념의 보편적인 기술을 이삭 줍듯이 애써 찾아낸 그래서 도입하고 있는 변덕의 어떤 증명사(中名辭)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텍스트와 이론 간의 중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어떤 종류의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비록 몇몇 철학적인 것이 언어학적 성질에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순종한다. 우리는 철학적인 도구 또는 개념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텍스트-공간의 시학에서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언급했던, 또는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 장 주네(Jean Genet), 그리고 플로베르(Gustave Flaubert)의 분석에서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언급했던, 그 텍스트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인용했던 연구로 평판이 나있는) 안에서,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철학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또 다른 책략은 독자적으로 텍스트의 이론을 설립하고, 후자를 그 이론 적용의 증명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후자의 해법이 채택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텍스트 그 자체가 그 즉석의(ad hoc) 규칙에 의해 통제될 때 언어의 표층레벨에 철학적 접근을 적용하고 있는 것의 엉클어져 해결이 곤란한 문제와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방법론은 이론에 기술을 관련시키려고 하는 시도로 잔존한다.

일련의 또 다른 의문은 다음처럼 역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론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또 어떻게 기호학적 이론과 철학에 관련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러한 종류의 이론과 철학과 연결된 방법론을 창조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정념의 개념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오직 연기만을 취급할 때 실행되었던 것 그 위에 더하여 어떻게 텍스트를 기술하도록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타당한 텍스트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고, 격아강적인(格亞綱的, figurative)인 것으로부터 개념적인 것(conceptual; seme, classeme, figurative가 아니라 non-figurative)을 실제적으로 해방시키는데 조력하고 있는 이론과 텍스트를 풍부하게 하고 재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그것이 또 어떻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인가?

노트: 아래 도표를 보면서, "우주론적 차원(cosmological dimension)"과 "정신론적 차원(noological dimension)"을 참조하면서, 'figurative'와 'non-figurative'를 구별해 보라. 2. 방

향적 범주(thymic category)를 아래 사진과도 비교해 보라. 사진을 찍는 남자의 오른 쪽 눈 (figurative)은 카메라(figure)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역주)



128) thymic category(방향적 범주): 덧차원의 반물질(反物質, antimatter)과 비교해 보라.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그 에너지는  $E=mc^2$ 이다. 그리고 물체가 움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 여기서의 rational은 reason(理性)이면서도 rational(悟性)이다. 그리고 “표출/내재”=semiology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 semiotics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thymic category)”이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정념의 우주를 기술하는데 채택될 수 있다. 첫 번째의 것은 의미론적 영역의 책략,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파생어로 정의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문적(기술적·기교적, technique) 방법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되었다. 즉, 둘 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직이면 이 정지에너지에 운동에너지가 더해져야 하므로 에너지는 항상  $mc^2$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디랙(Paul Adrian Maurice Dirac, 1902~1984) 방정식  $(i\gamma^\mu \partial_\mu - m)\psi = 0$ 을 풀 결과와 비교해 보면( $E \geq mc^2$  또는  $E \leq -mc^2$ ), 첫 번째 관계식은 상대성이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관계식인  $E \leq -mc^2$ 이다. 이에 의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음수인 것도 가능해야 한다. 에너지가 음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냥 음수도 아니고 정지에너지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보다 작아야만 한다니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E = mc^2$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에	상대성이론과 일치
$E = 0$			
$E \leq -mc^2$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의 에너지
디랙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보통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디랙은 자신의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결코 틀릴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음의 에너지에는 우리 우주의 깊은 비밀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디랙은 과연 이 음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기에서 발견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반물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준비 작업으로 파울리의 배타원리(Pauli's principle; 1924년 W. 파울리에 의해 발견된 법칙으로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계에서 2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상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배타원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원자의 전자껍질 구조 개념이 확립되었다. 남녀와 같은 초대칭을 상상하라)를 떠올려보자. 이에 의하면 전자는 한 상태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쉽게 말을 바꾸면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전자가 모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사람 여러 명이 몸을 겹쳐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게 가능하면 사람으로 콤팩트 들어찬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달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자에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디랙이 알아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전 지식이 더 필요하다. 요점만 말한다면 전자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의 순식간에 그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이다. (무슨 얘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대강 설명하면 공중 높은 곳에 떠 있는 공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보낸다. 이것이 바로 불이 났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재앙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상태의 역현상, 즉 방출이 아니라 반물질이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진동처럼 물질과 반물질 간의 진동도 가능할까? 적어도 언어의 세계에서만은 그것이 가능한 것 같다. -김찬주, “반물질이 존재한다고?” 참조. (역주)

어근이 그것의 합성에 의해 형식화된 따라서 긴 시퀀스를 생산했던,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조합되었던 것과 동정되었다(예를 들어, hate[혐오], desire[욕망], aversion[반감]). 성분분석으로 알려진 이 전문적 방법의 유형은 많은 정념이 그것을 통하여 구별되고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시대에 맞지 않게 그리스 언어학으로 호칭될지도 모르는 그것은 둘 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소가 어휘소의 군(群)으로부터 선택되고 조합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에 의하여 보다 더 많은 복합원소와 새로운 어휘소를 도입하고 있는, 그것의 경상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희망(hope)은 결국 욕망(desire)이다. 따라서 욕망은 주체의 최소의(minimal) 상태로 존재한다. 시간의 개념은 함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욕망의 대상 또한 도입될 수 있으며, 그때 주체는 그 자체 안에서 당해 대상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 좀 더 나아가, 불확정의 그 양태성은 그 안에 불쑥 끼워지게 되는 것임에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만약 그 주체가 확정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희망을 위해 비워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관자놀이-시간)과 욕망이 덧붙여진 불확정의 양태성은 희망으로 호칭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생산한다. 또한 보다 더 많은 복합의 정념은 욕망에, 예를 들어, 보복(revenge)에 접사(接辭)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복합 보복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것이 위반을 전제하는, 따라서 위반으로 언급된 수복(修復)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는, 희망보다 더 좋게 공들여 만들어진 체계로 존재한다.

우리가 동정했던 것처럼, 철학의 언어학적 책략 중의 하나는 정념 상의 어휘소 체계의 분석적인 기술의 증명사에 의해 합성되도록 계속 분투했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 Plutarchos)<sup>129)</sup>와 루시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sup>130)</sup>에 의해 창시된 두 번째의 책략은 변화과정의 덩 안에서 정념을 기술하는 것으로 존재했다. 플루타르코스가 분노(ire, anger)를 실험했을 때, 그는 분노의

129) 플루타르코스(Plutarch, Plutarchos, 46?~120?); 고대 로마의 그리스인 철학자·저술가. 그는 플라톤 철학을 신봉하고 박학다식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작활동은 매우 광범위하여 전기·속윤리(俗倫理)·철학·신학·종교·자연과학·문학·수사학에 걸쳐 그 저술이 무려 250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주)

130) 루시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55?~AD 39); 고대 로마의 수사가. 아들들에게 웅변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꾸민 「논쟁 문제집」과 「설득법」은 후세에 널리 애용되는 교과서가 되었다. 내란 발발 이후의 역사도 저술하였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역주)



발단을, 그것의 진척을, 그것의 끝(폭발)을 보여 주었다. 분노의 정념은 시간(기동, 총체지속적인 것, 종지상)<sup>131)</sup> 초월의 위치(place)를, 예를 들어, 보복(inchoative, durative,)과 대당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변화과정으로 관측되었다. 요컨대, 철학은 전통적으로 정념을 기술하기 위한 2개의 책략적인 증명사로, 어의학적인 것(lexicological)과 기타 화술적인 것의 존재로, 연기의 구조로, 연출하도록 번역한다. 즉, 위반은 결국 앙갚음(vengeance)의 연기를 벗어나 설치되고 있는 그 보복을 위한 욕망을 유발시킨다.

그레마스와 폰타니유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다. 첫째, 기호학적 그리고 언어학적 근방(近傍)은 초월하여 기술된 그 방법론적인 책략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 우리는 관계의 보다 좋은 이해와 우리가 이론적인 레벨 그리고 그것의 철학적인 전제로 동정했던 것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대답 없이 잔존하는 이러한 작용으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일련의 또 다른 질문은 언어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상대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론의 형(型)을 바꾸는데 조력하고 있는 것을 선택한 그 예와 텍스트는 주로 영어와 프랑스어의 두 가지의 장조(長調)적인 문학전통으로부터 채택된다. 만약 정념이 이중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역사 안에서 서로 다른 찰나의 계기가 그들의 정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이 저서의 한계를 확실하게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에 역점을 두어 다루려고 하는 시도 없이 만들어진다.

그들의 저서 첫 부분에서 그레마스과 폰타니유는 ‘과학성’의 상태를 획득하려고 시도한 어느 이론의 보편적 인식론적 프레임 안에 그들의 문제가 되는 그 불확실함을 자리 잡게 하였다.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그들은 상호간의 관계 안에 다양한 과학을 자리 잡게 하고 있는 그 가능한 것, 즉 그 세계가 비록 불연속으로(이것은 물리학, 수학, 또는 언어학이 채택하는 “정향[定向, position]”이라고 관찰된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 세계가 긴장적인 성질을 긍정하는 유기과학, 생명과학이라고 할지라도, 2개의 애티튜드 또는 2개의 극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131) 기동(起動)의; inchoative, 총체지속적인 것의; durative, 종지상(相)의; terminative. (역주)

이렇게 보편적 인식론(epistemology) 안에 단순하게 설치된 언어학은 전통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위하여 아티클레이션으로 묶여지는 것이 필요했던 연속 매듭으로서의 담화를 마음속에 그렸다. 그 첫 번째의 작용은 이산단위를 폭로하고 있는 매듭을 낭중분절(囊中分節, segmenting)로 고찰했다. 이러한 단위의 조합과 조정(調序, 순열·조합, arrangement)은 음성학 또는 문법의 원소를 구성했다. 진척의 그 단계에서, 기호학은 밑줄을 그어가며 강조하고 있는 원리(소인)로서의 실행(doing)의 변덕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해 그 실행은 그것이 생성체도에 자리 잡았던 그 공간에 따르고 있는 또 다른 단자를 받아들였다. 그 표층의 착란적인 레벨에서 그것은 변화과정의 텀으로 고찰되었고, 반면에 심층레벨에서 그 개념은 그것의 의미론적인 일관성을 잃었고, 변형으로 지시된 작용으로서의 전성이 되었다. 그러한 연기의 기호학이 또 다른 분리 상태에 의해 추구된 분리 상태 안에서 상태의 변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학과 기호학은 그들의 작용을 실현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서의 그 전략을 채택했다.

소쉬르가 랑가주 안에서 오직 편차만이(즉, 자유재량) 존재했던 바로 그러한 그의 기초소인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연기의 기호학 또한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rationality)<sup>132)</sup>적인, 그리고 인식적(cognitive)·전통적 인식론의 일부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주체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로 존재하는 지식의 고전적 이론을 다루고 있다. 철학자들이 초절적(超絶的, transcendental) 주체라고 호칭했던 것을 여기서는 단순히 “작용인자(operator)”라고 호칭했다. 지식의 대상으로 세계를 응시하는 반면에, 그보다 상위 패러다임으로의 함축(또는 內包, comprehension)만을 위한 최소조건(minimal condition)은 기호사각형으로 알려진 의미작용의 원소적인 구조의 레벨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초절적 주체 또는 ‘작용인자’가 기호사각형의 텀으로 고찰될 때, 그 사각형이 사각형 그 자체를 초월하는 언어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용을 이행하는 것의 주체능력인 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쉬르는 그가 내포적인 것(virtua)과 외연적인 것(actual), 즉 존재자의 편차적인 모드의 작용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했던, 랑그와 파롤 간의 편차를 확립했을 때 동일한 문제와

132) rationality: 이것은 오성(悟性), 즉 제약의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칸트(Immanuel Kant)의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의 관점이다. (역주)

직면했다. 만약 그러한 해법이 생성케도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때 후자는 존재자의 편차적인 모드로 존재하는 존재자의 밀집상태의 단계에 따르고 있는 다양한 레벨로 분할(생물분류법상의 문의 관점에서의 분할; 낭중분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잠재적인(potential), 내포적인, 외연화된 그리고 실현화된 존재자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sup>133)</sup> 우리가 이러한 레벨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부재 안에서의 일종의 현존재(praesentia in absentia)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성케도는 존재하는 요컨대 느끼고(feel), 말하고(speak), 보는(see) 실례 시발점(ab quo)과 종착점(ad quem), 2개의 존재론(ontology)적인 실례에 의해 한계가 정해진다. 이러한 2개의 실례 간에 기호학을 자리 잡게 함으로써, 그것은 실체적인(noumenal) 존재자의 모드가 아니라, 현상학적인 모드를 한패로 끼워 넣어 책임을 떠맡게 한다. 그렇게 현상학적인 공간 안에서, 그것은 모음 전환(ablaut; 보기: drive, drove, driven)<sup>134)</sup>과 같은 점층법을 확립하거나, 잠재적, 내포적인, 외연화된 또는 실현화된 외도(外道; 바람피움, affair) 상태의 현상학적인 밀집상태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레마스와의 자크 폰타니유가, 지각(perception)의 레벨에서 기호학적 공간을 자리 잡게 한 철학적 도구를 그들에게 제공한, 따라서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계 안에서 연속성의 십자적인 원소를 도입한,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각 안에서, 세 가지의 속성의 유형이 식별될 수 있다. 첫째, 외부(객관)의 세계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외소여(exteroceptive), 둘째, 지각의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우주의 내소여(interoceptive), 셋째, 그 자체로 동체의 지각에 상응하고 있는 자기소여(proprioceptive)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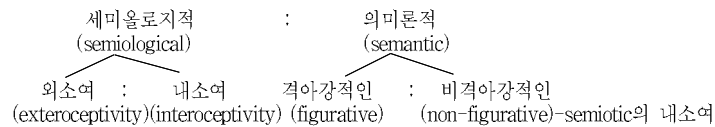
13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371. virtualization(내포화); 1. 기호학적 존재 양태의 프레임 안에서, 내포적/외연적(virtual/actual)의 범주는 체계와 변화과정, 랑그와 파롤 간 관계의 성격화를 허락한다. 외연적 존재자(actual existence)와 반대로, 내포적 존재자(virtual existence)는 언어의 결합 축(syntagmatic axis)에 속하며, 그것은 계열 축(그것은 “부재 내부”에 있는 어떤 존재이다)의 성격을 만든다. 2. 화술 기호학은 한 쌍의 내포화/외연화(virtualization/actualization) 대신에 3원 아티클레이션 내포화/외연화/실현화(virtualization/actualization/realization)로 대체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포화는 어떤 접합(또는 반대로, 이러한 관계를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억압하는)에 선행하는 주체와 대상을 설치하는 것으로서의 실행과 상응한다. 단독으로 상태발화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은 선언에 의해 그들의 아티클레이션을, 연언(連言)에 의해 그들의 실현화를 작용시키는 함수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역주)

134)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 · Danniele McDowell · Alan Velie 역역,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83)」, pp. 68~71. 참조. (역주)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언어학적 레벨에서 자연세계와 자연언어 간에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지각이 관련되는 한, 외부의 세계는 격상(格象, figure)의 구성으로 관측되거나, 소쉬르적인 텀 안에서 세계의 시니피앙으로 관측된다. 지각의 순간에, 외소여의 의미소(eme)는 내소여의 의미소로 변형되고, 마음의 능동성(activity)으로 통합된다. 세계의 격상이 동체를 통하여 사고(思考)의 격상이 되는 반면에, 그러한 작용은 그레마스와 자크 폰타니유가 격아강성(格亞綱性, figurativity)의 개념을 제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동체의 중재의 역할은 외부의 세계가 어떻게 의미작용의 전체로 변형되고, 어떻게 그러한 내소여의 성분이 정념적인 또는 방향적인 성분을 포함한 상상력의 인식적인(cognitive) 형식 안에 언외감수의미소적인 차원을 덧붙여 놓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이론은 다시 행동(behavior)의 감상적인(sentimental) 그리고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적인 양상으로 성격을 만들고 있는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노트: 외소여(exteroceptive), 내소여(interoceptive), 그리고 자기소여(proprioceptive)는 외부자극(예를 들어, 약탈자의 시각)을, 내부자극(망상 속에서의 약탈자의 시각)을, 그리고 재귀적 자극(자기 자신의 시각)을, 수용하는 유기체의 능력을 지시한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이러한 용어를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외소여; exteroceptive)과 의미론적 레벨(내소여; interoceptive) 사이의 편차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며, 그때 그들은 형태소적 구조로 고찰된다(VII.1.b).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interoceptive 아래).

interoceptivity(내소여); 1. 주어진 문화 또는 개인이 동연(同延)이 되는 의미세계를 아티쿨레이션으로 만드는 의미소범주의 한 무리는 자연계의 기호체계 안의 원소와 상응하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범주 외소여와 내소여(exteroceptivity/interoceptivity)의 텀으로 분류되는지 모른다. 지나치게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때때로 이러한 범주의 명목은 “세미올로지적/의미론적”(semiological/semantic)으로 대치되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 어떤 예매성을 창조한다.



위와 같이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범주들이 비표상적(또는 추상)으로서의 내소여라고 한다는 것을 추리하도록 제안한다. 2. 따라서 내소여의 텀에 의해 에워싸인 의미론적 분야는 언어 세계의 이론적 쟁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이다.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그리고 자기소여(proprioceptivity); 강류의미소적인 범주 “외소여(ext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의 복합적인(또는 중립적인) 텀,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인간이 그들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지각작용(perception)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의미론의 특성을 연역하는 의미소적인 범주의 세트를 분류하는데 조력한다. 심리학에서 유래된 이 텀은 정신생리학적(psychophysiological) 인의지의를 함유하고 있는 방향(芳香; thymia)에 의해 반제된다.

외부자극과 내부자극을 조합하고 있는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그가 “복합 텀”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는 그것을 형태소적 구조보다 오히려 관계 안의 체계적 구조로 사용한다. (역주)

더 나아가, 또 다른 레벨의 그것은 지각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가 동체의 중재에 의해 감정의 상태로 변형된 사건의 상태에 의해 구성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변천(shift)은 동체의 증명사에 의해 연속성의 변덕이 도입되고 있는, 그것에 의해 동체와 정신, 세계와 마음의 분리로부터 유래된 전술 이원론을 회피하고 있는, 그레마스과 자크 퐁타니유를 위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연속성의 이러한 문제는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적인 것으로 초월하여 확장된 그리고 인식적으로 범주가 확립된, 문장의 전조(轉調, modulation)와 말에 위치가 잡혀 강조된, 즉 어떤 언외지언(verb)이 연기 기호학의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적인 질차에 의해 고찰될 수 없는 현상(phenomena)을 구성하고 있는, 그들을 격렬하게 표상하기 위하여 사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착상(ideas, 막연한 느낌)의 착란적인 레벨에서 조우된다. 담화의 이러한 전조는 이론의 그 심층구조가 착란적인 레벨에서 발생하는 긴장의 지평의 시계로 재시행되는 것을 요구했다.

묵상의 그 이상의 영역은 기호사각형의 인식론과 관계된다. 우리는 그레마스과 자크 퐁타니유가 기호사각형의 최종 텀의 우화(羽化, emergence)로 인하여 유발된 자유재량의 실재물(entity, 신인동형동성적인, 수형신적인 목록)<sup>135</sup>을 생산하는 것에 의해, 선형적인(transcendental; opp. empirical) 주체를, 또는 말 그 자체 안에서의 주체적인 작용인자를, 제안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그 작용인자가 표출(manifestation)의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원의 영역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것은 일종의 투영으로, 베일에 가린 존재(being)로, 무지로 잔존하는 일종의 안개로, 관측된다. 그러나 그 존재자는

<sup>135</sup> ‘entity’는 실재물로서의 실체(존재자)이지만, ‘substance’는 현상의 범주를 초월한, 그러나 객관이 아닌 실체이다. (역주)

논리적으로 의미작용의 출현을 위한 조건의 집합으로 정의된, 존재적 지평(ontic horizon)으로 전제된다.

간단히 말해, 여기서 저자가 고찰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의미작용의, 베일에 가린 존재의 영역의, 그레마스를 인용하는 이론적 공간의 일종의 허수(虛數, imaginary)의 전제조건이다.<sup>136)</sup> 1979년 최초의 사전에 의해 표현된 기호학 이론의 상태와 비교될 수 있었던 것처럼,<sup>137)</sup> 이 새로운 이론의 성분은 의미작용의 표출을 위한 조건에 더하여, 이제 전제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인식론의 레벨을 제안했다. 긴장(tensivity)과 사위(斜位, Phoria)는 전제조건인 존재적 지평의 표상을 가장하도록 선택된 2개의 기본개념으로 존재한다. 긴장은 우주적 인력의 변덕으로 변역·전직(轉格)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고, 반면에 사위는 긴장을 지시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이론의 이러한 재형태화로의 유도는 그들이 정념 또는 인간의 행동을 정념적인 것으로, 경제적·유기적인 것으로, 또는 사회적인 역할로 정의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레마스과 자크 폰타니유는 비설명적인 현상과 직면하게 되었던 것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예를 들어, 수전노와 절약하는 사람이 이러한 편차와 함께 기호학적으로 동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감(增感)과 같은 현상은 수전노가 절약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분노와 절망과 같은 정념이 고찰되었다고 할지라도, 정념적인 담화와 통상(通常)의 연외감수의미소적인 담화의 전개는 순간적으로 섭동(擾動)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주체인 것처럼 내면성으로서의 자연세계의 통합의 순간에 동체의 개재로만 고찰될 수 있는 언급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 안에서, 전에 진술했던 것처럼, 긴장, 즉 생명과학의 활력적 유기체적 개념에 상응하고 있는 물리현상, 사위에 따르고 있는 세계를 표상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존재적 지평 상에서 사위적 긴장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 지평 상에서 그것은 주체와 세계가 우화(羽化)를 시작하는 원기왕성하고 활력적인 최소(minimum)로부터 발생하는, 그 방식을 표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베일로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표층에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서의 일종의 사위적인

136) 1990, 6. 7., Victoria College와 University of Tronto이 개최한 구조주의와 기호학을 위한 12회 국제 여름 세미나에서 Teresa Keane과 함께 했다.

137) 이 저서의 영어번역은 1982년에 출간되었다. 그레마스(A. J. Greimas), *Semiotics and Language: 해석학적 사전*, Larry Crist, Daniel Patte, James Lee, Edward McMahon II, Gary Phillips, Michael Renjstorf(Bloomington: 인디애나 대학, 1982).

또는 의미소적인 덩어리가 다소 자유재량적인 단위의 2개의 유형으로 만들어진 아티클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양태화(예를 들어, 양태성으로 만들고 있는 방향적인 것의 조직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념적인 전조가, 담화의 전개 안에서의 비이원화가 존재한다.

그레마스 그 자신이 지시했던 것처럼,<sup>138)</sup> 그와 자크 폰타니유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25년 전에 시작했던 기호학이론을 완성하는 말하자면 다소 응집적인 토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언외감수의미소화 상의 그들의 저서에 나타나는 에너지의 일종의 분극화처럼 보일 수 있는 그 현상은, 헤겔에 의해 제기된 단일성과 다양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은 전-소크라테스적인 전통의 일부로도 존재했다. 결국 그것의 기원에 이르려고 했던 시도에 의해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적인 것을 합리화하려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파괴된 단일성으로든지 또는 단일성 쪽으로 향하는 그래서 혼합된 실재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세계를 조정(措定, posit)하려고 강제했다. 이러한 것의 확장으로, 다시 말해서 상호주관성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의 낭중분할의 텃으로 조정(措定)될 수 있다. 두 주체의 만남은 세계의 연언(連言) 쪽으로 또는 단일성을 파괴하는 선언(選言) 쪽으로 향한 긴장을 구성하는 것인가? 그러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조건과 관계된다. 피신탁의 교차점(fiducia)의 최소적인 동거생활, 인간 환락의 바로 그 중심을 위한 그 기초는 무엇인가?

그레마스와 자크 폰타니유는 직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분극화가 가능한 정향(定向, position)을 상상한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들을 고의성이 헤겔에 의해 연결된, 그리고 주체의 치수확장의 형식,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떤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로서의 주체의 일종의 최소상태의 형식 안에서, 후설에 의해 재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행위주의 일종의 원형(prototype)을 조정(措定)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들을 가치로서의 세계로 고찰할 수 있는 대상의 일종의 잠재성을 마음속에 구상하도록 한다. 이제 그 이론 안에 고통이 많은 논쟁이 되어 나타난 것은 대상의 그리고 주체가 아닌 것의 불확실성으로 존재한다. 주체를 존재(being)로, 의미(meaning)로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가치에 의

138) 1990, 6. 8., Victoria College와 University of Toronto이 개최한 구조주의와 기호학을 위한 12회 국제 여름 세미나에서 Teresa Keane과 함께 했다.

해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념의 기호학은 주제에 의해 요구된, 잃어버린, 중지된 가치의 기호학이 된다. 요컨대, 우리는 이제 비형식화된 가치의 대상과, 의미론화된 가치의 투영과 직면한, 그것의 잠재성에 의해 정의된 주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상(相, phase)<sup>139)</sup>에서, 가치의 투영은 그때 가치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유도하는, 결합가가 된다. 요약하면, 그것이 정념의 기호학을 시험하든지, 아이스테시스(aesthesis)의 기호학을 시험하든지, 현 목상의 2개의 주요한 영역이 되든지, 하여간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가치의 불확실성을 그것의 기본적인 선취로서의 중대관심사로 소유하고 있다.

이 간단한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레마스 기호학의 진화적인 개념화를 계속적으로 강조했다. 우리는 또한 다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전진 투기 안에 속박된 여러 가지 행동(move)을 묘사했다. 폐포(閉包, closure)<sup>140)</sup>의 자주 들었던 임계주의에 반응하여, 우리는 이 기호학 이론이 그것을 매우 풍부하게 했던 다른 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 현상학에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이론(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유발하는, 그래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 즉 모순으로 고찰된 그들의 표상상태 안의 어떤 이론에 방법론적인 기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호학의 퍼스(Charles Sanders Peirce)<sup>141)</sup>적인

139) 상(相, phase): 물리학·화학 용어로, 어떤 물질이 어느 부분에서건 물리적·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를 표현하는 것이다.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이 존재하고,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균일계와 2개 이상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균일계로 나뉜다. 어떤 물질의 어느 부분을 취해도 물리적·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 그 물질은 하나의 상을 이룬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공기는 질소·산소 및 그 밖의 기체의 혼합물이나, 혼합은 완전하고 또한 균일하므로 하나의 상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체의 상이므로 기체상(氣體相)이라 한다. 식염수는 식염이 물에 녹은 것인데, 역시 균일하므로 하나의 상을 이루고 액체의 상이므로 액체상(液體相)이라고 한다. 물의 결정인 얼음도 하나의 상을 이루는데, 고체의 상이므로 고체상(固體相)이라고 한다. 또 상은 균일계(均一系)와 불균일계로 나뉜다. 즉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를 균일계, 2개 이상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를 불균일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식염수는 균일계이나, 물과 기름을 잘 섞어서 방치하면, 2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기름이 약간 섞인 물과, 물이 약간 섞인 기름의 2개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균일계가 된다. 불균일계는 어떤 상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는데, 기체상과 액체상, 액체상과 고체상, 또는 이 세 가지 상이 모두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물과 수증기, 물과 얼음 등이 공존할 때도 불균일계이다. 균일계를 단상계(單相系), 불균일계를 다상계(多相系)라고도 한다. (역주)

140) 폐포(閉包, closure): 1. 불완전한 모양, 사고, 상황 등이 완전한 적(積)으로 지각되는 것. 2. 위상수학에서, 어떤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S의 폐포(閉包, closure)는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부분집합이다. 이것은 X 안에 있는, S의 모든 포함집합(superset)의 교집합으로 구성된다. (역주)



패러다임의 배제라고 하는 그 손실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학과 함께 그 계면(界面)을 진척시키는 것의 이 단계에서, 그것은 기호학의 정념의 차원보다 인식적인(cognitive) 차원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행동(move)에서, 담화분석의 장조(長調)적인 이론은 재시험되고, 어떤 시도는 그들의 개념, 그 중에서도 특히 양상화의 영역에서의 개념의 어떤 것을 통합하려고 했다. 담화분석에 의해 제공된 그러한 개념은 전체 이론의 재 개념화로부터 유발되었다. 가인적 연역절차의 화맥 안에서, 문학적인 텍스트는 또한 그 이론을 재 형태화하는 것 안에서 기본역할을 연기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다수의 문제, 즉 전제조건인 연속성과 불연속성 간의 관계, 기호현상-화술적인(semionarrative) 레벨과 착란적인 레벨, 즉시 형태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르네 톰(René Thom)<sup>142)</sup>의 텀 안의 그것,

141) 찰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미국의 철학자·논리학자.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이다. 그에 의하면, 개념이란 그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곧 프래그머티즘의 기본적 문제로서, W. 제임스, J. 듀이에게 계승되었다. 매사추세츠주(州) 출생.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이다. 케임브리지 하버드대학교 수학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미국 연안측량부 기사로서 기술면에서 갖가지 공헌을 하는 한편, 철학 및 논리학에 대한 독창적인 논문을 차례로 잡지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너무나 선구적인 업적이었으므로, 일반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 전 8권 전집(1958, 완결)이 출판된 후부터였다. 그에 의하면, 개념이란 그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곧 프래그머티즘의 기본적 문제로서, W. 제임스, J. 듀이에게 계승되었다. 논리학에서는 “관계의 논리학” 영역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B. 러셀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역주)

142) 1. René Thom(1923~2002); 프랑스의 수학자. 그는 기묘한 이론으로 호칭될지도 모르는 것의 건지로 나아가고 있는 위상학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러한 후자의 중요성에 관한 견지로, 즉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의 창시자로서 그의 저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수학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Fields Medal, 1958)을 수상했다. 2. catastrophe theory: 한 체계를 조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이 연속하여 변할 때 그 체계가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분류하는 일련의 수학적 방법. 파국이론은 변수와 결과인 양상이 곡선이나 곡면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기하학의 한 분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을 형식적으로 발달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위상수학자 르네 톰이다. 파국이론의 간단한 예로서 점점 많은 무게가 실릴 때 아치형 다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무게가 임계값에 이를 때까지 다리는 비교적 일정하게 변하다가 이 값에 이르면 다리는 갑자기 변한다(즉 붕괴). 카타스트로프(파국, 대변동)라는 용어가 이런 극적인 사건만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불연속 변화의 카타스트로프도 많이 있다. 움직이는 물에 의한 반사와 움직이는 물을 통과하는 빛의 굴절은 파국이론의 방법에 의해 잘 연구되며 다른 많은 광학현상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회과학자들은 파국이론의 개념을 흥분한 군중 돌발과 같은 여러 상황에 적용해왔다. 집을 지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집의 형태는 건축가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들이 다이어그램화된 도면의 형태로 우선 존재하고 이후에 특정한 재료들로 구성된 구조체로 노동력을 통해 형상화된다. 하지만 집의 형태는 그 어느 부분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없다. 건축가의 두뇌 속에도, 도면 속에도, 혹은 각 부재들 속에도 집의 형태를 완전히 설명할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동일한 재료들과 노동력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점과 우리

또한 전제조건인 전조,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의 양태성, 그리고 착란적인 레벨의 양상화 간의 관계와 직면한다. 예를 들어, 요망(wanting-to)은 기동(起動, inchoative)적인 것과 함께 동차화될 수 있는가, 존재능력(being-able-to)은 총체지속적인 것(durative)과 함께 동차화될 수 있는가, 의무(having-to)는 어김없는 것(punctual)과 동차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식(knowing)은 종지상적인 것(terminative)과 동차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직면한다. 또한 거기에는 현이론의 보편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레벨 안의 존재론(ontology) 간의 관계의 성질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비록 기호학이 아직도 촘촘하지 않은 면이 있고, 과학성을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레마스과 자크 폰타니유는 인식적인(cognitive) 것 그리고 연기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함께 정념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의해 질문의 새로운 분야를 연구했다. 단테(A. Dante)의 「신곡(Divine Comedy)」의 끝부분의 시에서처럼,<sup>143)</sup> 이해의 결핍을 위

가 주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들 질량과 에너지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형태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구성 물질들 이상의 무엇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들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처럼 정적인 형태들조차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다면 시간 속에서의 변형을 포함하는 생명체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르네 통이 제시한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한 보편적인 타입의 종류들을 수학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변형 과정의 최종적인 목표가 “흡인(끌어당김,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최종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면서 이를 발생에 적용하였다. 그는 모든 대상이나 생명체들이 그러한 ‘attractor’들에 의한 재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발생의 과정은 초기의 ‘attractor’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사라져가면서 최종적인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형태에 의해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위상학적인 해석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공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이 새로운 발생의 형태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주)

143) 단테(Alighieri Dante), 정노영 역, 「신곡」(서울: 홍인문화사, 1993), pp. 668~669의 다음을 참고하라. (역주)

“높고 높은 빛의 깊고 밝은 실체 속에  
세 가지 빛깔, 같은 너비의  
세 개의 원이 나타났다.  
두 개의 무지개처럼 첫 째의 원은 둘째의 원에  
반사되어 보이고, 셋째의 원은 그 둘에서 균등하게  
발해지는 불처럼 보였다.  
아아, 내 말은 생각에 비해 얼마나 약하고  
모자라는가. 그리고 이 생각 또한 내가 본 것에 비하면  
‘조금’이라는 말조차도 못할 만큼 모자라는 것이다!  
아아, 영원한 빛이시여, 당신은 당신 안에만 계시고  
당신만이 당신을 아시고, 당신에게만 알려지고

해 원주율( $\pi$ )을 측정할 수 없는 기하학자처럼,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망을 포착했을 때 영감에 의해 빛을 받아 의심을 풀게 되고, 해와 별들을 움직이게 하는 감상(sentiment)에 의해 통제될 것이며, 이 다양한 통찰은 정념의 기호학적 본령(本領) 상에 흩뿌려졌다. 그러나 다시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다수의 분야가 미세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으로 잔존한다.

편집자들은 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조력한 린다 라미송(Linda Lamisong)과 리처드 판 홀스트(Mr. Richard van Holst)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노트: 'application'은 "application linéaire"를 의미한다. 선형사상(線形寫像; application linéaire  $\rightarrow$  multilinéaire); 두 집합 사이의 사상(寫像). 선형 공간(空間)으로부터 선형 공간(空間)으로의 사상(寫像). (작용소)  $T$ 가  $T(x + y) = Tx + Ty$ ,  $T(ax) = Ta x$  (단  $x, y$ 는 선형 공간(空間)의 요소(要素),  $a$ 는 수)인 성질(性質)을 지닐 때에, 이 사상을 이름. 이 사상에 연속성(連續性)을 가정(假定)할 경우(境遇)도 있음.

다중선형사상(multilinéaire); 수학에서 다중선형대수학(multilinear algebra)은 선형대수학을 확장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난 텐서(tensor)의 개념은 미분기하학 및 일반상대론 및 여러 응용 수학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정식화하여 "텐서 해석학" 혹은 "텐서장의 텐서 미적분학" 등으로 불리는 분야가 출현했는데, 여기에서 다중선형대수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텐서의 개념은 니콜라 부르바키의 영향을 받아 보다 추상적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다중선형대수학'이라는 단어 자체도 부르바키의 저서 「수학 원론」 2권(대수학)의 3장 제목인 "Algèbre multilinéai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당신을 알면서 사랑하고 웃으시는도다!

그 둘째 원은, 말하자면 반사된 빛으로서  
당신 안에서 생기는 것같이 보였으나  
그 원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안의 그것과 같은 빛깔을 한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내 시선은 온통 그 모습으로 쏠렸으나  
원의 둘레를 재려고 열중했던 기하학자가  
아무리 공리를 해도  
자신에게 필요한 원리를 못 찾아내듯이  
그 기묘한 모습을 본 나는 어찌하여 그 상이  
원에 합치하며, 어찌하여 그 상이 거기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이를 위해서 내 날개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돌연 내 머릿속에 번개같이 섬광이 스치더니  
내가 알고자 한 것이 빛을 발하며 다가왔다."

텐서(tensor); 수학과 물리학에서 서로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수학의 다중선형대수학 및 미분기하학 등의 분야에서 텐서는 간단히 말하면 다중선형함수이다. 텐서장이란 기하학적 공간의 각 점마다 위 의미의 텐서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물리학과 공학 등에서는 텐서장을 단순히 ‘텐서’라 부르는 경우도 많다. 텐서의 어원은 탄성변형(彈性變形; elastic strain, 물체에 탄성한도 이하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변형)의 변형력(應力, stress)의 일종인 장력(張力)의 영어명 ‘tension’이다. 밀도가 균일한 구상탄성체(球狀彈性體)에 한 방향의 장력을 작용시키면 변형하여 타원체  $\sum a_{ij}x_i x_j = c(x_i)$  등은 3차원공간 좌표,  $c$ 는 상수)가 되고 9개의 계수  $a_{ij}$ 가 하나의 텐서의 성분이 되는데, 이는 변형력 그 자체가 텐서량이기 때문이다. 텐서의 개념은 수학, 특히 물리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학 특히 기하학에서는 그 연구의 편의상 좌표(기본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연구 목적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도입한 좌표계에는 무관한 공간 또는 도형의 성질을 끝까지 추구해야만 한다. 물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관측계(觀測系)를 사용한다. 그러나 물리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관측계와는 무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벡터의 성분이 어떤 기본 벡터에 관하여 0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T_i^j=0$ 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기본 벡터에 대해서도  $T_i^j=0$ 이어야 하며, 이 법칙은 모든 기본 벡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또한, 텐서의 상등도  $A_{ijk}=B_{ijk}$ 는  $A_{ijk}-B_{ijk}=0$ 으로 쓸 수 있으므로 기본 벡터를 취하는 방식에는 무관하다. 미분기하학이나 상대성이론 등에서의 법칙은 모두 이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자기장의 기초방정식(맥스웰방정식)은 로런츠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형식으로서 텐서방정식으로 나타내지며, 아인슈타인의 중력장(重力場)의 법칙은 리치의 텐서=0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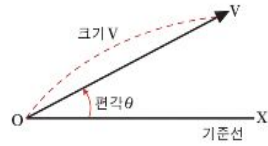
변형력(應力, stress); 변형력에는 인장변형력, 압축변형력, 층밀리기변형력, 부피변형력이 있다. 또 물체의 변형된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변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때 물체를 변형시키는 힘을 변형력이라 한다. 단위는  $N/m^2$  또는  $Pa$ (파스칼)을 쓴다.

타원체(橢圓體, ellipsoidal solid); 타원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를 말한다. 럭비공이나 육상경기의 원반 비슷한 모양을 한 것으로 각각 장구(長球)·편구(偏球)라고 한다. 여기서 XY평면·YZ평면·ZX평면 및 이에 평행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타원이다. 타원체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x^2/a^2+y^2/b^2+z^2/c^2=1$ .

벡터(vector);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으로써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어떤 장소의 위치를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이처럼 방향과 크기(멀리 떨어진 정도) 전부를 표현해야 할 때 벡터를 사용한다. 스칼라와 벡터-스칼라가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양임에 비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정보 모두를 나타내야 하는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다. 속도, 가속도, 힘, 전기장, 자기장 등 대부분의 중요한 물리량들이 그러한 예이다. 벡터(량)를 스칼라(량)와 구별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그 양(量)을 표시하는 기호  $a$ 에 화살표를 붙인  $a \rightarrow$  또는  $\vec{a}$  로 표시하고 크기 방향을 그 크기에 비례하는 선분에 화살표를 붙여 나타낸다. 벡터의 연산-숫자에 사칙연산이 적용되듯 벡터에도 더하기, 빼기, 외적, 내적과 같은 몇 가지 연산이 정의되어 있다. 벡터 덧셈은 힘의 합 등을 구할 때 쓰이며 벡터의 뺄셈은 변위를 구해서 속도, 혹은 가속도 벡터를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벡터 내적은 에너지에 관한 단위에서 힘이 한 일을 계산할 때, 벡터 외적은 자기장 속을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할 때 각각 필요하다. 벡터는 물리학 전 범위에서 빠짐없이 사용되므로 네 가지 연산을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두 벡터의 외적은 각각을 두 변으로 가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서 두 벡터와 동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시에 수직인 단위 벡터에 그 값을 곱해서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노트: 프레이징(phrasing)과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그레마스는 언어학의 용어를 음악의 용어에 초점을 맞춰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다음 신현수(辛賢秀)의 언급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프레이징(phrasing)-흔히 동기(motive)는 2마디, 작은악절(Phrase)은 동기의 두 배인 4마디, 큰악절(period, sentence)은 작은악절 두 개가 합쳐진 8마디의 길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전파와 낭만파 음악은 대개 그와 같은 규칙성을 보여 줍니다. 큰악절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중, 앞의 것은 테제(Thesis) 또는 앞작은악절(Antecedent Phrase)이라고 하며 뒤의 것은 안티테제(Antithesis) 또는 뒤작은악절(Consequent Phrase)이라고 합니다. 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은 흔히 “질와→응답” 또는 “진술(statement)←확인(confirmation)”의 대화형 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작은악절도 있습니다. 프레이징이란 바로 이들 프레이즈(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 또는 그 밖의 작은악절) 단위를 구분하여 연주하는 그루핑의 기법입니다. 흔히 프레이징을 「숨을 쉬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관악기 연주자나 성악가는 실제 프레이즈의 끝 음을 음가(音價)보다 짧게 끊고 음가의 나머지 부분을 호흡에 사용하는데, 이로부터 유래된 말이라 하겠습니다. 생리적 호흡에 구애 받지 않는 기타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의 연주자에게 있어서도 성악가의 호흡을 모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이징 기법 중 하나입니다(프레이징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194페이지의 프레이징 기법에 대한 글과 관련 악보 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에 몰입하여 연주하다 보면 (호흡에 구애 받지 않는 악기인) 기타나 피아노 등의 연주자에게 있어서도 생리적 호흡과 프레이징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약하여 정의한다면, 프레이징이란 문장에 있어서의 쉼표(.)나 마침표(.)처럼 음악 어법에 있어서의 프레이즈(작은악절)라는 구문(構文, construction of sentences)적 단위를 표시하는 표현 방법에 해당합니다. 음악에도 말이나 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문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말이나 글에 있어서의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등의 구문적 요소들처럼 음악에도 동기(또는 부분 동기)와 그 발전, 작은악절, 큰악절, 그리고 문단(文段, paragraph)에 대응하는 악단(樂段, part)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구문적 구조가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말과 글의 운율에 상응하는 리듬도 있어서 “음악 어법”이라는 표현이 과히 어색하지 않습니다.

2.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프레이즈를 보다 작은 단위의 그룹(아티큘레이션·그룹 see. p. 26)으로 나누는 것(그루핑)을 뜻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 경우, 명백한 잘못이긴 하지만,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프레이징이건 아티큘레이션이건 모두 프레이징이라는 말로 얼버무려 버리는 경향이(용어 사용의 혼란이) 마치 관습이기라도 하듯 아직도 잔존(殘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프레이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프레이징을 의미할 수도 또는 아티큘레이션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듣는 사람이 스스로 주의해서 구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사실,

전문 음악가 중에서도 이들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관련 내용 see. p. 78, 참고: 프레이징이란 용어 사용의 혼란). 그리고 아티클레이션이란 용어의 나머지 한 가지 의미는 「음을 끊는 것」입니다. 즉, 스타카토(staccato)나 스타카티시모(staccatissimo) 논·레가토(non legato) 등, 음을 끊어 연주하는 것을 두루두루 통칭(通稱)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티클레이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음들을 이음줄로 묶는 것은 선율선을 “분절(分節, 마디로 나눔)”하는 것이며, 음을 하나하나 스타카토나 논·레가토로 끊어서 연주하는 것은 “유절(有節, 음을 끊어 소리 내는) 발음”이나 “또렷한 발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어서의 이음줄 끝에 걸린 음을 끊는 행위는 음을 끊는 것 자체보다는 그루핑이 그 진정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그룹의 마지막 음을 어떤 형태로든 다음에 오는 음(또는 그룹)과 단절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곧 [말]에 있어서의 ‘분절(分節)’과 일치합니다. 이로써 음악에서의 ‘아티클레이션’이란 용어 역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대체로 그대로 물려받아 “그루핑(분절)”과 “음을 끊어 소리 내는 것(유절 발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음악에서의 이러한 발음(發音) 현상은 언어에서의 그것(발음 현상)과 유사한 데가 있는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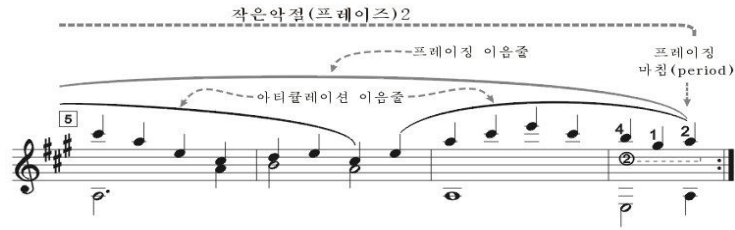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음악은 언어, 즉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詩)와는 서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음악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더라도 <말(가사, 시)→성악곡→기악곡>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은 누구든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웅이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시나 연애 감정을 담은 서정시 그리고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찬양의 시 등을 노래한 것이 성악곡의 기원이며, 악기란 오랜 세기(世紀)를 노래 반주용 도구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던 터이며, 그런 연후에야 점차 그 기능과 연주법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되어 본격적인 기악곡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기악곡조차도 말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언어와 성악곡 그리고 기악곡. 이들의 관계란... 언어(가사)와 음악적 영감을 결합하여 만드는 것이 성악곡이라면, 성악곡이라는 원료 또는 재료를 이리저리 가공하여 만든 레고 블록(LEGO block)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것이 기악곡이 아닐는지. 인간이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먼저 배우는 것은 (기악이 아니라) 말과 노래입니다. 물론 바흐, 모짜르트, 베토벤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국어의 발음 현상에 길들여진 소리에 대한 감각을 제2의 천성(天性)으로 하여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2의 천성을 가진 연주자들이 그것을 연주하고 관객은 듣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언어가 다르면 음악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히, 운율이나 구문법(構文法, sentence structure)적 구조 등을 반영하는 음악 어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양음악의 아티클레이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서양 언어의 아티클레이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아티클레이션은 언어의 아티클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쩌면 언어의 아티클레이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티클레이션’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말(언어)의 발음 현상과 관련이 있음(see. p. 70)을 단지 우연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서양의 대표적 언어 중 하나인 영어를 말할 때의 아티클레이션, 즉 분절(分節, 그루핑)이나 유절(有節, 음을 끊어 소리 내는) 발음 현상은 첫째, 악센트와 관련한 운율적인 것과 둘째, 단어 구절 등의 구문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 셋째, 감정이나 그 밖의 표현적 욕구 등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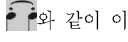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The book is on the desk.」라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 어렵지 않을 법한 이 영어 문장을 말할 때, 지난 세기의 아동극이나 등장하던 원시 깡통 로봇이 아닌 한 여섯 개의 단어를 각기 구분하여(아티큘레이션으로 끊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민(native speaker)의 말하는 품새를 들어 보면..., 「The book」은 「The-Book(ðəBúk)」으로 그리고 「on the desk」 역시 「on-the-Desk(əndəDesk 또는 좀 더 부드럽게 혀를 굴려 ənəDesk)」로, 마치 악센트가 'book'이나 'desk'라는 음절에 있는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붙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is'는 약화되어 거의 발음하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 「「The-Book-is,」 「on-the-Desk」의 두 합성(?) 단어, 즉 두 마디(articulation)만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어 간의 연결 발음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 쪽에 강세가 주어집니다. see. p. 88, 참고: 영어 단어의 품사별 강세). 이는 강세가 없는 단어들을 강세가 있는 단어에 연결, 하나로 그루핑함으로써 운율을 조성(組成, makeup)하여 발음하는 운율적 아티큘레이션의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문장을 「The book is」라는 “주어+동사” 부분과 「on the desk」라는 전치사구(prepositional phrase)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구분적 아티큘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화의 감도가 좋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Where?」라고 자꾸 되묻는다면, 「ɔn · thé · désk」라고 음절 하나하나를 끊어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표현적 아티큘레이션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3. 그루핑(grouping); 악보2는 코스트의 기타 연습곡 첫머리의 8마디로 된 큰악절 하나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큰악절은 각기 4마디로 된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phra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악절은 아티큘레이션에 의해 두 마디씩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바 있듯,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의 구분은 대개 이음줄로 표시합니다(흔히 아티큘레이션의 이음줄만 표시하고 프레이징을 나타내는 이음줄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아티큘레이션의 이음줄에 의하여 프레이징의 위치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음줄이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음렬을 나누어 개별 그룹들을 형성하는 것을 그루핑(grouping)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이를테면 악보2에는 이음줄에 의해 프레이즈·그룹과 아티큘레이션·그룹들이 그루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악보에는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곡만은 특이하게도, 시중에서 구입한 악보(see. p. 128, 참고: 코스트 기타 연습곡의 출처)에 아티큘레이션(그루핑) 이음줄이 악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단, 회색의 프레이징 이음줄은 저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이하, 이 책에서 이 곡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악보에 그려진 그루핑의 이음줄은 모두 저자에 의해 표시된 것입니다, 원전 악보나 출처가 된 악보에는 없는. 단, 기타(guitar) 악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4. 아래 악보1에서 볼 수 있는 나 와 같이 이음줄(slur) 아래에 스타카토 점이 표시된 기호를 메조·스타카토(mezzo staccato see. p. 71)라고 합니다. 음높이가 같은 음, 즉 동음(同音) 둘을 완전무결하게 레가토로 이어 연주하면 두 개의 음으로 들리지 않고 음가(音價)가 두 배인 하나의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는 동음 간을 이음줄(slur)로 연결하면 이음줄이 아닌 붙임줄(tie)이 되는 기보법의 이치와 일치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음 간을 (붙임줄이 아닌) 이음줄로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메조·스타카토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 음들을 이음줄로 연결하면서 그 내부에 연속되는 동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행어 그것이 붙임줄인 양 보일 염려가 없는 한, 굳이 스타카토 점을 찍어 메조·스타카토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또한 기보상의 관습입니다.

악보는 「바이어(Beyer, 국내에서는 흔히 ‘바이엘’로 통함) 피아노 교본」의 제19번 곡입니다. 악보 중에는 이와 같이 슬러(slur) 또는 이음줄이라고 하는 호선(弧線, a curved line)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음줄들은 이음줄로 연결한 음들을 레가토(legato)로 잘 이어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 즉, 이음줄로 연결된 “일련의 음들(= 음렬 see. p. 26, 참고: 음렬)”을 레가토로 이어서 연주하고 이음줄이 끝나는 곳의 음은 적절하게 끊습니다. 흔히 가별게 끊습니다. 관악기 연주자가 텅잉(tonguing see. p. 26, 참고: 텅잉)을 하거나 숨을 쉴 때처럼,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활의 방향을 바꾸거나 활을 선에서 떼어 낼 때처럼 그렇게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음줄이 끝나는 곳의 음을 어떻게 끊느냐 하는 점보다는 레가토로 연결된 음렬(音列)이 한 번의 호흡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들리도록,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 활로 그어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그들을 결속시키는 데 더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이음줄 끝의 음을 끊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음줄은 이음줄로 연결된 음들을 레가토로 연주함으로써 그들을 한 묶음 또는 한 그룹(group)으로 들리도록 하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see. p. 75, 참고: 악기에 따른 레가토의 차이)



악보1. 레가토 이음줄 — 바이어 피아노 교본, 연습곡 제19번



## 제1장 정념의 인식론

그리함으로써(일련의 음들을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이들 이음줄은 프레이징(phrasing)이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악기에 따라서는 악보에서 이와 같은 이음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타(guitar) 악보가 그렇습니다. 기타 악보에는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전무(全無)하다시피 합니다. 한데, 그 이유를 기타 특유의 「슬러 주법」에 대한 기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이 그 이유의 전부라고 보기에선 무리가 있습니다. 하려고만 든다면, 「슬러 주법」을 의미하는 이음줄을 점선으로 한다든지 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講究)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타는 앞서 연주한 음의 여운에 원운 운지 동작에 의한 울림을 더해 다음 음을 소리 내는 특유의 「슬러 주법」이라는 연주법이 있습니다).

이음줄(slur)은 현악기나 관악기 등의 「슬러 주법」을 표시하는 기호이기도 하며, 보다 범용(汎用)적으로는 레가토로 연주할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루핑(프레이징, 아티큘레이션)을 주목적으로 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루핑이란 일련의 음들을 묶어서 그룹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항에서 설명됩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는 기존 악보를 재해석하여 프레이징 및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나 그 밖의 악상 기호 등을 상세하게 붙여 출판하는 풍조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러한 악보를 원전판(原典版)에 대응하는 말로 해석판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당시 기타 음악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고 있던 터여서 다행히(?) 그러한 유행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라고 한 까닭은 해석판 악보가 유익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곡가가 표시해 놓은 얼마 되지 않는 아티큘레이션의 기호쯤은 무시해 버리고 교정·편집자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이음줄을 그려 놓은 것이 부지기수여서, 이후 애써 원전판 악보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전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에 대한 내밀한 식견과 미학적 감각을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려 애썼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개의 기존 악보(원전판)에는 악상 기호라고는 표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기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음악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던 일반 대중이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혜택으로 부(富)를 축적하게 되자 생활에 여유가 생겨 취미를 갖게 된 다수의 신중 부유층이 악보 출판업자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으므로 해석판 악보의 등장은 사필귀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의무교육인 양 받고 자라 음악적 교양이 풍부했던 귀족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기존 원전판 악보에 일반적으로 (다른 악상 기호는 물론이거니와)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희박했던 이유란 이처럼 기존 악보의 주 구매층이었던 당시의 귀족들이 전문가적인 음악적 식견을 상식(常識, common sense)으로 하고 있어서 스스로 해석하여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표시하는 데 인색했다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위한 이음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원전판 악보나 또는 기타(guitar)와 같은 악기의 악보라 해서(해석판 악보 역시 그 해석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정이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만)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무시하고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은 문장에 있어서의 구두점이나 끊어 읽기, 또는 절 구 단어 음절 등을 구분하거나 운율을 표현하는 등의 어법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중국어나 일본어라 해서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을 (지난 20세기의 텔레비전 아동극에 단골로 등장하곤 했던) 진화가 털린 강푼 로봇의 말

투로 「패리! 패리! ~~~ 아·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고 아예 단어 구별조차 하지 않고 읽거나, 또는 「아버지V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식으로 틀리게 끊어서 읽지는 않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문맥(context)에 의해 단어나 구문적 구조 그리고 운율 등에 대한 식별이 능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을 의미하는 이음줄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 해도 곡의 문맥에 의해 연주자 스스로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으며 또한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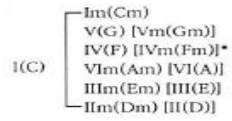
연주자 스스로 프레이징과 아티클레이션을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해석판 악보를 사용하는 상황에 비해) 딱히 불리한 여건으로 여길 까닭은 없습니다. 연주자라면 어차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는(이음줄이 그려져 있는) 악보라 해도 그것이 작곡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은 해석은 단지 참고 사항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티클레이션은 연주자에 따라 다양하게 달리할 여지가 다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티클레이션에 비해 프레이징에 대한 해석은 견해를 달리할 여지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음줄의 모양만으로는 그것이 프레이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티클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끊어 읽거나 억양(intonation)까지 일일이 표시되어 있는 연극 대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대본을, 강릉 로봇이 책 읽듯 읽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사일지라도 배우마다 대사를 말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끊어 읽기, 억양, 말투, 말씨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툰 배우의 잘못된 대사가 아닌 다음에야 관객이 그것을 못 알아듣거나 곡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아티클레이션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현수(辛賢秀), 「프레이징과 아티클레이션」, -신현수, <http://www.musicnlife.com/books/b04mint/p002author.htm>.

5. 텅잉(Tonguing); 텅잉이란, 연주 시 음의 구분을 주는 방법이다. 노래를 할 때 가사를 말하는 것처럼, 연주를 할 때도 한 음 한 음 발음을 하여, 음의 구분을 주는 것이다. 노래를 할 때 가사가 없으면 그건 허밍이 되며, 연주를 할 때 텅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슬러이다(물론 슬러도 텅잉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는 텅잉의 기본을 말하는 것이다). 텅잉은 어렵지 않다. 그냥 ‘투’라는 발음을 해주면 된다. 혀의 끝이 윗니 뒤에 위치해 있다가 투- 발음을 하면,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숨이 나간다. 텅잉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텅잉과 동시에 숨을 내뿜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투’ 발음을 하면 자연스럽게 숨이 내뿜어 진다. 긴 음의 경우엔 “투 우 - -”처럼, ‘투’ 발음을 하고 정해진 박자만큼 호흡을 계속 내쉬면 된다. ‘투’라는 텅잉의 발음은 악기에 대고 말하는 기본이다. 실제 연주를 할 때는 무조건 투투, 라고 발음을 하지는 않는다. 노래를 할 때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포박 포박 말하지 않듯이, 텅잉도 자연스럽게 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여러 방법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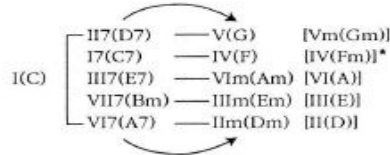
노트: 전조(modulation, 轉調, 조바꿈); 어떤 곡이 도중에서 지금까지 키(조)를 벗어나, 다른 키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조바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일시적 조바꿈: 일시적으로 다른 키로 바뀌는 경우. 곧 원래의 키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표는 바뀌지 않는다. 단조에서 획일적인 코드 진행에 색채감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조성의 통일성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이 일시적 조바꿈에는 관계조로 바뀌는 것이 많다. 이 중에서 I-IV(IVm)는 서브도미넌트 코드(subdominant minor chord)로 진행되며, 조바꿈과는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아래 \* 부분 참조).

제1장 정념의 인식론



이와 같은 조바꿈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가 많이 응용되며 각각 조 이동 부분에 배치되어 도미넌트 모션을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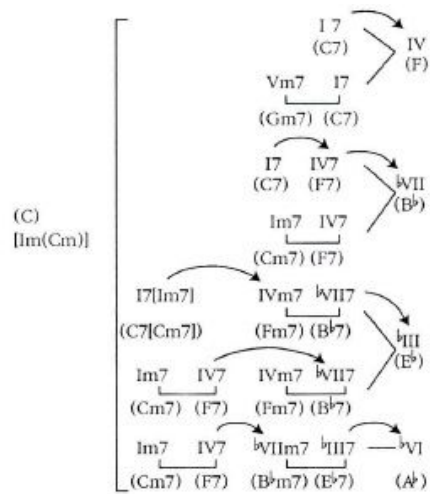


더욱이 일시적 조바꿈이 연속해서 실행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일정한 음정을 통한 루트 모션(밑음 진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 조바꿈에 도미넌트 모션이 추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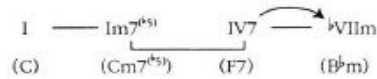


② 본격적 조바꿈 : 대중 음악에서 본격적인 조바꿈은 코러스의 연결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때로는 코러스 중간에 행해지기도 한다. 평행조 사이의 조바꿈을 제외한 조바꿈 부분에서는 조표를 변경시킬 수 있다. 본격적인 조바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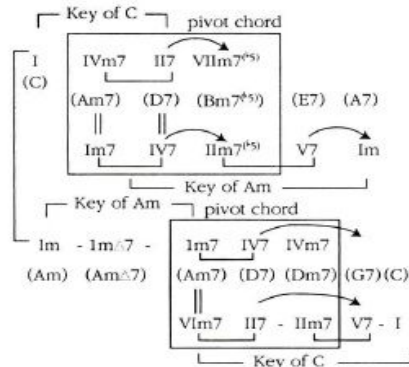
(1) 도미넌트 모션의 응용 : 일시적 조바꿈에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의 응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키의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팔립7화음)를 조바꿈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바꿈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를 자연스럽게 도입하기 위해서 두 파이프 진행이 사용된다.



단조로 조바꿈하는 대부분은 '마이너 세븐스(b5) 코드'를 포함하는 두 파이프 진행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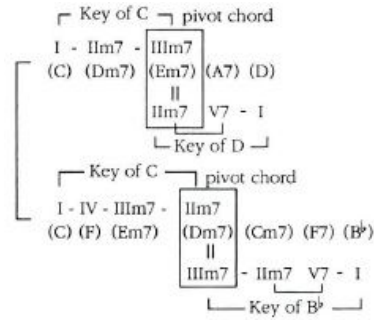


(2) 피봇 코드의 응용 : 피봇 코드는 원래 키와 조바꿈하려는 조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 코드를 말한다. 이를 응용한 조바꿈은 '엔하모닉 조바꿈'이라고 하며 나란한조 사이의 조바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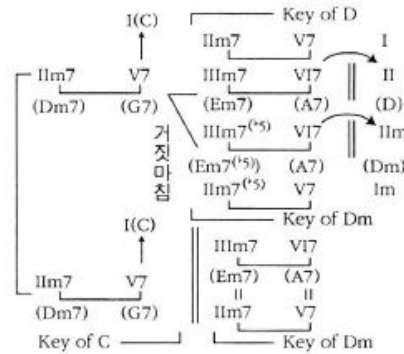


나란한조 사이의 조바꿈을 제외한 조바꿈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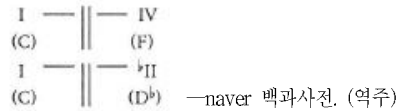
제1장 정념의 인식론



(3) 거짓 마침의 응용 : 원래 키의 거짓마침 부분에 거짓마침을 응용해서 생기는 조바꿈을 가리킨다. 마침 부분이 새로운 키에 그대로 직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멜로디 라인의 강한 종지감(終止感)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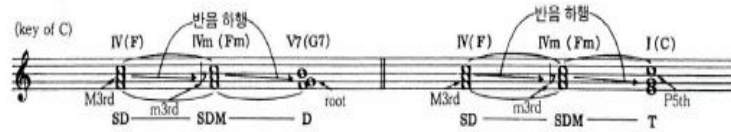
(4) 돌연한 조바꿈 : 두 개의 토닉 코드( 으뜸 화음)를 직접 연결한 조바꿈을 가리킨다. 두 가지 조 사이의 공통성을 살린 것과 단 2도 상행 등의 단순한 루트 모션(밑음 진행)을 통한 것이 많다.



노트: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subdominant minor chord);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비급딸림단화음, IVm)는 마이너 스케일(단음계)의 4도음 위에 구성되는 코드(화음)를 같은 으뜸 장조로 차용할 때 명칭이며, 줄여서 SDM으로 표기된다. 이 코드도 서브도미넌트(비급딸림화음)와 마찬가지로 도미넌트 세븐스(7th) 코드(딸림7화음)나 토닉 코드( 으뜸 화음)에 연결해서 사용되는데, 이때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의 단 3도 음은 반음 내려가서 다음 코드의 코드 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IVm)에 선행하는 코드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서브도미넌트 코드(IV)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브도미넌트 코드의 장 3도 음에서부터 반음이 연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이것을 거꾸로 진행하는 것(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서브도미넌트 코드)은 원칙이 아니다. 또,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IVm)에 장 6도음을 부가한 II<sub>m</sub>7(b5)도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로서 널리 사용한다. 또한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를 서브도미넌트 코드로서 분류하여 서브도미넌트 마이너 코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발표지면**

한맥문학 통권 249호(2011. 05. 25)

문예운동 통권 112호(2011. 12. 01)

문예운동 통권 113호(2012. 03. 01)

문예운동 통권 114호(2012. 06. 01)

문예운동 통권 115호(2012. 09. 01)

문예운동 통권 116호(2012. 12. 01)

문학저널 통권 117호(2013. 08. 01)